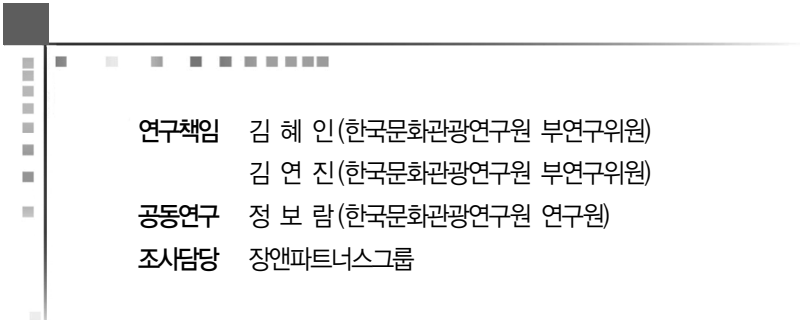


2020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김혜인·김연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연구책임 김 혜 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연 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 정 보 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원)
조사담당 장애파트너스그룹

서 문

매년 저희 연구원에서 발간되던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연구가 오랜만에 다시 여러분께 선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2018년 연구는 상징적으로 다음 시대로 넘어간다고 여겨지는 2020년의 문화예술계가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에 대한 가능성을 짚어보게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2018년 한해는 사회 전반에서 새로운 미래를 위한 다양한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비판의 움직임 또한 강했던 한 해라고 기억됩니다. 국민들의 정책참여에 대한 의지, 사회변화에 대한 수요가 그 어느 해보다 높았던 한 해이고 우리 생활의 모습 또한 많은 변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의 생활과 시간을 어떻게 더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고민은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투자로 이어지고 있고 이는 문화예술계에 있어 중요한 기회이자 고민인 지점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사회 속 다양성이 점점 드러나면서 갈등과 충돌의 모습도 강해지고 있고, 이 과정에서 우리는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가 이슈인 모습도 발견됩니다.

트렌드 연구는 늘 움직이고 변화하는 이슈들을 바라보는 만큼 모든 이슈들을 담기는 어렵겠지만, 앞으로 지속적인 연구방법과 통찰력을 통해 보완해나갈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연구가 문화예술계 전반에 대한 통찰을 위한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연구의 수행을 위해 애써주신 연구진의 노고와 귀한 의견을 보태주신 문화예술계 전문가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8년 11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원 장 김 정 만

연구개요 ●●



1. 서론

가.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사람, 국민, 다양, 자율, 자치, 창의, 포용 등 가치 중심의 새로운 사회문화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미래 변화상과 정책적 수요를 예측하는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에 대한 연구가 필요
- 최근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가 확장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미래 변화상과 정책적 수요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장기적 접근이 요구됨
- 따라서 문화예술 미래 트렌드에 대한 단기적 예측분석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발전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장기적 정책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함

2) 연구 목적

- 2020년에 나타날 문화예술 트렌드를 전망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축적된 마이크로 문화예술 트렌드의 특징을 분석하고, 국내 외 주요 연구기관들의 범 사회 트렌드 분석 보고서 등 각종 선행연구, 전문가 조사(델파이) 및 좌담회를 통해 2020 주요 문화예술트렌드 변화 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함
- 새로운 문화예술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여 정책 수요를 예상하는 한편,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이슈를 형성,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적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자 함

나. 연구 범위 및 방법

1) 연구 범위

- 시간적 범위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임
 - 미디어 스캐닝을 통한 트렌드 이슈 및 키워드 도출은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각종 주요 사회지표통계, 신문기사, 주요 연구보고서 및 문헌에 대한 조사 진행
 - 기본적인 시간적 범위는 3년으로 설정하였으나, 부상하는 트렌드 키워드 중 집중 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트렌드 이슈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의 범위는 더 넓게 설정
-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기본 범사회적 환경변화 스캐닝을 위한 STEEP 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치, 외교, 사회, 경제,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를 포함함
 - 문화예술 환경변화 스캐닝을 위해 예술장르별 분류, 문화예술정책 분야별, 문화예술계층별 분류별 환경 및 주요 이슈 변화도 포함함

2) 연구 방법

□ 환경변화 스캐닝 (범사회 + 문화예술)

- 사회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주요 이슈 및 문화예술계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머징 이슈를 추출해내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주요 사건, 이슈들을 수집
- 이전 트렌드 연구에서 수집한 변화와 비교하여 이머징 이슈가 새롭게 발현된 것인지 파악
- 범사회 환경변화 스캐닝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 크게 5가지 분류(STEEP)로 구분, 분류기준을 활용하여 범사회 및 문화예술계와 관련된 각종 미디어를 스캐닝

□ 트렌드 후보군으로서 이머징 이슈 분석

- 수집된 자료들은 ‘이머징 이슈’로 재검토하여, 이슈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조적으로 군집화(grouping)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재분류하고, 각 이머징 이슈들의 트렌드 후보군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
- 이머징 이슈의 조건 분석 및 군집화 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후보군 중 주제별 논쟁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를 우선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과의 사전인터뷰를 진행

□ 델파이 조사

- 이머징 이슈로부터 문화예술 트렌드 후보군의 검증 및 정교화를 위해, 각 주요 분야별 전문가 풀 중에서 조사결과의 신뢰성·타당성을 고려하여 최종으로 42명을 추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2차에 걸쳐 진행
- 1차 델파이 조사는 예측·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대한 개방형 질문으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한 응답들을 정리·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폐쇄형 설문을 도출하여 발현가능성을 평가하였고, 하나의 트렌드 이슈별 다른 방향성이 예상되는 경우는 방향성 검증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

□ 전문가 토론 (FGD)

-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트렌드 방향성에 대한 연구진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예술 트렌드의 입체적 관계와 사회트렌드 간의 영향관계를 확인, 후보군으로 도출된 트렌드 이슈들의 발현 방향에 대한 전망, 트렌드 이슈들 간의 관계, 단기트렌드로서의 가능성과 장기트렌드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2020 트렌드 선정의 적절성 등에

관해 토론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

- 텔파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중 동일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전문가 등을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선별하였으며 총 2차례의 토론형 논의를 진행

2. 지난 문화예술 트렌드의 지속성 분석

- 2015년에 선정한 ‘2016년 10개 문화예술트렌드’에 대하여 2018년 동안 해당 트렌드가 얼마나 발현되었는지와 향후 전개될 지속·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에 대해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
- 2018년 발현도 및 향후 지속성이 높은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
 - ‘해시태그 세대, 큐레이션 콘텐츠를 즐기다’
 - ‘모바일, 미디어 시장을 재편하다’
 - ‘신종 마니아, 사회로 나오다’
- 2018년 발현도는 낮지만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이 높은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
 - ‘윤리경영,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핵심으로 부상’
 - ‘공유문화의 지속과 확장 : 한국형 모델의 등장’
 - ‘사물인터넷, 소비자 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대’
- 2018년 발현도 및 지속성이 보통인 트렌드는 다음과 같음
 - ‘예술 소비, 세련된 생활 습관이 되다’
 - ‘전문가 놀이, 일상의 문화가 되다’
 - ‘자생을 위한 적극적 판매’
 - ‘계속되는 예술가들의 실험, 리스티클의 확산 : 개인의 권리 vs 공유적 가치’

3. 2020 10대 문화예술 트렌드

1) 시간민감성의 시대 여가를 즐기자

- 삶에서 물질적 가치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하고 있으며, 시간에 대한 인식과 민감성이 높아진 시간민감성(TS: time sensitivity) 시대의 본격 도래
-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라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가시장도 확대
- 근무시간 외에 여가시간이 증가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유통가, 영화관, 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문화예술기관들도 퇴근 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전시·공연 시간을 변경
- 델파이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비용 부담, 임금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보다 (17.5%), 늘어난 여가시간이 문화예술서비스의 신규 수요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60%)으로 평가
 -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임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여가시간이 새로운 산업이 되고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
 - 여가는 단순히 남는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재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즐겁게 잘 노는 시간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
- 여가시간 증가로 인해 기존 사업들의 문화예술서비스화, 신종 문화예술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문화예술기관들의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기획, 프로모션, 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간’의 단축이기

때문에 퇴근 후 생활 권 내에서 문화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

- 최근 여가활동의 한 유형으로 유행하고 있는 살롱과 같이, 서로의 취향을 나누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사교모임, 자발적 모임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며, 그 형태도 다양해 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과 정책에 대한 수요도 증가 예상

2) 일상 속 생활문화, 스며들다.

- 문화와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일상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생활문화, 생활예술이 정책적으로 강조
- 일상 속 생활문화를 통해, 향유를 넘어 시민이 작품을 만드는 창작작가로, 주민이 지역문화 기획자·활동가·매개자, 공간 운영자로의 변화를 도모
 - 전공 작가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작업하여 실제 창작품을 판매하는 시민 장터나 직접 기획·참여할 수 있는 창작페스티벌이 증가하고 있으며, 메이커 문화와 연관되어 시민창작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
 - 마을단위 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을 주축으로 다양한 영역·분야의 창작공간도 생겨남
- 정부에서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생활문화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
 - 생활 SOC 사업에 대한 2019년 투입 투자규모가 8조 7000억원으로 기존대비 약 50% 증가 예정
 - SOC의 3대 분야는 ▲여가·건강활동 ▲지역·일자리 활력 제고 ▲생활안전·환경이며,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투자가 계획됨에 따라 도서관과 다목적 체육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확충과 기존 문화기반 시설의 리모델링 추진

- 생활SOC에 대한 기대와 함께, 정책목표에 따라 공급형으로 진행되는 현행 방식으로는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에, 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문화 기반시설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상존
 - 생활문화·생활예술의 일상화는 자생성에 기반한 성장 모델이어야 하는데, 지원제도 중심으로 육성되어 일상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공공 지원에 의지하여 운영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도 전문가의 40.0%(평균 점수 3.70)에서 나타남
-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의 47.5%(평균 점수 3.90)가 확충된 문화시설이 추후에 자치단체의 여력과 의지,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면서 지역민의 문화향유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
 - 워라벨의 강조,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전반적 환경 변화가 생활문화·생활예술 향유 확대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자발적, 자율적 시민 주도 예술활동도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나, 정책이 그 속도를 못 따라오는 상황에서 다변화된 생활문화 정책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전망
 - 생활 SOC등의 사업이 활동 주체들의 실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책 및 제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자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해당 지역 여건별 향유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

3) 각 이코노미와 예술인이 일하는 법

- 필요에 따라 단기간 공연 계약을 맺던 것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된 각이코노미는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
 - 미국의 각 노동자는 2017년 약 580만 명에서 2018년 68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770만 명, 2020년에는 92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

-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인 ‘시간제 노동자’가 2003년 전체 노동자 중 6.6%였지만 2017년에는 13.4%로 두 배 이상 증가
- 각 이코노미의 지속적 확산에 따라, 이에 기반을 둔 신산업 및 혁신적 요소가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반면 정규직 감소와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문제도 대두
 - 이에 대해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정부차원에서의 노동개혁과 사회보험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의 경우, 민간에서도 각이코노미를 위한 보험상품이 등장
- 국내에서도, 이미 각 이코노미 형태로 일하고 있던 예술인에 대한 기본 사회안전망의 구축,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들이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
 - ‘문화비전2030’에서는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예술가의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보장제도 종합 지원을 위한 (가칭)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설립과 표준계약서 개발, 예술계 공정상생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을 추진
- 기존 예술계 노동 형태가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각 이코노미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
 - 다만, 현재의 형태가 경제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함께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 필요
 - 고용 계약의 체계화, 일자리와 관련된 플랫폼 구축 등을 마련하여 예술가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예술 활동들이 ‘좋아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술가에게는 예술 활동은 ‘노동’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 필요

4) 1인 크리에이터, 전문가로 인정받다.

- 아프리카 TV, 유튜브 등 1인 미디어가 여러 발전가능성이 확장되면서 매스미디어 이상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고속 성장 중
 - 2018년 국내 1인 미디어 시장 규모는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되며, 2020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예측
 - 구글은 2020년이면 전체 미디어 가운데 기존 방송사나 스튜디오와 같은 주류의 매스미디어는 25%에 그치고, 나머지 70% 이상을 1인 미디어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
- 현재 1인 미디어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가장 높지만 아프리카 TV, 페이스북 등 기존 플랫폼과 함께 네이버TV, 카카오TV, 트위치TV 등 새로운 플랫폼 진입이 시도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크리에이터를 폭발적으로 증가
- 1인 방송 크리에이터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파급력이 커지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발굴·관리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도 고속 성장
 - 크리에이터의 지원(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뿐만 아니라 관련 상품을 제작하고 온라인 쇼핑몰 개설하는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방송·영화·게임 등 타 미디어와 협업하거나 브랜드 공동 출시, 오프라인 강연 및 행사에 참여하는 등 사업영역도 확장되고 있음
- 1인 미디어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에 대해 대중적인 관심과 인기가 팬덤을 형성함에 따라, 이들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 마케팅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가성비와 반응률이 높아 향후 더 확대될 전망
-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1인 미디어가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전문가와 유사한 정도의 사회적 지위

를 부여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3.75점)

- 1인 미디어는 기술적 난이도가 낮아 자유로운 자기표현이 가능하여 유저들의 소통, 공감, 공유를 지속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까지 문화적 경향을 넓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측

○ 1인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가 크리에이터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자극적 소재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 등 사회 문제 야기

○ 미디어 제공 채널이 다양해지는 경우,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파편화된 정보의 공신력에 대한 검증 장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전망(텔파이조사 결과 평균 3.93점)

- 법무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차원에서 1인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정보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당사자에 대한 처벌 등 법적 규제는 물론 미디어 플랫폼 및 언론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
- 그러나 진위여부와 정보검증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높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함과 동시에 불법 유해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 마련이 더욱 강조

5) 혐오가 가져온 토론문화, 우리의 다양성을 드러내다.

○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 십 년간 성희롱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미투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

- 한국에서는 현직 여성 검사가 성추행 경험을 폭로한 것이 본격적인 ‘미투 운동’의 발단이 되며 문화예술계에서 만연하는 성추행·성희롱을 폭로

- 학내 성폭력과 성차별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Me Too · 나도 피해자다)’ 또한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확산

○ #살아남아서다행이다 와 #미투운동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 여성을 약자로 보는 사회적 불합리에 대한 고발과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졌

고,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 대한 공포, 여성만이 겪어야하는 불안감에 대한 호소 등으로 이어졌고,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의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촛불집회나 SNS를 통해 ‘#나는 페미니스트다’ 선언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 반대로 페미니즘 행동에 대한 반발이자, 남혐현상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 행동으로 남성들의 여성혐오 현상도 강화
 - 일베로 대표되는 극단주의적 여혐사이트들 또한 여혐에 대한 범행 모의, 위협 및 협박 글, 남혐 활동에 대한 극단적 반발 활동 등의 수위가 높아지며 남혐, 여혐 현상이 성대결 양상, 공격적 혐오로 확산 및 심화
- 촛불과 태극기 집회 이후, 깊어지는 세대 간 갈등도 사회문제로 대두
 - 세대간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고질적인 문제에 더해, 일부 노인들의 나이와 경험에 기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강요하는 행동과 정치적인 편향성이 강화되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노인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역으로 전체 노인들이 조롱당하는 상황 발생
-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표면화된 난민혐오, 이슬람 포비아 등, 이주민에 갈등도 심화
-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집단혐오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세분화 및 파편화되면서 더 다양한 혐오로 심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이 높게 나타났으나(4.10점), 우리 사회의 집단혐오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진통 현상이라는 인식도 함께 나타남
-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볼 기회를 현재의 극단화된 혐오표현이 만들어 주었고, 이는 향후 우리 사회에서 혐오문화가 더 확산되는 듯 보일지라도,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이 문제가 불러일으키는 문제, 나와 우리의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대로 된 ‘다양성’의 존중 사회로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함

6) 실패자가 아니에요. 문화적 응원

- 실패 경험이 성장의 발판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실패 사례를 모아 사회 자산화하고 재기 지원 컨설팅 및 정책 소개를 통해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
 - 광화문 광장에서 ‘실패박람회’, ‘재도전 한마당 행사’ 등이 개최되었으며, 정부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
- 문화예술계에서도 완성된 프로젝트의 제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책 지원들이 나타나고 있음
 -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 최초예술지원’ 중 2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형은 창작과정의 실패나 작품 발표에 구애받지 않고 창작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경기상상캠퍼스는 청년 프로그램, 청년 실험실 등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
- 이처럼 다양한 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생기고 창작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등 실패를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나, 실패를 통한 배움은 청년 세대의 전유물로 사회 전체 확산은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도 함께 나타남
-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도전과 혁신의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이 현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제이므로,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 및 정책적 지원 가속화 예상
 - 고령화시대이자 100세시대인 현 사회 상황 속에서 실패와 도전은 청년세대에게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며, 기성세대에게도 실패를 용인하고 시도하는 기회를 주는 정책지원이 강조될 전망

7) 예술가는 젠트리파이어? 예술가의 생존법 찾기

-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예술가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밀려나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하는 젠트리파이어로 인식
 - 저렴한 임대료를 매개로 예술가가 유입되어 활동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형성하는 개척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는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예술가 개인 차원에서도 장소애착을 형성하여, 밀려난 이후에도 멀리 떠나지 못하고 인접지역에서 머물며 공간적으로 분화하고 확장하는 유인이 됨
 - 예술 씬을 형성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활동하는데, 창작활동을 매개로 예술 씬이 형성된 경우, 상업화에 의해 초기의 활동공간이 소실되어도, 새로운 공간을 개발하여 그 활동을 유지하는 경향 나타남
- 젠트리파이어로서의 예술가의 역할은 지역 활성화의 구도 속에서 더욱 강조
 - 특유의 미감과 개성으로 도심 낙후지역, 유휴 공간 등의 저평가 지역에서 극적인 경관변화를 연출하면서, 주민과 상권을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사례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술과 예술가를 활용한 적극적 재생 사업을 추진
 - 창작공간이나 공연, 전시공간 등을 제공하여 예술가의 활동을 장려하고, 예술촌을 조성하여 예술가의 정주를 유도
- 젠트리피케이션의 개척자로서, 개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거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촉발하는 슈퍼젠트리피케이션을 기대하여,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예술가들을 유입시키는 경우, 활성화에 앞서 오히려 장소성 혼란의 문제 야기

-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예술가의 이탈은 지역의 문화백화로 귀결
 - 임대료 상승 등으로 활동 주체가 이탈함에 따라 생산적 측면이 감소하고,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적 측면만이 강화되면서, 획일화된 상업경관이 형성되어 매력도가 소실되는 장소 소비의 단계에 이르게 되어, 결국 상권이 붕괴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는 어려우며,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
-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하면서 예술가 스스로도 변화하여, 초기 홍대에서 창작활동을 하였던 예술가들도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면서부터는 본인의 생업으로의 예술, 문화사업을 본격화 하였고, 적극적으로 문화기업가(cultural entrepreneurs)로 변모
 - 때문에 젠트리피케이션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밀려나지 않기 위한 예술가의 자구적 변화가, 오히려 젠트리파이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모순적 상황이 반복·확대되고 있는 상황
-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예술가의 대응은 대항과 적응, 실험이 혼재되어 나타남
 - 초기에는 ‘썰어터 제로’, ‘두리반’ 등, 대응의 방법만을 취하였으나, 어찌다 가게, 레인보우 큐브, 공간 사일삼 등과 같이 점차 실험과 적응의 자구적 대응을 함께 도모
- 델파이 조사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예술 활동이 촉발한 지역의 변화에 자본이 결합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불가피한 현실이며 획기적 대책이 마련하지 않는 한, 갈수록 심화되어 일상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
- 다양한 대응방안이 간구되어 개인적·집단적으로 전개될 것이나, 예술가의 자구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상권 활성화 중

심의 목적적 접근을 지양하고,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여 예술가들과 협업해야 하며, 그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

8) 남북 교류, 문화교류에서 남북협작으로

-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남북·북중·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
- 남북관계 개선으로 그동안 중단·폐기되었던 문화교류사업이 복원 및 재개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에 대한 관심이 고조
 - 2018년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북한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큐레이터 문범강 섹션, 6관 32작품)’를 기획하여, 북경 만수 대창작사미술관 등의 소장품에서 선별한 조선화 전시, 평양 만수 대창작사에서 제작한 대형 집체화 등을 세계 최초로 공개
 - 영화계에서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평창 평화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영화를 상영
-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현재의 관심을 넘어 지속적으로 향유될 것인가에는 의문을 제기
 - 전문가 좌담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예술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일 것이라고 예상
 -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적은 편인데, 그보다 더 세부 분야인 북한과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예술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며,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문화는 체제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예술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인 트렌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교류로서 남북협작 문화콘텐츠가 부상할 가

능성이 높다고 예측

- 현재의 북한문화에 대한 경험기회 확대는 그동안 북한의 폐쇄성과 독창성, 독특성이 개방됨으로써 남북의 교류협력을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의 공동제작 콘텐츠가 중요하므로, 향후 남북 문화교류는 공동제작, 합작 콘텐츠 등 양방향의 협력으로 정서적으로도 공감대를 넓히고 사업적으로도 이해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

9) 문화분권, 지방자치분권의 길을 열다.

-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선언하며 지방분권 의지를 피력
- 지방분권은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용이하며, 행정의 민주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 자치행정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강화하여 기관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복지와 이해에 충실함으로써 애항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그러나 이미 상존하는 지역 간 격차가, 지방분권에 의해 더욱 심화될 것이며, 특히 지방정부간 지나친 경쟁이 지방정부의 지출 및 적자재정 확대를 초래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
- 지방분권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지만, 현 정부의 지방분권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16일에 발표한 ‘문화비전 2030’에서 지역 문화 분권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실행주체로 설정
 - 문화비전을 통해 지역의 문화는 주민의 참여와 자치로 만들어간다

는 기본원칙 하에,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민주주의 실천방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문화 분권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해석

-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서도 지역으로의 문화 분권을 실현하여 중앙은 지역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임을 표명
- 재정적으로도, 2018년 예산안부터,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주민 밀착형 지역사업 및 지역행사 등의 지방 이양을 추진

○ 이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분권을 시행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과 역량이 달라, 권한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도 높음

-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문화 분권이 진행 될수록 지역 간 문화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3.83점으로 나타남

○ 문화 분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며, 동시에 지역에서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시도가 이어져 갈 것이라고 전망

10) 새 예술정책 시대로의 과도기

○ 블랙리스트는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

- 정부는 2018년 5월 ‘새 예술정책 5개년 계획’,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며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구성, 문화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서면계약 의무 위반 조사권 등의 도입 계획을 발표

- 문체부 산하기관들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돕게 된 배경에는 산하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되지 않는 지위와 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예위의 명칭을 내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
- 그러나 블랙리스트 이후의 예술정책 및 예술계 현장의 변화 전망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정부와 현장의 블랙리스트가 의미하는 예술의 자율성 침해 및 예술정책구조 변화의 필요에 대한 이해와 이행에 대한 간극이 오히려 드러나면서 오랜 시간 굳어져온 정부주도의 예술지원정책의 프레임 변화 필요가 강력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
- 블랙리스트 사건이후, 예술정책을 진행하는 관료 조직화의 문제에 대한 문제 지적은 관료 조직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논의로 발전
 - 예술인소셜유니온, 청년예술가네트워크,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문화연대 등은 계속해서 문체부와 지원행정기관이 지닌 관료조직의 권한의 지나친 크기, 지원사업 설계 및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일처리 방식에서 관료조직차원의 개입이 너무 많다는 문제, 실무자의 해석 및 조율가능 범위의 부정확성 문제에 대해 지적
 - 그 해결장치로서 진상조사위는 기존의 문체부의 문화예술정책 실행기능을 전문기관, 지자체, 민간전문가집단 등에게 이관하고, 정책조율기능을 중앙정부 단위의 역할로 보다 전문화시킬 것을 권고하였으나, 중앙정부의 의견 및 인식과 많은 간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현재까지 논의만 지속
-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정책대안책 마련 요구에 비해 정책반영도가 낮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 (42.5%)이 높게 나타나, 정부주도 예술정책에 대한 실망과 낮은 기대치를 피력

- 그러나 예술인 중심의 정부주도 정책구조의 변화를 위한 움직임의 지속성이 가져올 장기적 변화에 대한 기대도 동시에 높게 나타나 (45%), 정부 차원의 자성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전망이 문화예술계 전반에 자리잡으며 기존의 예술정책 구조를 대체할 대안적 정책구조 및 체계 마련을 위한 현장중심의 행동이 계속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
- 문화정책추진의 행정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행정체계 개편에서 강조되기 시작하는 ‘국민주도 공공혁신’의 형태로 예술인이 주도하고 정부가 조력자가 되는 ‘권한위임’ 단계 형태의 ‘예술인주도 예술정책혁신’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
 - 최근 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에서 더 나아가 국민이 주도하는 정책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2020년 즈음에는 ‘예술인 주도 예술정책’의 실현을 위한 기초 틀 마련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반면 예술인주도 예술인정책의 구조는 오히려 기존의 문화행정체계보다 느슨할 수 밖에 없는 내부감시장치 속에 예술정책을 던져놓는 일일 수 있다는 의견 속에 차라리 정부주도의 예술정책 구조 안에, 지원심사 및 평가에 대한 더 강력한 정책적 규제 장치 및 원칙마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개진
 - 실제로 전문가 자문 및 델파이 주관식 답변에서, 국민참여형 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백래쉬 현상으로서의 정부주도형의 강력화 요구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나타남
- 따라서 향후 몇 년간 예술정책의 주체와 예술정책의 설계, 수행, 평가의 체계 마련에 대한 엇갈린 시선들이 계속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인 예술정책 구조 변화 전의 과도기 단계로서의 혼란기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3
1. 연구 배경	3
2. 연구 범위 및 단계	4
제2절 연구 방법 및 고려사항	6
1. 연구 방법	6
2. 트렌드 선정 관련 주요 고려사항	12
제2장 지난 문화예술 트렌드의 지속성 분석	13
제1절 개요	15
제2절 지난 트렌드의 발현도 및 지속성 분석	17
1. 2018년 발현도 및 향후 지속성이 높은 트렌드	17
2. 2018년 발현도는 낮지만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이 높은 트렌드	21
3. 2018년 발현도 및 지속성이 보통인 트렌드	25
제3장 2016~2018 범사회 환경 주요 변화	31
제1절 정치/외교 분야	33
1. 남북 관계	33
2. 국내 정치	37
3. 외교 정책	40
제2절 경제/산업/기술 분야	43
1. 경제 여건	43
2. 일자리 환경	49
3. 정보통신 및 문화기술	56
제3절 사회/문화 분야	63
1. 인구구조	63
2. 세대 특성	67
3. 집단 갈등	71

제4장 2020 10대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77

제1절 시간민감성의 시대, 여가를 즐기자	79
1. 근로시간 단축제로 여가와 서비스 산업 시대 본격 개막	79
2.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문화여가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	84
제2절 일상 속 생활문화, 스며들다	91
1.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 생활예술 강조	91
2. 생활 SOC 사업을 통한 생활문화 기반시설의 확충 도모	94
3. 자발성, 자생성에 기반한 생활문화 · 생활예술의 추구	97
제3절 각 이코노미와 예술인이 일하는 법	100
1. 각 이코노미(Gig economy)에 주목하는 국제사회	100
2. 각 이코노미 확산에 따른 예술인의 일자리형태에 대한 사회적 주목 강화 전망	102
제4절 1인 크리에이터, 전문가로 인정받다	108
1. 1인 미디어의 진화 : 비주류의 주류가 되다.	108
2. 영향력 있는 개인, 크리에이터가 뜬다	113
3. 중독되는 사람들과 보다 자극하는 1인 방송	120
제5절 혐오가 가져온 토론문화, 우리의 다양성을 드러내다	126
1. 여혐남혐, 세대갈등, 난민혐오의 표현 심화	126
2. 사회갈등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140
3. 혐오가 만드는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는 ‘포용적 일상’의 강조 전망	145
제6절 실패자가 아니에요. 문화적 응원	151
1. 실패를 자산으로 여기는 문화의 시작	151
2. 실패할 기회를 주는 정책지원 확대 전망	156
3. 실패의 자유를 모두를 위한 힘의 원천으로, 응원하는 문화의 확산	157
제7절 예술가는 젠트리파이어? 예술가의 생존법 찾기	161
1. 예술가, 젠트리파이어가 되다.	161
2. 예술가 이탈에 따른 장소소비 문제	163
3.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예술가들의 자구책	165

CONTENTS

제8절 남북교류, 문화교류에서 남북합작으로	170
1. 문화·체육분야의 남북교류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 대변화 ...	170
2. 주목받는 사회주의리얼리즘(Socialist Realism)	173
제9절 문화분권, 지방자치분권의 길을 열다.	179
1.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추구와 강조	179
2. 지방 분권에 대한 우려와 기대: 지역 발전 견인과 지역 간 격차 심화	180
3. 지방분권은 연기되었으나, 문화 분권은 진행 중	182
제10절 새 예술정책 시대로의 과도기	186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그간의 상황	186
2.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으로의 예술정책구조 변화 요구 강화 전망	190
3. 예술계가 정책하자 vs. 정부가 제대로 하자: 예술정책 주체에 대한 과도기 현상 지속 전망	196
제5장 결 론	203
제1절 결 론	205
1. 시간민감성의 시대. 여가를 즐기자.	205
2. 일상 속 생활문화, 스며들다.	206
3. 각 이코노미와 예술인이 일하는 법	208
4. 1인 크리에이터, 전문가로 인정받다.	209
5. 혐오가 가져온 토론문화, 우리의 다양성을 드러내다.	211
6. 실패자가 아니에요. 문화적 응원	213
7. 예술가는 젠트리파이어? 예술가의 생존법 찾기	214
8. 남북 교류, 문화교류에서 남북합작으로	217
9. 문화분권, 지방자치분권의 길을 열다.	218
10. 새 예술정책 시대로의 과도기	219
참고문헌	222
ABSTRACT	227
부록: 설문지	229

표 목차

〈표 1-1〉 범사회 환경변화 스캐닝 분류	6
〈표 1-2〉 문화예술 환경변화 스캐닝 분류	7
〈표 1-3〉 2020 문화예술트렌드 성격 분류	12
〈표 2-1〉 2016 문화예술트렌드 발현정도 및 지속·발전 가능성	16
〈표 2-2〉 ‘해시태그 세대, 큐레이션 콘텐츠를 즐기다’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	18
〈표 2-3〉 ‘모바일, 미디어 시장을 재편하다’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19
〈표 2-4〉 ‘신종 마니아, 사회로 나오다’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20
〈표 2-5〉 ‘유리경영,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핵심으로 부상’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	22
〈표 2-6〉 ‘공유문화의 지속과 확장 : 한국형 모델의 등장’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23
〈표 2-7〉 ‘사물인터넷, 소비자 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대’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	24
〈표 2-8〉 ‘예술 소비, 세련된 생활 습관이 되다’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26
〈표 2-9〉 ‘전문가 놀이, 일상의 문화가 되다’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27
〈표 2-10〉 ‘자생을 위한 적극적 판매, 계속되는 예술가들의 실험’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	29
〈표 2-11〉 ‘리스티클의 확산 : 개인의 권리 vs 공유적 가치’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	30
〈표 3-1〉 남북 관계 변화 관련 주요 이슈 흐름	34
〈표 3-2〉 국내 정치 변화 관련 주요 이슈 흐름	38
〈표 3-3〉 외교 정책 변화 관련 주요 이슈 흐름	41
〈표 3-4〉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수치	43
〈표 3-5〉 OECD 국가 경제성장률 수치	45
〈표 3-6〉 월별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생활물가 상승률 수치	46
〈표 3-7〉 소비자 심리지수 수치	47
〈표 3-8〉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국내)	48
〈표 3-9〉 OECD 국가의 15세 이상 인구 실업률 수치	49
〈표 3-10〉 노동환경 변화 관련 주요 이슈 흐름	52
〈표 3-11〉 기업 환경 변화 관련 주요 이슈 흐름	54
〈표 3-12〉 2018년 ICT 수출액 수치	57
〈표 3-13〉 정보통신기술 관련 주요 이슈 흐름	58
〈표 3-14〉 문화기술(CT) 관련 주요 이슈 흐름	60
〈표 3-15〉 인구구성 현황(2017년 기준)	63
〈표 3-16〉 연령별 1인 가구 수	65
〈표 3-17〉 한국과 일본의 고령사회 변화 시기	66

CONTENTS

〈표 3-18〉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66
〈표 3-19〉 세계 주요국가 합계출산율	67
〈표 3-20〉 세대 특성 변화 관련 주요 이슈 흐름	69
〈표 3-21〉 성소수자 관련 변화 주요 이슈 흐름	73
〈표 4-1〉 2차 델파이 결과 -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문화소비 관련 방향성 ..	81
〈표 4-2〉 2차 델파이 결과 -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	83
〈표 4-3〉 2차 델파이 결과 - 굿즈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85
〈표 4-4〉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한 여가활동의 시기적 변화	86
〈표 4-5〉 생활문화 정책의 변화	92
〈표 4-6〉 2차 델파이 결과 - 문화향유 격차 관련 방향성	98
〈표 4-7〉 2차 델파이 결과 - 생활문화 활동 관련 방향성	99
〈표 4-8〉 2차 델파이 결과 - 각 이코노미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105
〈표 4-9〉 2차 델파이 결과 - 각 이코노미 관련 방향성	106
〈표 4-10〉 2차 델파이 결과 - 1인 미디어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117
〈표 4-11〉 2차 델파이 결과 -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방향성	117
〈표 4-12〉 2차 델파이 결과 - 1인 미디어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125
〈표 4-13〉 미투(Me-too) 운동의 주요 이슈 흐름	128
〈표 4-14〉 난민 관련 변화 주요 이슈 흐름	139
〈표 4-15〉 델파이 결과 - 혐오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142
〈표 4-16〉 2차 델파이 결과 - 혐오 관련 방향성	142
〈표 4-17〉 델파이 결과 - 실패의 재인식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159
〈표 4-18〉 2차 델파이 결과 - 실패의 재인식 관련 방향성	159
〈표 4-19〉 2차 델파이 결과 -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169
〈표 4-20〉 2차 델파이 결과 -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방향성	169
〈표 4-21〉 2차 델파이 결과 - 남북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175
〈표 4-22〉 2차 델파이 결과 - 소셜 리얼리즘 관련 방향성	176
〈표 4-23〉 2차 델파이 결과 - 문화분권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184
〈표 4-24〉 2차 델파이 결과 - 문화분권 관련 방향성	185
〈표 4-25〉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이슈 흐름	187
〈표 4-26〉 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 및 문체부 이행 내역	193
〈표 4-27〉 델파이 결과 - 블랙리스트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194
〈표 4-28〉 2차 델파이 결과 - 블랙리스트 관련 방향성	195

그림 목차

[그림 1-1] 개별 이머징 이슈 도출 과정	7
[그림 1-2] 1차 미디어 스캐닝 예시	8
[그림 1-3] 2차 미디어 스캐닝 예시	8
[그림 1-4] 3차 미디어 스캐닝 예시	9
[그림 3-1] 국내총생산 및 경제 성장률(GDP) 그래프	44
[그림 3-2] 월별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생활물가 상승률	46
[그림 3-3]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47
[그림 3-4]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국내)	48
[그림 3-5]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 증가율	51
[그림 3-6] 정보통신기술(ICT) 연도별 9월 수출액	57
[그림 3-7] 연도별 연령 인구구조 추이	63
[그림 3-8] 가구 구성의 추세(1980~2015년)	64
[그림 3-9] 가구원수별 가계소득(2016년)	65
[그림 3-10] 1인당 학자금 대출 및 연채잔액 그래프	68
[그림 3-11] 희망하는 은퇴 연령 및 실제 은퇴 연령 그래프	69
[그림 4-1] 문화·체육시설로 향하는 택시 호출 변화량	87
[그림 4-2] 살롱모임 공간 취향관, 문래당 사례	88
[그림 4-3] 트레바리 독서모임 커뮤니티 사례	89
[그림 4-4] 지역밀착형 생활 SOC 여가·건강활동 인프라 투자 내용	96
[그림 4-5] TV, 스마트폰 필수매체 인식 조사 결과	109
[그림 4-6] MCN의 개념	111
[그림 4-7] 개인 유튜버 상위 30개 채널	114
[그림 4-8] 전 세계 디지털 동영상 광고시장 규모 전망	115
[그림 4-9] 크리에이터 박막례 유튜브 활동사례	116
[그림 4-10] 크리에이터 출연 TV프로그램	118
[그림 4-11] 세대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현황	121
[그림 4-12] Z세대의 모바일 앱 이용시간 TOP 10	121
[그림 4-13]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122
[그림 4-14] 유아동의 고위험/잠재적위험 사용자군 비율	122
[그림 4-15]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현황(%)	123
[그림 4-16] ‘알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주요 처벌 사례	124

CONTENTS

[그림 4-17] 여성소비총파업 포스터	130
[그림 4-18] '남성 혐오 행동' 영향 조사	131
[그림 4-19] 세대갈등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134
[그림 4-20] 20대, 60대 이상 취업자 수 그래프	135
[그림 4-21] 국가별 사회갈등지수, 연도별 한국 사회갈등지수	141
[그림 4-22] 사회적갈등 개선 시 성장률 개선효과	144
[그림 4-23] 사회정책의 성과 분석을 위한 공적사회지출 추이 및 비율	146
[그림 4-24]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비전: 3대 비전 9대 전략	147
[그림 4-25] 미래한국사회의 모습: 혁신적 포용국가	148
[그림 4-26] 2018 실패박람회 모습	152
[그림 4-27] '괜찮아 마을' 포스터	154
[그림 4-28] 단체 '도넛' 관련 표지 및 포스터 이미지	155
[그림 4-29] '실패해도 괜찮아!' 포스터	156
[그림 4-30] '동네형들' 활동 사진	158
[그림 4-31] 배병우 스튜디오 폐관 및 활용을 위한 토론회 안내	163
[그림 4-32]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합동공연 모습	170
[그림 4-33] 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 전시 일부	174
[그림 4-34]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뽀로로, 왕후심청	177
[그림 4-35] 남북합작 CF 애니콜 사례	178
[그림 4-36]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179
[그림 4-3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관련 사과 모습	191
[그림 4-38] 블랙리스트 징계처분 항의 1인시위 모습	193
[그림 4-39] 시민에 대한 권한 위임정도에 따른 정부주도 혁신 수준	197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 배경

가. 연구 배경

새 정부 시작과 함께 사람, 국민, 다양, 자율, 자치, 창의, 포용 등의 가치 중심의 새로운 사회문화변화가 일어나고 있어 미래 변화상과 정책적 수요를 예측하는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연구는 새롭게 시작될 필요가 있다.

최근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가 확장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미래 변화상과 정책적 수요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문화예술 미래 트렌드에 대한 단기적 예측분석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미래의 발전상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장기적 정책접근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할 필요가 계속된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진행했던 문화예술트렌드 연속 연구를 재개하는 연구이자, 3년 주기로 문화예술, 관광, 콘텐츠 분야 트렌드 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형태가 변경된 만큼 2020년 트렌드를 전망하고, 키워드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2020년에 나타날 문화예술 트렌드를 전망하기 위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축적된 마이크로 문화예술 트렌드의 특징을 분석하고, 국내 외 주요 연구기관들의 범 사회트렌드 분석 보고서 등 각종 선행연구, 전문가 조사(델파이) 및 좌담회를 통해 2020 주요 문화예술트

트렌드 변화 키워드를 도출하고자 한다.

새로운 문화예술 트렌드를 미리 파악하여 정책수요를 예상하는 한편,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이슈를 형성,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적 의제 설정을 주도하고자 한다.

2. 연구 범위 및 단계

가. 연구 범위

본 연구는 2018년 2월 1일부터 2018년 11월 30일까지 진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수집된 사회 전반 및 문화예술 전반 자료의 시간적 범위는 2016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30일까지이다. 미디어 스캐닝을 통한 트렌드 이슈 및 키워드 도출은 2016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 발표된 각종 주요 사회지표통계, 신문기사, 주요 연구보고서 및 문헌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기본적인 시간적 범위는 3년으로 설정하였으나, 부상하는 트렌드 키워드 중 집중조사가 필요한 경우, 그 트렌드 이슈의 시작부터 현재까지의 변화 정도를 살펴보기 위한 조사의 범위는 그보다 넓게 설정되기도 한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1차적으로 2020년에 부상할 트렌드 이슈 및 키워드를 최종 추출한 트렌드의 7~8배수로 추출하였다.

내용적으로는 본 트렌드는 기본 범사회 환경변화 스캐닝을 위한 STEEP 분류를 사용하기 때문에 정치, 외교, 사회, 경제, 과학기술,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본 내용적 범위를 포함한다. 또한 문화예술 환경변화 스캐닝을 위해 예술장르별 분류, 문화예술정책분야별, 문화예술계층별 분류별 환경 및 주요 이슈 변화에 대한 내용적 범위 또한 포함한다.

나. 연구 단계

방법론으로 사용된 범위는 내용적 범위는 미디어 스캐닝을 통한 트렌드 이슈 및 키워드 도출, 트렌드 가설 도출, 트렌드 이슈를 확정하기 위한 델파이 조사, 그리고 전문가 좌담 토론회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트렌드 가설을 도출하기 위해서 전체 연구진이 참가하는 워크숍에서 델파이 조사용 트렌드 이슈를 재검토하고, 이를 기반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도출된 가설 중 트렌드 이슈를 확정하기 위해 문화예술과 범사회 전문가 42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델파이 기법(Delphi Method)은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본 조사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묶은 이슈별로 의견을 쓰는 개방형 질문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정·보완한 트렌드 후보군에 대한 중요도와 방향성에 대해 2차 델파이에서는 폐쇄형 질문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집하였다. 이를 통해 각 트렌드 가설의 발현 가능성과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가토론(FGD)을 진행하여 2차례에 걸친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예술트렌드의 입체적 관계와 사회메가트렌드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다. 또한 후보군으로 도출된 트렌드 이슈들의 발현 방향에 대한 전망, 트렌드 이슈들 간의 관계, 단기 트렌드로서의 가능성과 장기 트렌드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2020 트렌드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 토론했다. 그리고 후보군으로 도출된 트렌드들의 방향 설정에 대해 연구진 내의 최종 토론회를 거쳐 2020년 10대 문화예술트렌드 선정 및 전망 방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다.

제2절

연구 방법 및 고려사항

1. 연구 방법

가. 연구과정 1단계: 환경변화 스캐닝 (범사회 + 문화예술)

사회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주요 이슈 및 문화예술계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이머징 이슈를 추출하기 위해 2016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의 주요 사건, 이슈들을 수집하고 이전 트렌드 연구에서 수집한 변화와 비교하여 이머징 이슈가 새롭게 발현된 것인지 파악하였다.

범사회 환경변화 스캐닝을 위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환경 등 크게 5가지 분류(STEEP)로 나누었으며, 세부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1-1〉 범사회 환경변화 스캐닝 분류

STEEP	세부 카테고리				
정치	국내정치		국제정치		법률 및 외교
경제	경제성장/비전	산업구조	경제활동인구	소비여건	기업경영
사회	인구구조	가치관 변화	사회여건		교육
기술	IT	BT	ET	ST	로봇/융합
환경	기후변화	자원		에너지	환경오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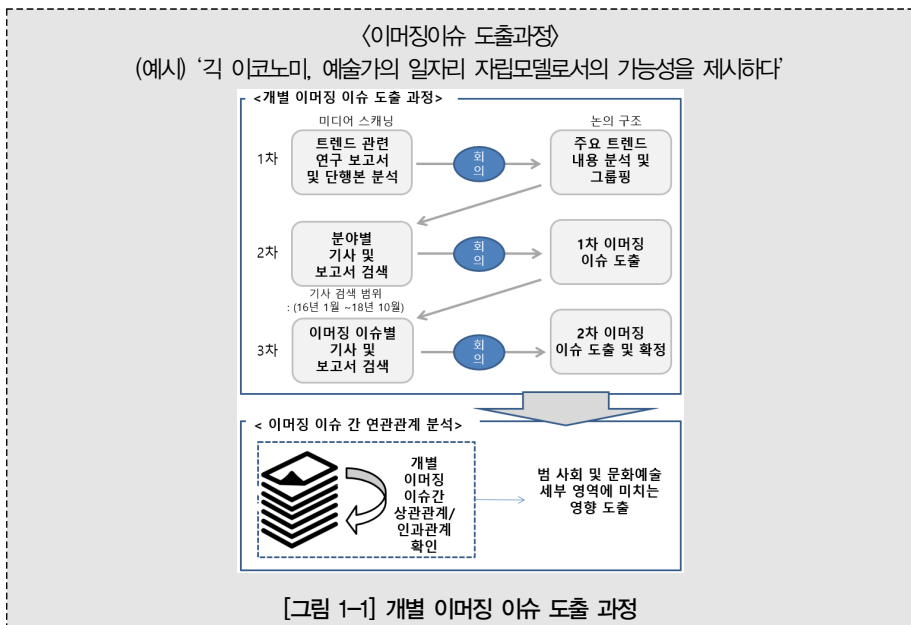
문화예술 환경변화 스캐닝을 위한 분류 기준은 아래와 같이 구성하였다.

〈표 1-2〉 문화예술 환경변화 스캐닝 분류

분야(장르)	분야(영역)		분야(계층)
공연예술	지역문화	문화예술 소비문화	청소년문화
시각예술	도시문화	전통문화	청년문화
전통예술	생활문화	문화교류	노년문화
대중예술	여가문화	언어문화	가족문화
공공예술	공유문화	문화다양성	다문화
문화콘텐츠(산업)	문화예술교육	문화산업	소수자문화
문학/언어			장애인
			성별문화

※ 장르, 영역 (직·간접영향 계층 등, 통시적/공시적 맥락에 따라, 트렌드가 형성되는 문화예술 분야 세분화)

분류기준을 활용하여 범사회 및 문화예술계와 관련된 각종 미디어를 스캐닝하였고, 주요 국내 일간지 및 주간지를 포함한 TV 미디어 및 인터넷 미디어 50여 곳, 문화예술 분야 전문잡지 및 주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웹진 및 홈페이지 50여 곳 분석, 국외 주요 미디어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저널 40여개 정도를 기본 스캐닝 대상으로 포함하고 분류기준 및 주요 키워드별로 연결·추적하여 추가 조사하였다.



① 1차 미디어 스캐닝 및 논의(분석)

트렌드 보고서 및 관련 연구 보고서, 단행본 등을 활용하여 범사회 및 문화예술 영역의 주요 트렌드를 도출¹⁾하였다. 도출된 트렌드를 의미에 따라 그룹핑-세분화→재 그룹핑의 과정을 거쳐 의미 있는 군집을 만들어냈다. 1차 미디어 스캐닝 내용 분석 결과, 경제 영역 중 ‘각 이코노미’를 이머징 이슈로 도출하였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7 과학기술계 주요 이슈' (2017년의 이슈 정리)	현대경제연구원 '2018 국내 10대 트렌드'	현대경제연구원 '2018 글로벌 10대 트렌드'	LG 경제연구원 '2018 주요 디지털 기술 산업 이슈'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ITP) ICT 10대 이슈(출처: ZDNet Korea)	포스코경영연구원 '2018 경제, 환경제시장 전망' 중 환경경제 전망
4차 산업혁명의 실현을 위한 정책적 노력 가속화	다시 그리는 한반도 경제 지도 · 남북교차 및 경제 개계로 인해 한반도 신경제지대 구상이 현실화 될 가능성 높음	글로벌 스트림원(미국, 영국, 러시아 등 각국의 스트림원 사이의 파격적 결합 실행)	인공지능(딥러닝을 기반으로 인공지능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 증가할 것)	인공지능 : 작년 7위에서 올해 1위로 상승 · 올해 AI에서 보는 시료 진화 · 인공지능과 초중형산업이 결합하여 다양한 사회 분야로 확대될 것 · 로보 카 플랫폼 서비스 보급이 확대되어 시작하면서 AI 서비스 가 더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	2017년 연평균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3.0% 성장할 전망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전	4차 구동(소속주도 일차적생산, 혁신성장, 동반성장) 경제 성장으로 나아가야함 · 정부의 소속주도성장에 대한 기대감	New 세계 경제 다름의 등장(세계 경제대통령이라 불리는 제1 연방준비제도(Fed) 세 의장 선출, 미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 높음)	로봇 자율주행 시대 개막으로 도로, 공장에서 자율주행 기체, 운송수단, 선박, 여객기, 구급차의 도입과도 관련 시도될 것	자율주행차 · 업무용 차량부터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작될 것이라고 예상 ·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완화와 제도 마련 속직업이 본격적화될 것 · 2020년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세계 각국이 2018년부터 제도 마련에 착수할 전망	2018년 소비세율조정정책에 따른 소비심리의 증진과 개선과 IT 중심 수출 주도 수출로 2.9% 성장 전망
데이터, 에너지 전환으로의 경제 변화	제갈경기와 지표경기 순도차 계수 · 수출경기가 이끄는 경제 성장세 지속으로 지표경기의 회복력이 유지되는 반면 국민경기 이끄는 제갈경기는 회복세가	X's Reform(시진핑 정부 2기 시작, 중국 경제 리스크 완화와 위험 분산, 국내 이전을 방지해야함)	로봇 드론에 대한 인식 변화(단순 기계에서 삶의 동반자)	사물인터넷	탄미일과 북극해 탐사루트가 속속 북극루트가 지속될 전망으로 온냉선사 탐사 시 경기에 큰 충격

[그림 1-2] 1차 미디어 스캐닝 예시

② 2차 미디어 스캐닝 및 논의(분석) '빅 이코노미' 내 세부 검색어 도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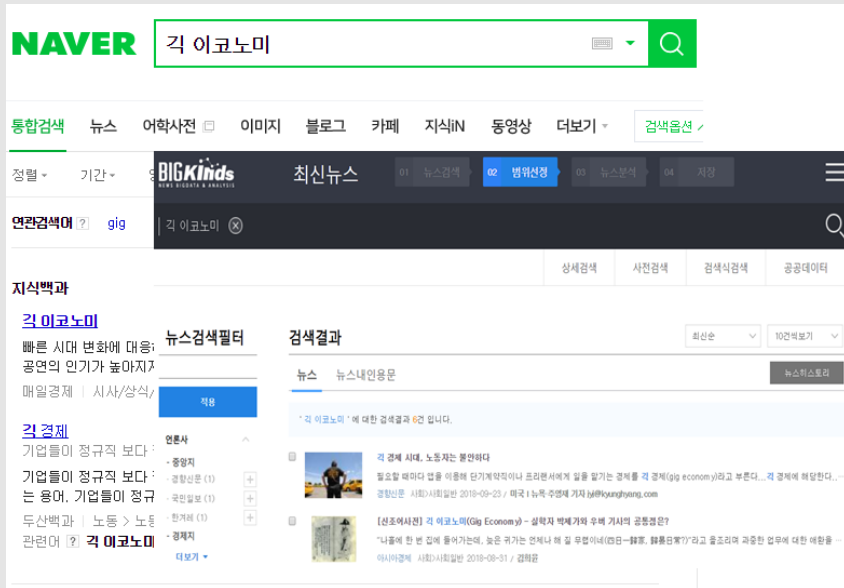
각 이코노미와 관련된 기사 및 보고서를 검색하고 주요 내용을 분석하여 그룹핑 → 세분화 → 재 그룹핑의 과정을 거친 결과 미디어에 관련된 키워드를 도출하였다. (#각이코노미, #독립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프로젝트성업무, #업무의유연성)

STEP	카테고리 1	카테고리 2	Issue	Fact	출처
경제	산업구조	각 이코노미	<p>GIg Economy 시대의 Flexibility 실험</p> <p>· 일부는 유연한 고용형태로</p> <p>· 정부는 안정성에 집중</p>	<p>-gig economy (유연한 경제활동): 임시직 선택 경제, 일차리에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을 주로 채용하는 형상</p> <p>- 미국: Gig 노동자 2017년 약 580만명에서 2018년 680만명, 2019년 770만명, 2020년 902만명으로 늘어남 전망</p> <p>- 국내 역시 코로나로 인한 대규모 추수한 인터넷 환경, 4차산업혁명 육성 전략 등으로 Gig 경제가 빠른 속도로 확산이 높음</p> <p>- 정부는 공공부문 대규모 노동자 2020년 7월 5월연말을 2020년 7월 순차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 고용 안정성 일차지 창출을 위해 고용주와 35시간을 충족하고 사회서비스 분야의 일자리도 확대(고용의 유연성 확대보다는 고용 안정성을 강조)</p>	<p>한국고용시장연구 2019년 10월 10일 E-</p>
경제	산업구조	각 이코노미	<p>미래에셋 세대 + AI = 미래형인공부활</p> <p>· 직장의 유연성과 변화를 추구</p>	<p>미래에셋 세대가 시대를 반영해: 직 경제의 미래형 업무 방식</p> <p>· 새가 경쟁사들의 리워에 초점을 맞추는 트렌드는 사라지고 있으며, 직장에서 유연하고 탄력성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p> <p>· 새로운 생활과, 테크노, 일, 파트너를 사용해 가솔을 통합하는 유연한 업무 모델 창출</p>	<p>2017.12.15 http://www.worldkiosknews/107552</p>
경제	산업구조	각 이코노미	<p>각 이코노미의 관치이코노미 이해 교육의 질 저하 문제제기</p>	<p>- 자활/취업, 리트모이나 숙박(에어비앤비) 외에도 집안일, 사후설 청소, 전문 연인어, 분포사 등 다양한 직종으로 각 이코노미와 각 노동자 범위 확산, 미국 노동자의 약 35%는 직간접적인 각 노동자로 분류</p> <p>- 각 이코노미는 관치이코노미 유연한 역으로 생산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들의 월급 직접 임금분류는 낮은 편이 있음, 각 이코노미와 관련 정규직은 사회 프랜차이즈와 독립 계약자를 다양한 고용형태가 늘어나는 것은 다른 도를 활용하고 다양성을 얻고 있지만</p>	<p>정리 9월 2018.05.22 http://www.micrnews.com/news/2018/05/20180522-324205</p>

[그림 1-3] 2차 미디어 스캐닝 예시

③ 3차 미디어 스캐닝 및 논의(분석)

‘긱 이코노미’에 관련된 키워드(#긱이코노미, #독립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프로젝트성업무, #업무의 유연성)를 검색하였다. 주요 검색 매체는 검색포털 사이트(예, 네이버) 및 www.kinds.or.kr(한국언론진흥재단 운영 신문검색 사이트)를 활용하였다. 키워드 검색을 통해 도출된 기사를 추가하고 주요 트렌드 분석자료 및 사회통계자료를 재분석하여 이머징 이슈를 도출하였다.



[그림 1-4] 3차 미디어 스캐닝 예시

④ 이머징 이슈 도출

1, 2, 3차 미디어 스캐닝과 논의(분석) 과정을 거쳐 ‘긱 이코노미, 예술가의 일자리 자립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다라는 세부 이슈와 방향성을 도출하였다.

- 1) 주요 활용 연구 보고서 및 단행본 : 김난도 외 7인 ‘트렌드 코리아 2018’, 최인수 외 4인 ‘2018 대한민국 트렌드’,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2018 20대 5가지 키워드’, 한국디자인진흥원 ‘디자인 트렌드 2018’, 조원경 ‘한 권으로 읽는 디지털 혁명 4.0’, 조영태 ‘장해진 미래, 한경BUSINESS ‘2017 빅데이터로 내다본 2018 신 트렌드’ 현대경제연구원 ‘2018 국내 10대 트렌드’, 박영숙 외 3인 ‘유엔미래보고서 2040’ 등

나. 트렌드 후보군으로서 이머징 이슈(emerging issue) 분석

미디어 스캐닝 후 이머징 이슈 분석은 접근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수동적 스캐닝: 신문, 매거진 등을 통한 대중적 이슈 확인
- 적극적 스캐닝: 저널, 분석지 등의 전문 자료 통한 전문분야 이슈 확인
- 초점화 스캐닝: 특정 주제에 초점을 두고 집중적인 자료 탐색
(이머징 키워드, 내용 포함한 2차 자료 검색)
- 이머징 키워드 리스트 작성 (단계별 접근)
- 키워드를 최소 단위로 분류 → raw data
- 최소 단위를 1차 그룹핑 (중간 개념 확인)
- 중간개념 2차 그룹핑
- 그룹 간의 인과관계 확인 (독립변인, 종속변인)

수집된 자료들은 ‘이머징 이슈’로 재검토하여, 이슈들 간의 상관관계를 구조적으로 군집화(grouping)하는 작업을 진행하며 재분류하고 각 이머징 이슈들의 트렌드 후보군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한다. 다양한 현상들을 트렌드 후보군으로서 도출함에 있어 논리적 정연성을 갖기 위해 인과적 조건(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일), 맥락적 조건(어떤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나 문제가 발생하도록 하는 특수한 구조적 조건), 중재적 조건(중심현상을 매개하거나 변화시키는 조건), 작용/상호작용 조건(어떠한 현상, 문제, 상황을 일상적으로 혹은 전략적으로 다루고 조절하고 반응하는 것)을 분석하는 반복 과정을 거친다.

또한 이머징 이슈의 조건 분석 및 군집화 과정의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후보군 중 주제별 논쟁성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이슈를 우선 중심으로 전문가 집단과의 사전인터뷰를 진행한다.

다. 델파이 조사

이머징 이슈로부터 문화예술 트렌드 후보군의 검증 및 정교화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각 주요 분야별 전문가 풀 중에서 조사결과의 신뢰성·타당성을 고려하여 최종으로 42명을 추출하여 델파이 조사를 본 연구 목적에 맞게 변형하여 2차에 걸쳐 진행한다.

1차 델파이 조사는 예측·해결하고자 하는 연구문제에 대한 개방형 질문으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한다.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개방형 설문을 통해 수집한 응답들을 정리·분석한 내용을 기반으로 폐쇄형 설문을 도출하여 발현가능성을 평가하였고, 하나의 트렌드 이슈별 다른 방향성이 예상되는 경우는 방향성 검증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2차 델파이 조사 모두 구조화된 설문지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연구진이 사전 조사를 통해 도출된 후보군 이외에도 각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다른 양상이나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의견을 기술할 수 있는 개방형 응답을 추가적으로 활용한다.

라. 전문가 좌담회(FGD)

2회에 걸친 델파이 조사에서 도출된 트렌드의 방향성에 대한 연구진 내부 논의를 통해 분석된 내용을 근거로 문화예술 트렌드의 입체적 관계와 사회트렌드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전문가 논의를 진행하였다. 전문가 좌담회는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 중 동일 이슈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한 전문가 등을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선별하였으며 총 2차례의 토론형 논의를 진행하였다.

2. 트렌드 선정 관련 주요 고려사항

문화예술트렌드로 최종 선정 시, 범사회적 변화, 문화예술 내부적 변화, 문화정책과 연관성이 높은 분야에 대한 균형성을 고려한 트렌드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중복되거나 연관성이 깊은 트렌드는 최대한 통합하였고, 완전히 성숙하여 일반적인 모습으로 자리잡은 트렌드, 장기적 관점의 트렌드로서의 의미는 있으나 2020년이라는 멀지 않은 미래에 발현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는 트렌드, 선행연구들에서 이미 트렌드로서의 가능성을 전망하였던 트렌드 들은 최대한 배제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시된 10대 트렌드를 위해 트렌드의 성격 분류를 크게 3가지로 하는 것으로 계획했으며, 최종 10대 트렌드를 해당 분류에 따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표 1-3〉 2020 문화예술트렌드 성격 분류

No.	분야	특징	10대 트렌드
1	문화 트렌드	사회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트렌드	1. 시간민감성의 시대, 여가를 즐기자.
			6. 실패자가 아니에요, 문화적 응원
			4. 1인 크리에이터, 전문가로 인정받다.
			5. 혐오가 가져온 토론문화, 우리의 다양성을 드러내다.
2	예술 트렌드	순수예술, 대중예술 등 문화예술 영역에 집중되어 나타날 트렌드	3. 각 이코노미와 예술인이 일하는 법
			7. 예술가는 젠트리파이어? 예술가의 생존법 찾기
			8. 남북 교류, 문화교류에서 남북합작으로
3	정책 주도 트렌드	국가정책, 문화예술정책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여 나타날 트렌드	2. 일상 속 생활문화, 스며들다.
			10. 새 예술정책 시대로의 과도기
			9. 문화분권, 지방자치분권의 길을 열다

제2장 ●●

지난 문화예술 트렌드의 지속성 분석



재질

개요

전문가 평가단은 2015년에 선정한 ‘2016년 10개 문화예술트렌드’에 대하여 2018년 동안 해당 트렌드가 얼마나 발현되었는지와 향후 전개될 지속·발전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에 대해 평가하였다.

발현정도와 지속·발전가능성의 수치를 보면 첫째, ‘모바일 미디어 시장을 재편하다’가 발현정도 평균 4.50점, 지속·발전가능성 평균 4.63점으로 두 항목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로 평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미디어와 대중문화소비의 중심 시장이 방송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을 활용하여 웹예능·드라마,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뉴미디어 광고시장 등 다양한 콘텐츠들이 등장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윤리경영,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핵심으로 부상’은 발현정도 평균 2.98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지만, 지속·발전 가능성은 평균 3.53점으로 다른 트렌드와 비교했을 때 발현정도와 차이의 차이가 가장 크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윤리경영과 그 연장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문화예술과의 상호적인 관계 형성은 2018년에 발현되었던 정도에 비해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일 것으로 분석된다.

결과 분석을 위해 2016년 10대 트렌드의 2018년 발현도,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에 대한 전문가응답 결과를 발현도와 지속성의 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3가지 그룹으로 재분류하였다.

①2018년 발현도 및 향후 지속성이 높은 트렌드로는 ‘해시태그 세대, 큐레이션 콘텐츠를 즐기다’, ‘모바일, 미디어 시장을 재편하다’, ‘신종 마니아, 사회로 나오다’가 해당된다. ②2018년 발현도는 낮지만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이 높은 트렌드로는 ‘윤리경영,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핵심

으로 부상', '공유문화의 지속과 확장 : 한국형 모델의 등장', '사물인터넷, 소비자 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대'가 해당된다. ③2018년 발현도 및 지속성이 보통인 트렌드로는 '예술 소비, 세련된 생활 습관이 되다, 전문가 놀이, 일상의 문화가 되다', '자생을 위한 적극적 판매', '계속되는 예술가들의 실험, 리스티클의 확산 : 개인의 권리 vs 공유적 가치'가 해당된다.

〈표 2-1〉 2016 문화예술트렌드 발현정도 및 지속·발전 가능성

2016 문화예술트렌드	발현정도	지속·발전 가능성
1. 해시태그 세대, 큐레이션 콘텐츠를 즐기다	4.03	3.95
2. 신종 마니아, 사회로 나오다	3.85	3.78
3. 예술 소비, 세련된 생활 습관이 되다	3.40	3.68
4. 전문가 놀이, 일상의 문화가 되다	3.65	3.90
5. 사물인터넷, 소비자 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대	3.33	3.85
6. 모바일, 미디어 시장을 재편하다	4.50	4.63
7. 자생을 위한 적극적 판매, 계속되는 예술가들의 실험	3.23	3.45
8. 리스티클의 확산 : 개인의 권리 vs 공유적 가치	3.23	3.45
9. 공유문화의 지속과 확장 : 한국형 모델의 등장	3.20	3.73
10. 윤리경영,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핵심으로 부상	2.98	3.53

2절에서는 2016년 10대 트렌드의 2018년 발현도,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 강도에 따라 구분한 유형별로 트렌드에 대한 설명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난 트렌드의 발현도와 지속성 검토를 통해 2020 문화예술트렌드 선정에 있어서 연속되고 있는 트렌드의 흐름을 읽고자 한다.

제2절

지난 트렌드의 발현도 및 지속성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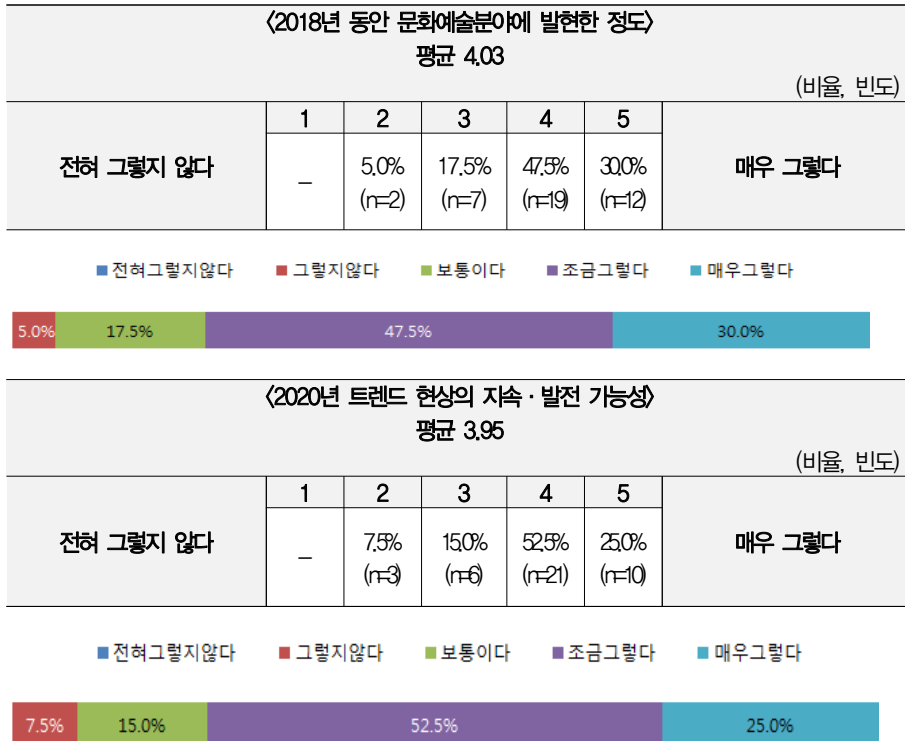
1. 2018년 발현도 및 향후 지속성이 높은 트렌드

가. 해시태그 세대, 큐레이션 콘텐츠를 즐기다

전 세계 약 25억명, 소비의 3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초부터 2000년대 초 출생자)가 소비의 중심에 서게 되면서 그들의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적 특수성이 반영된 디지털 문화 소비 현상의 변화가 본격화되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빠른 발달에 계속 해서 노출되어 온 밀레니얼 세대는 SNS에서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콘텐츠에 따라 움직이는 온라인 라이프 형태를 보였으며, 이러한 형태는 특정 단어에 해시(#)를 붙인 관심사 기반의 SNS 검색기능 해시태그의 사용이 급증하는 데에서 단적으로 드러났다. 해시태그 검색기능은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등 에서 활발하게 사용되어 짧은 검색어들을 통해 사용자가 원하는 지식과 콘텐츠를 수집할 수 있으며, 영화, 음악, 도서 등 문화취향을 추천해주는 서비스로도 확장되고 있다.

전문가 평가단은 해시태그를 활용하여 편집된 정보 즉, 큐레이션 콘텐츠를 즐기는 현상이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서 발현되었다는 것에 77.5%가 동의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2020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평가된다. (2020년 지속·발전 가능성 : 평균 3.95점)

〈표 2-2〉 ‘해시태그 세대, 큐레이션 콘텐츠를 즐기다’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나. 모바일, 미디어 시장을 재편하다

2017년 7월 기준, 국내 스마트폰 보급률은 84.2%로 전 세계 13위를 기록하고, 통계청에 따르면 스마트폰 평균 이용 시간은 지난 5년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미디어와 대중문화소비의 중심 시장이 방송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변화하는 현상은 보다 심화되었다. 특히 모바일 SNS가 영상 공유 플랫폼으로 진화하면서 웹예능·드라마,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뉴미디어 광고시장 등이 흥행하고 있으며, 연예인 또한 방송 뿐만 아니라 개인 유튜브 계정을 통해서 추가로 활동을 진행하며 팬들과 비교적 직접적인 소통을 하기도 한다.

전문가 평가단의 95.0%가 미디어와 대중문화소비의 중심 시장이 방

송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변화하였다는데 동의하였으며, 97.5%가 앞으로도 모바일이 미디어 소비패턴에 미치는 영향력은 커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2020년 지속·발전 가능성 : 평균 4.63점)

〈표 2-3〉 ‘모바일, 미디어 시장을 재편하다’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비율, 빈도)
평균 4.50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	—	5.0% (n=2)	40.0% (n=16)	55.0% (n=22)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조금 그렇다 ■ 매우 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발전 가능성〉						(비율, 빈도)
평균 4.63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	—	2.5% (n=1)	32.5% (n=13)	65.0% (n=26)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조금 그렇다 ■ 매우 그렇다



다. 신종 마니아, 사회로 나오다

팬, 마니아의 단계를 넘어 특정 관심 분야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인 ‘오타쿠(otaku, おたく)’는 우리나라에서 덕후라고 불리며 대부분 피규어 마니아에 한정되어 성인이 되어서도 여전히 유아적인 취미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되며 부정적인 시선의 대상이었다. 이러한 시선으로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던 덕후들의 다양한 관심 분야가 방송 아이템으로 결합되어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덕후라고 지칭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존중받지 못할 취향을 가진 것이 아닌, 관심 분야에 몰두함으로써 축적된 지식과 색다른 능력으로 '전문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특히, 덕후들의 등장과 맞물려 비주류적으로 보이는 취향을 스스로 가지려고 하는 현상이 모순적으로 발생하며 비주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감소하면서도 주류와 비주류 사이의 경계를 구분하기 모호해지는 상황도 나타났다.

전문가 평가단은 덕후, 그리고 비주류를 비정상이 아닌 희소성이 있는 것으로 여기는 사회의 흐름에 따라 다양한 영역에서의 신종 마니아들이 나타났다는 데에 72.5%가 동의했으며, 2020년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지속되고 발전될 것으로 보았다. (2020년 지속·발전 가능성 : 평균 3.78점)

〈표 2-4〉 '신종 마니아, 사회로 나온다'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비율, 빈도)
평균 3.85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	2.5%	25.5%	57.5%	15.5%	
	—	(n=1)	(n=10)	(n=23)	(n=6)	

■ 전혀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조금그렇다 ■ 매우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발전 가능성〉						(비율, 빈도)
평균 3.78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	10.0%	17.5%	57.5%	15.0%	
	—	(n=4)	(n=7)	(n=23)	(n=6)	

■ 전혀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조금그렇다 ■ 매우그렇다



2. 2018년 발현도는 낮지만 향후 지속발전 가능성이 높은 트렌드

가. 윤리경영,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핵심으로 부상

기업에서의 임직원 간 폭언·성폭력 및 ‘갑질’ 사건, 고객정보 유출, 협력업체에 우월적 지위 남용 등의 사건이 사회에 만연하며 기업의 윤리경영에 대한 중요성이 가시화되었고, 비윤리 경영이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신뢰를 추락시킬 수 있다는 의식 하에 국내 기업문화가 멀리 내다보고 그림을 크게 그리는 롱터미즘(long-termism)으로 변화하고 있다. 또한, 기업에서는 윤리인권위원회, 윤리경영워크숍, 윤리경영비전선포식을 시행하며 윤리경영을 핵심 가치로 내세우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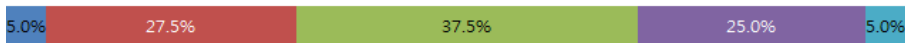
윤리경영을 강조하는 롱터미즘 기업 문화는 기업 경영 전반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연장선상으로 문화예술이 공공적 가치로 주목받았다. 기업은 ‘예술인 파견지원사업’을 통해 기업과 예술인의 관계가 가져올 수 있는 긍정적 시너지 효과와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예술의 직접적 역할에 집중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예술단체가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메세나 활동’ 또한 진행하며 문화경영의 토대를 마련해가고 있다.

전문가 평가단은 2018년 발현정도를 10개의 트렌드 점수 가운데 가장 낮은 평균 2.98점으로 평가함으로써 기업이 예술적 역량을 통해 전반적인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미비하다고 분석하였으나, 2020년 지속·발전가능성은 평균 3.53점으로 평가하며 윤리경영의 확대가 현재에도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하여 비교적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표 2-5〉 ‘윤리경영,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핵심으로 부상’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평균 2.98						
(비율,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5.0% (n=2)	27.5% (n=11)	37.5% (n=15)	25.0% (n=10)	5.0% (n=2)	

■ 전혀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조금그렇다 ■ 매우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발전 가능성〉						
평균 3.53						
(비율, 빈도)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	15.0% (n=6)	35.0% (n=14)	32.5% (n=13)	17.5% (n=7)	

■ 전혀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조금그렇다 ■ 매우그렇다



나. 공유문화의 지속과 확장 : 한국형 모델의 등장

공유경제란 한 번 생산된 제품을 여럿이 공유해 쓰는 협업 소비를 기본으로 한 경제를 의미한다. 쉽게 말해 ‘나눠쓰기’란 뜻으로 자동차, 빈방, 책 등 활용도가 떨어지는 물건이나 부동산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자원활용을 극대화하는 경제 활동이다. 공유경제와 공유기업은 전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긍정적인 효과에 집중되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지만, 해외 공유문화를 중심으로 소개되던 공유문화들이 한국에 자리 잡으면서 법적으로 포용할 수 있는 법규의 부재와 시민이나 소비자의 요구보다는 ‘관’이 중심이 되어 발전하고 있다는 국내적 특수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내에서 자투리 극장, 공유 독서실, 열린 옷장 등이 시행되며 한국형 공유모델이 생활 속 문화들과 만나며

다양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기대를 나타내기도 한다.

전문가 평가단이 평가한 2018년 발현정도는 평균 3.20점으로 높지 않은 점수이나, 2020년 지속·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를 전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국내 상황에 맞는 공유서비스와 공유모델 개발의 움직임을 고려하여 평균 3.73점으로 평가하였고, 전문가 평가단의 65.0%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 2-6〉 ‘공유문화의 지속과 확장 : 한국형 모델의 등장’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비율, 빈도)
평균 3.20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2.5% (n=1)	15.0% (n=6)	50.0% (n=20)	25.0% (n=10)	7.5% (n=3)	

■ 전혀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조금그렇다 ■ 매우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발전 가능성〉						(비율, 빈도)
평균 3.73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	12.5% (n=5)	22.5% (n=9)	45.0% (n=18)	20.0% (n=8)	

■ 전혀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조금그렇다 ■ 매우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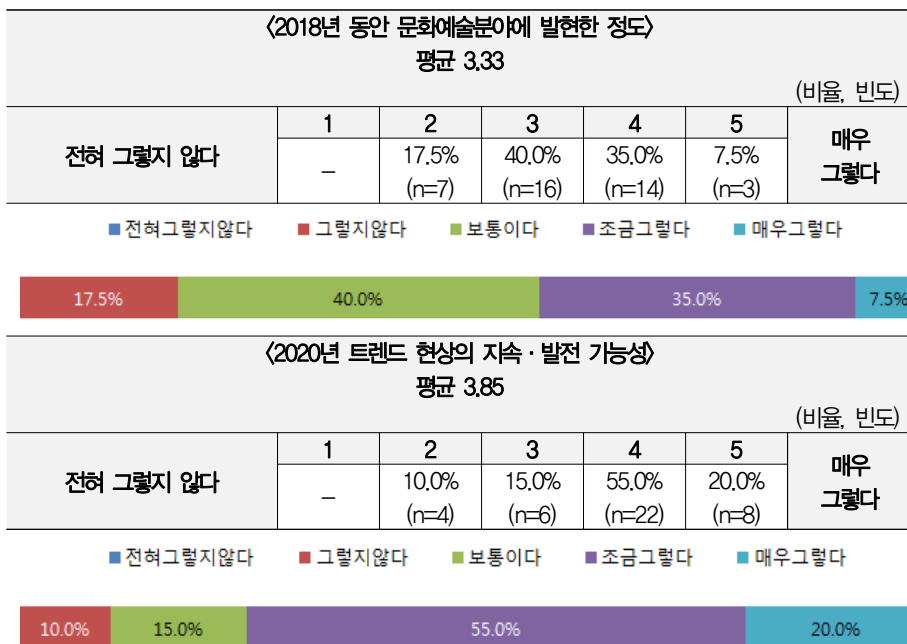
다. 사물인터넷, 소비자 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대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은 사물이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기기와 연결되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과거에는 장비와의 연결에만 국한되어 있었다면, 사물인터넷을 통해 기기 간 상호 작용이 가능해졌다. 문화예술분야에서는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온라인과 오프라

인을 연결하여 각종 미술전, 음악회 등의 문화·예술 장을 보다 쉽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사람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하는데 있어 새로운 장을 열어줄 것이라는 점에 집중하고 있다. 2011년 국내 최초로 근거리 무선통신(NFC)를 적용한 ‘김준직 작가전’이 진행되었고, 이후 사물인터넷의 활용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 평가단은 2018년 동안 사물인터넷의 활용이 소비자 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대시켰다는데 42.5%만이 동의한 반면 2020년의 지속·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75.0%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발현정도(평균 3.33점)와 지속·발전가능성(평균 3.85점)의 큰 차이는 사물인터넷이 문화예술분야에서 확대되어 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주로 홈 IoT, 즉 가정에서 국한되어 나타났기 때문에 높은 발현정도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사물인터넷의 확산은 사용자 주도형 모델 등 콘텐츠의 소비와 생산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전망이다.

〈표 2-7〉 ‘사물인터넷, 소비자 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대’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3. 2018년 발현도 및 지속성이 보통인 트렌드

가. 예술 소비, 세련된 생활 습관이 되다

2015년도를 시작으로 올해 4회차를 맞는 ‘2018 작가미술장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재)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관하여 국내에서 전시 기회조차 갖기 힘든 96~97%의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직접 작품을 전시, 판매하는 장터이다. 작가미술장터는 지난 3년간 약 4,300명의 참여 작가와 약 77만명의 관람객의 유입을 이끌었다. 예술계 소비문화를 지원하는 이러한 정책적 움직임은 아트페어를 진화시킬 뿐만 아니라 행사를 통해 중저가 위주의 작품을 판매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미술품 소장 기회 제공 및 향유 문화 증진에도 기여하였다.

전문가 평가단은 해당 트렌드의 2018년 발현정도를 평균 3.40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예술계의 정책적 변화와 더불어 문화예술을 단순히 경험하는데 그치지 않고 SNS를 통해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네오비트 세대로 인해 예술소비의 문턱이 낮아짐으로써 예술소비가 생활 속의 소비로 자리 잡게 되었다는 데에 47.5%가 동의하였다. 47.5%는 높지 않은 퍼센트로 해당 트렌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간의 이견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부정적인 평가에는 젊은 세대와 네오비트 세대가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예술소비를 주도하는 신소비계층인 것은 맞지만, 그 영향력이 SNS와 분리될 수 없는 만큼 젊은 세대의 예술향유는 일상 속으로 스며들지 못하고 단기 유행으로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20년 지속·발전가능성은 평균 3.68점으로 전문가 평가단의 60.0%가 예술소비의 지속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2-8〉 ‘예술 소비, 세련된 생활 습관이 되다’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비율, 빈도)
평균 3.40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	17.5% (n=7)	35.0% (n=14)	37.5% (n=15)	10.0% (n=4)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조금 그렇다 ■ 매우 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발전 가능성〉						(비율, 빈도)
평균 3.68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	10.0%	30.0%	42.5%	17.5%	
	—	(n=4)	(n=12)	(n=17)	(n=7)	

■ 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조금 그렇다 ■ 매우 그렇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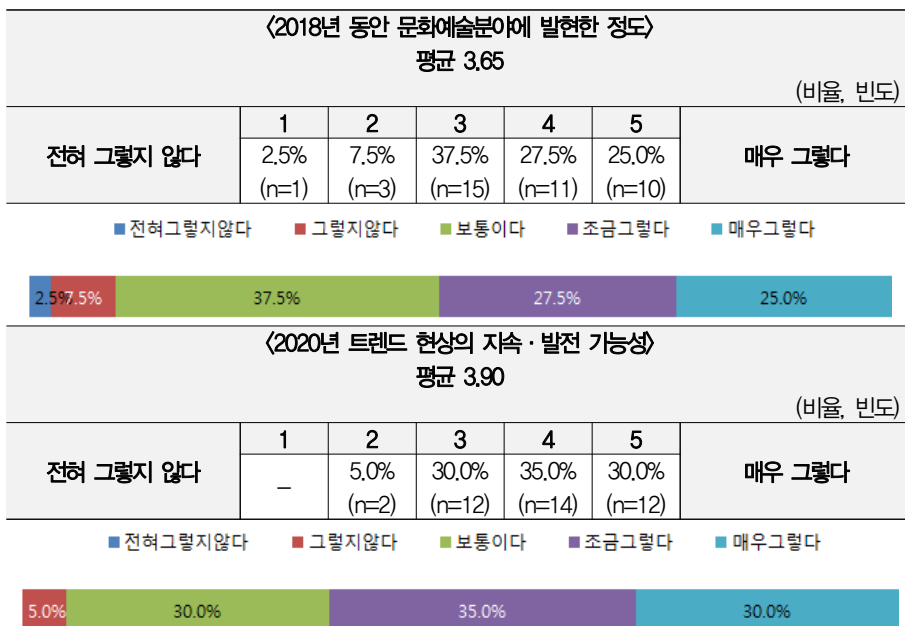
나. 전문가 놀이, 일상의 문화가 되다

‘집밥 백선생’은 ‘먹고 살기 힘든 시대에 누구나 집에서 쉽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생활 밀착 예능 프로그램’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진행되는 요리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 진행자이자 요리 전문가 백종원은 어느 누구나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레시피를 시청자들과 공유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고, 실제로 인터넷에서 방송에서 공개되었던 레시피를 통해서 요리할 수 많은 게시글들을 볼 수 있다. 연예인은 아니지만 한 분야의 전문가가 방송 출현을 통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일반인들과 공유함으로써 일반인들 사이에서 하나의 놀이 문화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문성을 결집한 취미가 하나의 놀이문화로 형성되는 사례가 늘어나는 한 편, 취미가 또 하나의 직업으로 발전해나가는 형태도 나타났다.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동영상 기반 SNS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가 주목받으면서, 현재 유튜버와 BJ들이 10대·20대 사이에서 연예인 못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일상을 기록하거나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취미로 모바일 상에서의 개인 방송활동을 시작했던 사람들이 영상 콘텐츠의 질과 전문성을 보충하여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를 직업으로 삼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전문가 평가단은 2018 발현정도는 평균 3.6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52.5%가 전문성이 개인의 취미 생활, 취향 등으로 흡수되어 일종의 전문성 있는 놀이 문화가 나타났다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2020년 지속·발전 가능성은 평균 3.90점으로 발현정도에 비해 높은 점수를 기록하였고, 65.0%가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표 2-9〉 ‘전문가 놀이, 일상의 문화가 되다’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다. 자생을 위한 적극적 판매, 계속되는 예술가들의 실험

예술 창작 활동에 있어 예술가들이 공공기관의 지원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는 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약화시킨다는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고, 『2016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김혜인, 2016)』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더 이상 재원에만 의존하지 않고 예술의 경제 자생력 확보를 위해 젊은 예술가들이 스스로의 공간과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만들어가는 그들 간의 느슨한 연대가 예술가들의 대안적 예술실험과 예술적 삶의 방식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예술가들 사이에서 홀로 서고, 함께 서는 대안 공간과 협업의 사례들이 증가함으로써 기존 예술가들의 자생력을 기반으로 한 사례들이 이전보다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전문가 평가단은 해당 트렌드의 2018년 발현정도에 대해서 20.0%가 ‘그렇지 않다’, 35.0%가 ‘보통이다’, 37.5%가 ‘조금 그렇다’로 대부분 중간 값에 평가하였다. 또한, 2020년 지속·발전가능성에 대해서도 17.5%가 ‘그렇지 않다’, 27.5%가 ‘보통이다’, 47.5%가 ‘조금 그렇다’로 평가한 것을 보았을 때 예술가들이 공공기관의 지원에서 벗어나 홀로서기, 그리고 유연하게 협업하여 스스로를 마케팅 하는 모습은 예술 생태계의 자생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이지만, 현실적으로 예술가들이 지원 없이는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10〉 ‘자생을 위한 적극적 판매, 계속되는 예술가들의 실험’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빈도, 비율)
평균 3.23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2.5% (n=1)	20.0% (n=8)	35.0% (n=14)	37.5% (n=15)	5.0% (n=2)	

■ 전혀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조금그렇다 ■ 매우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발전 가능성〉						(비율, 빈도)
평균 3.45						
전혀 그렇지 않다	1	2	3	4	5	매우 그렇다
	—	17.5%	27.5%	47.5%	7.5%	
	—	(n=7)	(n=11)	(n=19)	(n=3)	

■ 전혀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조금그렇다 ■ 매우그렇다



라. 리스티클의 확산 : 개인의 권리 vs 공유적 가치

뉴스 및 정보 뿐만 아니라 창작자들의 글과 작품들이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편집/재가공 되는 ‘리스트리클(Listicle, List와 Article의 합성어)’ 또한 하나의 창작품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변화가 생겨나면서, ‘편집과 재가공’ 행위도 공유를 발생시키는 창작으로 보는 저작권 확대 현상이 본격화 되었다. 하지만 문학계에서의 표절 사건이 발생하며 표절과 저작권 문제에 너그러웠던 사회분위기가 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였고, 표절 문제로 법정 논쟁이 진행될 때 판단 상의 어려움 문제(누가 책임질 것인가, 누가 판정할 것인가, 기준은 명확한가 등)로 인해 많은 표절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립구도 이상의 실질적 조치나 제도로서의 진행이 어려웠다는 한계가 드러났다.

전문가 평가단은 2018년 발현정도를 평균 3.23점으로 평가하였고, 2020년 지속·발전가능성에 대해서는 표절 의혹 제기글이 SNS를 통해 퍼지면서 논의가 본격화 된 사례가 있어 SNS 시대에 상호검열 문화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저작권 제도상에 지적저작권 인정 및 지적저작권에 대한 인식개선 지원을 마련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발현정도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지속·발전가능성 : 평균 3.45점)

〈표 2-11〉 ‘리스티클의 확산 : 개인의 권리 vs 공유적 가치’ 문화예술트렌드 지속성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평균 3.23 (비율, 빈도)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	20.0% (n=8)	45.0% (n=18)	27.5% (n=11)	7.5% (n=3)	매우 그렇다

■ 전혀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조금그렇다 ■ 매우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발전 가능성〉 평균 3.45 (비율, 빈도)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	15.0% (n=6)	37.5% (n=15)	35.0% (n=14)	12.5% (n=5)	매우 그렇다

■ 전혀그렇지않다 ■ 그렇지않다 ■ 보통이다 ■ 조금그렇다 ■ 매우그렇다



제3장 ●●

2016~2018 범사회 환경 주요 변화



재질

정치/외교 분야

1. 남북 관계

2016년은 북한이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계속 하자 정부는 남북경제 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2004년 시범단지 준공 후 12년 만에 중단하였다. 하지만 이후에도 북한은 5차 핵실험을 감행하며 도발을 멈추지 않아 남북관계가 원만하지 않았던 해였다.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대북교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대북제재의 틀은 유지하면서도 북한과의 관계 복원을 위해 남북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고 국제사회에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 대공세 선언을 했지만 북한은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지속적으로 감행하였다.

2018년에는 남한의 일방적인 교류만 있었던 2017년과는 달리 29개월 만에 첫 남북 고위급 회담 전체 회의가 성사되었고, 2월 평창 동계 올림픽을 기점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등 남북교류가 본격적으로 물꼬를 트기 시작하였다.

남북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한미 정상회담, 북중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몇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고, 6·12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각국에서의 후속회담이 재개되었다.

6·12 북미 정상회담 이후 이루어진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놓고 이견이 생기며 북한과 미국 간 불협화음이 발생하는 듯 했지만, 미국이 ‘불가역적’이라는 표현을 양보하고 ‘검증’관련 표현을 강화한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 비핵화’(FFVD)로 용어를 수정하는 등 양국이 비핵화에 대한 간극을 좁히기 위해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9월 18일부터 20일까지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자리에서 남북 군사공동위를 통한 상시적 협의, 금강산 상설 면회소 우선 실현, 2032년 하계올림픽 공동 유치 협력, 동창리 핵실험장 영구 폐쇄, 김 위원장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이 담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표 3-1〉 남북 관계 변화 관련 주요 이슈 흐름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2016년	1월	-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2월	-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자 박근혜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하였다.
	9월	- 북한은 정권수립 기념일(9·9절)에 5차 핵실험 감행하였다.
2017년	4월	- 평양에서 열리는 2018 아시아축구연맹(AFC) 여자 아시안컵 예선 출전을 위해 남측 여자 축구 대표팀 방북하는 것을 시작으로 지난해 2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결정과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으로 전면 중단되었던 남북 교류가 재개되었다.
	5월	-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교체된 이후, 통일부는 새로운 대북교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 북한은 5월 한 달 동안 4차례에 걸쳐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였다.
	6월	- 북한은 8일 오전 지대함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하면서 미사일 다종화 능력을 과시하였다.
	7월	-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 대화 재개지지 의사를 나타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평화 대공세를 선언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을 멈추지 않았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국방부는 21일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개최하려고 하였지만 북한의 무반응 속에 무산되었다.
	8월	- 북한은 평양 순안비행장 일대에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발사하였다.
	9월	- 북한은 6차 핵실험 감행하였고, 이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지진이 감지되었다는 것이 알려지자 전쟁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다. - 문재인 대통령은 블라디보스토크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한-러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북핵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 뜻을 모았다고 발표하였다.
2018년	1월	- 2일 한국 정부가 북한에 판문점 연락관 채널 복원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판문점 연락채널을 다시 개통하겠다고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평화 분위기에 이에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었다.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이 유엔 대북 제재안에 따라 대북철강 수출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면서 북-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전화통화로 남북 고위급 회담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17일 열린 차관급 실무회담에서 북한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140여명으로 구성된 '삼지연 관현악단' 예술단을 파견하기로 하였으며, 올림픽에서는 여자아이스하키 종목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기로 결정하였다.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서는 남북한 선수단 공동입장,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선수의 성화 봉송, 강릉 아트센터에서 열린 삼지연 관현악단의 공연과 8차례에 걸친 북한 응원단의 공연이 진행되었다. -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영정 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을 통해 친서를 전달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공식 요청하였다.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오후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은 평양 방문하여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4시간이 넘는 만찬과 협의를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라는 성과를 보였다. - 15일 국내 만화진흥 대표기관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과 대표적 남북교류 체육단체인 남북체육교류협회는 남북만화교류 및 문화예술콘텐츠 전반에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평양의 동평양대극장에서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 공연'이 진행되었으며, 한국의 가수 11팀이 참여하였다. 다음날에는 남북 태권도시범단 합동 공연이 진행되는 등 다양한 교류 행사가 진행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통화할 수 있는 핫라인(남북직통전화)이 개통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가졌으며, 완전한 비핵화,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 등이 담긴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하였다. - 북한은 표준시를 오는 5월 5일부터 다시 한국과 통일하기로 공표하였으며, 남한은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다음달 1일부터 대북 심리전 수단인 확성기 방송시설 철거하기로 결정하였다.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27 남북 정상회담 합의를 실행할 '판문점선언 이행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북한 산림문제를 남북 간 첫 협력 의제로 결정하였다. - 22일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 집중적으로 논의하였다. -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급작스럽게 예정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강경화 외교장관은 폼페이오 미국무장관과 직접 소통라인을 가동하는 등 수시로 소통하고 협의하면서 제반상황에 대한 상호 평가를 공유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관해 조율하였다. - 지난 16일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 당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공중연합훈련 등을 문제 삼아 일방적 연기를 통보하며 남북고위급 회담이 무산되었으나, 6월1일 회담이 재개되면서 정상회담에서의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고 본격적인 이행 단계로 진입하였다.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일 싱가포르에서 분단 이후 70년 만에 첫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한반도의 지속 안정적인 평화 구축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는 공동합의문에 서명하였다. -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후 2년 4개월 만에 천해성 통일부장관 차관을 포함한 정부 인사가 방북하여 남북연락사무소 설치를 위해 개성 공단 내 지원 센터 등 시설을 점검하였다. - 19일 제 3차 북중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중국을 '우리의 위대한 우호 이웃 국가'로 극찬하면서, 북미정상회담이 적극적인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하였다. - 남북은 오는 8월에 열리는 자카르타 · 팔렘방 아시안게임 3개 종목에 남북단일팀을 내보내기로 합의하였고, 공동입장 선수단의 명칭을 코리아(KOREA), 약어는 COR로 결정하였다.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대북제재 완화조짐이 보이는 가운데 북한의 경제 · 무역 정책을 총괄하는 대외경제성의 구본태 부상이 2일 오전 베이징을 전격 방문하였다. - 북미 고위급회담에서 폼페이오 미군무장관은 '북한 비핵화 시간표 진전있었다'고 발표한 반면, 북한 외무성은 '미국 측은 CVID, 일방적인 비핵화 요구만을 들고 나왔다'며 6 · 12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완전한 비핵화' 문제를 놓고 팽팽한 입장차를 보였다. - 15년 만에 평양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남북 통일 농구대회 혼합경기가 열렸다.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미가 약 40일 만에 판문점 실무회담을 재개하면서 비핵화 협상에 급진전 기류를 보였다. - 국방부는 서해지구 군 통신선 정상화에 이어 동해지구 남북 군 통신선 완전히 복구되었다고 발표하였다.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특사단이 5일 오전 특별기를 타고 평양으로 출발하였다. - 18일에 열린 평양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인 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였고, 청와대는 '두 정상이 이번 선언을 통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한 것'이라고 밝혔다. - 3차 남북 정상회담 마지막 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와 김정은 국무위원장 부부가 함께 백두산을 방문하였다.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일 남북은 10.4 공동선언 발표 11주년을 기념하는 '민족통일대회'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공동 개최하였다.

2. 국내 정치

2013년도부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서관이자 최순실의 전 남편인 정윤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의혹들이 생겨났고, 2016년 10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과정에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에 대한 본격적인 검찰 수사가 시작되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문서 유출을 인정하며 대국민사과를 하였으나 대통령의 하야를 원하는 시민들의 시국선언이 전국적으로 빠르게 퍼지며 대규모 집회가 열렸다.

2013년 문체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연극 국립극단의 〈개구리〉 공연 이후, 해당 연극의 예술 감독을 각종 연극 지원에서 배제하면서 블랙리스트의 도화선이 되었다. 하지만 2017년 영포빌딩 지하 비밀창고에서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관련문건이 발견되었고,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이 밝혀졌다.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 9473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세월호 시국선언,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재인 지지선언, 박원순 지지선언을 이유로 명단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체부 진상조사위를 통해 2015~2016년 ‘한-불 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이 적용되어 다수의 문화예술인의 배제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7년, 본격적으로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등 고위급 인사들의 공판이 여러 차례 이루어졌으며 3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이 결정되었다. 2017년 7월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1월에는 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모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블랙리스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와 관련 제보를 받아 진상규명·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조운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월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들을 토대로 무죄였던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되었지만 10월에 진행된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반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같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 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관여했던 문체부 소속 공무원과 전직 공공기관장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으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판단과 달리 징계 대상자가 대폭 줄고 사실상 징계 인원은 0명이라며 전국영화산업노조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명확한 징계를 촉구하였다.

〈표 3-2〉 국내 정치 변화 관련 주요 이슈 흐름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2016년	9월	- 시민단체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에 개입 의혹을 받는 최순실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을 검찰에 고발하였다.
	10월	- 미르·K스포츠 재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하였다. - 비선 실세 최순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내외 연설문과 기밀을 미리 받아본 것으로 드러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청와대 문서 유출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진행하였다. - 전국에서는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 및 시국선언이 나타났다. - 여야는 26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고발하기로 의결하였다.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 검찰이 최순실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수사본부 설치하였고, 최순실을 검찰로 처음 소환하여 의혹에 대해 조사하였다.
	11월	- 검찰 '비선실세' 최순실 긴급 체포 하였으며, 이후 안종범, 정호성 등을 구속 기소하였다.
	12월	-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대통령의 직위가 정지되었다.
2017년	3월	-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고, 2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다. 이후 10일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과 동시에 제 19대 대통령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었다.
	5월	- 10일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41.1%로 제 19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의 첫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모든 혐의에 부인한 채 재판은 종결되었다.
2018년	2월	-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였다.
	4월	- 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하였다.
	6월	-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도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수수하고, 2016년 국회의원 총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추가 구형하였다.
	7월	-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과 공천개입 혐의로 대해 총 징역 8년, 추징금 33억 원을 선고하였다.
	8월	-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의 2심에서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100억 원을 선고받았으며,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하였다.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 선고받았지만, 8월에 진행된 2심에서 형량과 벌금 모두 늘어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다. 7월에 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혐의로 선고받은 형량까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돼 총 징역 33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게 된다.

3. 외교 정책

2015년에는 아베 일본 정부와 ‘위안부 협상’에 관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진행되었으나 ‘위안부 협상 타결’이라는 결과는 국회의 동의가 없이 진행된 협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국민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다. 2016년에는 ‘위안부 협상 타결’에 대해 비판하는 국민들의 시위와 문화행사가 이루어졌다. 또한, 북한의 4차 핵실험 대응 및 제재 공조를 위한 심층 협의와 핵 안보 방지를 논하는 정상 회담이 이루어졌으며, 양국의 관계 발전을 위한 순방과 멕시코, 프랑스, 아프리카에서 문화, 경제, 군사와 같은 다양한 외교 행보를 보였다. 2017년에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개최하여 양국의 신뢰관계를 구축하였으나, 그 후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파면으로 별 다른 외교적 움직임은 보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추진하고 있는 ‘신 남방정책’으로 동남아를 순방하며 각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통하여 아세안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 하고 진출 확대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 더불어, 중국과의 연쇄 회담을 통해 사드배치 문제로 경색됐던 한중 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보였다. 이어서 2018년에도 신 남방정책 활성화를 위한 아세안과의 외교는 계속되며 국내 기업들이 아세안 국가들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발판을 마련하고, 특히 신남방정책의 핵심 축 나라인 베트남에서 정책 목표액 중 절반 정도 달성할 계획으로 ‘세일즈 외교’에 주력을 다하고 있다.

8월,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신남방정책특위 위원장을 겸직하는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현판식에서 ‘신남방정책은 아세안과 인도를 중심으로 이들 국가들과 사람 중심의 평화와 번영공동체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이 위원회는 평화공동체를 구축하는데 있어서 주요한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실현해 나가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표 3-3〉 외교 정책 변화 관련 주요 이슈 흐름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2015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일 한국과 일본의 외교당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극적으로 타결하였고, 아베신조 총리가 사죄와 반성의 뜻을 표시하였으나, 일본정부가 법적 책임이 아닌 책임을 통감할 뿐만 아니라 애초에 서둘러서 종속적인 타결을 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았다.
2016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적·불가역적’이라는 표현으로 한국 정부는 더 이상 국제사회에 위안부 문제를 제기할 수 없게 되었다며 비판하는 ‘위안부 협상 타결’ 반대시위와 문화 행사가 잇따라 개최되었다.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근혜 대통령은 핵안보 방지를 위해 국제사회 조치를 논하는 워싱턴 핵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다.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박근혜 대통령은 멕시코를 공식 방문하여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 문화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불 상호교류의 해’ 행사를 위한 제5차 공동회의가 프랑스에서 개최되었다. - 박근혜 대통령, 아프리카 3개국 (에디오피아, 우간다, 케냐) 방문하였고, 이번 순방에서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코리아 에이드(Korea Aid)’를 추진하는 등 외교자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일 한불 정상회담이 개최되었고,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창조경제 및 문화융성 협력을 구체화하기 위한 방안을 협의할 뿐만 아니라 한불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발전 구상을 담은 공동선언도 채택하였다.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대북 압박공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온 이탈리아를 방문해, 이탈리아 외교장관과의 양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에 대한 국제제재 공조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다.
2017년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확인하면서 대한민국이 한반도 평화 통일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채택하였다.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소규모·확대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경제협력 강화 등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내실화를 강조하였다. - 14일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과 한중일이 함께하는 아세안+3회의에 참석하였고, 회의에서 북핵 공조와 역내 교류 협력을 강조하였다. - 문재인 정부의 신 남방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한 ‘호찌민-경주세계문화엑스포 2017’ 행사가 베트남에서 개최되었다. -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시리세나 스리랑카 대통령은 소규모 및 확대 정상회담을 통해서 수교 40주년을 맞은 양국관계의 실질적인 협력관계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2018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중 정상회담이 베이징에서 개최되었고, 문 대통령이 양국 관계 회복을 위한 협력을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켰지만 시진핑 국가주석은 사드문제를 거론하며 한국이 계속 이 문제에 대해 타당하게 처리하기를 희망한다며 압박하였다.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오흐나 후렐수흐 몽골 총리와의 접견에서 양국 경제가 상호 호혜적으로 발전하도록 우리나라가 5억 달러를 추가 지원하는 내용의 한몽대외경제협력기금(EDCF) 기본약정 개정안 체결하였다. - 아세안·인도연구센터가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고 역내 중견국 역할을 강화해 나가려는 정부의 의지와 정책 수행에 이론적 기반을 제공할 연구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설립되었다.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 대통령은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을 가졌고, 한반도 비핵화가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회담에서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지지를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 대통령은 하반기 첫 외교 일정으로 5박 6일간 '신(新)남방정책'의 핵심 파트너 국가인 인도·싱가포르 순방하였고, 이번 순방으로 양국과의 경제, 외교·안보분야 협력을 한 단계 높이는 성과를 가져왔다.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일 정부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에 문재인 대통령의 신남방 정책을 뒷받침하는 신남방정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였다.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다자·통상외교에 중점을 두고 외교라인 전면 교체하였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대미외교에 소극적 모습을 보인 외교부를 향한 청와대의 불만이 반영된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제2절

경제/산업/기술 분야

1. 경제 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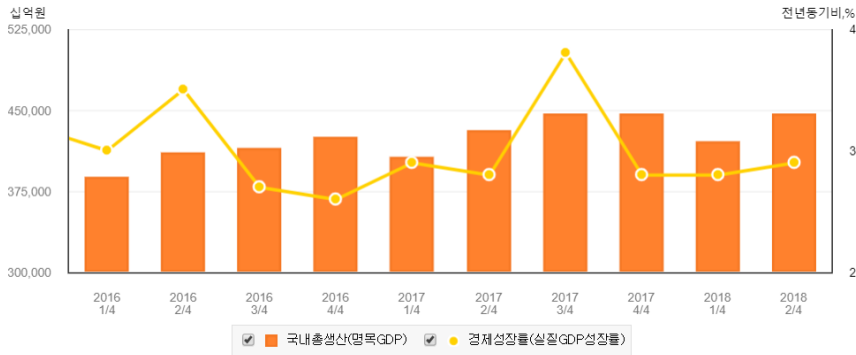
국내총생산(명목GDP)은 2016년 1,641,786 십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2017년에는 1,730,399 십억 원으로 나타났다. 2018년 2/4분기 현재에는 446,044 십억 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2017년 2/4분기 431,026 십억 원 대비 15,018 십억 원 상승한 값이다. 경제성장률(실질GDP 성장률)은 전년 동기 대비 2016년 2.9%, 2017년 3.1%로 나타났다. 2018년 2/4분기 현재는 2.9%이며, 이는 2017년 2/4분기 2.8% 대비 0.1% 상승한 값이다.

〈표 3-4〉 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수치

(단위: 십억원 %)

구분	2016	2017	2017 2/4	2017 3/4	2017 4/4	2018 1/4	2018 2/4
국내총생산 (명목GDP)	1,641,786	1,730,399	431,026	446,835	446,227	420,675	446,044
경제성장률 (실질GDP 성장률)	2.9	3.1	2.8	3.8	2.8	2.8	2.9

자료: 통계청



자료 : 통계청

[그림 3-1] 국내총생산 및 경제 성장률(GDP) 그래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18년 11월 6일에 발표한 ‘2018년도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2.7%, 내년은 2.6%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을 하향 조정했다. 이는 미국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 보드가 2018년 2.8%에서 2019년 2.6%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한 것과 유사한 수치이다. 제조업 성장 둔화, 건설업 부진 지속, 투자 부진 심화 등의 이유로 성장세가 점차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OECD 국가 경제성장률은 2015년 한국은 2.8%로 나타났다. 2016년 한국의 경제성장률은 2.9%로 전년대비 0.1% 상승하였다. 2017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3.1%로 소폭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약 3%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약 7%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일본($\Delta 0.5\%$), 미국($\Delta 0.6\%$), 영국($\Delta 0.4\%$)은 전년대비 2016년 경제성장률이 소폭 하락하였다. 2017년 미국(2.3%)과 일본(1.7%)은 회복세를 보였으며, 영국(1.8%)은 전년과 비슷한 추이를 보였다.

〈표 3-5〉 OECD 국가 경제성장률 수치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한국	2.8	2.9	3.1
중국	6.9	6.7	6.9
일본	1.4	0.9	1.7
미국	2.9	1.5	2.3
영국	2.3	1.9	1.8

자료 : 통계청

미국의 경제조사기관인 컨퍼런스보드는 2018년 11월 14일 ‘글로벌 경제전망 2019’에서 2019년 세계 경제가 3%대 성장률을 지속하겠지만, 정점을 찍고 유럽과 신흥국을 중심으로 둔화세를 나타낼 것이라 전망하였다. 미국 경제는 향후 2~3개월 내 정점을 찍어 2019년 경제성장률은 3.2%로 높게 전망하였으며, 유로존 경제성장률은 2018년 2.1%에서 2019년 1.9%로, 중국 경제성장률은 2018년 4.1%에서 2019년 3.8%로 낮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지수와 근원물가, 생활물가는 8월까지 비슷한 추이를 보이며 소폭 하락세를 보였으나, 9월 소폭 상승하였다. 이는 2017년 8월 이후 하락세를 보인 것과 대비되는 양상이다. 2017년 소비자 물가와 생활물가의 격차는 0.6%로 2016년 0.3%, 2018년 9월 현재까지의 평균 차 0.07%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2018년 9월 현재까지의 물가가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생활물가 간 차이도 적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2018년 현재 물가는 전년도 대비 안정된 상태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3-6〉 월별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생활물가 상승률 수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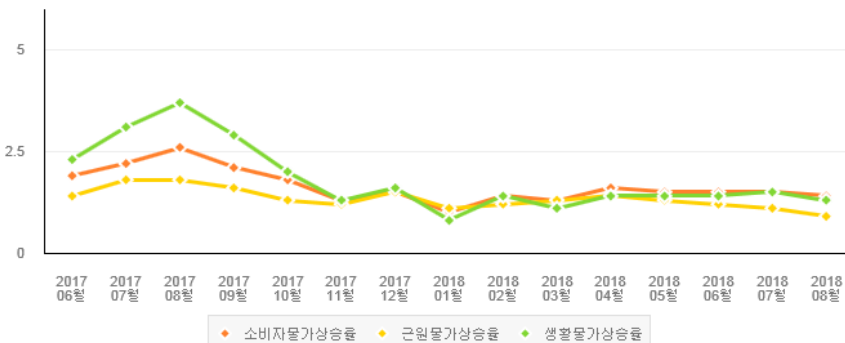
(단위 : %)

구분	2015	2016	2017	201804	201805	201806	201807	201808	201809
소비자물가	0.7	1.0	1.9	1.6	1.5	1.5	1.5	1.4	1.9
근원물가	2.2	1.6	1.5	1.4	1.3	1.2	1.1	0.9	1.2
생활물가	-0.2	0.7	2.5	1.4	1.4	1.4	1.5	1.3	2.2

자료 : 통계청

- 주 : 1) 소비자물가지수: 도시가계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구입하는 상품가격과 서비스 요금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작성하는 지수
 2) 근원물가: 소비자물가 조사품목중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도시가스 포함) 같은 외부충격 등에 취약한 품목들이 제외되어 물가변동의 기초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지표
 3) 생활물가: 소득증가에 관계없이 소비자들이 필요한 기본생활필품을 대상으로 작성하며, 141개 품목으로 구성

전년동월비(%)



자료 : 통계청

[그림 3-2] 월별 소비자물가, 근원물가, 생활물가 상승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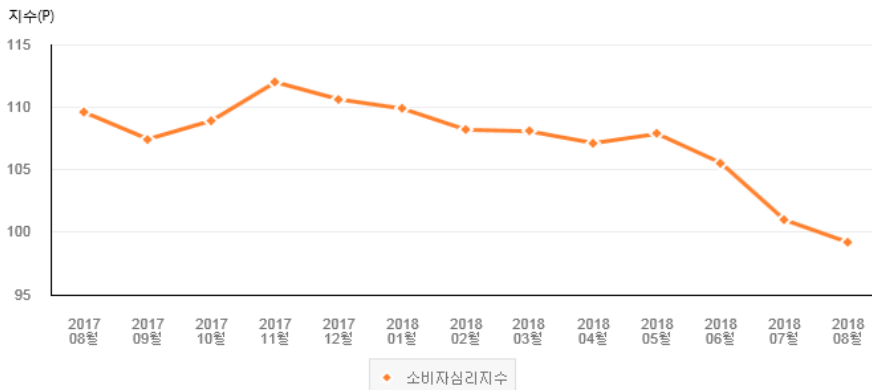
소비자 심리지수는 2017년 8월 110P로 나타났으며, 9월 107P에서 10월 109P, 11월 112P, 12월 111P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2018년 1월에는 110P에서 2월 108P, 3월 108P, 4월 107P, 5월 108P, 6월 106P, 7월 101P로 하락세를 보였으나 100P를 넘어 낙관적인 기대심리를 보였으나, 8월에는 99P로 다소 비관적인 기대심리를 보였다. 9월에는 다시 소폭 상승하여 102P를 기록하였다. 2017년 상반기 비관적인 소비심리에서 상승세로 전환된 점, 2018년 낙관적 소비심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유의미하게 파악해볼 수 있다.

〈표 3-7〉 소비자 심리지수 수치

구분	2017.08	2017.09	2017.10	2017.11	2017.12	2018.01	2018.02
소비자 심리지수	110	107	109	112	111	110	108
	2018.03	2018.04	2018.5	2018.6	2018.7	2018.8	2018.9
	108	107	108	106	101	99	102

자료 : 통계청

주 : 개별지수가 100보다 높은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가구 수가 부정적으로 응답한 가구수보다 많음을, 100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반대를 의미하며 소비자심리지수가 100보다 높을 경우 경제상황에 대한 소비자의 주관적인 기대심리가 과거(99.1/4~08.2/4)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낮을 경우에는 비관적임을 나타냄



자료 : 통계청

[그림 3-3] 소비자 심리지수 추이

취업자 규모는 증가했으나, 실업률 또한 3.7%대를 유지하고 있으며, 청년실업률도 9.8%대로 동일한 추이를 보이고 있어 청년실업률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취업자 증감규모는 2016년 23.1만 명, 2017년 31.6만 명으로 8.5만 명 증가하였다. 실업률은 2016년 3.7%, 2017년 3.7%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년동기와 비교해보면, 2016년 1/4분기 평균 4.26%, 2017년 1/4분기 평균 4.23%로 0.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2/4분기 평균 3.7%, 2017년 2/4분기 평균 3.86%로 0.1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4분기 평균은 3.53%, 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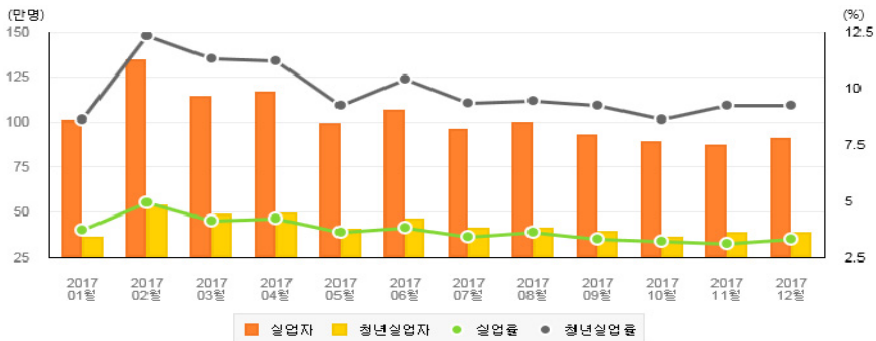
3/4분기 평균 3.43%로 0.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4/4분기 평균은 3.2%, 2017년 4/4분기 평균은 3.2%로 동일한 실업률이 나타났다. 청년 실업률은 2016년 9.8%, 2017년 9.8%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전년동기와 비교해보면, 2016년 1/4분기 평균 11.26%, 2017년 1/4분기 평균 10.73%로 0.53% 하락했다. 2016년 2/4분기 평균 10.3%, 2017년 2/4분기 평균 10.26%로 0.4% 하락했다. 2016년 3/4분기 평균은 9.3, 2017년 3/4분기 평균은 9.3%로 동일했다. 2016년 4/4분기 평균은 8.33%, 2017년 4/4분기 평균은 9%로 0.67% 상승했다.

〈표 3-8〉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국내)

(단위 : 만 명)

구분	2016	2017	2017.07	2017.08	2017.09	2017.10	2017.11	2017.12
취업자 증감	23.1	31.6	31.4	20.8	31.4	28.1	25.7	25.7
－ 농림어업	-6.5	0.6	2.2	1.6	2.6	1.5	0.3	6.5
－ 제조업	-2.1	-1.8	4.7	2.5	1.7	1.4	3.2	7.7
－ 건설업	1.5	11.9	10.5	3.7	11.1	12.2	7.2	8.3
－ 서비스업	-	-	-	-	-	-	-	-
실업자	100.9	102.3	95.8	99.9	93.2	89.4	87.1	91.3
실업률(%)	3.7	3.7	3.4	3.6	3.3	3.2	3.1	3.3
청년실업자	42.6	42.6	41.1	41.0	39.4	36.4	38.8	38.9
청년실업률(%)	9.8	9.8	9.3	9.4	9.2	8.6	9.2	9.2

자료 : 통계청



자료 : 통계청

[그림 3-4] 실업자 및 실업률 추이(국내)

OECD 주요 국가와 실업률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OECD 평균값 보다 2016년(2/4~4/4 평균) 2.64% 낮았으며, 2017년(1/4~4/4 평균) 2.05%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다. OECD 주요 국가의 실업률은 2016년(2/4~4/4 평균) 독일 12.2%, 미국 4.83%, 영국 4.76%, 프랑스 10%, 한국 3.66%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은 6.3%를 기록했다. 2017년(1/4~4/4 평균) 독일 3.75%, 미국 4.35%, 영국 4.3%, 프랑스 9.4%, 한국 3.7%로 나타났으며, OECD 평균 5.75%를 기록했다.

〈표 3-9〉 OECD 국가의 15세 이상 인구 실업률 수치

(단위 : %)

구분	2016 2/4	2016 3/4	2016 4/4	2017 1/4	2017 2/4	2017 3/4	2017 4/4	2018 1/4
독일	4.2	4.1	3.9	3.9	3.8	3.7	3.6	3.5
미국	4.9	4.9	4.7	4.7	4.3	4.3	4.1	4.1
영국	4.8	4.8	4.7	4.5	4.3	4.2	4.2	4.1
프랑스	10.0	10.0	10.0	9.6	9.5	9.6	8.9	9.2
한국	3.6	3.8	3.6	3.7	3.8	3.6	3.7	3.7
OECD Total	6.4	6.3	6.2	6.0	5.8	5.7	5.5	5.4

자료 : 통계청

2. 일자리 환경

가. 노동 환경

2016년에 서울시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시작했지만 보건복지부에서 무분별한 현금 지원은 어려운 청년들의 현실을 이용해 환심을 사려는 명백한 복지 포퓰리즘이라며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을 취소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간에 마찰이 빚어졌다. 2017년에는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의 직권취소로 중단됐던 청년수당을 재개하였으며 서울시뿐만 아니라 인천시, 경기도에서도 청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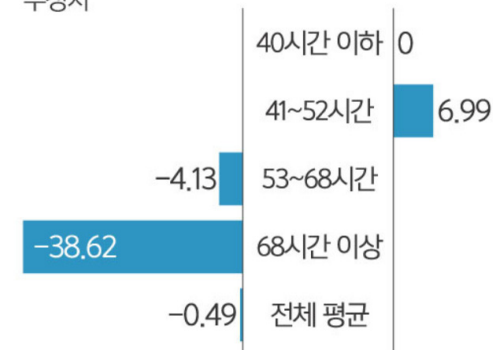
수당을 잇따라 실시하였고,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곳곳에서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과 ‘소득 주도 성장’을 핵심 경제 정책으로 내세웠으나 실업률은 2018년 5월 기준 역대 최고치까지 치솟으며 고용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었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전년 대비 16.4% 인상되어 인건비 부담이 커진 자영업자들이 종업원을 줄이면서 실업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자리 안정자금을 시행하고,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등 인상된 최저임금의 안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않았고, 2018년 5월 국회는 상여금·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다.

또한, 2018년 7월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되면서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 졌지만 근로시간 단축이 산업별, 기업별 특성에 따라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잔업과 야근 등이 사라지면서 실질소득이 감소하거나 정해진 시간 내에 업무를 마쳐야 하는 종사자들의 경우 근로시간 감소에 따라 빠듯해진 업무에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에서 2018년 6월 5일에 발표한 ‘근로시간 단축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체 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이후 0.49%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전체 근로자의 72.4%는 주 40시간 이하의 정규 근로시간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 16.8%인 주 41~52시간 근로자는 오히려 소득이 6.9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주 53시간 이상의 장시간 근무자들은 초과 근로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소득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유안타증권의 보고서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이 소비 분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장시간 근로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다고 분석하였다.

(단위 : %)

*한국노동패널자료 활용한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추정치



자료 : 유안타증권(2018), 근로시간 단축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그림 3-5] 근로시간 단축 시 소득 증감률

실제로 제도 도입 이후인 2018년 10월 23일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638명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 시행 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수당만 줄고 업무는 그대로’라는 불만이 제기되었다. 주 52시간 근무제를 부정적으로 체감한 응답자들은 ‘월 소득 감소(53.5%)’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으며, 전체 응답자의 20.9%는 임금이 줄었다고 밝혔다.

실질소득 감소와 업무 부담감의 가중 등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주 52시간 근무제로 인하여 실제 10명 중 6명이 여가활동이 증가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취업포털 잡코리아가 직장인 47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10명 중 6명(58.8%)는 주 52시간제 도입으로 저녁이 있는 삶을 즐기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2018년 8월 19일부터 9월 15일까지 BC카드 가맹점 매출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서울시 여가 활동 관련 업종의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평균 9.2% 증가했다는 발표도 있었다.

노동환경의 변화는 노동 시간뿐만 아니라 임금에서도 나타났다. 2018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2019년도 최저임금을 올해(시급 7530원)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의결하였고, 8월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을8350원으로 확정·고시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고, 최저임금위원회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진 결정으로 판단했다’며 재심의를 거부하였고, 중소기업중앙회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 안’에 대한 이의제기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였다.

〈표 3-10〉 노동환경 변화 관련 주요 이슈 흐름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2016년	6월	- 서울시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최소 사회참여활동비로 매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까지 지원하는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8월	-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법상 협의 과정에서 부동의 결론이 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며 서울시에게 청년수당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직권취소로 중단된 직후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가 청년구직자들에게 최대 60만원 현금 지원 사업을 진행하면서 서울시와 보건복지부 간의 갈등이 빚어졌다.
	11월	- 인천시는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대상이 중복 또는 배제되고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 고용노동부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 취업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2017년	4월	- 서울시는 직권취소로 중단됐던 청년활동지원금(청년수당)을 재개하였다.
	6월	- 문재인 정부는 추가경정예산 11조 2000억원을 투입해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로 하였고, 이번 추경안이 집행되면 공공부문 일자리, 민간부문 일자리 외에 창업 지원 등을 통한 간접 고용창출효과가 2만4000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였다.
	9월	- 경기도 만18~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구직지원금’을 실시하였다.
2018년	1월	- 2017년 7월 15일 최저임금위원회가 2018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하였으며, 작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6,470원에서 1,060원 올랐고, 16.4% 상승하였다. - 서울 압구정동 구 현대아파트에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를 부담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경비원 전원에게 해고를 통보하였다. 정부는 이러한 부작용에 대응하기 위해 업종 500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였다. -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매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카드 수수료 중 밴(VAN·결제대행) 수수료를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정률제)으로 개선하였다. - 통계청이 10일 내놓은 ‘고용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국내 서비스업 취업자는 2016년 12월보다 2만 명 늘었지만 공공부문에서 증가한 일자리 8만1000개를 제외한 민간 서비스업 일자리는 6만1000개 줄었다.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2월	- 정부는 연장근로가 많아 월급이 19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초과근로수당 비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일자리 안정자금의 신청 근로자 수는 100만명을 돌파하였다.
	4월	- 정부는 일자리 위기 지역에 1조원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확정하였다. - 통계청 3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도소매업과 음식 및 숙박업의 취업자수는 372만3000명으로 지난해 3월보다 각각 9만6000명과 2만명 감소하였으며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2년 연속 10만 명대, 실업률은 3월 기준 17년 만에 최약을 기록하였다.
	5월	- 5일 정부는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법을 공포안을 심의·의결하였고, 이에 반발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5·28 총파업대회 집회를 벌였다.
	6월	- 문재인 대통령이 소득하위 20%(1분위)의 가계소득 감소 대책과 관련하여 재정지원 검토를 지시하였지만, 구체적인 지원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 통계청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전체 실업률과 청년층 실업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하였으며, 이로 인해 최저임금에 대한 논란이 재점화 되었다.
	7월	- '워리벨'(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주 52시간 근무제가 1일 본격 시행되었으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대상 300인 이상 사업장 3627곳 중 59%는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8월	-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서 내년 최저임금 경영계 '동결'을, 노동계 '1만790원'을 요구하였고, 고용노동부는 2019년 최저임금을 재심의 없이 8350원으로 공식 확정하였다.
	10월	- 서울시는 근로자가 최저임금보다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임금을 지급하는 생활임금을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급 1만 148원으로 확정하였다. - 고용노동부가 이재갑 신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최저임금 고용 영향' 실태조사에 착수하였다.

나. 기업 환경

2016년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을 세분화하고, 대기업 해외계열사의 거래 내역의 공시를 강화하였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9월에 전면 시행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 경제를 이루는 것을 목표로 대기업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 기업집단국(局)을 신설할 뿐만 아니라 총수일가

사익 편취 규제 대상을 확대하여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였고, 비정규직을 과다 고용한 대기업에 고용부담금을 부과하는 등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2018년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244조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적극적으로 지원한 반면,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이 3%포인트 인상(22→25%)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대기업에 대한 엄격한 규제는 지속되었다.

2016년 시행되었던 김영란법의 영향으로 농축산물의 수요가 크게 감소하여 농축수산업계에서는 김영란법의 개정을 촉구하였고, 이에 2017년 12월에 개정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하지 못해 2018년에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제외하는 개정안이 재발의되었다.

2018년 8월 공정거래위원회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크게 △법 집행 체계 개편 △대기업집단시책 개편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법집행 신뢰성 등 네 개 분야로 구성되었으며,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을 현행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 20% 이상 비상장회사에서 모두 20% 이상으로 확대하였고, 공정위가 독점했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고 ‘사안의 금지청구제’를 법원에 도입해 피해자 권한 구제 기능을 분담하며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강화한 반면 공정위의 권한은 축소시켰다.

〈표 3-11〉 기업 환경 변화 관련 주요 이슈 흐름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2016년	2월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강화 위해 ‘공정거래협약 평가기준’ 세분화하였다.
	3월	-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증권과 현대로지스틱스의 계열사 부당지원 행위와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금지 조항을 어긴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하였다.
	9월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8일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영란법 시행 한 달간 모두 301건의 신고가 접수되었다. - 중소기업 · 소상공인 10곳 중 7곳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집단의 해외계열사 거래내역 공시를 대폭 강화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권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17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는 소비진작차원에서 김영란법의 3 · 5 · 10 기준(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상한)을 올리거나 일부 예외조항 두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 금지 규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다.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45개 대기업 전체에 대한 내부 거래 실태 점검에 착수하였다.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전담 조사를 전담하는 조직 '기업집단국(局)'을 신설하였다.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정규직 과다 대기업(고용인원 300명 이상)에게 별도의 고용부담금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점검을 진행하였다. -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이하 공조부)의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책으로 '상생협력 지원 세제 4대 패키지'를 도입하였다.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마트에만 적용되어온 '의무휴업'이 백화점, 쇼핑몰, 전문점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 최고 명목세율을 22%에서 25%로 3%포인트 인상하는 법안이 통과되었다. - 김영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 · 선물 · 경조사비의 상한액을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경조사비는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는 개정안이 11일 가결되었다. - 정부가 발표한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내년 중소 ·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을 올해 234조4000억 원에서 9조7000억 늘린 244조10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일부터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된다. - 정부는 2개 이상의 금융사를 거느리고 있는 7개 대기업을 '통합감독'대상으로 지정하고 내년 7월부터 엄격한 자본규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감 몰아주기' 기준을 '총수일가 사익 편취'의 규제 대상이 되는 상장기업 지분 요건을 현행 30%에서 20%로 강화 시 28개 계열사가 규제 대상에 추가될 전망이다. -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각종 세부담을 완화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p>하고 글로벌 진출 역량이 큰 중견기업에 대한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위원회는 소액·다수의 피해자들이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와 손해배상 소송 시 자료제출명령제 도입을 추진하였다.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최대 4년간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게 연간 1000만원 가량 지원하는 청년일자리 대책을 확정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총수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예방을 위해 자산 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매년 5월31일까지 전년 계열회사 간 브랜드 사용 거래 현황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다.
	6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원영의원은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에서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 제외하는 개정안을 재발의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소속회사의 공시(△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공시)제도에 대한 실태 점검에 착수하였다.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정거래법이 38년 만에 공정위 권한 축소·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전면 개편되었다.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기업 불공정거래'익명제보가 3년간 2천 건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절반 정도만 조치완료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정보통신 및 문화기술

가. 정보통신기술

2017년부터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만능플랫폼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강조했으며, 그 중추적 역할을 인공지능(AI)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모든 산업이 AI로 진화할 것으로 전망하였고, 사람의 상황에 맞는 정교한 타겟팅 광고를 가능하게 하는 '카카오모먼트'를 3분기 내 정식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렸다.

2018년에는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로 평가가 이루어져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며, AI는 지원자의 미세한 표정변화, 목소리 톤, 자주 사용하는 단어 등을 분석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AI면접이 '공정성'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대면 면접을 대체할 수 없다고 전망하였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해 발 빠르게 인공지능(AI)기술을 도입했던 유통업체들이 서서히 가시적인 성과를 얻고 있다. 홈쇼핑업계에서는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AI를 적용해 방송편성과 모바일홈화면 편집에 활용하고 있으며, 인공지능(AI) 도입 후 롯데홈쇼핑은 편성 소요시간이 기존보다 30% 정도 단축되었고 GS샵은 시범 운영 결과 모바일 홈화면의 UV(순방문자수)가 20% 증가하였고 매출은 30% 가량 늘어났다.

2018년 10월 ICT 수출액이 반도체 호황에 힘입어 역대 2위를 기록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월 ICT 수출액이 202억 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084억 달러로, 작년 한 해 수출액인 997억을 넘어서며 단일품목 최초로 천억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2〉 2018년 ICT 수출액 수치

(단위: 천US\$)청

ICT	2018. 02 p)	2018. 03 p)	2018. 04 p)	2018. 05 p)	2018. 06 p)	2018. 07 p)
합계	15,682,758	18,942,609	17,033,794	18,497,631	19,115,442	18,554,315

자료: 통계청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그림 3-6] 정보통신기술(ICT) 연도별 9월 수출액

〈표 3-13〉 정보통신기술 관련 주요 이슈 흐름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2016년	2월	- 현대경제연구원은 '초연결시대 산업 전략-독일 스마트 산업화의 내용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한국의 스마트 산업화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독일의 스마트 서비스 전략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3월	- 코오롱그룹은 17일 이응열 회장이 1박2일 동안 전국 주요 5개 사업장을 돌며 첨단 기술 도입 현황 및 계획, 미래먹거리 소재 개발 현황 등을 점검하였다.
	7월	- 브라이언 크르자니크 인텔 최고경영자(CEO)는 '데이터센터와 사물인터넷(IoT) 사업은 인텔의 핵심 성장 엔진이 됐다'며 직원부터 사업장, 사업 프로젝트들이 이 방향으로 나란히(aligned) 갈 수 있도록 변화를 가속하겠다고 밝혔다.
	10월	- LG그룹이 전자와 통신의 힘을 합쳐 인공지능(AI) 스피커를 출시할 예정이며, KT 역시 내년 인공지능 스피커 출시를 준비 중이고 기 출시된 SK텔레콤의 '누구'와 함께 국내에서도 본격적인 'AI 스피커 대전'이 펼쳐질 전망이다. -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조지아공대와 초연결시대 미래 기술 선점과 차세대 성장전략 마련을 위해 '코오롱 라이프스타일 아노베이션 센터(이하 KOL)'를 열고 협력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2017년	2월	- 미래창조과학부는 방송통신기기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7차 ICT 정책 해우소'를 최재유 미래부 2차관 주재로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서 개최하였다.
	5월	- 카카오는 이용자 상황 고려한 타겟 마케팅이 가능한 신규 광고서비스 '모먼트'를 출시하였다.
2018년	7월	- 5G 상용화 이후 도래할 초연결시대에 '보안'이 핵심경쟁력으로 떠올랐으며 통신업계는 도·감청, 해킹 등을 원천 차단하는 기술에 역량을 쏟고 있다.
	8월	- 2018 부산국제광고제에서 '초연결시대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Connect!)'을 주제로, 광고와 콘텐츠와 생활을 연결하는 세계 광고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전시가 진행되었다. - 유럽 최대 가전 전시회 IFA 2018 공식 개막에서 김현석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이 'AI(인공지능)·IoT(사물인터넷)·5G(세대) 통신' 기술을 결합한 초연결 시대를 선언하였다.
	9월	- 로스토리는 국내 로펌 최초로 AI 기반 자동화 법률서비스를 도입하였다.
	10월	- 최근 객관적인 데이터로 평가가 이뤄져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사가 가능하다는 점으로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도입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11월	- 오리온은 하반기 대졸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AI 면접을 도입할 것을 밝혔다. - 4차산업 혁명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 포스코CT가 에너지 개발전문업체 에너지홀딩스그룹과 함께 오일·가스 등 해외 자원개발 현장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 디지털 오일필드(DoF, Digital Oil Field)' 시스템을 개발하고, 현장 적용에 나선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ICT 수출액이 202억 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3% 증가했다고 밝혔다.

나. 문화기술

문화기술이란 기존의 문화산업과 다양한 산업분야의 융합을 통해 문화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기술을 말한다. 문화콘텐츠의 기획과 상품화, 미디어 활용 등의 문화적 가치 사슬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을 모두 포함한다.

2016년에는 인공지능의 활약이 돋보이는 한 해였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 IBM 등은 인공지능을 통해 미술,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을 선보였다. 딥러닝 기술을 통하여 여러 작품들을 학습하고 새로운 작품을 창작해내었으며, 이 해에는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이용한 미술 작품 경진대회인 ‘로보 아트(Robo art)’가 처음으로 개최되었다.

또, 뮤지컬 ‘팬레터’는 국내 뮤지컬계에 새로운 시도인 공연 실황 생중계를 시도하였다. 2015년 뮤지컬 ‘데스노트’의 쇼케이스 생중계를 시작으로 온라인 공연 생중계를 시작한 네이버TV를 통해 뮤지컬 ‘팬레터’의 공연이 생중계 되었으며, 공연장에 가지 않고도 모바일과 웹에서도 공연을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후 2018년 7월까지 총 157개의 공연이 실황으로 중계되었다.

2017년에도 인공지능을 이용하여 시를 쓰는 등의 예술창작 시도는 계속 되었으며, 공연계에서도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로열셰익스피어극단은 인텔과 협업을 통해 공연에 모션 캡처와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도입하였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로봇과 함께 하는 체협 공연이 진행되었다.

2018년에는 인공지능이 문장을 그림으로 표현해주는 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최초로 인공지능이 그린 ‘에드먼드 벨라미의 초상’이 경매를 통해 432,500달러에 판매되기도 하였다.

국내에서도 문화기술을 활성화기 위한 시도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단

편이 아닌 국내 첫 VR 극영화 ‘기억을 만나다’가 개봉하였다. 또한 국립현대 미술관에서는 ‘예술과 기술의 실험(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는 융복합콘텐츠 쇼케이스 ‘영원회귀’ 전시 등이 진행되었다.

10월에 진행된 ‘2018 넥스트 콘텐츠 콘퍼런스’는 ‘미래,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다양한 문화기술이 소개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문화기술과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미래 전망을 제시하는 융복합 콘퍼런스로, 강연과 함께 전시체험 등이 함께 진행되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제2차 수정계획을 통해 문화산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첨단실감 제작 협력(클러스터) 조성 등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융·복합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는 이 방안은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포함되어있다.

〈표 3-14〉 문화기술(CT) 관련 주요 이슈 흐름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2016년	4월	- 마이크로소프트는 네덜란드의 인공지능 연구진들과 함께 ‘넥스트 렘브란트(Next Rembrandt)’ 프로젝트를 발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화가 렘브란트의 작품 350여 점을 딥러닝 기술을 통해 학습하고 유사한 화풍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목표로 추진되었다.
	5월	- 구글이 음악이나 영상, 예술작품을 창작하는 인공지능 연구 그룹 ‘마젠타’를 신설하였다. 구글의 머신 러닝 시스템 ‘텐서플로’를 활용하여 예술, 음악, 영상을 만들어 내도록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 그룹으로, 2015년 11월 오픈소스로 공개하였으며 딥러닝 기술을 활용해서 이미지를 인식·구별해낸다.
	6월	-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이용한 미술 작품 경진대회인 ‘로보 아트(Robo art)’가 처음 개최되었다. 물리적인 브러시와 페인트를 이용해 만들어진 예술작품만을 취급하며, 인공지능, 이미지 처리기술, 그리고 로봇 등 혁신적 기술과 예술의 접목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8월	- IBM은 자사의 인공지능 왓슨에게 영화 1,000개의 예고편을 사전에 학습시켜 예고편에 필요한 편집 방법을 배울 수 있도록 하였고, 그 결과 인공지능 왓슨은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스릴러 영화 '모건(Morgan)'의 분위기를 잘 살린 예고편을 만들어냈다. 예고편 뿐만 아니라 영화 자체를 인공지능이 만들어내는 시도 또한 있었다. '임파서블 씽즈(Impossible Things)'는 인공지능이 수천 개에 이르는 공포 영화를 학습한 후 스토리 배경과 대략적인 줄거리를 생성하면 인간 극작가가 제대로 된 대본을 완성해 실제 영화를 촬영했다. - 10월,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는 모차르트와 인공지능이 맞붙는 세기의 대결을 모토로 '모차르트 vs 인공지능 음악회'가 공연되었다.
	9월	- 소니 CSL(Computer Science Laboratories)이 만든 인공지능 플로우머신(Flow Machines)는 약 1만 3,000곡을 학습한 후 비틀즈풍 곡을 만들라는 요청에 'Daddy's Car'를 작곡하였다. 멜로디와 하모니만 인공지능이 제작한 후 전체 편곡과 작사는 사람이 했다는 점에서 엄밀하게 말하면 100% 인공지능은 아니지만 실제 인간도 쉽지 않은 수준의 작곡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10월	- 10월, 뮤지컬 '팬레터'는 최초로 네이버TV 캐스트를 통해 공연 전막을 생중계 하였다.
2017년	1월	- 로열세익스피어극단과 인텔은 세익스피어 서거 400주년을 맞아 '템페스트' 속 정령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모션 캡처와 실시간 렌더링 기술을 이용한 연극을 선보였다.
	4월	- 국립과천과학관에서는 국내 첫 '감성형 로봇 체험공연'이 진행되었다. 이 공연은 관람객을 로봇이 도와 임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시나리오가 진행되었다.
	5월	- 마이크로소프트가 중국에서 서비스 중인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샤오이스(Xiaoice)'를 활용해 인공지능이 작성한 시를 모은 시집 '햇살은 유리창을 잃고'를 출간하였다. 이 책은 샤오이스가 1920년 이후 현대 시인 519명의 작품을 스스로 학습해 1만여 편의 시를 집필하였으며, 이 중 일부를 시집으로 편찬한 것으로 시집 제목 역시 인공지능이 지었다.
2018년	1월	- 마이크로소프트는 문장으로 표현된 것을 인지해 그림으로 표현해 주는 '드로잉 봇(Drawing Bot)'을 발표하였다.
	5월	- 단편이 아닌 본격 극영화 형식을 시도한 국내 최초 VR 영화 '기억을 만나다'가 제71회 칸국제영화제 마르세 뒤 필름 마켓의 NEXT 프로그램 중 VR 시어터 부문 공식 상영되었다.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는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예술과 기술의 실험(Experiments in Art and Technology)' 전시를 진행하였다.
	7월	- 10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은 2018 창작작센터 융복합콘텐츠 쇼케이스 '영원회귀' 전시를 선보였다. 이번 전시에서는 '물'을 매개로 하여 예술과 과학이 결합된 콘텐츠를 선보였다.
	8월	-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제2차 수정계획을 통해 문화산업 분야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수정계획에는 한국문화기술(CT)연구원 설립·운영도 포함되었다.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경매 회사 크리스티는 뉴욕경매소에서 인공지능이 그린 '에드먼드 벨 라미의 초상'을 경매에 올랐다. AI가 그린 그림이 경매에 오르는 것은 사상 처음이었으며, 이 그림은 432,500달러에 판매되었다. - 27일,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관객이 실시간으로 함께 무대 배경 이미지를 만들고 무대 의상을 투표로 선택하고 함께 음악 연주를 하는 등 세계 최초의 시콘서트 음악극 '아리쇼'가 진행되었다. - 30일~31일, '미래,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2018 넥스트 콘텐츠 콘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이번 콘퍼런스에서는 문화기술 발전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타인의 온기를 느끼게 하는 다양한 문화기술이 소개되었다.

제3절

사회/문화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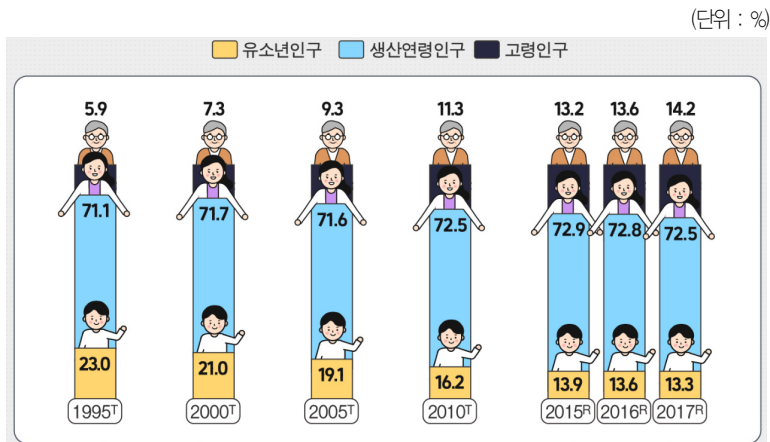
1. 인구구조

한국사회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가족의 해체, 저출산 고령화 등 인적 구성이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995년 5.9%에서 2017년 14.2%로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유소년 인구는 1995년 23.0%에서 2017년 13.3%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특히, 2017년 기준 고령인구는 유소년인구의 663만 명(13.3%)보다 48만 명 많은 712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표 3-15〉 인구구성 현황(2017년 기준)

구분	인구 수	구성비
- 유소년인구(0~14세)	663만 명	13.3%
- 생산연령인구(15~64세)	3,620만 명	72.5%
- 고령인구(65세 이상)	712만 명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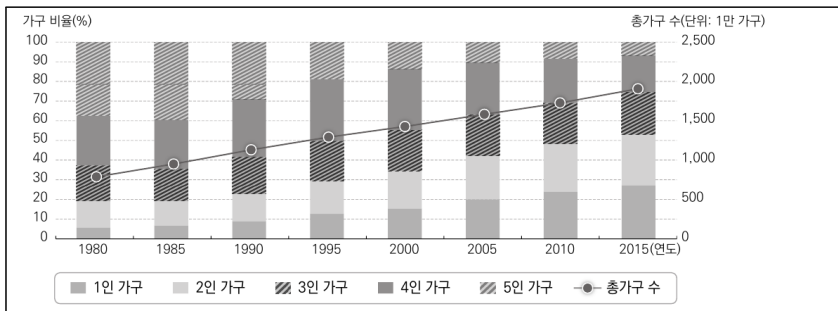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8), 2017 인구주택 총조사



자료 : 통계청(2018), 2017 인구주택 총조사

[그림 3-7] 연도별 연령 인구구조 추이

우리 사회의 4가구 중 1가구는 1인가구로 전통적인 3인 혹은 4인 가구가 아닌 혼자사는 1인가구가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될 전망이다. 1인 가구 비율은 2015년부터 27.2%로 가장 높은 가구 구성 비율을 차지하기 시작하였으며, 2016년에는 27.9%, 2018년에는 28.6%, 2025년이면 31.3%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이여봉, 2017).



자료: 이여봉(2017),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그림 3-8] 가구 구성의 추세(1980~2015년)

1인가구의 증가 원인은 자발적 1인가구의 경우, 가족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²⁾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연애, 결혼, 출산의 포기 등이고 비자발적 1인가구는 이혼 및 고령화로 인한 경우로 볼 수 있다.

1인 가구는 20대부터 70대까지 연령층별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데, 30대는 엘리트 싱글이, 50대는 불안한 독신이, 60대는 빈곤한 독거 노인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30대 1인 가구는 동년배 다인 가구보다 소득이 더 높지만, 다른 연령들은 모두 1인 가구의 소득이 다인 가구보다 낮으며 이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격차가 더 커져 60대 1인 가구는 동년배 다인 가구에 비해 소득이 절반 수준에 머물러 정서적 고독감과 경제적

2) 전국 만 13세~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가족관과 관련하여 인식 조사를 한 결과, '가족이라도 꼭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문항에 69.1%가 동의하였다. 또한 별거, 이혼 및 재혼과 관련하여 58.9%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 별거도 부정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62.0%로 요즘 이혼은 흠이 아니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황혼 이혼과는 다르게 혼인관계는 유지하지만 서로의 삶에는 간섭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졸혼문화'에도 48.6%가 찬성하였다.2 또한 '결혼은 꼭 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율은 2014년 33.1%에서 2017년 22.3%로 떨어졌다.2

취약함이 복합적인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표 3-16〉 연령별 1인 가구 수

구분	1인 가구 수 (명)	구성비(%)
19세 이하	71,808	1.3
20대	1,003,019	17.5
30대	956,758	16.7
40대	894,851	15.6
50대	961,122	16.7
60대	790,643	13.8
70대 이상	1,060,730	18.6
합계	5,738,931	100.0

자료 : 통계청(2018),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가가구

구분	1인 가구	다인 가구	다인 가구 대비 1인 가구 소득 비율
30대 미만	177만1069	195만5870	90.6
30대	266만1004	252만9233	105.2
40대	265만9629	266만6984	99.7
50대	232만5992	298만166	78.0
60대	134만2270	226만2063	59.3
70대 이상	95만2247	132만8807	71.7
1인당으로 환산한 균등화 소득기준, 단위: 원, %,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68.1(평균)

[그림 3-9] 가구원수별 가계소득(2016년)

한편 한국은 이미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고, 2017년 고령인구가 14%를 넘어서면서 UN이 제시한 기준³⁾에 따라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2000년 고령화 사회로 확정된 이후 17년 만에 고령사회로 넘어갔다. 이는 1970년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1994년 고령사회가 되어 24년이

3) UN의 고령화 사회 분류 기준에 따르면 총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차지하는 구성비를 기준으로 고령화사회(aging society) 7%~14%미만, 고령사회(aged society) 14%~20%미만, 초고령사회(super-aged society) 20%이상으로 구분됨

걸린 일본보다 빠른 속도이다. 이후 일본은 2007년 초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한국은 불과 7년 후인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표 3-17〉 한국과 일본의 고령사회 변화 시기

단계	진입시기	
	한국	일본
고령화사회	2000년	1970년
고령사회	2017년	1994년
초고령화사회	2025년 전망	2007년

고령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출산율은 낮은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지속된다면, 2017년의 생산가능인구(15-64세) 3,750만 명에서 2020년에는 3,727만명으로, 그리고 2040년에는 2,94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가구유형은 2016년 1인 가구가 27.9%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전통적인 4인 혹은 3인 가구 유형을 2015년 1인가구가 추월하면서 지금까지 가장 높은 가구유형을 나타내고 있다. 2016년 기준 가구 유형에서 27.9%로 가장 크고 다음으로 2인 가구(26.2%), 3인 가구(21.4%), 4인 가구(18.3%) 5인 이상 가구(6.2%) 등 순을 나타내고 있다.

〈표 3-18〉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단위: 천가구, % 명)

	일반가구	계							평균 가구원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이상	
2000	14,312	100.0	15.5	19.1	20.9	31.1	10.1	3.3	3.12
2005	15,887	100.0	20.0	22.2	20.9	27.0	7.7	2.3	2.88
2010	17,339	100.0	23.9	24.3	21.3	22.5	6.2	1.8	2.69
2015	19,111	100.0	27.2	26.1	21.5	18.8	4.9	1.5	2.53
2016	19,368	100.0	27.9	26.2	21.4	18.3	4.8	1.4	2.51

자료 : 통계청(2018), 2017 한국의 사회지표

합계출산율은 2017년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전년의 1.17명보다 0.12명 감소하였으며, 2005년 1.08명 이후 다시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2010~2015년에 기록된 1.23명은 세계에서 4번째 낮은 수준이다.

〈표 3-19〉 세계 주요국가 합계출산율

(단위 : 명)

구분	1970 -75	1975 - 80	1980 -85	1985 -90	1990 -95	1995 -00	2000 -05	2005 -10	2010 -15	2015 -20
미국	2.03	1.77	1.80	1.91	2.03	2.00	2.04	2.05	1.88	1.89
프랑스	2.30	1.87	1.87	1.81	1.71	1.76	1.88	1.98	1.98	1.97
브라질	4.68	4.28	3.82	3.16	2.72	2.47	2.13	1.86	1.78	1.70
영국	2.01	1.73	1.78	1.84	1.78	1.74	1.66	1.87	1.88	1.87
중국	4.77	3.00	2.55	2.73	1.90	1.51	1.55	1.58	1.60	1.63
캐나다	1.98	1.73	1.63	1.62	1.69	1.56	1.52	1.64	1.61	1.56
스페인	2.85	2.55	1.88	1.46	1.28	1.19	1.29	1.39	1.33	1.39
이탈리아	2.32	1.89	1.52	1.35	1.27	1.22	1.30	1.42	1.43	1.49
독일	1.71	1.51	1.46	1.43	1.30	1.35	1.35	1.36	1.43	1.47
일본	2.13	1.83	1.76	1.65	1.48	1.37	1.30	1.34	1.41	1.48
한국	4.00	2.92	2.23	1.57	1.68	1.50	1.21	1.17	1.23	1.32

자료 : 통계청 국제통계연감 합계출산율 2018.6월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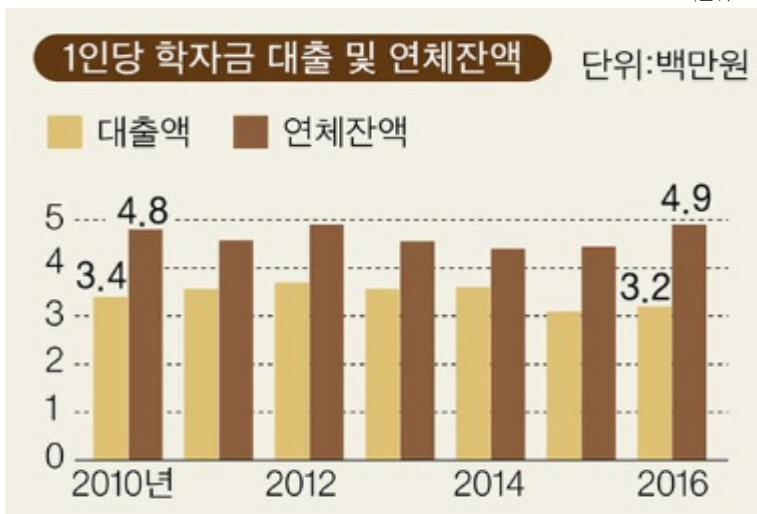
주 : 한 여성이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2. 세대 특성

1980년대~2000년대 초반에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는 주거 불안, 소득 감소 등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이면서 소비트렌드를 이끄는 세대이기도 하다. 2016년에는 영국 <가디언>이 ‘룩셈부르크 소득 연구’(LIS)의 ‘국가간 데이터 센터’자료를 분석한 결과, 오스트레일리아, 영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미국 등 8개 선진국의 은퇴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늘어난 반면 밀레니얼 세대, 혹은 와이(Y) 세대의 소득은 평균 소득에 비해 20%나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투자은행 크레디트스위스는 2017년 발간한 ‘글로벌 부 보고서(Global Wealth Report)’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학자금 대출, 대출 규제, 집값 상승 등에 시달리고 있다고 분석했으며,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기준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연령대별 평균소득은 29세 이하가 182만원, 60세 이상이 186만원으로 29세 이하 청년층이 60세 이상 노년층보다 소득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 %)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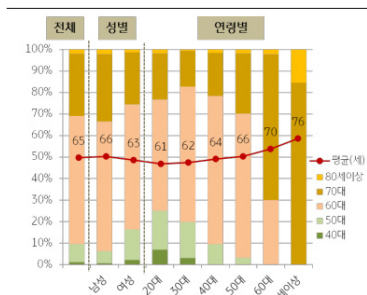
[그림 3-10] 1인당 학자금 대출 및 연체잔액 그래프

또한 밀레니얼 세대는 가격뿐 아니라 심리적 만족과 경험을 중시하는 소비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온라인 쇼핑몰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 코리아 또한 올해 쇼핑 트렌드로 ‘자기 만족을 위해 과감히 지갑을 여는 소비’를 꼽아 향후에도 만족도가 뚜렷하게 느껴지는 상품들이 주목 받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시기가 가까워오고, 100세시대를 맞이함에 따른 젊어진 은퇴세대의 근로희망, 미래대비가 중요한 사회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KB금융이 발표한 ‘2017 KB골드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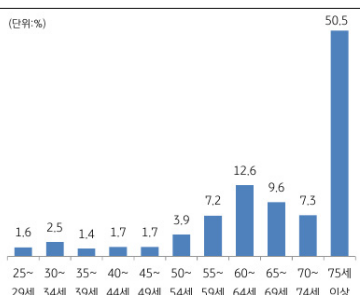
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65세지만 실제 완전 은퇴 연령은 약 75세로 추정돼 약 10세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그림 II-5] 희망하는 은퇴 연령



주) 전체(응답자가 은퇴 전인 경우) n=1,585

[그림 II-6] 실제 은퇴 연령



주) 전체(응답자가 은퇴 후인 경우) n=219.

20대와 30대의 경우 사례수가 적어 상기 제외

자료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7), 2017 KB골드라이프 보고서

[그림 3-11] 희망하는 은퇴 연령 및 실제 은퇴 연령 그래프

이에 보건복지부는 베이비붐 세대 801만명(지난해 기준 50~59살)을 대상으로 마치 건강검진을 받듯이, 재무 상태와 건강상태, 여가활동, 대인관계 등에 대해 노후준비 진단을 받도록 하는 ‘제1차 노후준비지원 5개년 기본계획’(2016~2020년)을 발표한 바 있다.

〈표 3-20〉 세대 특성 변화 관련 주요 이슈 흐름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2016년	3월	- 영국 <가디언>이 8개 선진국의 세대간 소득 분석한 결과, 은퇴 고령자들은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아진 반면 밀레니얼 세대 혹은 Y세대의 소득이 평균 소득에 비해 20%나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8~9월 전국 20~64살 남녀 1천명을 대상으로 한 부양실태를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전체의 10%에 해당하는 102명이 자신이 부양하는 25살의 성인 자녀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11월	- 통계청의 201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고령화로 인해 ‘부부관계’의 수명도 길어지고 있고,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생)의 경우 자녀 독립 이후 부부만 같이 사는 기간이 그들의 부모 세대보다 14배가량 길어질 전망이다.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2017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은행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에서 베이비붐 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년에는 21.6%였지만 2024년에는 11.9%까지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 반면 은퇴연령인구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비중은 2019년 31.9%, 2024년 55.0%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 복지부는 전국민 노후설계 57개년 계획을 통해서 2020년 이후 노인이 되는 베이비붐 세대 801만명(지난해 기준 50~59살)을 대상으로 재무·건강·관계·여가 맞춤 진단을 지원할 것을 밝혔다.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회사 JP모건체이스는 밀레니얼 세대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일자리 보고서를 제공하였고,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또한 직업교육지원 학비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인 '2017 딜로이트 밀레니얼 서베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밀레니얼 세대의 경제 낙관지수는 -1%로 27개국 가운데 20위에 머물렀다고 밝혔다.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는 만 50세에서 67세까지의 '50+세대'가 은퇴 후에도 이들의 사회적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학교와 마을, 복지시설 등에서 활동을 하고, 소정의 활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공헌 일자리 2000개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T는 '청춘기(氣)업 토크콘서트 #청춘해'(이하 청춘해)를 통해 'N포 세대', '청년실신(청년실업+신용불량)', '흙수저' 등 청년들의 암울한 현실을 상징하는 신조어가 쏟아지는 시대의 청년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람과의 문자 대화를 통해 질문에 알맞은 답이나 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SW)인 챗봇이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밀레니얼 세대가 주요 소비자로 등장하면서 챗봇 시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1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베이비부머의 은퇴 후, 일과 사회공헌을 주제로 '고령사회전문가포럼'을 진행하였다.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에 따르면 희망하는 은퇴 연령은 평균 65세지만 실제 완전 은퇴 연령은 약 75세로 추정돼 약 10세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 글로벌 시장조사 업체 핀포인트마켓리서치에 따르면 20, 3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58%는 '회사가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삶과 일의 균형을 존중하는 근무환경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이직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레니얼 세대의 라이프스타일 분석 결과에 따르면 밀레니얼 세대에서는 가격 대비 마음의 만족을 일컫는 신조어 '가심비'가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의 언급량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덤벨 이코노미(아령 경제)'가 뜨고 있다며 나이 든 세대보다 술을 덜 마시고 운동에 몰두하는 밀레니얼 세대의 여가 문화는 덤벨 이코노미의 중요한 동력이라고 밝혔다.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셋은퇴연구소의 설문 결과 5060세대 세 집 가운데 한 집(34.5%)은 성인 자녀와 노부모 모두를 부양하거나 지원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삶의 질', '건강', 'SNS를 통한 소통'을 중시하는 밀레니얼 세대들을 겨냥하여 식품업계에서도 체험형 마케팅을 통해 새로운 차원의 푸드 라이프스타일을 제시하며 국내 소비자를 공략하고 있다.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7월	- 가치 소비를 추구하는 밀레니얼 세대(1980년대 이후 출생자)가 소비의 중심으로 떠오르면서 '개념 있는 소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8월	- 공유경제가 주목받으면서 '우버', '에어비앤비', '위워크' 등 주거공간은 물론이고 서로의 라이프 스타일까지 공유하는 코리빙(co-living)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 미국 경제매체 CNBC는 밀레니얼 · 포스트 밀레니얼 세대(2000년 이후 출생자)만의 특징인 비밀번호 공유 문화로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 밀레니얼 세대의 소비는 '나를 위한 소비', '맞춤형 소비'로 대표되며, 기존 대기업 브랜드 상품보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의 개성있는 제품을 선호하거나, 소셜미디어서비스(SNS)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비하는 경향을 보인다.
	11월	- 직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서 젊은 세대에겐 적성, 여가와 휴식을 위한 퇴사가 증가하고 있다.

3. 집단 갈등

가. 난민 관련

2016년에 유럽연합(EU)은 난민 유입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난민이 최초로 도착한 곳과 상관없이 회원국에 끌고루 분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난민 분산 수용안을 거부하는 회원국에 1인당 3억원 넘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유럽연합(EU)의 난민 유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계속되자 영국은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를 선언하였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는 강경한 반(反) 난민 기조의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유엔 사무총장은 "테러리스트의 침입을 막고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아니다"며 행정명령의 철회를 공개적으로 촉구하였다.

그러나 미국 정부는 난민 기구 지원금을 삭감하고, 미국 이민국의 조직 강령에서 '이민자들의 나라'라는 문구를 삭제하며 난민 유입에 대한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였다.

2018년에는 한국에서도 예멘 국적 난민의 제주도 유입이 급증하면서

인권위원회는 난민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지만, 이에 반해 자국민의 치안과 안전의 문제를 제기하는 ‘난민 신청 허가 폐지’ 청와대 국민 청원은 역대 최대를 기록하였다.

2018년 7월 한국에 입국한 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가입을 권유한 30대 시리아인이 경찰에 구속되고, 과거 예멘인의 성추행 사건 등이 이슈화 되면서 예멘 난민 수용에 대한 논란이 이어졌다.

6월 30일에 이어 7월에 ‘예멘난민수용 반대, 무사증·난민법 폐지’ 2차 집회가 개최되었다. 청와대는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하여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지만,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심사기구를 통해 난민 심사의 전문성은 높이고 심사 기간은 단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제주 예멘 난민 신청자 가운데 영유아 동반 가족, 임신부, 미성년자, 부상자 등 인도적 차원에서 보호 필요성이 높은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였고, 이와 같은 정부의 결정에 서울 도심에서는 난민 찬반 집회가 열렸다.

나. 성소수자 관련

2016년에는 제 17회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고 축제에는 한국성소수자인권단체, 한국성소수자부모모임,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등 성소수자 단체를 비롯해, 미 대사관과 다국적 기업 구글이 참여하였다.

2017년에는 젠더 토크쇼 프로그램 ‘까칠남녀’의 성 소수자 특집을 내보낸 후 일부 학부모들이 EBS 사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프로그램 폐지를 촉구함. 또한, CBS 교양 프로그램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에서도 성소수자의 강연 영상을 인터넷에 게시했지만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가 성명을 내고 비난하자 다음날 영상을 비공개 처리하였다.

2018년에는 동성 군인 간 성관계가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아왔지만 서울북부지법이 이례적으로 첫 무죄를 선고하였다.

정부는 동성애와 관련해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3월 성소수자 인권이 포함된 유엔 인권이사회에 권고를 사회적 논란을 우려하여 불수용하기로 결정했고, 서울에서는 퀴어문화축제에 맞서는 동성애반대 집회가 열리며 동성애 논란이 이어졌다.

2018년 8월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해 차별금지 법제를 정비하고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NAP는 보고서를 통해 성소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종교계 등의 이견이 큰 상황이라며 다양한 차별금지 사유와 영역을 포괄적으로 규율함으로써 차별금지 관련 입법적 공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2018년 9월에는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고, 축제에는 성소수자 단체와 진보 시민단체 관계자 등 700~800명이 참석하였다. 그러나 기독교 단체와 보수 시민단체 관계자 1천여 명이 축제 개최를 반대하는 집회를 열면서 양측간 마찰이 빚어졌고 오후 들어 행사도 사실상 중단되었다.

〈표 3-21〉 성소수자 관련 변화 주요 이슈 흐름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2015년	11월	- 국내 대학 최초로 동성애자로 커밍아웃한 성소수자가 서울대 총학생회장에 당선되었다.
2016년	6월	- 11일 서울광장에서 제 17회 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2017년	6월	- 4일 마포아트센터에서 아시아 성소수자 합창페스티벌 '핸드인핸드 서울 2017' 개최되었다. - 성소수자 차별을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지방자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결정이 나왔다. -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기관으로는 처음으로 다음달 14~15일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 '퀴어문화축제'에 참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7년 제9회 대구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소수자 차별 금지와 대체복무 허용, 사형제 폐지를 담은 자체 헌법개정안을 발표하였다.
	7월	- 제18회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되었다.
	9월	- 예정통합 정기총회 마지막 날 회무에서 총대들은 '동성애와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입장'이 담긴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 부산에서 1000여명이 참가한 첫 퀴어문화축제가 열렸고, 축제장 맞은편에서 4000명이 모여 동성애반대 맞불 집회를 개최하였다.
	10월	- 28일 신산공원에서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다.
	11월	- 세상을 바꾸는 15분(세바시) 제작진은 일부 기독교인들의 반발에 따라 성소수자의 강연을 비공개 처리하였다.
	12월	- 일각에서 교육방송(EBS)의 젠더 토크쇼 프로그램 '까칠남녀'의 'LGBT(레즈비언·게이·바이섹슈얼·트랜스젠더) 성소수자 특집 방송 금지를 요구하였다.
2018년	2월	- 법원은 동성 군인 간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은 예비역 중위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3월	- 정부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의 권고 중 성 소수자 인권 관련 권고는 모두 불수용하기로 하였다.
	6월	- 한국 최초로 '성 중립' 메이크업 브랜드 '라카'가 등장하였다.
	7월	- 20여개 교계 및 시민단체가 동성애와 동성애 옹호 입법을 막기 위해 '제11차 탈(脫)동성애 인권포럼'을 개최하였다. - '대구 동성로/서울 시청광장 퀴어행사(동성애축제) 개최를 반대합니다'라는 청원에 20만7000여명이 동의하였다. - 현대차 싼타페의 글로벌 캠페인 영상에 레즈비언 커플 결혼식 장면이 등장하였다. - 14일 서울광장에서 제19회 서울퀴어축제가 개최되었다.
	8월	- 정부는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해 차별금지 법제를 정비하고 성 소수자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9월	- 8일 동인천역 북광장 일대에서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가 개최되었고, 보수 단체의 맞불 집회가 열리면서 마찰이 빚어져 행사가 중단되었다.

다. 성별문화 관련

2015년에 국악단원들의 성추행·성폭행 피해 주장 하에 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 감독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불거져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서게 되었고, 이는 문화

예술계에서 만연하는 성추행·성희롱을 폭로하는 시초가 된 사건이었다.

문학계에도 점차 성추문이 확산되며 문인들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가 잇따라 나오면서 박범신 작가, 박진성 시인, 배용제 시인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홍대 미대생들의 폭로와 함께 대학가로도 성추행 파문이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2017년에는 김기덕이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되며 영화계에서의 성추문이 공론화가 되었다. 또한, 할리우드 거물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 십 년간 성희롱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미투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켰으며, 이에 정부는 성폭력 피해 현황과 관련 정책을 살펴보고 논의를 진행하고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 지원자 지침서’를 배포함으로써 대응책을 마련하기 시작하였다.

2018년에 미국 그라미 시상식에서 스타들이 평화와 저항의 상징인 하얀 장미를 들거나 가슴에 달고 등장하며 미투 운동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하였다. 한국에서는 현직 여성 검사가 성추행 경험을 폭로 한 것이 ‘미투 운동’의 시작이 되어 배우 이명행, 연극 연출가 이운택, 배우 조민기, 배우 조재현 등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성추행 의혹을 받아 직급에서 사퇴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1~3월 성희롱·성추행 등의 문제로 인권상담센터에 상담전화가 온 건수는 23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174건의 상담전화가 걸려온 것과 비교하였을 때 33%가 증가되었다.

점차 확산되는 ‘미투 운동’에 정부는 성범죄 가해자가 문화예술단장일 경우 해임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며, 문화예술계의 성폭력·성희롱 특별조사단이 신고센터로 확대 되어 상담 지원 체계를 마련하였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되었지만, 8월 재판부는 1심에서 업무상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고, 피해자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학내 성폭력과 성차별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Me Too · 나도 피해자다)’가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확산되고 있다. 스쿨미투는 2018년 1월 서지현 현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 검사의 성추행 폭로의 영향을 받아 시작돼 상반기에 약 20여개교에서 폭로가 이어졌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스쿨미투가 발생하면 ‘학교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따라 필요 시 학교 폭력대책자치위원회 등을 열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4장 ●●

2020 10대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재질

시간민감성의 시대, 여가를 즐기자

1. 근로시간 단축제로 여가와 서비스 산업 시대 본격 개막

가. 시간의 확보 = 행복감, 시간민감성(Time Sensitivity)의 시대

물질이 풍요로운 시대를 살게 되면서 시간부족이라는 새로운 빈곤 문제가 부상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시간에 대한 기회비용을 보다 가치있고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시간부족(time famine)이라는 용어는 산업 사회에 접어들면서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해야 하는 일이 많은데 충분한 시간이 없는 현상이 문제되자 시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유사한 여러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학자에 따라 시간 빈곤(time poor), 시간 스트레스(time stress), 시간 압박(time pressure), 시간 결핍(time deficit)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모두 정해진 시간을 부족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시간부족에 대한 인식 논의는 90년대에는 노동시간과 시간부족 인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Schor, 1991)에 집중하다가 점차 여가시간을 벌 수 있는 소비와 만족감, 행복감 등의 효용에 대한 논의로 발전하였다. 대표적인 연구로 Whillans 외(2017)는 일상생활에서 시간부족 인식이 높아지면서 자신을 위한 여가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청소, 요리 등 가사를 대행하는 제품 및 서비스 소비에서 행복감을 느끼는 것을 확인하였다. 삶에서 물질적 가치보다 자신을 위한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본 절에서는 시간에 대한 인식, 민감성이 높아진 현상을 시간민감성(TS: time sensitivity) 시대로 보고 한국사회에서 시간민감성에 영향을 미친 근무시간 단축제도 시행과 관련 여가환경의 변화를 중심으로 트렌드를 전망하였다. 시간민감성은 마케팅에서 시간(물리적 거리 포함), 가격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개념인데, 가격에 대한 심리적 저항과 민감성 측정연구가 주를 이루다가 최근 시간에 대한 인식과 민감도를 측정하는 연구로 확장되고 있다. 시간부족 사회에서 24시간 정해진 시간이 돈보다 값지고 삶의 질에 직결되는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이다.

2018년 7월 1일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근무시간 이외의 가용시간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면서 자유시간, 여가시간에 대한 인식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제한되고, 구체적으로 하루 최대 8시간, 휴일근무를 포함한 연장 근로는 총 12시간까지 법적으로 허용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기까지 한국사회에서 노동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좋은 직장의 기준도 일과 삶의 균형을 의미하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⁴⁾ 중심이 되었다. 적당히 벌고 아주 잘 살기를 희망하는 워라밸 세대에게 일과 여가 활동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 워라밸의 확산은 다음의 두 설문조사의 결과를 통해서도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6년 3월 한 취업 포털에서 구직자 2,935명을 대상으로 ‘직장 선택의 기준’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경력직은 ‘연봉수준(24%)’, 신입직은 ‘근무시간 보장(24.8%)’으로 나타났다. 또한 엠브레인과 매경이코노미가 전국 20~50대 직장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갈수록 사내 개인주의 문화가 증가하고 있다’는 의견에 62.3%가 동의하였으며, 20~30대일수록 개인주의 문화가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40대 이상은 개인주의가 단점이 더 많다고 느끼고 있다고 나타났다. 두 설문조사를 종합해 보았을 때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자신의 시간을 중요시 여기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업에서는 총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근로자가 그 범위 내에서 시업시간 및 종업시간을 스스로 결정하여 근로

4) 워라밸 용어는 일하는 여성들이 일과 가정(Family)의 양립에 한정되어 사용되다가 노동관의 변화와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를 배경으로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개념으로 발전하였음

하는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 선택근무제, 재량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를 운영하면서 여가시간을 가치있고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다.

한편 KT가 주52시간 근무제가 시작된 7월 1일부터 9월 16일까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주요 SNS에서 언급되는 키워드 빅데이터 분석 결과 ‘여가’, ‘퇴근’, ‘육아’ 등 업무 시간 외 활동과 관련된 단어들이 언급량 순위 상위에 랭크된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워라벨’의 언급량은 2,152회에서 21,663회로 작년 동기간 대비 10배나 증가하여 단축근무제 도입과 일과 삶의 균형, 여가시간에 대한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델파이조사에 의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비용 부담, 임금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보다(17.5%), 늘어난 여가시간이 문화예술서비스의 신규 수요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60%)으로 전문가들은 평가하였다. 즉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임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여가시간이 새로운 산업이 되고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여가는 단순히 남는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재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즐겁게 잘 노는 시간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표 4-1〉 2차 델파이 결과 - 주52시간 근무제로 인한 문화소비 관련 방향성

(A방향성)	A 방향성에 더 가깝다	A, B 동등하다.	B 방향성에 더 가깝다	(B방향성)
주5일제 시행으로 늘어난 가용 일자들(토요일) 관광으로 채우는 수요가 증가했듯이,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서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요구가 문화소비를 촉발할 것	22.5% (n=9)	17.5% (n=7)	60.0% (n=24)	직업의 차이, 경제적 차이, 가족구성원의 차이, 지역규모 등 개인이 속한 환경차이에 따라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형태가 달라 문화소비 격차가 커질 것

나. 퇴근 후 여가관련 시장 확대

지난 7월 1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라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가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근무시간 외에 여가시간이 증가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유통가, 영화관, 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한 것이다. 문화예술기관들은 퇴근 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전시·공연 시간을 변경하였다.

공연장에서는 보편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평일 저녁 8시 공연을 막차 시간과 직장인들의 출근을 고려하여 30분가량 앞당기고, 평일 오후 8시 공연과 저녁 식사, 호텔 숙박권 등을 결합한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롯데백화점, 이마트 등에서는 퇴근시간에 맞춰 사용할 수 있는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운동을 시작하는 직장인들을 겨냥해 피트니스 브랜드 할인 행사를 진행하였다. 쇼핑뿐만 아니라 문화센터에서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저녁 강좌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강좌를 2017년에 비해 150% 늘렸으며, 신세계백화점에서는 지난해보다 같은 기간보다 강좌수를 1,900개 증설하였다. 특히, 오후 5시 이후의 강좌 수를 10%, 수강생을 15% 가량 늘렸으며, 현대백화점도 오후 6시 이후 강좌를 지난 여름학기 대비 최대 20% 증설하였다. 공연계에서도 퇴근 후 직장인들의 발길을 사로잡기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다. 공연 예매사이트 인터파크에서는 ‘2018 워라벨 프로모션’을 진행하며 27개의 뮤지컬, 연극 등 공연과 전시 상품을 최대 87% 할인하였다. 또한 전시행사에서도 다양한 할인 이벤트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여가시간 증가로 인해 기존 사업들의 문화예술서비스화, 신종 문화예술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문화예술기관들의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기획, 프로모션, 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것이 3.73점으로

발현가능성을 높게 보았다. 또한 주52시간 근무제가 ‘시간’의 단축이기 때문에 퇴근 후 생활 권 내에서 문화소비가 증가될 것에 3.98점의 높은 발현가능성을 나타내었다.

〈표 4-2〉 2차 델파이 결과 - 주 52시간 근무제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대안 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5점 만점)					
	평균	응답별 비율(빈도)				
		1	2	3	4	5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워라밸 문화 확산,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5일제와 달리 ‘요일’의 단축이 아닌 ‘시간’의 단축이므로 퇴근 후 생활권 내에서 문화소비가 증가될 것	3.98 점	-	5.0% (n=2)	12.5% (n=5)	62.5% (n=25)	20.0% (n=8)
여가시간 증가로 인해 기존 사업들의 문화예술서비스화, 신종 문화예술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문화예술기관들의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기획, 프로모션, 서비스제공 등의 노력이 적극 확대될 것	3.73 점	-	17.5% (n=7)	10.0% (n=4)	55.0% (n=22)	17.5% (n=7)

실제로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전후를 비교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근무시간은 줄어들고 여가관련 지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KT가 생활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⁵⁾한 결과 대기업과 공공기관이 밀집한 광화문 일대의 직장인 평균 근무시간이 55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전지역에서 고르게 출근시간은 늦어지고 퇴근시간은 빨라졌다. 한편 BC카드의 가맹점 매출 빅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8월19일부터 9월15일까지 서울시 여가 활동 관련 업종의 매출이 전년 동기간 대비 평균 9.2% 증가됐다. 증가된 여가 활동 매출 규모는 BC카드 기준 16억 원에 달한다.

5) 휴대폰과 기지국이 주기적으로 교환하는 신호정보를 바탕으로 유동인구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52시간 근무제 도입 후 8월1일부터 9월16일까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의 직장인 일 평균 근무시간(체류시간)은 작년 동기간 대비 평균 55분 감소

2. 나에 의한, 나를 위한, 문화여가 시간에 집중하는 사람들

가. 기능보다 감성, 자신만을 위한 문화여가 소비가 대세

1인 가구 및 고령인구로 인한 외로움, 고독감 등 정서적 갈증이 소비특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자신의 감정적 만족감, 행복감을 위한 소비가 시장을 이끌고 있다. 가격대비 기능 및 성능을 중시하던 가성비(價性比) 추구 소비에서 가격대비 만족감을 중시하는 가심비(價心比) 추구 소비를 선호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가심비 높은 상품군은 주로 여행, 굿즈 등 생활필수품이 아닌 감성 만족품인데, 기능이 아닌 가치에 지출을 하는 것으로 문화콘텐츠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최근 굿즈 열풍을 중요한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아이돌 스타나 영화 캐릭터와 연관된 상품을 의미하는 굿즈에 대한 관심과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다. HS애드의 조사에 따르면 SNS상에서 굿즈 언급량이 2013년 123만 건에서 2017년 1,182만 건으로 약 10배 증가하였고, 전체 캐릭터 관련 시장은 국내 12조원, 전 세계 200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특히 2018년 2월 진행된 평창동계올림픽에서는 마스코트 수호랑과 반다비의 인기에 힘입어 관련 굿즈가 모두 매진되고 인형 품목만 총 120억 원 판매되었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예술계의 굿즈 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 5점 만점 중 4.00점으로 높은 정도의 동의를 나타냈다. 사회, 정치, 경제, 문화 전 영역에 걸쳐 소비는 더욱 다변화될 것이며,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키덜트 등 피규어를 즐기는 40대 이상과 일부 고령층에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굿즈가 판매되는 등 다양한 세대에서 나타날 전망이다라는 의견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또한 전문가들은 가심비, 소확행 등의 소비 성향을 반영하여 굿즈 산업은 확대될 것이며, 예술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에 대한 발현 가능성을 5점 만점에 3.85점으로 평가하였다.

〈표 4-3〉 2차 델파이 결과 - 굿즈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대안 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5점 만점)					
	평균	응답별 비율(빈도)				
		1	2	3	4	5
예술계의 굿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다양한 수요에 맞춰 상품 개발이 진행되는 등 예술계 굿즈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4.00 점	-	2.5% (n=1)	10.0% (n=4)	72.5% (n=29)	15.0% (n=6)
소확행 등의 소비성향을 반영하여 굿즈산업이 확대되고, 이는 예술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	3.85 점	-	7.5% (n=3)	12.5% (n=5)	67.5% (n=27)	12.5% (n=5)

나. 여가시간은 돌봄과 휴식에서 문화여가활동으로 이동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이후 퇴근 후 여유시간이 생기자 그동안 자신의 생활에서 부족하였던 돌봄, 휴식시간에서부터 운동, 취미·오락, 문화생활까지 다양한 여가활동이 나타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3개월 시점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문화여가생활 변화 실태조사’⁶⁾에 따르면, 73.9%가 노동시간 단축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였고, 단축 근무를 시행하는 직장인 가운데 51.3%가 실제 여가시간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여가부문 카드지출액은 지난해 7월에 비해 3% 증가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여행(4.2%)과 취미·오락(3.1%) 부문의 경우 주중과 주말 모두 증가했다. 스포츠 부문의 경우엔 주중 소비자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동거리, 비용 등의 진입장벽이 낮은 ‘헬스’의 경우 15.3% 증가했고, 주중 증가율은 17.3%로 더욱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소셜미디어(SNS)에 노출되는 노동시간 단축 관련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퇴근 후 생활’에 대한 담론이 노동시간 단축 시행 이전(2개월)보다 이후(2개월) 14% 증가했다. 특히, 가족, 친구, 혼자, 반려동물

6)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근로자 1209명을 대상으로 조사

등에 대한 담론이 증가했으며, 책, 산책 등과 같은 소극적 활동보다는 공연(19%), 맥주(16%), 뮤지컬(14%) 등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현재까지는 전체 직장인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가기 때문에 제도도입 3개월 시점의 조사 결과는 여가시간 확대와 일과 삶의 균형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동 조사 결과에서 응답자들은 근무 외 시간 활용에 대해 현재는 ‘건강·휴식 활동’, ‘취미오락 활동’, ‘가사와 육아’를 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답했으나, 앞으로는 ‘문화예술 관람(참여)’, ‘국내관광’ 등 보다 다양하고 적극적인 여가활동에 기대를 나타냈다.

〈표 4-4〉 근무시간 외 시간을 활용한 여가활동의 시기적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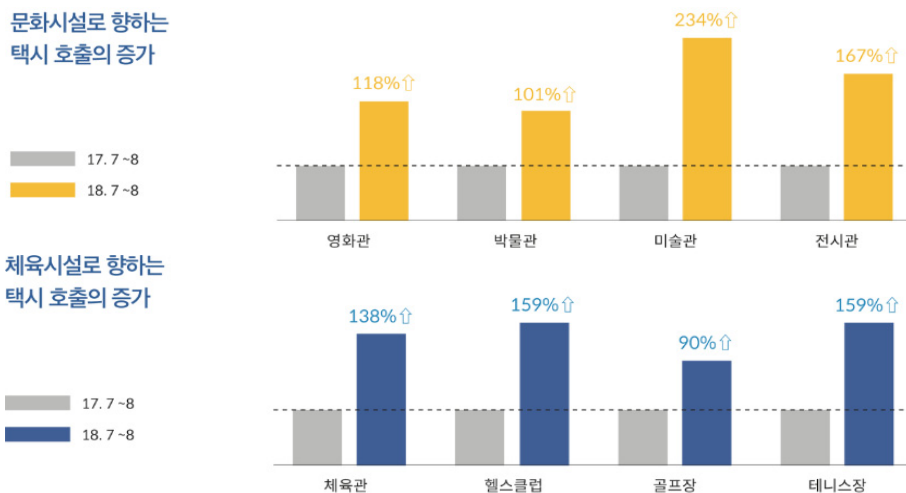
(단위 : %)

구 분	현 재		미 래	
	단축근무 시행	단축근무 미시행	단축근무 시행	단축근무 미시행
건강/휴식 활동	85.0	82.0	75.3	72.8
취미오락활동	58.0	58.3	46.4	53.8
가사와 육아	49.9	41.5	36.9	26.6
문화예술활동 관람	31.7	36.9	32.5	34.5
스포츠 관람	15.3	16.7	13.0	13.1
국내관광	17.2	16.7	27.3	29.9
스포츠 참여	10.1	9.0	13.2	15.6
문화예술활동 참여	11.2	10.8	13.3	14.0
추가 경제활동 (투잡)	5.7	10.6	11.3	14.4
사회/봉사 활동	4.7	6.8	8.4	6.8
해외관광	5.5	6.8	19.4	16.7
기타	5.7	3.8	2.9	1.6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문화여가생활 변화 실태조사

이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 초기인 현재로서는 그동안 피로도가 높고 시급하게 미루어두었던 돌봄, 휴식 등의 여가시간 활용에 우선순위를 두겠지만, 제도정착과 함께 점차 자신이 좋아하고 희망하는 문화적 여가활동으로 여가시간을 채우게 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주 52시간 시행 뒤 문화·체육시설로 가는 이동량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2018’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에 축적된 목적지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이후 7~8월 문화·체육 시설로 이동량은 전년 동기에 비해 큰 증가 폭을 보였으며, 특히 미술관이 234%로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정주환, 2018).



[그림 4-1] 문화·체육시설로 향하는 택시 호출 변화량

다. 취향을 나누는 살롱문화의 확산

최근 서로의 취향을 나누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일종의 사교모임인 살롱(Salon)문화가 사회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다. 살롱은 프랑스어로 방을 뜻하는데 살롱문화는 18세기 중반 프랑스에서 예술가와 지성인이 모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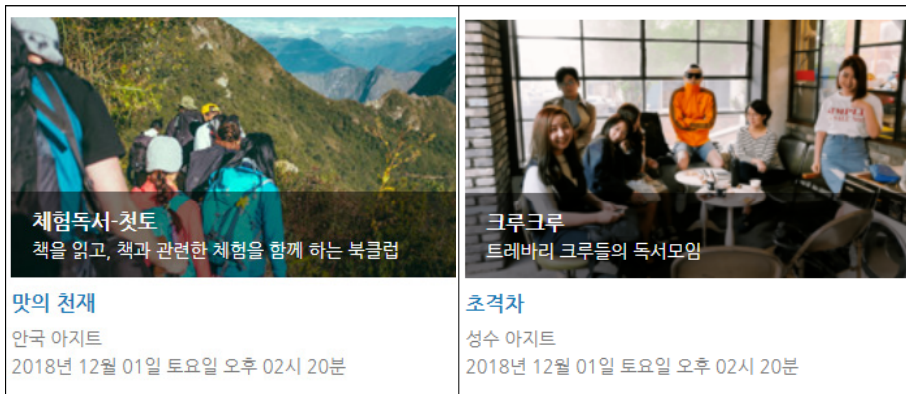
지식을 나누고 토론을 하던 사교모임을 의미한다. 프랑스의 살롱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과 생각을 나누는 것을 중요하게 여겨 남녀 노소, 신분, 직위에 상관없이 대화하고 토론하였다. 이러한 살롱문화가 최근 우리사회의 커뮤니티 모임에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살롱문화에 사람들이 모이고 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취향관’, 인문예술공유지(地) ‘문래당’, 소셜 살롱 ‘문토’, 창작자 커뮤니티 ‘안전가옥’, 독서모임 ‘트레바리’ 등에서 살롱문화가 퍼지고 있다.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취향관은 양옥을 개조한 공간으로 1층에는 거실과 바, 2층에는 소규모 모임을 위한 방이 있는데, 이 공간에서는 서로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음료와 술을 마시면서 취미를 공유하고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다. 문래당은 ‘인문학과 예술이 공유되는 땅’이라는 컨셉으로 서울 문래동의 한 건물에서 다양한 책과 여러 사람이 모여 앉을 수 있는 책상에서 연구자, 예술가, 작가 등이 주축이 되어 서로 대화하고 취향에 맞는 공연을 보기도 한다. 소셜살롱 ‘문토’는 영화, 요리, 글쓰기 등 취미가 맞는 사람들이 리더를 섭외하고 모임을 구성하고 있다. 성수동의 ‘안전가옥’은 특정 장르(SF·판타지·추리·호러 등) 매니아를 위한 도서관과 예술가의 개인 작업공간인 스튜디오를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들간에 자연스러운 소모임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림 4-2] 살롱모임 공간 취향관, 문래당 사례

공통된 취향과 관심사를 가진 사람을 모아 대화의 장을 마련해주는 커뮤니티 스타트업도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 2015년 커뮤니티 스타트업으로 독서모임 ‘트레바리’가 창업하였는데, 현재 인문, 사회, 자연 과학 등 다분야에서 100여개의 주제를 가진 독서모임을 운영하고 있다. 4개월 단위 시즌제로 유료회비를 통해 운영되고 있는데, 모임(클럽) 수는 약 200개. 회원은 약 2500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은 25억원으로 추정된다(나건웅, 2018.4.16.).



[그림 4-3] 트레바리 독서모임 커뮤니티 사례

살롱문화는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그림, 글(독서), 영화, 요리 등 관심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기도 하는데 대부분 회원제로 운영되고 있다. 회원비는 대략 10만원에서 50만원 상당의 유료 서비스로 적지않는 비용을 지불함에도 기꺼이 찾는 사람들이 많고, 점점 살롱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일정 회비를 모아 공간임대료나 다과,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하고, 주기적으로 소규모 정예회원이 모여 대화와 감성을 나누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참여하는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이나 직업을 모르는 경우가 많고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다만 술, 다과와 대화가 중요하고 관심사에 따라 소모임의 주제를 정하기도 하며, 진지하고 편안한 대화를 나눈다.

살롱문화에 사람들이 모이고, 확산되는 현상을 아날로그의 회귀로 분석하기도 한다. 온라인의 비대면 만남과 인스턴트식 만남에 피로감을 느낀 젊은 세대들이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토론하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추구하게 됐다는 것이다. 살롱문화에 모여드는 사람들은 성별, 나이, 직업 무관하고 다양하지만, 현재의 살롱문화의 주 축은 젊은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특히 학교, 직장 등의 정형화된 공동체에서 나누지 못했던 취향과 대화를 낯선 사람과는 보다 쉽고 자유롭게 나눌 수 있다는 점도 살롱문화의 확산에 일조하고 있다.

제2절

일상 속 생활문화, 스며들다.

1. 일상에서 누리는 생활문화·생활예술 강조

가. 생활문화·생활예술 정책의 흐름

문화와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일상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생활문화, 생활예술이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민간 영역의 자발적 움직임과 더불어 정부에서 관련 제도, 시설 등의 확충, 정책 마련 등에 있어서 큰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생활예술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국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2004년 발표된 『예술의 힘-새로운 한국의 예술정책』의 〈새 예술정책〉에서 4대 기본방향은 1)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 2) 예술의 창조성 증진, 3) 예술의 자생력 신장, 4) 열린 예술행정 체계 구축으로 이 중에서 향유자 중심의 예술활동 강화 추진과제로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향유능력 개발, 생활 속의 예술 참여 활성화, 예술의 공공성 제고를 설정했다. 따라서 ‘문화민주주의 전략’을 선택하면서 생활 속의 예술참여 활성화 대상을 일반 향수자층, 아마추어, 동호인 등으로 분류하였고 주된 사업을 문화예술교육 분야로 상정했다.

이에 반해 생활문화 정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문화과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2004년도부터 시행된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을 그 시초라 할 수 있다.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동네의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주민들을 위한 문화복합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생활문화’와 ‘생활문화권역’,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개념이 정립되었다.

참여정부의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이명박 정부 들어 2009

년부터 생활 속의 예술 환경 조성이라는 취지로 ‘생활문화동공체 만들기 사업’으로 변화했는데, 이 사업은 문화소외지역(임대아파트단지, 단독주택 밀집지역, 농산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 매개 생활문화공동체를 만들고 지역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

생활문화를 본격적으로 제도화한 것은 2014년 박근혜 정부 때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되면서부터 이다.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에서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로 규정하였으며 생활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간 및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제화 하였다.

〈표 4-5〉 생활문화 정책의 변화

참여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생활문화공간조성사업	생활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생활문화의 제도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생활친화형 문화공간 조성	생활문화공간 조성	생활문화센터 조성

나. 생활예술과 생활문화, 그 차이와 닮음

전수환(2011)은 생활예술을 아마추어 예술과 관련된 ‘자발적 예술(Voluntary Arts)’, ‘비공식 예술(Informal Arts)’, ‘참여 예술(Participatory Arts)’ 등의 새로운 예술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자발적 예술’은 영국에서 아마추어 예술을 대치하는 새로운 개념으로 시민들이 자기 개발, 사회적 유대, 여가와 유흥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비전문 예술을 의미하며, 이러한 자발적 예술은 개인의 건강과 복리를 향상시키는 동시에 공동체의 결속을 도모하고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에서는 아마추어 예술을 ‘비공식 예술’이나 ‘참여 예술’이라는 개념으로 재조명하고 있는데 이 역시 아마추어 예술의 역할인 시민들의 정체성 증진, 집단적 유대, 공동체 구축, 문화적 전통의

고수, 경제적 가치 창출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한다. 따라서 아마추어 예술의 가치에 주목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 삶과 공동체적 유대, 사회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는 예술개념들을 총칭하여 ‘생활예술’로 부르자고 주장했다.

강윤주(2014)는 생활예술을 “시민성, 지역성, 예술성”을 구성요소로 제시하면서, “시민성과 지역성과 예술성이란 생활예술의 구체적인 기획과 실행에 있어 주요한 문화사회학적 준거 틀로서 문화예술적 실천과 사회적 삶이 만나는 주요한 지점들을 지칭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정책용어로서의 ‘생활예술’은 “소수 전문가들의 예술활동이나 소위 예술계라고 불리는 특정 제도나 집단 안에서의 활동에 대비하여 일상생활의 영역, 즉 일, 가족, 사교 등의 사적 영역에서 자기를 계발하고 표현하는 활동”이라고 개념을 규정했다.

생활예술은 엘리트 지원중심의 ‘문화민주화 전략’에서 향수자 중심의 창작활동 행위와 문화예술교육 중심의 ‘문화민주주의 전략’으로 변화하였다. 따라서 주체의 중요성이 대두되었는데 이는 엘리트 중심 또는 전문가 중심의 예술진흥 정책에서 아마추어와 비전문가 중심의 정책으로 정책대상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에 반해 생활문화는 주체와 대상보다는 공간과 공동체 중심의 정책으로 생활문화공간을 문화플랫폼으로 하여, 마을과 동네를 예술가 또는 문화예술 활동가들과 결합시키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공간 중심의 지원정책이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문화예술인/단체 등을 지원하여 생활문화, 동네문화, 마을문화를 활성화시켜 생활공동체를 복원 또는 회복하는 사업 등이 주를 이루고 있다.

생활문화, 생활예술 개념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향유를 넘어서 시민이 작품을 만드는 창작 작가로, 주민이 지역문화 기획자·활동가·매개자, 공간 운영자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공 작가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작업하여 실제 창작품을 판매하는 시민 장터, 직접 프로그램에 기획·참여

할 수 있는 창작페스티벌 등이 증가하고 있고, 메이커 문화와 연관되어 시민창작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영역과 분야의 창작소 등도 지원정책 또는 마을단위 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을 주축으로 생겨났다.

서울시 마을예술창작소의 경우,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의 경험과 관계를 찾아 모으고 새롭게 생성하는 것을 모토로 삼아, 주거지역이나 골목길 등 생활밀착공간을 주민이 직접 운영하며, 배움과 모임, 활동을 기획하고 있다. 일정 기간 지원 후 자립을 원칙으로 하여, 2012년 사업 시행 이후 지원이 끝난 사업의 경우, 마을 자체적으로 공간 유지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귀촌·귀농에 있어서도, 기존 도시생활의 경력과 경험을 살려 그들만의 귀농문화를 형성하며 문화활동(지역 음악회, 청소년 및 지역주민 문화예술활동 지도 등)을 매개로 지역과 관계를 맺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2. 생활 SOC 사업을 통한 생활문화 기반시설의 확충 도모

가. 생활 SOC 사업의 추진

정부는 2018년 8월27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역밀착형 생활 SOC (Social Overhead Capital)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사회간접자본(SOC) 개념을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로 확대해 일자리문제와 지역 격차를 해결하겠다는 내용이다. 2019년도 투입 투자 규모는 8조 7000억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기존 SOC와 차이점을 강조하여 대규모 사업을 통한 개발에서 탈피해 사람 중심의 인프라 구축에 힘쓰겠다는 대목이 핵심이다.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도 주요 목표로 삼았다.

사회간접자본(SOC)은 생산·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사회적 기반이다. 국내에서는 SOC가 도로나 철도와 같은 대규모 산업시

설로 인식되지만 정확히는 자연이나 교육 등의 사회제도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모든 국민이 무상 또는 약간의 대가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의 성격을 갖는다. 사회적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고, 이명박 정부때의 4대강 사업 등도 이에 해당한다.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충방안’에 따르면 생활 SOC는 도로와 철도 등을 짓는 전통적인 SOC와 다른 개념으로 지역의 문화·체육 시설 등 편의 시설 등을 확충하는 일종의 복지 사업이다.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주는 SOC를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SOC의 3대 분야는 ▲여가·건강활동 ▲지역·일자리 활력 제고 ▲생활 안전·환경이다. 시민이 직접 이용할 수 있는 소규모 생활 인프라를 확충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환경이나 안전 등 사회적 가치를 고려한 질적 투자에 집중했다. 경제 성장을 일차적 목표로 한 대규모 SOC와 대비된다

이중 여가·건강활동 분야는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투자 과제로 이뤄진다. 관심이 쏠렸던 공공도서관 확대가 바로 이 분야에 속한다. 주요국 대비 도서관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고려해 작은 도서관을 모든 시·군·구에 1개씩 설치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여가·건강 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는데 국민체육센터와 다목적체육관 건립, 혁신도시 5곳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신설한다. 또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립박물관 등에 VR(가상 현실)·AR(증강현실) 체험관 19곳을 설치·보강하며 국립과학관과 미술관 등 노후전시관도 개편한다. 국립공원 내 야영장 6곳을 확충, 안내판 6만 개도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림 4-4] 지역밀착형 생활 SOC 여가·건강활동 인프라 투자 내용

나. 생활 SOC 사업에 대한 우려와 전망

국내 생활 SOC의 모범 사례로 구산동 도서관 마을이 주목되고 있다. 서울시 은평구 구산동에 위치한 구산동도서관마을은 동네에 도서관이 있으면 좋겠다는 주민들의 바람에서 시작되었다. 2012년 서울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응모해 선정되면서 본격적으로 설립을 위한 노력을 진행해 2013년에 구체적인 도서관마을 조성 계획을 수립했다. 청소년들이 직접 시청각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공모사업에 도전해 예산을 모으기도 했다. 이러한 주민들의 노력이 모여 2015년 11월에 개관했다. 공공서비스를 요구한 시점부터 설립까지 타 도서관보다 비교적 오랜 시간이 요구됐지만, 주민들의 참여가 만들어낸 노력이기에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도서관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구산동도서관마을이 주목받는 이유는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하나의 마을 공동체를 형성했기 때문이다. 책만 제공하

는 도서관이 아니라 주민들의 수요에 맞춘 다양한 문화 활동과 아이들을 위한 공간 등을 마련한 마을이다. 주민들이 도서관 운영에 직접 참여하고, 지자체와 정부는 주민들의 활동을 후원하는 식이다. 인프라를 이용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SOC라고 할 수 있다. 구산동도서관 문화정책 팀장은 “도서관 설립까지의 과정도 그렇고, 현재 주민들로 이루어진 협동조합이 도서관 운영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마을 공동체’라고 부르고 있다”며 “도서관이 마을의 사랑방처럼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구산동 도서관 마을을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SOC사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정책목표에 따라 공급형으로 진행되는 현행 방식으로는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에, 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필요로하는 생활문화 기반시설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교수는 “여태까지 한국에서 진행된 도시재생은 주민들에게 와 닿는 형태는 아니었다”며 “생활 SOC를 확대해 주민들의 골목안까지 다가갈 수 있는 도시 재생 사업을 실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앞으로 철저한 감독과 감시가 필요하다. 지역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정말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다(서지윤, 2018.10.22.).

3. 자발성, 자생성에 기반한 생활문화 · 생활예술의 추구

가. 생활문화 · 생활예술 향유 격차 확대에 대한 우려

일상과 맞닿은 생활문화·생활예술이 주목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대폭 확충할 정책이 구체화된 가운데 지역의 시설운영에 대한 우려와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방향, 지역주민의 참여 등과 관련된 논의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가의 47.5%(평균 점수 3.90)가 확충된

문화시설이 추후에 자치단체의 여력과 의지,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면서 지역민의 문화향유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았다.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를 완화시키고 생활 SOC가 생활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지역민의 문화향유 격차를 완화시킬 것이라는 전망에는 32.5%가 동의했다. 또한 이 두 전망의 발현 가능성이 동등하다는 의견은 20.0%로 나타났다.

〈표 4-6〉 2차 델파이 결과 - 문화향유 격차 관련 방향성

(A방향성)	A 방향성에 더 가깝다	A, B 동등하다.	B 방향성에 더 가깝다	(B방향성)
지역 간 문화시설 격차를 완화시키고 생활 SOC가 생활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지역민의 문화향유 격차를 완화시킬 것	32.5% (n=13)	20.0% (n=8)	47.5% (n=19)	중앙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정책으로 확충된 문화시설이 추후에 자치단체의 여력과 의지,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면서 지역민의 문화향유 격차가 더욱 커질 것

전문가들은 위라벨의 강조,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전반적 환경 변화가 생활문화·생활예술 향유 확대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자발적, 자율적 시민 주도 예술활동도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나, 정책이 그 속도를 못 따라오는 상황에서 다변화된 생활문화 정책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생활 SOC등의 사업이 활동 주체들의 실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책 및 제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자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해당 지역 여건별 향유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나. 지속가능한 생활문화·생활예술 활동의 전제로서의 자생성 확보

생활문화·생활예술의 일상화는 자생성에 기반한 성장 모델이어야 하는데, 지원제도 중심으로 육성되어 일상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공공 지원

에 의지하여 운영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문가의 40.0%(평균 점수 3.70)가 전망했다. 주민 주도의 생활문화·생활예술 활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방향에 대해서는 22.5%가 동의하였고, 양 방향 모두 발현될 것이라는 의견에는 37.5%가 동의했다.

〈표 4-7〉 2차 델파이 결과 - 생활문화 활동 관련 방향성

(A방향성)	A 방향성에 더 가깝다	A, B 동등하다.	B 방향성에 더 가깝다	(B방향성)
지역과 주민이 스스로 주도하고 협력하는 생활문화·생활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	22.5% (n=9)	37.5% (n=15)	40.0% (n=16)	지원제도 중심으로 육성된 생활문화·생활예술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여, 생활문화 활동의 유지를 위한 자원 의존도가 높아질 것

생활문화·생활예술에 대한 정책적 강조와 기반시설 확대로 문화·예술을 누구나 일상에서 당연히 누려야할 권리로 인식하게 되었고, 활동 영역이 넓어지면서 전문예술과 생활예술의 경계도 모호해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지원에 기반한 육성과 정책적 시설 확충으로 단기간에 확산됨에 따라, 자발성, 자생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지원에만 의존하게 된다는 우려도 함께 전망되었다.

제3절

긱 이코노미와 예술인이 일하는 법

1.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 주목하는 국제사회

긱 이코노미(Gig Economy)에서의 ‘긱’은 1920년대 미국 재즈 공연장 주변에서 필요할 때마다 연주자를 구해서 단기간으로 공연 계약을 맺던 것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하였다. 기존 노동시장은 기업이 정규직 직원을 채용해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였다면, 긱 이코노미에서는 기업이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수요에 맞게 단기적으로 노동자와 계약을 맺어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기업의 측면에서는 즉각적인 수요에 반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근무시간과 공간이 자유롭고 동시에 여러 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하여 남는 시간과 재화를 필요한 사람에게 제공한다는 점이 합리적으로 작용한다(김윤지, 2017.11.18.).

긱 이코노미는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미국의 긱 노동자는 2017년 약 580만 명에서 2018년 680만 명으로, 2019년에는 770만 명, 2020년에는 92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²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인 ‘시간제 노동자’는 2003년 전체 노동자 중 6.6%였지만 2017년에는 13.4%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김천구, 2018).

이는 평생 하나의 커리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직장에서의 유연성과 변화를 추구하는 인식과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인식의 확산, 그리고 4차 산업 혁명 사업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 여러 분야의 사람들과 다양하게 협업하는 하이퍼-코퍼티션(Hyper-Coopetition)이 주목받으며 확산되었다(한수연, 2018.01.02.). 또한 메가 트렌드인 ‘개인화’는 긱 이코노미를 더욱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전통적인 기업의 제조 과정인 공장은 자동화 시대를 넘어서 개인별로 맞춤형 생산, 소품종 대량생

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공장을 도입하여 제조업의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각 이코노미에 기반을 둔 신산업 및 혁신적 요소가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반면, 각 이코노미로 인해 정규직은 줄고 프리랜서, 독립 계약자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늘어나는 것은 또 다른 사회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정규직만큼 일할 의지는 있으나 주 30시간미만 근무하는 ‘비자발적인 노동자’의 경우,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 상대적인 낮은 임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임금이 오르지 않으니 구매력이 떨어져 경기 회복이 더디다는 비판도 있다(김천구, 2018; 김윤지, 2017.11.18.). 또한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각종 사회보험에서 소외되어 있으며, 계약 불이행을 겪기도 한다. 미국 프리랜서들이 지급 불이행으로 받지 못한 돈은 1년에 평균 6천 달러로 추정되며, 기업 측에서도 비윤리적인 프리랜서와의 계약으로 원래 계약에 없던 추가 요금을 요구하며 일 처리를 연기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한수연, 2018.01.02.).

각 이코노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동개혁과 사회보험 등이 등장하고 있다. 각 노동자 수가 110만명으로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인구) 중 2.6%까지 늘어난 영국은 2018년 2월 각 이코노미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노동개혁 계획안 ‘좋은 노동(Good Work)’ 보고서를 공개하였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였다. 일본에서도 2017년 세제개편안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급여소득공제를 줄이는 대신 모든 사람이 적용받을 수 있는 기초공제 액수를 높여 프리랜서나 계약직 노동자들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이후 2021년을 목표로 프리랜서와 고용주 간 구두계약을 막고 최저임금 보장 등 법적 보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논의되고 있다(연유진, 2018.02.28.).

또한 민간에서도 각 이코노미를 위한 보험상품이 등장하고 있다. 유럽

에서는 음식배달 서비스 노동자를 위한 시간단위 보험이 판매되고 있으며,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에서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차량 수리비를 보상하고 대체차량도 제공하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대표적인 킷 이코노미 업체로 언급되는 미국의 차량공유 서비스업체인 ‘우버’는 보험사와 제휴하여 킷 노동자들에게 다양한 보험 상품을 제공하고 있다(내일신문, 2018.05.04.).

2. 킷 이코노미 확산에 따른 예술인의 일자리형태에 대한 사회적 주목 강화 전망

가. 킷 이코노미의 사회 확산→독립형 자기고용 일자리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가속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은 저임금 노동자·가계의 임금·소득을 올려 소비증대→기업 투자 및 생산 확대→소득증가의 선순환구조를 만들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 중 하나로, 대기업의 성장으로 인한 임금 인상 등 ‘낙수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는 전략이다.(한경경제용어사전, 2018). 문재인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꾀하기 위하여 2018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인상하였으며, 공공기관 비정규직 77,00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하였다. 또한 원·하청 노동자 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장단기 로드맵을 마련하였으며,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확대 시행하였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특수고용 형태인 예술인들은 노동자로서, 일자리를 지닌 직업인으로서의 소득관련 이슈조차도 사회 전반의 관심 밖에 머물러있었다는 이야기가 보다 본격화되어 나오기 시작했다. 2~3년전부터 본격 논의되기 시작한 특수고용 형태인 예술인들에 대한 기본 사회안전망의 구축, 일자리의 최소 조건인 ‘소득’이 확보되지 못하는 예술인들의 열악한 노동환경 상황들을 개선하기 위한 논의들이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고 있다.

2018년 5월 16일에 발표한 ‘문화비전2030’에서는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다. 문체부의 2015년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가의 연평균 수입은 1,255만원으로 이 중 36.1%는 수입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근로조건도 전업예술인 72.5%가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 고용이 불안정하고,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26%), 고용보험 가입(25.1%), 실업급여 수혜(7.2%)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났다.

이에 문화예술정책계획으로서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생활고로 인하여 예술활동을 중단하지 않도록 ‘예술인 복지금고’제도를 마련하고 생활자금 융자, 심리상담, 자녀 돌봄, 창작과 주거 연계 지원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예술가의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보장제도 종합 지원을 위한 예술인 복지지원센터(가칭)의 설립과 표준계약서 개발, 예술계 공정상생지원센터의 기능을 강화하여 피해사례 구제와 심리 상담 등을 지원하고, 신고접수 창구를 2020년까지 15개로 확대하는 등의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김혜인, 2018).

또한 ‘공공디자인 용역대가 산정 기준’, ‘공공디자인 제안서 보상 기준 및 절차’, ‘공공디자인 전문 인력에 관한 기준’ 등 3개의 고시를 발표하며, 공공디자인 분야의 종사자들의 창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본격화되고 있다. 2018년 6월 27일,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 집에서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 마련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바탕으로 ‘미술창작(전시) 대가기준 도입(안)’을 2018년 말까지 마련하고 2019년도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에 시범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그 외에 특수고용·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7월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특수고용·예술가의 고용보험 방안을 심의·의결하였다. 특수고용·예술인도 실업급여부터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 하되, 종사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하였다. 우선 적용 직종은 2018년 중 노사단체,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여 논의될 예정이다.

나. 이미 깃 이코노미 형태로 일하고 있는 예술인들, 일자리의 질 문제에 대한 주목

문화예술계에서는 이미 독립형 경제활동, 개인사업자 개념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깃 이코노미 형태가 일자리의 대안적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본 연구의 초기 시나리오는 오히려 역구조로 바라보아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사회 전반에 깃 이코노미 형태로 일하는 일자리가 많아지고 기업의 수요와 개인의 선택이라는 대안적 모델이 될 수 있지만, 이것이 비정규직 노동 형태라는 점을 인식할 때 사회 전반에서 이런 노동형태로 일하는 일자리들에 대해 노동기본권 및 환경 구축을 위해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해주어야 하는가 이슈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이미 그런 형태로 지속적으로 일해온 예술인들의 노동환경의 어려움을 그간 ‘예술인의 특수성’으로 치부해버리던 사회 전반의 인식이 이제 ‘나의 일’로도 벌어진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좀더 적극적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는 예술계의 일자리 문제에 있어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바라보고 있다. 깃 이코노미라는 최근 주목받는 대안적 모델이 발생시키는 독립형 일자리를 위한 사회제도적 틀의 마련이라는 이슈의 긍정적 파급을 통해 예술인의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이슈들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예술계의 깃 이코노미는 예술가 직군의 노동형태, 고용조건, 경제활동의 소득창출 모델로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는 전망은 5점 만점에 평균 3.45점으로 발현가능성이 다른 이슈들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발현가능성을 높다(4점)고 평가한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동시에 보통이다(3점)라고 평가한 비율 역시 높았

으며, 발현 가능성이 전혀 없거나 낮다고 평가한 비율도 15%로 적지 않았다.

〈표 4-8〉 2차 델파이 결과 - 각 이코노미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대안 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5점 만점)					
	평균	응답별 비율(빈도)				
		1	2	3	4	5
예술계의 각 이코노미는 예술가 직군의 노동형태, 고용조건, 경제활동의 소득창출 및 자립을 위한 모델로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게 될 것	3.45 점	2.5% (n=1)	12.5% (n=5)	30.0% (n=12)	47.5% (n=19)	7.5% (n=3)

부정적 의견들은 예술계의 각 이코노미를 동경하는 층은 많지만 저임금 등의 고용의 질이 낮으며, 독립형 경제활동 인력의 처우가 개선되거나 정책 입안될 여지가 크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고용의 질이 낮다는 각 이코노미의 단점에 대한 내용은 발현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전문가들에게도 언급되었다. 예술가들의 일자리가 대부분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각 이코노미의 확산이 진행될 것이라고 보지만 동시에 이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적 요구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바라보았다.

이러한 점은 세부 발현 방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는데, 예술계 각 이코노미가 일자리, 산업모델로 자리잡기 이전에 예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과반 이상(65%)이 동의하였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각 이코노미가 예술가들의 경제적 자립 모델로서 도입될 가능성은 높지만 그 전에 사회적 안전망이 확충되어야 하나의 자립 모델로서 온전하게 자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9〉 2차 델파이 결과 - 각 이코노미 관련 방향성

(A방향성)	A 방향성에 더 가깝다	A, B 동등하다.	B 방향성에 더 가깝다	(B방향성)
예술계 각 이코노미는 하나의 예술인 일자리 모델이자 자생적 경제모델로 자리잡게 될 것	12.5% (n=5)	22.5% (n=9)	65.0% (n=26)	예술계 각 이코노미는 일자리, 산업모델로 자리잡기 이전에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이 현재(실업급여, 예술인 금고) 보다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슈가 발현될 것

전문가 좌담회 결과, 일부 전문가들은 각 이코노미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은 기존에 존재하던 형태인 프리랜서, 계약직 노동자 등을 ‘각’이라는 단어로 재포장함으로써 이들이 직면한 현실에 대한 해결이 아닌 새롭게 등장한 노동의 형태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일부 예술가들은 텀블벅, 와디즈 등과 같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후원금을 모집하는 형태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 자신을 알리고 프로젝트를 위한 모금을 성사시키는 등 굿즈와 연관하여 다양한 상품화를 진행하기도 한다. 하지만 월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버는 예술가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인식들을 바탕으로 각 이코노미가 예술계에 자리 잡는 것보다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의견이다, 비자발적인 계약직임에도 불구하고 각 이코노미라는 틀을 부여하는 것은 고용 불안정성이 주체적인 선택의 결과이며 예술가의 숙명이라고 아름답게 포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볼 때, 기존 예술계 노동 형태가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각 이코노미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의 형태가 경제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함께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바라보았다. 고용 계약의 체계화, 일자리와 관련된 플랫폼 구축 등을 마련하여 예술가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예술 활동들이 ‘좋아서 하는’ 행위가 아니라 예술가에게는 예술활동은 ‘노동’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아야 예술활동에 대한 가치, 대가 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의 강조는 지속될 것이다.

제4절

1인 크리에이터, 전문가로 인정받다

1. 1인 미디어의 진화 : 비주류의 주류가 되다.

가. 매스 미디어를 넘어선 1인 미디어

아프리카 TV, 유튜브 등을 중심으로 1인 미디어 시장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는데, 최근 1인 미디어의 여러 발전가능성이 확장되면서 비즈니스 영역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미디어분야 대기업 CJ E&M은 2017년 1인 미디어 전용채널을 개국하였고, 연봉 17억원의 유튜버 대도서관 등 1인 미디어 크리에이터 연간 수익이 역대 반열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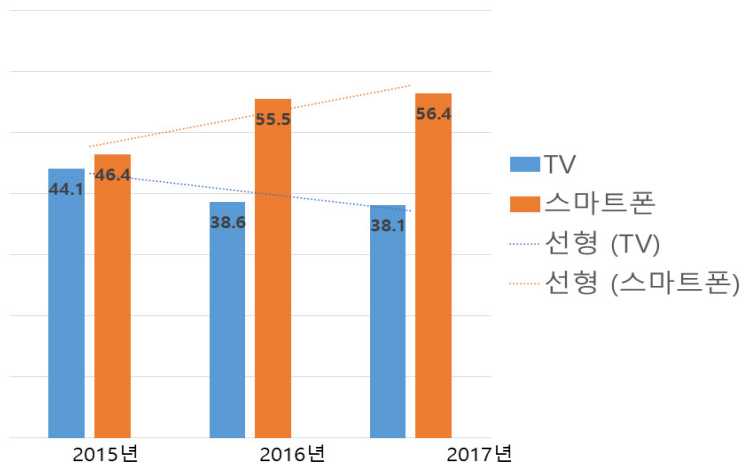
1인 미디어란 개인이 다양한 콘텐츠를 직접 생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이며 새로운 형태의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의미한다. 2018년 국내 1인 미디어 시장 규모는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2020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대표적인 1인 미디어 방송 플랫폼인 아프리카TV의 경우 2016년 연간 매출액 798억원, 2017년 946억원을 달성하였다.

구글은 2020년이면 전체 미디어 가운데 기존 방송사나 스튜디오와 같은 주류의 매스미디어는 25%에 그치고, 나머지 70% 이상을 1인 미디어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발현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슈로 '1인 미디어의 성장과 대중문화 코드의 옴니버스화'가 1위(4.58점)를 차지하여 전문가의 의견도 1인 미디어 관련 트렌드의 발현가능성을 높게 판단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전통적으로 대중에게 콘텐츠를 제공은 TV, 라디오, 신문 등과 같이 조직과 자본, 설비를 갖춘 매스미디어가 주축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개인이 제작하고 기획, 유통하는 1인 미디어가 매스미디어 시장을 넘어서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정보통신기술과 함께 발달한 인터넷의 일상화와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 스마트기기 사용의 대중화로 설명할 수 있다. 사람들이 일상생활에서 TV와 같은 일방향 매체보다 스마트기기를 통한 간편하고 다양한 양방향 콘텐츠 교환이 가능한 매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매스미디어보다 개인미디어, 1인미디어 환경에 노출되기 적합하게 된 것이다.

2015년 이후 일상생활에서 필수매체 1위로 스마트폰(46.4%)이 TV(44.1%)를 추월하면서 더 필요한 매체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로 스마트폰의 중요도는 증가하고 TV는 감소하는 추세⁷⁾를 보이고 있다. 2017년 일상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필수매체로 스마트폰을 선택한 비율은 56.4%로 2015년 조사에서 TV를 제치고 가장 필요한 매체로 부상한 이후 TV(38.1%)와 격차를 더 벌렸으며 특히 50대와 60대의 스마트폰 선택 비율이 43.3%, 19.6%로 2015년 조사(34.7%, 14.0%)에 비해 증가하여 스마트폰의 영향력이 고연령대로 확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정용찬·김윤화, 2018).



[그림 4-5] TV, 스마트폰 필수매체 인식 조사 결과

7) 일상생활에서 필수매체 1위 TV: '15년 44.1% → '16년 38.6% → '17년 38.1% / 스마트폰: '15년 46.4% → '16년 55.5% → '17년 56.4%

1인 미디어가 매스미디어를 넘어 주류 문화로 진입하는 미디어환경 변화 속에서 개인은 콘텐츠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으며, 미디어 채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었다. 1인 미디어의 주류화는 매스 미디어와 달리 양방향성 상호작용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확산속도가 빨라 파급력이 큰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문화체육관광부는 ‘2017 콘텐츠산업 사업추진 기자간담회’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1인 미디어를 정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할 차세대 유망 콘텐츠 분야로 제시하였다.

나. 텍스트에서 동영상으로, 보다 간편하고 즐겁게

1인 미디어는 초기 텍스트 기반에서 현재는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동영상 기반의 콘텐츠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1인 미디어의 초기 형태는 블로그에서 개인의 생활, 취미, 정보 등을 공유하다가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으로 채널이 확대되었고, 2005년부터 유튜브를 중심으로 동영상 기반의 1인 미디어가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동영상 공유 플랫폼 유튜브는 ‘손안의 TV’로 자리매김하였으며, 전 세계인 4명 중 1명은 유튜브 영상을 이용하고, 이들의 유튜브 시청량은 매일 10억 시간이 넘고 1분당 업로드 되는 유튜브 영상은 400시간 이상으로 집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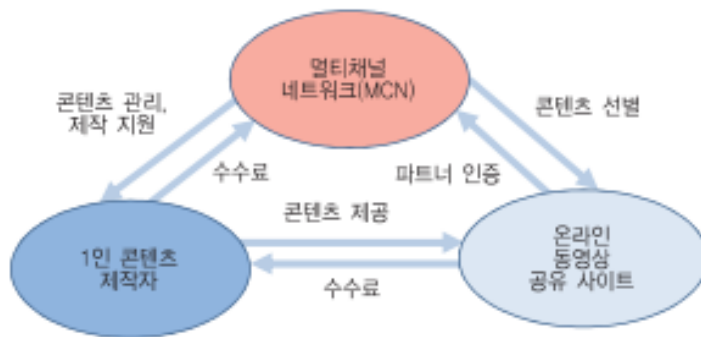
동영상 기반의 1인 미디어 확산은 유튜브와 같은 플랫폼 출현 및 서비스 확대와 기술적 진입 장벽의 완화로 설명할 수 있다. 누구나 인터넷을 통해 손쉽게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타인과 공유 가능하게 하는 유튜브 등의 플랫폼 서비스가 2005년 개시되면서 개인 방송의 기술적 요소의 진입 장벽을 완화시켰다. 더불어 고해상도의 스마트폰 카메라와 앱을 통해 촬영에서부터 편집까지 무료로 손쉽게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지면서 1인 미디어의 대중화가 본격화 될 수 있었다.

현재 1인 미디어는 유튜브의 영향력⁸⁾이 가장 높지만 아프리카 TV, 페이스북 등 기존 플랫폼과 함께 네이버TV, 카카오TV, 트위치TV 등 새로

운 플랫폼 진입이 시도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크리에이터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방송형태는 팟캐스트, 인터넷 개인방송 및 실시간 영상방송으로 변화하였고, 젊은 세대 중심에서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산업으로 성장하였다.

다. 다중채널네트워크(MCN, Multi Channel Network) 사업의 고속 성장

1인 방송 크리에이터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파급력이 커지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발굴·관리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이 고속 성장하고 있다. MCN은 1인 창작자인 크리에이터의 방송 제작을 지원하고 광고를 수수해서 수익을 배분하는 형식으로 연예인들의 소속사와 유사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MCN은 1인 미디어를 조직적·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보다 매력적인 콘텐츠의 생산을 촉진시키고 있다. 현재 국내 MCN에서 활동 중인 크리에이터는 약 1만 명 추정된다.



자료 : ETRI(2018), MCN 산업동향 분석

[그림 4-6] MCN의 개념

- 8) 2018년 5월 앱 분석 업체 와이즈앱의 '4월 한국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의 세대별 사용 현황' 발표 자료(안드로이드 2만 3천여명에 한함. 95% 신뢰수준, 오차범위±0.65%)에 따르면 10대부터 40대까지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으로 유튜브가 꼽혔다. 전체 258억분 사용하였고, 월간 순사용자수(MAU)는 2천 924만명으로 1인당 월 882분, 126회를 이용해 1회 실행 당 7분 동영상 시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최초로 MCN 사업을 추진한 CJ E&M이 ‘크리에이터 그룹’이라는 이름으로 2013년 아프리카TV⁹⁾ 인기 BJ들과 계약한 것을 시초로 하여 2017년 케이블 채널인 다이아 TV를 개국하였다. 현재 국내 최대 규모의 MCN으로 대도서관, 영국남자, 찐님 등 유명 크리에이터를 비롯하여 1,400여 팀의 크리에이터와 파트너십을 맺고, 총 구독자 수는 1억6000만 명에 이르며, 누적 조회수는 320억 뷰 이상을 달성하였다. CJ E&M과 같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크리에이터가 모바일 전용 콘텐츠를 제공하는 SBS 모비딕, 엠빅TV(MBigTV) 등이 사업 성과를 거두고 있다. 최근에는 MCN 사업에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는데 샌드박스 네트워크, 트레저헌터, 캐리소프트, 비디오빌리지 등이 대표적인 사업자이다. 스타트업 MCN은 매출이 급증한 것은 물론 흑자를 낼 정도로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으며, 매출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과감히 투자하고 있다.

한편 MCN 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가 늘어나자 경쟁이 심화되면서 크리에이터에 매니지먼트에 집중하던 기존 사업자들의 수익모델이 다변화되고 있다. 크리에이터의 지원(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뿐만 아니라 관련 상품을 제작하고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하는 등의 부가가치 창출 확대에 노력하고 있다. 또한 해외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을 모색하고, 방송·영화·게임 등 타 미디어와 협업하거나 브랜드를 공동 출시하고 오프라인 강연 및 행사에 참여하는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MCN 비즈니스 모델의 확장은 소비자의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창작자, 즉 크리에이터를 발굴하고 체계적으로 육성하며, 관련 사업과의 연계 확장으로 1인 미디어 시장을 생산적으로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9) 아프리카 TV는 가장 오랜 기간 서비스된 인터넷 방송 플랫폼으로 국내 MCN 사업은 대다수의 아프리카 TV의 BJ를 영입함

2. 영향력 있는 개인, 크리에이터가 뜬다

가. 크리에이터 팬덤현상으로 소셜 인플루언서 마케팅 활발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에서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개인이 팬덤을 형성하면서 연예인보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하는 세상이 되었다. 1인 미디어의 콘텐츠 제공 주체를 주로 창작자를 의미하는 크리에이터라고 부르는데 과거에는 개인방송을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BJ(Broadcasting Jockey)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크리에이터의 지위나 인식이 개인방송을 하는 비주류에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콘텐츠를 제공하는 영향력 있는 주류로 전환되었음을 내포한다. 주로 유튜브에 개인 영상을 올리는 크리에이터가 대중적인 관심과 인기를 얻게 되면서 팬덤을 형성하는데, 인기 크리에이터의 말투나 행동, 사용하는 제품이 오프라인에서 유행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개인 유튜버 상위 30개 채널을 살펴보면 평균 구독자 수는 203만명으로 한 개의 채널이 국내 어떤 일간지보다도 많은 구독자 수를 보유한 파워 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 J.Fla(제이플라·본명 김정화·31)의 구독자가 786만명으로 가장 많았고, 30개 채널 중 가장 구독자 수가 적은 Blue Marvel(블루마블)도 117만명으로 집계됐다. 잘 알려진 1인 미디어계의 유재석 ‘대도서관’, 초등학생들의 아이돌 ‘양띵’, 먹방계의 귀공자 ‘뽕썸’ 등 100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크리에이터가 연예인 못지않은 팬덤을 형성하고 있다.

크리에이터는 유튜브에서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구독자를 바탕으로 인플루언서(Influencer·영향력 있는 개인)의 시대를 열었고 이들이 직접 광고와 지상파 및 케이블 방송 등에까지 출연하고 있다. 다양한 장르의 국내 인기 크리에이터를 모아 2018년 8월, ‘다이아페스티벌(CJemn, 서울특별시 공동주최)’이라는 토크콘서트 방식의 컨벤션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개인 유튜버 상위 30개 채널 (단위: 명)
*5월30일 오전 9시 기준



순위	채널명	본명	나이	콘텐츠	구독자
10위	JFlaMusic	김정화	31세	노래	786만
13위	jwcfree	정성하	22세	연주	510만
17위	PONY Syndrome	박혜민	28세	뷰티	395만
21위	waveya	장은영, 장유선	-	댄스	291만
26위	영국남자	조쉬 캐럿	29세	일상	259만
30위	벤쯔	정만수	28세	먹방	240만
31위	Raon Lee	이라온	27세	노래	227만
32위	도티TV	나희선	32세	게임	224만
33위	보경TV	김보경	30세	게임	223만
34위	Boram Tube	이보람	5세	유아	204만
38위	히팝Heopop	하재원	30세	실험	197만
42위	뽕개뽕	이민주, 이태군	25세, 27세	먹방	181만
44위	양평 유튜브	양지영	28세	게임	178만
46위	대도서관TV	나동현	40세	게임	171만
49위	어썸하은	나하은	9세	유아	166만
51위	서은이야기	신서은	4세	유아	164만
55위	공대생 변승주	변승주	21세	실험	147만
56위	ssin 쌤	박수혜	28세	뷰티	145만
57위	데이브	데이브 러빈	29세	일상	144만
59위	잠불TV	박슬기	23세	게임	139만
65위	꼭TV	김종국	28세	장난감	132만
67위	악어 유튜브	진동민	24세	게임	130만
70위	대한건아틱형	박현신	27세	일상	128만
72위	재년	이재원	21세	게임	124만
73위	ASMR POMMO	-	-	창각지극	124만
74위	다포아	이다솔	22세	뷰티	123만
76위	디바 제시카	이승주	33세	교육	121만
78위	설이는 못알려	조섭	26세	일상	119만
79위	퇴경아 악먹자	고퇴경	28세	일상	118만
82위	Blue Marvel	황영훈	25세	연주	117만

*자료: 소셜블레이드(socialblade)
그래픽: 이승현 디자인기자

MT 머니투데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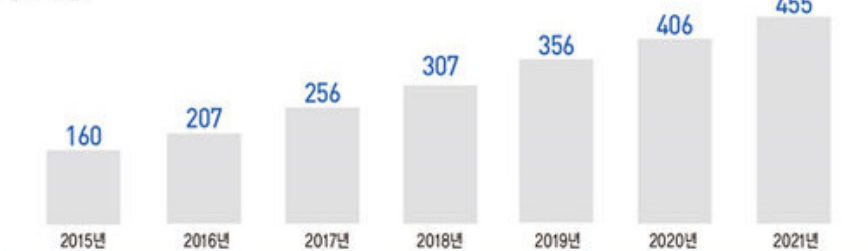
[그림 4-7] 개인 유튜버 상위 30개 채널

크리에이터의 팬덤현상은 크리에이터의 수입과 연결된다. 크리에이터의 수입은 크게 영상 스트리밍 광고 수익과 기업의 협찬 광고 수익으로 구성되는데 크리에이터의 구독자 수가 많고 영상 조회 수가 높을수록 기업의 협찬 광고도 늘어나게 된다. 기업에서는 인기 크리에이터를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 마케팅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가성비와 반응률이 높아 향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광고 수익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의 2017년 자료에 따르면 도티

(게임 위주)는 약 15억9000만원, 허팝(과학실험 위주)은 약 12억3000만원, 대도서관(게임 위주)은 약 9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여기에 구독자와 조회수에 따른 스트리밍 광고 수익까지 포함하면 유명 크리에이터의 연 수입은 억대를 넘어선다. 앞으로 이들의 수입은 보다 더 늘어날 전망이다. 독일 시장조사 기관인 스타티스타(Statista)에 따르면 전 세계 디지털 동영상 광고 시장은 2015년 160억 달러(약 19조원)에서 2021년까지 연평균 17% 증가해 2021년에는 450억 달러(약 51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 : 억 달러



자료 : Statista(2016), Statista Digital Market Outlook

[그림 4-8] 전 세계 디지털 동영상 광고시장 규모 전망

나. 3세부터 70세까지 제약없는 크리에이터의 활약

1인 미디어는 개인의 의지와 기획에 따라 누구나 제약없이 도전할 수 있기 때문에 크리에이터의 연령대와 콘텐츠의 폭이 넓다. 주로 인기 있는 장르¹⁰⁾는 게임, 뷰티, 먹방 및 쿡방, 엔터테인먼트 등이지만 콘텐츠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가 좋아하거나 즐기는 모든 것들이 소재가 된다. 예를들어 장난감을 갖고 노는 ‘캐리’, 감각적인 댄스 영상을 선보이는 ‘원밀리언’, 영국남자의 한국생활을 담은 ‘영국남자 데이브’등 장르와 국적,

10) 아프리카 TV의 콘텐츠 구성을 살펴보면 2016년 기준, 트래픽 점유율은 게임 64%, 보이는 라디오 18%, 먹방/쿡방 4%, 스포츠 3%, 기타 11%로 이뤄진다. 게임 비중이 가장 높는데 2017년 ASL(AfreecaTV Starcraft League) 등 게임 방송 콘텐츠를 제공했고 먹방, 쿡방, 스포츠 등의 콘텐츠가 다양화되었다. 유행 변화에 따라 그림, 악기 연주, 당구, 낚시, 바둑, 프라모델 조립, 미니어처 제작 등의 콘텐츠들로 확장되었다.

나이 상관없이 수 십만명, 수 백만명의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크리에이터가 탄생하고 있다.

특히 최연소 3세 키즈부터 70세~80세에 이르는 실버세대까지 크리에이터 연령층의 폭이 넓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콘텐츠 주제가 다양한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연소 크리에이터인 3세 신서은 아이의 ‘서은이야기’를 포함하여 채널 상위 100개 중 ‘라임튜브’, ‘어썸하은’ 등의 키즈 1인 미디어가 인기를 얻고 있다. 반대로 최고령 크리에이터인 김영원 어르신은 ‘영원씨 TV’에서 간장게장, 닭다리, 과자 등의 먹방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70대인 박막례 어르신은 ‘Korea Grandma’에서 손녀와 뷰티, 여행 이야기 등의 입담으로 인기를 얻어 각종 광고수입은 물론 최근 구글 본사의 I/O 행사에 초청을 받기도 하였다.



[그림 4-9] 크리에이터 박막례 유튜브 활동사례

2018년 1월부터 시행된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 개정안에는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크리에이터)가 등재돼 있다. 과거 취미로만 여겨졌던 크리

에이터의 활동이 합법적인 수익활동을 창출하고 직업인으로서의 영향력을 인정받은 결과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2차 델파이 결과에서도 1인 미디어가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전문가와 유사한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평균 3.75점으로 높게 나왔다. 전문가들은 1인 미디어는 기술적 난이도가 낮아 자유로운 자기표현이 가능하여 유저들의 소통, 공감, 공유를 지속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까지 문화적 경향을 넓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또한 취향이 명확한 콘텐츠와 그 주제를 다루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충성도가 높은 유저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상을 짚었다.

〈표 4-10〉 2차 델파이 결과 - 1인 미디어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대안 시나리오	평균	발현 가능성 (5점 만점)				
		응답별 비율(빈도)				
		1	2	3	4	5
1인 미디어의 빠른 성장으로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전문가와 유사한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될 것	3.75점	-	7.5% (n=3)	25.0% (n=10)	52.5% (n=21)	15.0% (n=6)

〈표 4-11〉 2차 델파이 결과 - 콘텐츠 크리에이터 관련 방향성

(A방향성)	A 방향성에 더 가깝다	A, B 동등하다.	B 방향성에 더 가깝다	(B방향성)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전문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1인 미디어를 향유하는 계층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일 것	27.5% (n=11)	17.5% (n=7)	55.0% (n=22)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

다. 1인 미디어에서 TV로, TV에서 1인 미디어로

크리에이터의 사회적 영향력 확대는 1인 미디어를 기반으로 성장한 크리에이터가 기존의 매스 미디어인 TV 프로그램으로 진출하는 현상으

로 반증할 수 있다. 1인 미디어는 지극히 개인적인 콘텐츠이지만 역설적이게도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높아지면서 TV와 같은 매스미디어로 진출하는 현상이 생긴 것이다. 인기 크리에이터가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되기도 하고, 1인 미디어 형식을 차용한 프로그램이나 크리에이터를 위한 프로그램이 편성되고 있다.

크리에이터 입짧은 핫님은 tvN ‘놀라운 토요일’에 먹방(먹는 방송)으로 출연, 이사배는 온스타일 ‘갯잇뷰티’에서 뷰티 팁을 전수하고 MBC TV ‘라디오 스타’에도 출연하였으며, 최근 디지털 싱글을 내고 KBS 2TV ‘뮤직뱅크’에도 출연하였다. 더 나아가서 크리에이터들의 삶을 다루는 TV 프로그램으로 JTBC에서 리얼리티 프로그램 ‘랜선 라이프’를 편성하기도 하였는데, 게임방송 유튜버 ‘대도서관’과 ‘음땡’ 부부, 먹방 BJ ‘벤즈’, 뷰티 크리에이터 ‘썸님’ 등이 출연하여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림 4-10] 크리에이터 출연 TV프로그램

반대로 TV와 같은 매스 미디어에서 주로 활동하던 연예인, 정치인이 대중을 만나기 위한 방법으로 1인 미디어 진출은 늘어났다. 연예인, 정치인 등 기존 유명인들이 유튜브, 팟캐스트 등 쉽고 재미있게 시작할 수 있는 1인 미디어 채널에 진입하고 있고, 인기를 얻은 1인 미디어 프로그램은 TV에서 다시 편성되기도 한다. 여기에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하게 TV 채널을 플랫폼이 다채널화 되면서 경쟁이 치열한 반면 콘텐츠에 집중받기 어려운 환경에 처하자 새로운 활로로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자신만의 기획 콘텐츠로 활동하게 된 이유가 크다. TV를 떠나 유튜브나 팟캐스트에서 활동하는 개그맨이 인기를 얻기도 하고, 인기몰이를 한 프로그램이 TV 정규방송으로 편성되기도 하였다.

개그맨인 김기수는 뷰티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강유미는 여행기나 각종 제품의 리뷰, 성형 등과 관련한 영상을 통해 개그맨 인지도 이상의 화제가 되었다. 이외에도 아이돌인 걸그룹 f(x) 루나, 악동뮤지션 이수현과 배우 백봉기 등도 개인 채널을 운영하여 인기를 높이고 있다. 한편 팟캐스트 프로그램이었던 ‘김생민의 영수증’은 인기에 힘입어 2017년 국내에서 최초로 TV 지상파에 편성되었다.

크리에이터가 비주류에서 주류로 자리잡게 된 현상은 친근함과 공감, 계층이동의 가능성 때문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일반인으로 시작해 이후 부와 인기를 얻게 된 크리에이터의 스토리는 ‘계층이동 사다리’가 무너진 지금 현실에서 공감하고 매력적인 콘텐츠로 다가오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기회가 부여되어 있고, 검증이 필요 없으며 표현에 제약이 없다는 점은 앞으로 수 많은 크리에이터들을 1인 미디어로 흡수될 것이다. 그리고 1인 미디어에서 크리에이터들은 창의성을 자유롭게 발휘하고 대중의 이목을 끌며, 이슈가 생산되고 소비될 것으로 보인다.

3. 중독되는 사람들과 보다 자극하는 1인 방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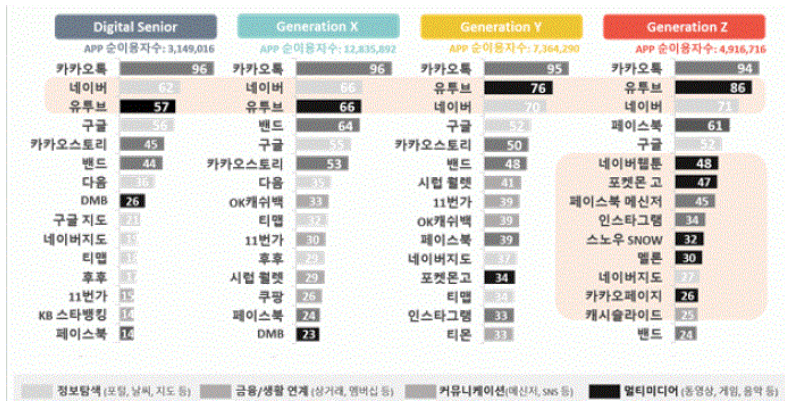
가. Z세대(10대, 초등학생)를 중심으로 확산,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

1인 미디어와 인기 크리에이터의 시장은 어려서부터 스마트폰과 영상 문화가 익숙한 10대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한 Z세대가 이끌고 있으며, 1인 미디어 시장은 Z세대를 기반으로 하여 앞으로 더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Z세대는 TV 대신 유튜브를 통해 선호하는 콘텐츠를 업로드하여 시청하고 영상을 만드는 것에도 익숙하다. Z세대는 활자보다 영상이 익숙하여 궁금한 것이 생기면 포털이 아닌 유튜브를 먼저 검색하여 원하는 정보를 찾고, 가수의 안무영상이나 화장하는 법 등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고 있다. 또한 일상생활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유튜브에 올리는 것에도 부담감이 없다. TV보다는 유튜브가 익숙한 Z세대인 초등학생들에게 크리에이터가 장래희망 1순위로 한때 아이돌가수와 같은 연예인보다 장래희망 순위가 높게 나타날만큼 영향력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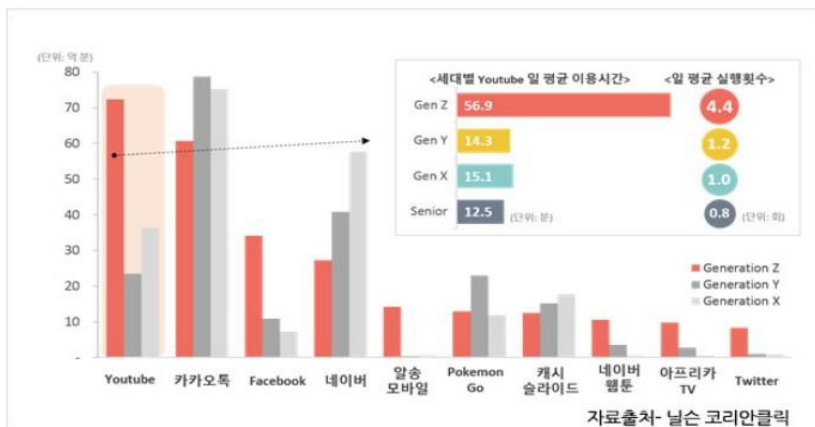
유튜브 이용률은¹¹⁾ Z세대가 86%로 다른 세대와 1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다른 세대들은 TV 시청의 ‘프라임 타임’이라고 불리는 저녁 8시에 접어들면서 모바일 이용이 감소하는 것과 반대로 오히려 이용시간이 가파르게 증가한다. 이들에게는 모바일 동영상 이용이 TV의 대체수단이 아닌 독자적인 영상 시청 매체로서 자리잡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7년 3월, 닐슨코리아클릭에서 발표한 ‘세대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현황(순 이용자 수 기준)’에 따르면 ‘Generation Z’의 경우 순 이용자 수 4,916,716명 중 유튜브가 2위, 카카오톡과의 격차는 세대 중 가장 적은 격차를 기록한 바 있다. 사용시간에서도 ‘Generation Z’에서 유튜브는

11) 미국 역시, 더 버지(The Verge), 엔가젯 등의 외신에 따르면 2018년 5월 31일(현지시간) 미국 퓨 리서치 센터(2018.3.7.~4.10.까지 1,058명의 학부모와 743명의 청소년 대상, ‘10대들의 소셜 미디어 사용에 대한 연구’)가 발표한 조사 결과, 만 13세부터 17세 사이의 청소년 중 85%가 유튜브를 사용하며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소셜 미디어는 인스타그램(72%), 3위 스냅챗(69%)으로 밝혀졌으며 페이스북은 51%로 전체 5위에 그쳤다.

1위를 차지하였으며 일 평균 시간은 56.9분, 일 평균 실행회수 4.4회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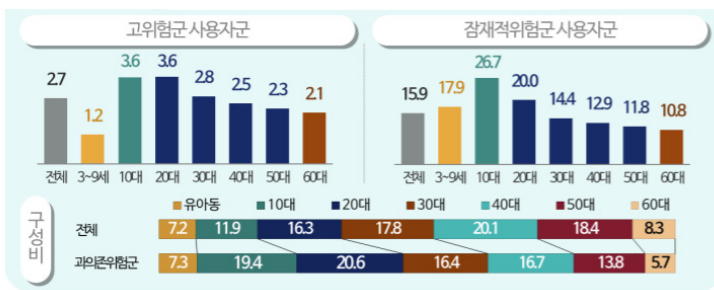
[그림 4-11] 세대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현황



[그림 4-12] Z세대의 모바일 앱 이용시간 TOP 10

한편 스마트폰 사용의 일상화, 1인 미디어의 대중화, 크리에이터의 인기 등으로 스마트폰에 대한 기능적 의존을 넘어 심리적·습관적 의존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의존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특히 크리에이터를 꿈꾸는 세대인 10대를 비롯한 청소년은 스마트폰 의존도 고위험군에 속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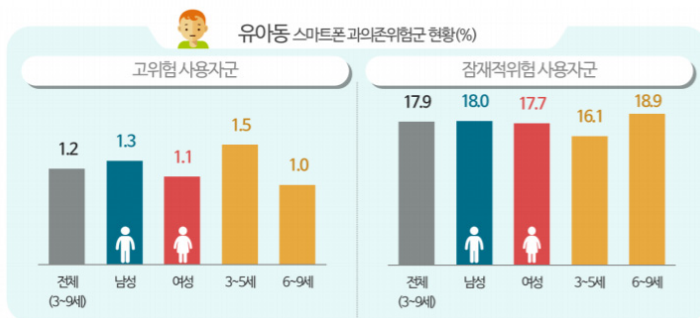
2017년 한국정보화진흥원 연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 현황의 고위험군 1위는 청소년으로 밝혀졌다. 청소년>성인>60대>유아동순으로 나타났으며 잠재적 위험군에서 청소년>유아동>성인>60대 순으로 청소년과 유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10대>20대>3~9세>30대 등의 순으로 저연령층에서 과의존 심화이며 고위험군의 평균(2.7%)보다 높게 나타난 연령은 10~30대이다. 잠재적 위험군의 평균(15.9%)보다 높게 나타난 연령은 10대, 20대, 3~9세로, 과의존 위험군의 연령 구성비를 전체 스마트폰 이용자와 비교 시, 20대 미만 저연령층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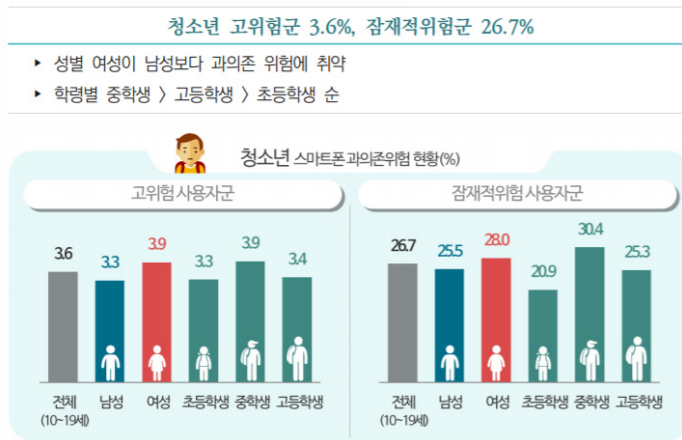
[그림 4-13] 연령별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 현황(%)

유아동 고위험군 1.2%, 잠재적위험군 17.9%

- ▶ 성별 남아가 여아보다 과의존 위험에 취약
- ▶ 세부 연령별 고위험위험군은 3~5세가, 잠재적위험군은 6~9세가 높게 나타남



[그림 4-14] 유아동의 고위험/잠재적위험 사용자군 비율



[그림 4-15] 청소년의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 현황(%)

나. 이슈를 위한 이슈 : 자극적 소재, 거짓뉴스의 무분별 확산

크리에이터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자극적 소재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 등으로 사회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추천 수와 조회 수를 늘리기 위해 동물학대, 섹시댄스 등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영상이나 가짜 뉴스를 제작 및 유포하고, 성장가능성이 있는 1인미디어 콘텐츠를 무단 도용하는 사례이다.

2018년 10월 16일, 여성가족부가 주최한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 현황과 자율규제 정책’ 토론회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 까지 유튜브와 유튜브에 올라온 아프리카TV 콘텐츠 중 성차별적 내용이 담긴 인터넷 개인방송은 유튜브가 135편, 아프리카TV가 34편으로 총 169 편이었다. 이 방송들을 분석한 결과, 페미니즘과 성평등 정책에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방송이 79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튜브 콘텐츠에서 특히 많이 나타났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적발한 한 개인방송의 경우 “페미니즘은 공산주의와 결합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좌파 집단”, “페미니즘은 성별 갈등, 가정 해체, 동성애를 조장한다”, “이 나라를 망하게 하는 여성 빨갱

이 운동이 페미니즘 운동이다”, “매국노 페미분자 자폭하라” 등의 발언을 전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성이 힘든 일을 기피하기 때문에 3D 직종에는 대부분 남성들이 종사한다’, ‘3D업종에 종사하는 남성이 같은 일을 하는 여성과 동일한 임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 등 여성이 경제활동과 가족부양 등에서 주체적 역할을 담당하는 현실을 부정, 왜곡하는 식의 내용을 방송하는 유튜버들도 있다.

2018년 10월 16일, 법무부가 밝힌 허위조작정보 처벌 강화를 내놓았다. 일명 ‘가짜뉴스’를 양산, 유통했던 1인 미디어에 대해 언론사 보도에 준하는 책임을 묻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정보통신망법의 삭제요청권 신설은 명예훼손 등 개인권리 침해와 관련돼 있고, 그 외 특정 집단에 대한 가짜뉴스는 정보통신망법에 ‘언론보도를 가장한 유포 행위’ 내용을 새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으로 지나친 정부 규제와 개입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가짜뉴스의 진위 여부를 증명하기 어려운 환경 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북한 김정일과 성관계(인터넷TV 방송)	징역 1년6개월
■ 윤창중 전 대변인 성추행 피해자는 모 국회의원 내연녀(트위터)	징역 6개월
■ 손연재 선수가 애국가 영상에 자신의 경기장엔 삽입 로비(모바일 게시판)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세월호 학생과 여교사가 죽을 직전 성행위(일간베스트 게시판)	징역 1년
■ 모 방송인의 여자친구는 ‘클럽 죽순이’ 등 거짓글(인스타그램)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전기통신기본법 위반	
■ 세월호 희생자로부터 구조 메시지 받은 것처럼 거짓글(페이스북)	벌금 300만원
■ ‘테마주’ 부양 목적 유력 대선후보 지지선언 거짓글(주식 토론실)	벌금 300만원
■ 투자유치 목적 업체 관련 거짓글(인터넷 사이트)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 도박사이트 홍보 ‘남시글’(도박 사이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경찰청 관계자 사칭 선물거래 관련 거짓정보 발송(문자메시지)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공무집행방해	
■ 시정홍보지 만평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욕설 표시	벌금 300만원
업무방해	
■ 메르스 의심환자로 ○○병원 출입금지 거짓글(네이버 밴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사자명예훼손	
■ 김대중 전 대통령 차명계좌에 12조원 등 거짓글(일간베스트 게시판)	벌금 30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 문재인 후보 아버지는 북한 인민군 등 거짓글(페이스북)	징역 10개월

[그림 4-16] ‘알권리 교란 허위조작정보’ 주요 처벌 사례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델파이 조사에 의하면, 미디어 제공 채널이 다양해지는 경우, 정보 접근성이 높은 동시에 파편화된 정보의 공신력에 대한 검증 장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에 평균 3.93점을 나타내었다. 전문가들은 지상파 방송사와 언론사에 대한 신뢰 부재, 정보 인지 광고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과도한 마케팅으로 인해 대안 매체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현상이 이와 맞물려 나타날 것으로 보았다.

〈표 4-12〉 2차 델파이 결과 - 1인 미디어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대안 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5점 만점)					
	평 균	응답별 비율(빈도)				
		1	2	3	4	5
미디어를 제공하는 채널의 다양화와 파편화는 정보의 공신력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편향된 정보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	3.9 3점	-	5.0% (n=2)	20.0% (n=8)	52.5% (n=21)	22.5% (n=9)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6년 11월부터 인터넷 방송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지만 하루 수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 인터넷 방송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플랫폼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통해 음란, 불법, 청소년 유해, 저작권 등을 어길 시 경고, 차단, 교육, 서비스 이용 제한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적절한 규제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2018년 10월 현재 법무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에서는 1인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정보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처벌 등 법적 규제는 물론 미디어 플랫폼 및 언론사의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진위여부의 정보 검증에 대해서는 정부의 판별이 아니라 유통을 막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존중함과 동시에 불법 유해 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제5절

혐오가 가져온 토론문화, 우리의 다양성을 드러내다

1. 여혐남혐, 세대갈등, 난민혐오의 표현 심화

“사람들은 공공연하고 거리낌없이 증오를 표출한다. 때로는 미소를 머금은 얼굴로, 때로는 웃음기 없는 얼굴로, 그리고 대개는 전혀 부끄러운 기색도 없이. (중략). 인터넷 상에서 폭력적 공상을 펼치고 혐오와 증오로 가득 찬 댓글을 달 때도 이제는 닉네임 뒤에 숨지 않는다.”

카롤린 엠케, 2017

가. 미투 이후 여혐남혐의 심화와 갈등

1) #살아남아서다행이다, #미투운동

2030대, 넓게는 40대 초중반까지 아우르는 세대들은 성장 과정에서 그 이전의 세대와 달리 성별에 상관없이 가정에서 귀한 자식으로 평등하게 자랐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한국 여성의 성 평등 의식은 점차 성장하였지만 사회구조는 과거에 머물러 있을 뿐이었다. 회사에서, 가정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공감대는 형성되었지만 이러한 것들이 사회문제로 발돋움하지 못하였지만, 2016년 5월 강남역 여자화장실에서 벌어진 묻지마 살인은 ‘여성’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되었다는 인식과 함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는 ‘#살아남아서다행이다’라는 연대의 해시태그가 넘쳐났다. 온라인에서 연대한 이들은 같은 해 말 촛불집회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뭉치면 잘못된 정치·사회 현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도 함께 확산되었다.

이후 국제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MeToo 운동은 국내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다. 국제적으로 퍼져나간 미투운동은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

스타인이 수 십 년간 성희롱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미투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불려일으켰다. 2018년에 미국 그래미 시상식에서 스타들이 평화와 저항의 상징인 하얀 장미를 들거나 가슴에 달고 등장하며 미투 운동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하였다. 우리사회도 2015년 국악단원들의 성추행·성폭행 피해 주장 하에 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 감독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이 불거져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가리기 위해 사건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서게 되었고, 이는 문화예술계에서 만연하는 성추행·성희롱을 폭로하는 시초가 되면서 점차 여러 분야에서의 성폭력 이슈가 불거져 나왔다. 문학계에도 점차 성추문이 확산되며 문인들로부터 성추행·성희롱을 당했다는 폭로가 잇따라 나오면서 박범신 작가, 박진성 시인, 배용제 시인이 구설수에 오르게 되고, 많은 학생들의 폭로와 함께 대학가로도 성추행 파문이 확산되는 움직임을 보였다.

각종 성추행 파문들은 한국에서는 현직 여성 검사가 성추행 경험을 폭로 한 것이 본격적인 ‘미투 운동’의 발단이 되며, 2017년에는 김기덕이 촬영장에서 여배우를 폭행하고 베드신 촬영을 강요한 혐의로 피소되며 영화계에서의 성추문이 공론화가 되었다. 배우 이명행, 연극 연출가 이운택, 배우 조민기, 배우 조재현 등 많은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성추행 의혹을 받아 사퇴하거나, 각종 고소고발, 징계처분 등이 진행되고 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4회·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2017년 4월 기소되었지만, 8월 재판부는 1심에서 업무상 위력이 행사되지 않았고, 피해자 김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위계적 힘의 논리와 성폭력사건의 관계라는 또 다른 이슈들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 외, 학내 성폭력과 성차별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Me Too · 나도 피해자다)’ 또한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확산되고 있다. 스쿨미투는 2018년 상반기에 약 20여개교에서 폭로가 이어졌다. 현재 각 시도교육청은 스쿨

미투가 발생하면 ‘학교성폭력 사안처리 매뉴얼’에 따라 필요 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 등을 열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례 위주로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표 4-13〉 미투(Me-too) 운동의 주요 이슈 흐름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2015년	4월	- 국가인권위원회가 천인시립예술단 소속 충남국악관현악단 예술감독의 성추행·성희롱 의혹에 대한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나섰다.
2016년	5월	- 검찰이 ‘충남국악관현악단 성추행 사건’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10월	- 이준규 시인, 배용제 시인 등 문학계에서 성추문 고발이 제기되었다. - 홍대 미대생들의 폭로가 잇따르며 대학가로 문화계 성추행 파문이 확대될 전망이다. - SNS 상에서 ‘해시태그 성폭력 말하기’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2017년	4월	- 대전의 한 문화원장이 상주단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되었다.
	8월	- 김기덕 영화감독이 촬영장에서 배우를 폭행하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되었다.
	10월	-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 십 년간 성희롱 및 원치 않은 신체적 접촉을 저질러 최소 8명의 여성과 합의, 익명을 요구한 회사 관계자 2명에게서 이를 확인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11월	- 여성가족부는 문화예술계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 ‘문화예술계 성폭력 피해자 지원 가이드라인(지침서)’을 제작해 배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2018년	1월	- 미국 뉴욕 그라미상 시상식에서 미투에 대한 연대와 지지를 표하는 흰 장미가 등장하였다. - 현직 여성 검사가 자신이 겪었던 성추행 경험을 폭로하였다.
	2월	- 시인 최영미는 자신의 성폭력 피해 경험을 ‘괴물’이라는 시를 통해 밝히며 미투 운동에 동참하였다. - 연극연출가 이윤택이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연희단거리패 등 자신이 맡고 있던 극단의 예술 감독직에서 모두 사퇴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예술, 영화계, 출판, 대중문화산업 및 체육 분야를 대상으로 실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배우 조민기, 오태석 연출가, 배우 조재현, 사진작가 배병우 등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 창작 뮤지컬 ‘명성황후’, ‘영웅’ 등을 제작한 윤호진 대표가 성추행 의혹을 모두 인정하였다. - 교수 시절 성추행 등 사건으로 교수직에서 해임된 전력 있는 김태준 시인이 한국 시인협회 신임 회장직에서 사퇴하였다.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3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대 대선 경선에 출마했던 안희정 충남지사가 성폭행 의혹을 받았다. - 권력을 이용한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 상한이 징역 5년에서 징역10년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다. - ‘미투 가해자 의혹’을 받아온 배우 조민기가 자살하였다.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생민의 영수증’으로 전성기를 맞은 방송인 김생민의 성추행 사실이 폭로되었다. - 미투(Me Too) 운동이 확산되는 가운데 성폭력·성범죄 가해자가 문화예술단체 장일 경우 해임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었다. - 국가인권위 미투 토론회에서 문화예술계 권력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 유명 유튜버 양예원이 성범죄 피해 사실을 고백하였다. - 인권상담센터 성범죄 상담이 작년 동기간 대비 33% 증가하였다.
	5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이 신고상담센터로 확대 운영될 계획이다.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업무상 위력 입증 부족으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다.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내 성폭력과 성차별을 폭로하는 ‘스쿨미투(#Me Too · 나도 피해자다)’가 열풍이다. -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이 극단 단원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2) 극단적 여혐, 남혐표현의 심화

#살아남아서다행이다 와 #미투운동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 여성을 약자로 보는 사회적 불합리에 대한 고발과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졌고,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 대한 공포, 여성만이 겪어야 하는 불안감에 대한 호소 등으로 이어지며, 일명 ‘몰카 찌르기’를 파우치 등에 채기고 다니는 등의 행동이 유행하기도 하였다(임선영, 2018.06.26.). 여성들은 더 이상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의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촛불집회이나 SNS를 통해 ‘#나는 페미니스트다’ 선언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또한 ‘여성 혐오’에 대한 적극적인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다. 유명 개그맨 장동민, 유상무, 유세윤은 과거 팟캐스트를 통해 “여자들은 멍청해서 남자들한테 안 돼”라는 등 여성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던 것이 논란이 되었으며, 이후 유상무가 모델로 등장한 화장품 브랜드의 광고 영상에

대한 항의가 쇄도하였고 결국 사과 공지문과 함께 유튜브에서 공식 삭제됐다. 또한 맥심 코리아 9월호는 여성 납치살해를 연상케 하는 화보로 국제적인 논란을 일으키며 전량 폐기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박선영, 2015.09.03.). 이외에도 여성혐오를 반대하며 시위나 ‘우리가 멈추면 세상도 멈춘다’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매월 첫째 주 일요일마다 여성소비총파업을 진행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통해 여권 신장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었다. 또한 기존에 여성에게만 아름다움을 강요하던 것들에 대한 거부로 긴 머리가 아닌 짧은 머리를 하거나 화장을 하지 않는 등의 ‘탈코르셋’운동이 확산되었다.



자료: 여성소비총파업 페이스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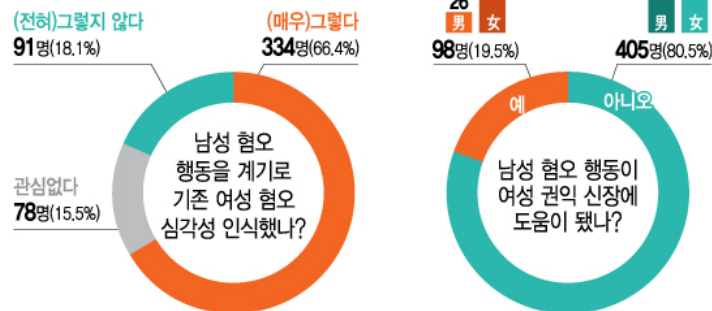
[그림 4-17] 여성소비총파업 포스터

여성혐오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똑같은 형태로 혐오와 차별을 돌려주겠다는 ‘미러링’ 행동을 하는 인터넷 커뮤니티가 등장하였다. 이들은 여성혐오를 하는 남성들에 대한 강한 혐오감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등장한 남성혐오는 점점 더 거세졌으며,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와 ‘워마드(Woman+Nomad)’는 극단주의 페

미니즘 사이트를 표방하며 등장해 남성혐오 커뮤니티의 대표 명사로 자리 매김 하게 되었다. 워마드의 많은 글과 활동들(성체훼손 등)이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기도 하고 범행을 모의하거나, 위협 및 협박에 대한 글들이 올라오는 등 지나치게 극단적인 활동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다. 성별 간 갈등은 온라인을 넘어 오프라인 시위 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성 혐오에 대한 반발은 홍익대학교 몰카 유출 사건으로 촉발된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5월 19일 1차 시위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 6일 5차 시위를 진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 시위에는 남성 혐오 표현들이 사용되면서 오히려 반감을 야기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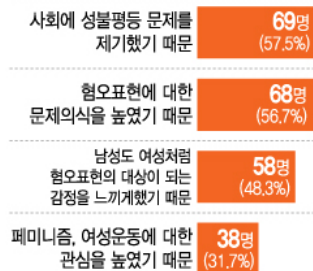
머니투데이-'남성 혐오 행동' 영향 조사

*조사대상: 전체 503명, 남성 272명, 여성 231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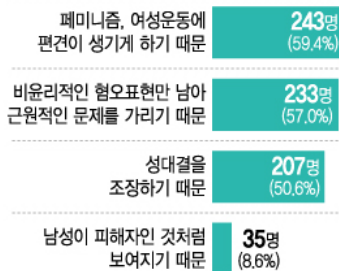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복수응답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복수응답



그래픽: 김지영 디자인가자

[그림 4-18] '남성 혐오 행동' 영향 조사

반대로 페미니즘 행동에 대한 반발이자 남혐현상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 행동으로 남성들의 여성혐오 현상 강화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일베로 대표되는 극단주의적 여혐사이트들 또한 여혐에 대한 범행모의, 위협 및 협박 글, 남혐 활동에 대한 극단적 반발 활동 등의 수위가 높아지며 남혐, 여혐 현상이 상대적 양상, 공격적 혐오로 확산 및 심화되고 있다. 2010년 처음 사이트 문을 연 일베는 극우성향의 과격한 표현, 노골적 혐오, 조롱 이미지 생산, 세월호 폭식 시위 등 반사회적 행동을 주도했다. 또한 노골적 여혐을 ‘강간 예고’ 등으로 표현하며 극단적 행태에 대한 사회적 이슈로 계속 지적되고 있다.

부산 곰탕집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이 여성의 진술만을 반영한 편파 판결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년 10월 27일 혜화역에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을 규탄하는 국내 첫 ‘힘투(Him Too, 그도 당했다)’로 기획되었다.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삶을 지키기 위하여(당당위)’의 주최로 진행된 이번 집회에는 최대 1만 5,000명의 참석이 예상되었던 60여 명이 참석하였다. 당당위 집회에는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의 오세라비 작가, 성추행 유죄 판결 이후 개인방송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주장하고 있는 배우 조덕제, 문단 내 거짓 미투 피해자로 알려진 박진성 시인 등이 참석하여 사법부에 대한 판결에 대해 함께 비판하였다. 같은 날, 반대편에서는 당당위의 집회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라고 주장하는 남성들이 맞불 집회를 열었다. 이 시위를 주최한 집단 역시 남성으로, ‘남성과 함께 하는 페미니즘(남함페)’ 회원 40여명이 참여하였다.

이렇듯 극단적 혐오 표현, 발언들이 행동으로까지 이어지며 심화되는 원인으로 전문가들은 사회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젊은 세대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반대된 집단이라 생각되는 집단에 대한 공격성으로 표출되고 있다고 진단하거나, 집단 안에서의 이용자들의 지지 분위기 속에 자극적인 허세와 과시적 표현이 부추겨진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다(SBS, 2018; 이데일리, 2018). 하지만 전문가들의 시각 또한 양분되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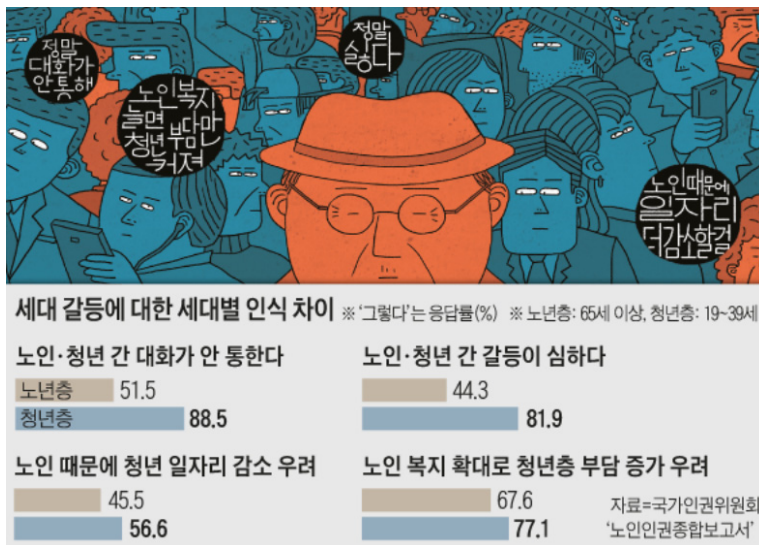
나타나고 있다. 건국대 몸문화연구소 윤김지영 교수는 남성 혐오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동안 존재했던 남성 중심적 시각을 여성 관점으로 전환하는 시점에서 생기는 갈등으로 바라봤다. 반면 ‘그 페미니즘은 틀렸다’ 저자 오세라비 작가는 페미니즘 열풍이 일면서 우리 사회에 남긴 것은 혐오로, 여성의 힘이 강해지니 맹목적으로 페미니즘 편을 들어주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남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택광 경희대 글로벌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여성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있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아직 따라오지 못하는 현상이라며 비정규직 문제와 남녀 임금차별 등 기본적인 사회적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구자윤 외, 2018.10.18.).

서민 단국대 의대 교수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갈등에서 남성과 여성의 연대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고 바라보았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서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분노하였고, 4,000여명이 넘는 회원들이 활동하는 ‘성범죄 전문 상담 카페(성전카페)’에서는 자신이 저지를 성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형을 덜 받을 수 있는지 묻는 글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무혐의 판결을 받았다는 글에 축하 세례가 이어진다. 남성들이 가해자를 위해 연대하는 반면 여성은 강남역에서 한 여성이 묻지마 살인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남성 몰래카메라 범죄자에게도 엄하게 처벌을 요구하는 등 대부분 피해자를 위해 연대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선명수, 2018.10.09.).

나. 촛불과 태극기집회 이후, 깊어지는 세대 간 갈등

국가인권위원회가 노인인권 종합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전국의 65세 이상 노인 1,000명과 18~64세의 청·장년 500명을 대상으로 2017년 하반기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세대 간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노인층 51.5%, 청년층은 88.5%로 두 집단 모두에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부 노인들의 나이와 경험에 기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강요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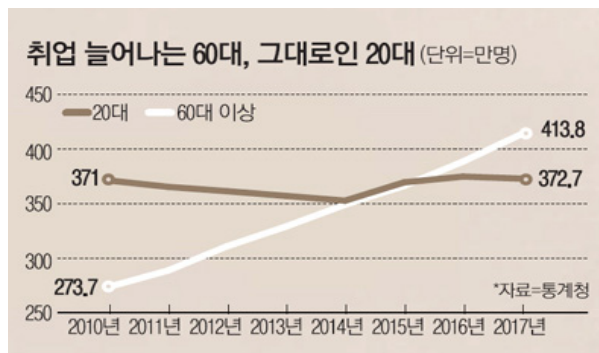
는 행동과 정치적인 편향성이 강화되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노인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역으로 전체 노인들이 조롱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청년층의 노인에 대한 이해 부족까지 더해져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안상현 외, 2018.03.17.).



[그림 4-19] 세대갈등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

하지만 100대 시대라는 현재의 사회에서 기존의 노년층에 대한 다른 시선과 분류, 사회적 역할이 요구되고 있고, 5060 이상의 세대들 사이에서도 인식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는 모습들이 나타난다. 과거의 50대는 '5060'이라는 별칭의 노인층으로 묶였고, 실제로 50대의 투표 및 여론 성향은 60대 이상의 최고령층과 거의 같았다. 하지만 전 박근혜 대통령 정부 당시 각종 여론조사에서 60대 이상은 변함없는 보수 지지층인 반면, 50대는 진보와 보수를 오가고 있는 형태로 나타났다. 50대의 표심이 60대에서 '독립하는' 추세가 지속되면서 2030 대 5060이었던 대립구도는 무너졌고, 40대가 30대와 연동성이 강화되면서 젊은 층으로 옮겨간 반면 50대가 어느 한 쪽에 치우치지 않아 이제 50대를 5060으로 묶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최종철, 2016.10.22.).

일자리 및 경제적 이해관계, 복지 부문에 대한 이슈 때문에도 세대 간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 시기와 맞물려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등의 논의가 이뤄지면서 2030과 5060이 일자리를 두고 경쟁을 벌이는 상황이 나타났다(변미리, 2016). 통계청에 따르면 60대 이상 연령층은 취업자 수가 지난 8년간 273.7만명에서 413.8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20대의 취업자 수는 371만명에서 372.7만명으로 정체되고 있다(통계청, 2018). 정부와 지자체가 청년층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취업성공패키지·청년수당 사업을 두고도 중장년층과 청년층 간의 의견이 충돌하였다. 중장년층은 청년지원사업이 포퓰리즘의 극치인 정책이라며 비난하였지만, 청년층은 정부에서 청년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하며 현실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였다(글로벌이코노믹, 2018.03.13.).



[그림 4-20] 20대, 60대 이상 취업자 수 그래프

청년 빈곤의 원인 중 하나인 취업난에 대한 세대별 인식 차이는 뚜렷했다. 중장년층은 취업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도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선호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눈높이’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40대는 62.7%, 50대 62.7%, 60대 이상은 60.7%가 높은 눈높이에 취업난의 이유가 있다고 보았다. 반면 청년층은 자신들의 취업난의 가장 큰 이유를 20대는 질 나쁜 일자리(61.0%)와 불합리한 채용구조(52.8%)를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고, 30대는 질 나쁜 일자리(59.0%)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았다는 것은 현재 일자리를 바라보는 세대 간 인식의 간극을 확인시켜준다(홍인가·민나리, 2018.10.29.).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촛불집회에 대한 맞불집회로 시작된 ‘태극기 집회’는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주도하여 나타났으며, 그들 스스로를 ‘태극기 부대’로 칭하며 태극기를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정치적 상황과는 상관없는 종북을 결부시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시키려는 이들은 모두 ‘빨갱이’라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 대다수는 노인 세대였다는 점에서 세대 간 정치적 갈등이 더욱 심화되었다. 하지만 2017년 ‘최순실 게이트’, ‘탄핵 사태’로 불거진 광장에서의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 대결 양상 또한 세대 갈등이 아니라 ‘5070세대의 분열’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한다. 일명 ‘태극기집회’로 불리는 친박(친박근혜) 성향 집회 참가자 대다수가 5070세대인 것은 사실이지만 세대갈등이라기엔 태극기 집회에도 젊은 세대 참여가 일부 있었고, 특히 촛불집회에 참가하는 5070세대가 상당히 많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퇴진 요구 촛불집회’의 경우 이전 촛불집회와 비교했을 때 5070세대의 참여가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촛불집회와 태극기집회의 대립을 세대갈등을 보는 것은 이분법적 접근이라고 할 수 있다는 분석에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하대석, 2017).

하지만 특히 보수 성향이 강한 노인들 사이에 가짜뉴스들이 퍼지고, 사회에 대한 인식의 왜곡이 더욱 심화되는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노인들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더 이상 언론에서는 현실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지 않고 읽던 신문도 절독하고 보수 진영이 운영하는 유튜브에만 의존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이들이 보는 보수 진영이 운영하는 유튜브 중 인기 채널의 경우 구독자 수가 16만~20만 명에 달하며, 한 인기 극우 인사의 동영상 채널 누적 조회수는 1억 4,000만회를 훌쩍 넘길 정도이다. 동영상들의 첫 화면은 대부분 노인이 한 눈에

읽기 좋은 굵고 큼지막한 글씨로 ‘고용참사’, ‘대국민 사기극’같은 현 정부를 비판하는 자극적인 문구나 ‘김정은 대통령 만들기가 시작됐다’등 근거가 빈약한 제목이 태반이다(정준호·강진구, 2018.06.15.).

일부 가정에서는 태극기 부대인 부모와 그렇지 않은 자녀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으며(정준호·강진구, 2018.06.15.), 태극기를 보면 태극기부대가 떠올라 불편한 감정을 느끼기도 한다. 실제로 취업포털 인크루와 모바일 설문조사 플랫폼 두잇서베이가 2017년 2,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도 전체 응답자 중 42%가 ‘태극기를 보고 불편한 감정을 느꼈다’고 답했다(허경구·손재호, 2018.06.07).

노인들이 계속해서 태극기부대로, 극우 성향을 띄게 되는 것을 최종속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쟁점은 북한과는 관련이 없음에도 태극기 집회 현장에서 ‘종북주의자’, ‘빨갱이’등의 색깔론이 등장하면서, 5070세대가 가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공포가 이들을 결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하기도 한다. 전상진 서강대학교 교수는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박정희 전 대통령과 그의 딸에 대한 비판은 곧 자신들이 힘겹게 일궈놓은 지난 세월을 부정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사실을 보기 보다는 믿던 것을 계속 지키려는 성향으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바라보았다(류인하, 2018.03.27.). 세대 간 소통의 단절로 인해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부재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탄핵이라는 정치적 사건이 발생하자 그동안에도 존재했던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다.

다. 난민혐오, 이주민에 대한 불편한 시선

2018년 제주도에 무비자로 들어온 예멘인들의 난민 신청이 552명으로, 199년 난민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 보장하는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가입한 이래로 누적 신청자보다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대부분 무비자로 90일 체류가 가능한 말레이시아에서 머물다가 기한이 다 되자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제주도로 온 것이다. 난민 신청이 급증하였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6월 30일 저녁엔 광화문 인근에서 난민 수용 찬반 집회가 동시에 열렸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문화적·종교적 차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우려하는 동시에 불법체류 수단으로 악용되는 무사증제도와 난민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를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왔고 총 71만 4,875명이 참여하였다(청와대국민청원홈페이지, 2018.8.1).

이러한 논란에 법무부는 4월 30일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난민 신청한 외국인이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도록 제한하였고, 6월 1일 예멘을 제주 무사증 불허 국가에 추가하였다. 동시에 제주지방경찰청과 합동하여 5회에 걸쳐 228명을 대상으로 한국사회 법질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난민들을 대상으로 SNS 계정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신원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심사기간 동안 본국을 방문하는 경우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간주, 심사를 즉시 종료하는 방안 도입과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난민 브로커에 대한 처벌조항도 명문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수용에 대한 찬반 집회와 수십만 명의 청원, 그리고 법무부의 대책이 나올 정도로 예멘 난민에 대한 논란은 거세게 나타났다. 이는 이슬람에 대한 공포,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으로 인한 이방인 배척 심리 등이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전 세계적으로 이슬람 수니파 무장단체(IS)의 테러 공포 퍼져있는 가운데 이슬람을 믿는 예멘 난민들이 대거 제주도로 유입되어오니 이에 대한 공포감이 커졌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은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에 대한 배척 심리는 항상 잠재되어있던 요소이며, 일자리 문제, 복지 사각지대 문제 등 내부적 문제에 대한 불만을 이방인에게 표출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안규영, 2018.07.04.).

예멘 난민 사태는 이슬람 포비아와 함께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외국인의 지방선거 참정권 철회 요구’ 청원 글에 7월 3일 기준 9만 3,000여 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각종

다문화지원 정책을 반대하는 청원글도 200건 가까이 올라왔다. 또한 다문화가정을 반대하는 기존 극우 성향 단체들도 난민 반대 분위기를 타고 활동을 재개하기도 하였다.

〈표 4-14〉 난민 관련 변화 주요 이슈 흐름

연도	월	사건/이슈/현상
2016년	4월	- 유럽연합(EU)이 난민 수용 부담을 모든 회원국이 공평하게 지는 방식으로 개혁을 추진하였다.
	5월	- 유럽연합(EU)이 난민 분산 수용안을 거부하는 회원국에 1인당 25만유로(3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6월	- 이민자 수용정책과 금융산업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과도한 규제에 의해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하기로 공언하였다.
	8월	-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후보는 이민자에 대한 사상검증과 특정 국가 출신자들에 대한 이민제한 등을 핵심으로 한 '반 테러 대책'을 발표하였다.
	9월	- 19일 유엔은 뉴욕 유엔본부에서 난민·이민에 대한 사상최초의 정상회의를 열었다.
	12월	- 유럽연합(EU)은 유럽으로의 난민 대량유입을 막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터키에서 가장 취약한 난민을 돕기 위해 3억 4800만 유로(약 4337억원) 규모의 지원 사업을 시작하였다.
2017년	1월	-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정부가 검토 중인 '국제기구에 대한 미국 분담금의 감사와 식감'이란 제목의 행정명령안을 공개하였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강경한 '반(反)난민' 기조의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2월	- 유엔 사무총장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철회를 촉구하였다.
	3월	-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 입국금지 대상이던 이라크가 제외된 이슬람권 6개국 국적자의 입국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일부 수정된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하였다.
2018년	1월	- 미국 정부가 유엔 팔레스타인난민구호사업기구(UNRWA) 지원금 1억2500만달러 중 6500만달러(약 700억원)를 삭감하였다.
	2월	-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국(USCIS)은 조직 강령에서 '이민자들의 나라(nation of immigrants)'라는 문구를 삭제하였다.
	6월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제주도로 입국한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 개선을 정부에 촉구하였다. - 국민청원 '제주도 불법 난민 신청 문제에 따른 난민법, 무사증 입국, 난민신청허가 폐지/개헌 청원합니다'가 닷새만에 청원 수 20만명을 돌파하였다. - 문재인 대통령은 제주도 체류 예멘 난민 문제에 대한 현황 파악을 지시하였다. - 제주도에서 난민지위 인정 신청을 한 예멘인 중 일부가 제주 지역에서 나갈 수 있게 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연도	월	사건/이슈/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5일부터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예멘인에 대한 난민 심사가 시작되었다. - 제주 지역 종교·시민사회단체·진보 정당 등 33개 단체는 '제주 난민 인권을 위한 범도민 위원회'를 결성하였다. - EU 지도자들이 난민 수용 센터를 세우기로 합의하였다. - 법무부는 외국인 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난민법 개정, 재외공관 비자심사 강화, 난민심사기간 단축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발표하였다. - '불법난민 신청 외국인대책연대'와 '난민반대 반대집회'측의 집회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에 입국한 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를 주변 사람들에게 홍보하고 가입 권유한 30대 시리아인이 경찰에 구속되었다. -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제주의 난민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난민 신청 허가를 폐지·개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이 역대 최다 동의를 기록했다. - 14일 난민 수용 반대 2차 집회가 개최되었다. -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과 난민 심사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와대는 난민수용에 반대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하여 난민협약 탈퇴나 난민법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 이집트 출신 난민 신청자가 한국 정부에 난민신청자들의 안전 보장과 지위 인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돌입하였다.
	9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1차 심사 경과 통해 예멘 난민 신청자 484명 중 23명의 1년간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였다. - 정부가 예멘 난민 23명의 인도적 체류를 허용한 것에 대한 찬반 집회가 동시 개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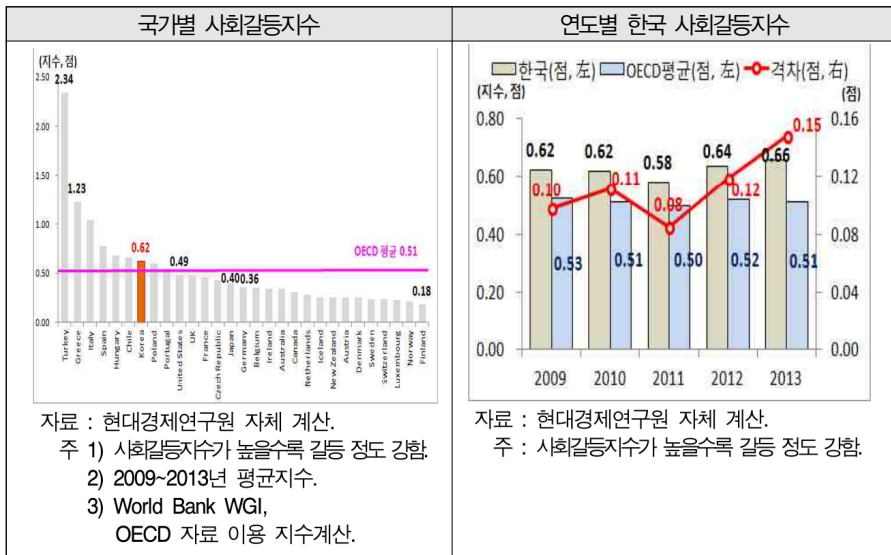
2. 사회갈등을 사회적 대타협으로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가. 집단 간 대립과 갈등에 대한 부정적 심화를 전망하는 사람들

1) 한국의 사회갈등 심각, 사회갈등 관리는 바닥

현대경제연구원이 2016년 세계은행(WEF)의 국가별 거버넌스 지수(WGI, Worldwide Governance Indicator)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를 활용해 도출한 사회갈등지수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OECD 29개국 중 7위(2016년 기준)로 매우 높은 갈등 수준을 보이지만,

사회갈등 관리지수는 27위로 바닥 수준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더 악화되고 있다는 점¹²⁾이고, 다른 OECD 국가 평균과의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결과치가 2016년 결과라는 점을 참고할 때, 2017~2018년에 한국사회에 발생한 더 많은 사회적 갈등을 고려해볼 때 한국의 사회갈등지수는 현재 시점에서 더 악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6),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경제주평

[그림 4-21] 국가별 사회갈등지수, 연도별 한국 사회갈등지수

그렇다면 이런 사회전반의 집단 간 혐오, 사회갈등은 언제까지 지속될 것인가? 계속해 심화할 것인가? 혹은 우리가 매우 긍정적으로 사회통합 및 화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낙관적인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것인가?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델파이조사결과에 따르면, 집단혐오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세분화 및 파편화되면서 더 다양한 혐오로 심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미래에 대한 전망 동의도가 4.1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델파이

12) OECD 평균지수: 2009년 0.53 → 2010년 0.51 → 2011년 0.50 → 2012년 0.52 → 2013년 0.51 인데, 한국지수(OECD 평균과의 격차)는 2009년 0.62(0.10) → 2010년 0.62(0.11) → 2011년 0.58(0.08) → 2012년 0.64(0.12) → 2013년 0.66(0.15)로 점차 벌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조사에 참여한 전문가 80%가 혐오 문화는 점차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4-15〉 델파이 결과 - 혐오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대안 시나리오	평균	발현 가능성 (5점 만점)				
		응답별 비율(빈도)				
		1	2	3	4	5
사회에 만연한 혐오의 대상과 프레임은 점차 세분화되고 파편화될 것	4.10 점	-	25%	5.0%	72.5%	20.0%

〈표 4-16〉 2차 델파이 결과 - 혐오 관련 방향성

(A방향성)	A 방향성에 더 가깝다	A, B 동등하다.	B 방향성에 더 가깝다	(B방향성)
혐오의 대상과 프레임이 점차 세분화되고 파편화되어 혐오 문화가 개인화되면서 응집력이 약해져 점차 사라질 것	10.0% (n=4)	10.0% (n=4)	80.0% (n=32)	혐오의 대상과 프레임은 점차 세분화되고 파편화되어 보다 더 다양한 혐오 문화가 양상되고 심화될 것

2) 성별 혐오, 이주민 혐오, 세대 갈등: 사회인식 변화를 위한 진통과정으로 본다.

물론 성별 간의 갈등은 여성 인권에 대한 의식이 갈수록 강해져서 보다 강력한 양성평등적 요구가 사회 전반적으로 확산되겠지만, 기득권인 남성들은 변화를 거부하거나 오히려 반동적인 반격을 행하고 있어 갈등은 지속될 것이라고 보았다. 동시에 여혐 콘텐츠들을 소비하는 층이 많고, 이로 인해 돈벌이의 수단이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 여혐에 대한 콘텐츠는 끊임없이 재생산될 것이라는 의견이 전문가 좌담회에서 제시되었다. 또한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성별 간 혐오의 갈등은 이미 피로감이 쌓여있기 때문에 트렌드로 발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도 있었으며, 성평등에서 함께 문제를 해결해야 할 주체인 ‘남성’을 배격함으로써 논의가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바라보는 전문가도 있었다.

하지만 집단 혐오 중, 여성과 남성 간의 혐오현상의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현재의 성별 간 갈등은 사회인식 변화과정에서 나타나는 일종의 진통 현상으로 2020년 정도에는 점진적으로 성 평등을 향해 나아가고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과 기대를 표현하는 전문가들이 다른 혐오현상에 대한 전망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67.5%).

이슬람포비아를 비롯한 이주민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 평가단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5점 만점 중 3.83점으로 발현 가능성이 높게 도출되었다. 전문가 평가단은 이러한 문제들은 고용불안과 사회 치안의 문제를 이주민들에게 돌리려는 경향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하기도 하였으며,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과 혐오의 갈등은 앞으로 점점 더 증가할 것이라고 바라보았다. 예멘 난민 사건으로 도마에 오른 이주민 혐오, 외부인이라는 인식 속에 배타적인 태도는 점차 더 악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였다.

세부적인 방향성에 대해서는 47.5%의 전문가 평가단이 국가 예산을 ‘외부인’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 거부감과 불만을 가져 문화 다양성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배타적인 태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전문가 평가단의 25%만이 예멘 난민 수용을 계기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가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질 것이라고 바라보았으며, 22.5%는 이러한 이슈들은 일시적인 관심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특히, 이미 농촌에는 결혼 이주민 가정이 많으며, 이들의 자녀들이 한국 사회에 진출하는 날이 머지않았으며, 새로운 계급차별의 시작이 발생할 수도 있고 전망하였다.

세대 간 갈등에 대해서는 1차 델파이 조사의 결과, 부정적 심화현상의 발현 가능성 평균은 5점 만점 중 3.75점으로 발현 가능성이 약간 있는 정도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원인 중 하나를 압축적 성장을 겪은 한국에서는 세대 간 중복된 경험이 협소하게 나타나 서로에 대한 이해와 공감의 어려움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바라보기도 하였으며, 현재 세대 간 연결될 수 있는 접점이 전혀 보이지 않아 갈등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에게 세대 간 갈등에 대한 트렌드가 어떤 형태로 발현될

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문가 평가단의 55%는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것으로 보았으며, 22.5%는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의 방향으로, 15.0%는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바라보았다.

나. 좋은 사회로 가야한다는 의지로서의 희망적 기대들

현대경제연구원은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의 문제가 자주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우리가 사회적 갈등이 감소한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경우 잠재성장률이 개선될 수 있다는 결론을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OECD 평균치 정도의 사회적 갈등으로 개선된다면 잠재성장률 0.2%이 개선되고, 선진국이라 불리는 G7 국가 정도로 올라간다면 0.3%가 개선된다는 것이다(현대경제연구원, 2016). 이런 분석 결과는 해당 연구가 2016년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혐오현상’에 대해 논하는 언론들에 의해 특히 자주 인용 및 언급되고 있다. 왜 일까? 현재의 혐오현상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적 차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사회적 긴장을 높여 쉽게 통제하기 어려운 집단적 폭력으로 변질 수 있다는 한국 사회의 공포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사회적 갈등은 한국이란 국가 전체의 위기, 경제적 비용을 유발시키므로 우리 모두 갈등을 줄이기 위한 노력과 시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달하기 위함일 것이다.

	한국과의 사회갈등지수 차이	잠재성장률 개선효과
OECD 평균	18.0%	0.2%P ↑
G7 평균	19.3%	0.3%P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16),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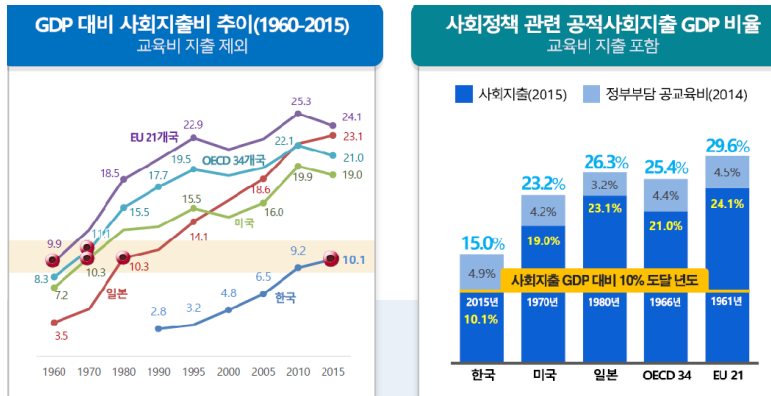
[그림 4-22] 사회적갈등 개선 시 성장률 개선효과

2020년이란 멀지 않은 미래에 갈등, 배제와 혐오의 시대가 사회 대통합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현재의 갈등은 과도기적 진통 현상으로서 그간 끓은 상처들이 눈에 띄게 드러나는(아프지만 필요한) 과정이라고 여기는 인식이 종종 드러난다. FGD 과정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갈등표현들은 나올 만큼 나온 뒤, ‘과연 우리가 누구 향해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란 질문을 가져올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현재의 혐오 현상은 점진적으로 성평등, 세대간 소통 등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를 표현하는 응답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67.5%)는 조사 결과는 과연 이런 전망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객관적 지표들보다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보다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전망함으로써 공감,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의지를 반영한 기대심리를 보여준다.

3. 혐오가 만드는 불평등과 차별에 맞서는 ‘포용적 일상’의 강조 전망

가. ‘포용국가’와 ‘포용적 성장’의 국가비전 강조의 긍정적 파급 전망

2018년 9월 11일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으로 향후 국가 차원의 비전으로서 ‘국민의 삶을 바꾸는 포용과 혁신의 사회정책’을 설정하고 발표했다. 현재까지 한국의 사회정책의 성과로 2010년 이후 사회지출이 GDP 10%에 도달하여 유럽이 1960-70년대에 도달한 ‘복지국가 ‘초기단계’에 진입했다는 것을 들었다. 하지만 여전히 공교육비를 포함한 복지 및 노동 등의 사회정책 관련 총지출의 GDP비중은 15%로 OECD 평균 25.4%에 상당히 미달된다 지적하며, 현재 노동시장 불평등과 그 영향으로 인한 경제사회 구조와 가계의 지속가능성이 위기 상황에 있다고 진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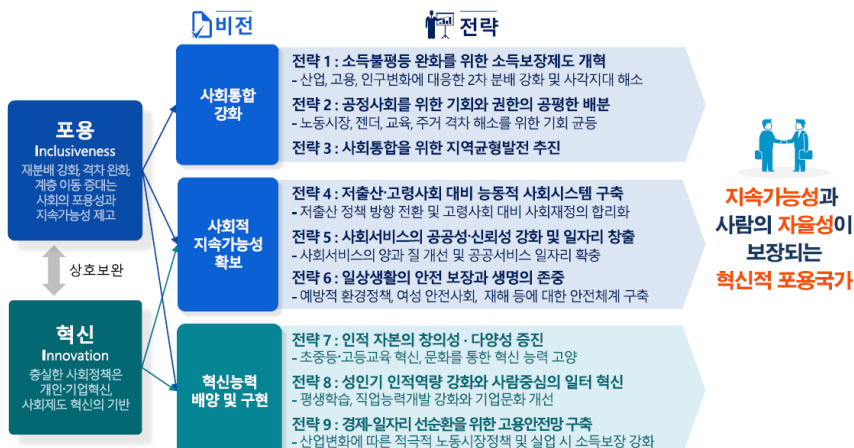


[그림 4-23] 사회정책의 성과 분석을 위한 공적사회지출 추이 및 비율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으로 사회정책은 '성장위주' 전략에서 사회의 '포용성' 향상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강조하며, World Bank, IMF, OECD, ILD, EU, UN등이 반복적으로 권고하는 '포용적 성장', '소득주도성장', '지속가능발전'의 중요성과 방향으로 우리 사회의 향후 방향이 정립되어야 함을 공표하였다. 그리고서 '포용'과 '혁신'을 키워드로 3대 비전을 '사회통합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혁신능력 배양 및 구현'을, 9대 전략으로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과 생명의 존중, 인적 자본의 창의성 및 다양성 증진 등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공정사회를 위한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전략에서 사회통합을 강화하기 위해, 경제 수준에서의 성평등 수준을 높이고, 사회 전반의 의사결정구조에서의 여성대표성 강화, 노동시장 약자를 포함하는 사회적 대화기구 구축 및 권한 부여,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실효성 및 실행력 강화, 다문화층 등 교육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교육 복지 제공, 고령자가 차별없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긴 생애주기 고용시스템 설계 및 임금체계 개편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일상생활의 안전 보장 강화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등 여성의 일상생활 안전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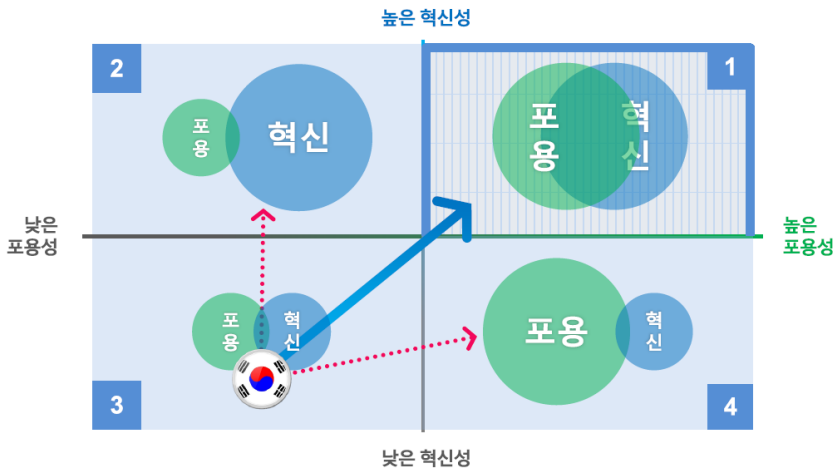
과 대응체계 강화, 안전을 사회구조적 문제로 인식하고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는 위험예방사회 구축할 필요와 정책 계획들을 제안하였다. 이런 사회정책 전반에 걸친 정책방향 및 제안은 모두, 한국사회가 다른 대상과 이질성에 대한 포용성이 낮고, 이는 낮은 혁신 능력으로 이어진다는 기본 전제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향후 바람직한 한국 사회의 미래 모습으로서 보다 높은 포용성의 유지와 높은 혁신 능력을 갖춘 모습으로 설정하고 이를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자료: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2018),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그림 4-24] 문재인정부 사회정책비전: 3대 비전 9대 전략

현 정부의 이런 국가비전에 따라 관련 추진단이 2019년 꾸려질 예정이고, 2019년에 ‘국가비전 2040(가칭)’으로 세부사항을 포함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의 향후 나아갈 방향에서 ‘포용성’이 강조되었다는 점은 현재의 ‘혐오’와 ‘갈등’을 어떻게 ‘포용’으로 변화시킬 것인가가 정부 정책 차원의 큰 이슈이자 숙제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료: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2018),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그림 4-25] 미래한국사회의 모습: 혁신적 포용국가

무엇보다 집중해야 할 부분은, 그간 국가 정책을 정책 사안과 주제별로 설계 및 집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야 과제를 각 부처가 일관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런 문재인정부의 사회정책비전과 전략은 우리사회의 문제적 이슈들에 대해 정책적 지원과 제도 마련이 집중될 경우, 단기 마이크로트렌드에 눈에 띄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간의 한국 사회의 특징이 있다는 점에서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성별혐오, 세대갈등, 인종차별 및 이주민 혐오 등은 단지 문체부 차원의 문화예술정책대상 및 분야일뿐만 아니라 부처통합 정책영역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분야 관련 부처의 협업정책의 설계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나. 다름과 공존하는 법에 대한 일상적 토론문화의 확산

최근 KBS joy의 '연애의 참견', JTBC의 '연애직캠' 등 연애를 주제로 한 남녀관계의 문제점과 해답들을 시청자들이 보내온 사연, 실험 카메라

등을 통해 살펴보는 프로그램들이 많아졌다(세계일보, 2018). 그런데 연인들 간의 사연들 중에, 최근의 ‘남혐여혐’에 대한 대화를 하다가 그 시각이나 자세의 차이 등으로 인해 싸웠다는 10대, 20대, 30대 연인들의 사연들이 종종 다뤄진다. 최근 2030 남녀들이 연애 상대를 고를 때 여혐남혐 성향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새로운 연애의 조건이 되고 있다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한다(아시아경제, 2018.7.29.).

친밀한 개인 간의 관계 속에 불편한 주제인 ‘혐오’가 다루어진다는 것은 더 이상 그 주제가 우리 사회 속에서 ‘묵인’될 수 없는 주제가 되었다는 것이다. 증오와 혐오가 퍼져나가는 바탕에는 은근슬쩍 꺼내놓은 비판, 상투적인 말이나 농담이라는 애매한 표현, 자잘하게 표현되는 무례함 등에 대해 제대로 문제 삼지 않고, 묵인하는 과정을 통해 승인받고 퍼져나가기 때문이다(카롤린 엠케, 2017). 하지만 그간 용인되고 방치되어온 혐오의 문제는 최근 일련의 과격한 혐오표현의 심화로 인해 많은 이들에게 가시적 혐오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 문화적 다양성의 중요함을 강조하던 우리 사회이고, 유럽의 난민거부사태, 국제 사회에서 불거지는 인종차별 문제, 이슬람문화권의 문화에 대해 여성차별이라는 인식을 드러내던 사람들,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 영국의 브렉시트 현상을 보며 ‘너무한다’는 감정 표현을 하던 사람들은 그것이 우리 사회의, 내가 속한 옆에서 벌어지니 ‘내’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생생하게 보게 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로 가는 과정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 ‘혐오’를 분석한 신간 서적들 중, ‘말이 칼이 될 때’를 쓴 홍성수(2018)는 ‘혐오표현’에 대한 더 많은 개인들의 표현과 의견 교환이 오히려 혐오표현을 격퇴할 수 있는 장치라고 말한다. 유서연(2018)은 집단혐오와 갈등은 자신을 제외한 ‘타자’를 모두 적으로 돌리려는 경향이라고 정의하며, 나와 나와 친한 사람들조차 여러 가지의 이질성을 지녔음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혐오를 이겨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즉, 현재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각종 혐오에 대한 일상적 대화가 늘어나는 모습들은 오히려

긍정적 사인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모른척하고 없는 척했던 우리 사회 속의 다양하고 세분화된 차별과 혐오, 무한경쟁사회 속에서 나와 동질성이 적다고 생각되는 대상에 대한 비논리적인 거부감, 내 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는 공포들이 늘 우리 사회 속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전문가 좌담회에서의 분석 또한 현재의 집단간 혐오와 충돌은 결국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특유의 윤리의식에 대한 강요 문화가 이를 드러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데에 집중되었다. 오히려 건강하게 토론하고 자신의 문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볼 기회를 현재의 극단화된 혐오표현이 만들어줬다고 볼 수도 있다는 점은 향후 우리 사회에서 혐오문화는 더 확산되는 듯 보일 수 있으나,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이 문제가 불러일으키는 문제, 나와 우리의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대로 된 ‘다양성’의 존중 사회로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보일 수 있는 이유이다.

제6절

실패자가 아니에요. 문화적 응원

1. 실패를 자산으로 여기는 문화의 시작

가. 실패 경험을 성장의 발판으로 여기지는 축제

2018년 9월 14~16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듣도 보도 못한 이름의 박람회 개최되었다. ‘실패박람회’. 그 바로 몇 달 전인 6월에는 서울창업허브에서 열린 ‘2018 재도전 한마당’ 행사는 실패박람회 공동추진 선포식을 비롯해, 실패의 관용 및 재도전을 격려하는 실패 컨퍼런스와 재도전 토크 콘서트, 재창업 기업 자금 판로 개선을 위한 IR마트, MD 상담회, 역량 재고를 위한 분야별 전문 리스타트업 교육 등이 진행되었다. 강연자로는 실제 실패를 딛고 성공한 집닥 박성민 대표, 하우스앤비온드 김용관 대표, 서틴프롤어 송영일 대표 등이 나서서 솔직담백한 실패담과 재도전기를 공유했다.

‘실패박람회’, ‘재도전 한마당 행사’ 등은 실패 경험이 성장의 발판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실패사례를 모아 사회 자산화하고 재기 지원 컨설팅 및 정책 소개를 통해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개최되었다. 전국에서 뽑은 100명의 실패 경험 공유자들이 모여 우리 사회의 ‘실패’를 토론하는 ‘백명토론’이 열렸는데 토론 결과는 국민 제안의 형태로 제안될 예정이며, 11월경 성과 공유 과정도 가질 예정이다. 법률·심리학 전문가와 함께 현직 형사와 비행청소년 출신 사회적 기업가가 모여 청소년 문제의 진단과 해법을 모색해보는 ‘정책살롱’도 열렸다.



[그림 4-26] 2018 실패박람회 모습

특히 ‘병맛캐리’와 ‘실패처방전’ 부스가 차려졌는데 자신의 실패담을 이야기하면 이와 관련한 캐리커처를 그려주는 병맛캐리 부스는 꽤 인기가 있었다. 또 진로·심리·인간관계와 관련 전문 상담가들이 40~50분 상담을 진행해주는 실패처방전 부스는 현장을 찾은 관람객들이 즉시 상담을 받을 수 있어 호응이 높았다. 진로·인간관계·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는 어떤 이야기도 들어주는 ‘경청의 방’도 은 참가자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었다.

이 밖에도 박람회 기간 수많은 실패와 도전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청춘들을 응원하는 ‘청춘해콘서트’, 실패를 주제로 한 시(詩)와 음악으로 구성된 ‘희망의 작은 콘서트’, 흥행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작품성과 예술성을 인정받은 영화와 배우에게 주는 ‘리-버스 (Re-Birth) 영화상’의 프로그램도 마련되었다.

중기부에서 운영하는 ‘재도전 기업인 마당’에서 법률·세무·회계 등 분야별 전문 상담 및 지원책 상담과 혁신적 실패 사례 공모심사, 재도전 성공 패키지 사업 선정평가 등이 진행되었고 경력단절여성의 취업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여성새로일하기 부스, 자활기업·자활근로·희망키움통장 등

자립을 상담·지원하는 부스 등도 마련되었다. 중기부는 실패박람회를 계기로 중소기업인의 실패 부담을 줄이고 재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대폭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정책금융기관 부실채권 3조 3000억 원을 정리하고 8만여 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하며, 연대보증이 면제된 기업 경영인은 실패 하더라도 신용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개인파산 시 압류 제외 재산을 900만 원에서 1140만 원으로 상향해 연간 4만여 명의 생활고를 완화하는 한편 2021년까지 1조 원을 들여 혁신 재창업 지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신용도가 취약하나 우수한 기업에는 9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도 마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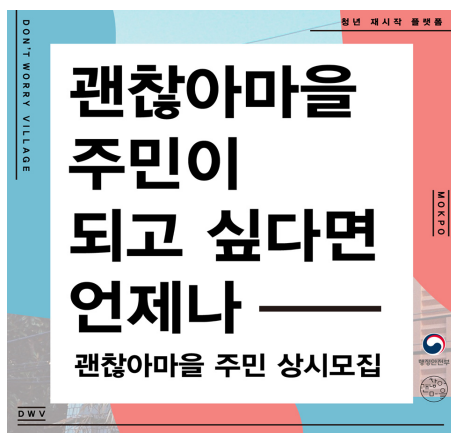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 실패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지원을, 이란 접근은 그간 ‘성공’을 위한 도전, 성공한 자들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콘텐츠들이 지속적으로 유행해왔던 우리 사회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접근이다. 교보문고의 2018년 연간 베스트 20위 까지 책들의 대략의 키워드를 보면 ‘자신에 대한 사랑’, ‘느긋한 삶’, ‘자유롭고 행복한 삶’ 등이 눈에 띄게 자리하고 있다. 불과 3~4년전만해도 연간 베스트 서적을 보면 ‘원하는 것을 얻는 법’, 영어교재와 자기계발서들이 꽤 많이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변화는 끝없는 ‘성공’의 길로의 내몰음에 지친 사람들을 위해 다른 자세를 취하는 우리 사회 문화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아닐까.

나. 실패할 자유를 주는 플랫폼들

정부는 지난 9월 1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혁신성장을 위한 기술 재창업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획재정부·법무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보유 중인 부실채권 3조 3000억 원을 정리해 2021년까지 8만 여 명의 채무 조정을 지원, 연대보증 관련 규정을 2019년 상반기까지 수정, 재기중소기업인 조세특례 제도도 2021년까지 연장, 혁

신 재창업 지원은 2021년까지 1조 원 규모로 지원, 900억 원 규모의 ‘재도전 특별자금·보증’은 신용등급이 낮더라도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기업에 재도전의 기회를 적극 부여 등을 들 수 있다.

젊은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안한다는 뜻의 ‘청년 재시작 플랫폼’을 부제로 쓰는 ‘괜찮아 마을’은 2018년 8월, 전남 목포의 원도심인 유달동에서 시작되었다. 쇠퇴한 원도심을 청년 대안 공간으로 조성해서 청년 문제와 도시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는 청년들의 뜻에서 시작되었다. 기획사 겸 여행사인 ‘공장공장’의 박명호 대표 등 11명의 청년들이 ‘청년들에게 휴식과 인생을 재설계할 기회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구상하였고 행정안전부 공간 활성화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창업·정착의 세 축으로 진행된다. 인생을 다시 설계하고 싶은 39살 이하 청년들이 1,2기 모두 60명이 입주하여 6주간 생활하면서 마을공간을 살피고 빈 집을 수리하는 법을 배운다. 매거진을 만들거나 ‘전국 청년 히치하이킹 페스티벌’준비를 함께 할 수 있다. 실패해도 괜찮고 방향해도 괜찮고 할 일 없이 쉬어도 괜찮고, 인생을 재설계해도 괜찮다는 모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마을 이름도 ‘괜찮아 마을’이다. 박명호 대표는 ‘괜찮아 마을은 인생에서 실패를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고 정의한다(정대하, 2018.08.27.).



[그림 4-27] '괜찮아 마을' 포스터

2016년 초부터 시작된 ‘도넛’은 ‘실패를 장려하는 창작집단’이다. 글, 그림, 사진, 음악 등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들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작업을 공유한다. 현재 지역 연대 프로젝트로 혜화동을 기점으로 월간 「D.A」를 제작하고 있으며 격월로 창작물을 공유하는 ‘도넛 파티’를 열고 있다. 직접 쓴 글을 낭독하거나 퍼포먼스 무대를 보여주기도 하며 작곡한 노래를 들려주기도 한다. 창작자와 감상자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하지 않으며 평가를 받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창작물을 공유하거나 감상하고 싶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자유로운 분위기를 추구한다. 또 개인의 창작 활동과 삶을 존중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도넛은 느슨한 연대감을 추구한다. 전휘목 대표는 “어떤 일을 하면 결과가 나오기 마련이고 그것이 다만 성공이거나 실패일 뿐이지, 모두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며 다른 점이 있다면 성공은 드물고 모두에게 쉽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답한다.



[그림 4-28] 단체 ‘도넛’ 관련 표지 및 포스터 이미지

2018년 무중력시대 G밸리는 자전거 장거리 라이딩 ‘실패해도 괜찮아’를 개최하였다. 취업 후 집과 일터의 반복되는 삶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청년들에게 도전을 제안 & 성취, 그리고 체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도전 의식을 독려하는 프로그램으로 기획되었다. 시즌 1은 5월 서울 반포 미니스톱 - 춘천 소양강 처녀 동상 앞을 코스로 진행되었고 시즌 2는 대구에서 서울까지 릴레이로 라이딩을 진행했다.



[그림 4-29] '실패해도 괜찮아' 포스터

2. 실패할 기회를 주는 정책지원 확대 전망

문화예술계에서도 완성된 프로젝트의 제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책 지원들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예술가, 기획자 등이 프로젝트의 실현가능성에 매달리느라 참신한 아이디어와 실험을 시도하지 못한다는 그간의 지적들이 반영된 변화라 할 수 있겠다.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 최초예술지원' 중 2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형은 창작과정의 실패나

작품 발표에 구애받지 않고 창작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경기상상캠퍼스는 청년 프로그램, 청년 실험실 등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하고 있다.

문화예술분야의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요구하는 지원프로젝트들에 대한 조사가 2017~2018년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다. 2016년, 2017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전국 포럼을 통해 청년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어떤 정책들이 필요한 지를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정책포럼 및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약 135개의 정책의제가 발의되었다(김혜인·조광호 외, 2017). 그 중 대표적 제안 주제 중 ‘문화청년 10,000(일만)시간 지원프로젝트’나 ‘청년문화완충지대’ 조성 등이 포함되어있었다. 워크숍 및 포럼에 참여한 청년문화예술인들은 “어떻게 살 것인지 생각할 수 있는 여유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삶을 살기 위한 고민의 시간이 필요하고, 사회로 진입하기 위해 고민하고 실험하고 준비하기 위해서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 장치를 마련해달라는 것이다(조광호·연수현, 2018). 1만시간 지원에 대한 요구는 맬컴 글래드웰(Malcolm Gladwell)이 소개한 ‘1만 시간의 법칙(10,000-Hour Rule)’은 어떤 분야에서든 탁월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1만시간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근거한 것이다. 청년들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고 새로운 도전 속에 성장하여 자립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장 단계를 바라봐달라는 것인데, 이 제안은 현재 문화예술정책 중장기 계획 속에 반영되고 있다.

3. 실패의 자유를 모두를 위한 힘의 원천으로, 응원하는 문화의 확산

‘실패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통해 재도전하고 격려하는 분위기의 행사, 프로그램 등을 다양한 분야에서 발견할 수 있다. 민간영역으로는 실패

를 장려하는 창작집단, 공개채용에서 떨어진 지원자들에게 관련업계 기획자들과의 만남을 주선한 문화예술 커뮤니티 단체, ‘청년 재시작 플랫폼’이 스스로 실패 자체를 다양한 관점에서 관찰하고 논의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준비의 첫 단계로 삼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18년 봄, 비영리민간단체 문화예술커뮤니티 ‘동네형들’은 공개채용 애프터 서비스 ‘전화위복’을 진행하였다. 정원 1명을 뽑기 위한 공개채용에 60여명의 청년이 지원한 현실, 채용과정에서 알게 된 청년들의 공통 관심사와 고민을 더욱 알게 되어 각자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로 공개채용 지원자는 물론 문화예술 영역의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초대했다. 현직 문화기획자 13명을 초청하여 문화예술 기획자의 삶과 일에 대한 고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그림 4-30] '동네형들' 활동 사진

전문가들은 다양한 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생기고 창작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패를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평균 점수 3.23).

〈표 4-17〉 델파이 결과 - 실패의 재인식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대안 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5점 만점)					
	평균	응답별 비율(빈도)				
		1	2	3	4	5
다양한 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생기고 창작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패를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것	3.80 점	50%	17.5%	30.0%	45.0%	2.5%

하지만, 실패를 통한 배움이라는 해석이 청년 세대에서 용인될 수 있으나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과 실패를 새로운 기회로 인식하고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것이라는 의견이 유사한 빈도로 나타났다. 또한 ‘확산될 것이다’와 ‘일부 층(젊은 세대)에 국한되는 것 중 어느 것도 선택하기 어렵다’고 본 전문가 비율 또한 높았다(27.5%). 이는 실패의 재인식과 관련된 트렌드가 발현될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 모든 세대 및 계층에게 실패의 기회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기회의 제공은 늘어날 것이나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상대적 기회의 박탈 또한 발생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4-18〉 2차 델파이 결과 - 실패의 재인식 관련 방향성

(A방향성)	A 방향성에 더 가깝다	A, B 동등하다.	B 방향성에 더 가깝다	(B방향성)
모든 인생의 단계에서 실패는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곧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확대될 것	35.0%	27.5%	37.5%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은 젊은 세대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

2018년 10월 26일 개최된 ‘제101차 제주경제와 관광포럼’에서 김병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가 ‘도전력(力)’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김 교수는 역동적 성장을 거듭한 20년 전 대한민국을 상기하며 현재는 기업

가 정신이 하락하여 도전과 혁신이 없는 위기상황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그 이유로 인구의 고령화, 헝그리 정신 부족 등이 원인 중 하나이지만 도전은 청년세대에게 미루는 기성세대에 있으며 도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전과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고 실패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원성심, 2018.10.29.).

“실패를 용인하는 문화가 이스라엘 스타트업 힘의 원천”이라는 사무엘 페레그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교수는 이스라엘이 글로벌 스타트업 핵심지가 된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한국정보처리학회와 고려대 기계학습 및 빅데이터 연구원이 주최한 ‘4차 산업혁명 포럼 2018’ 참석차 방한한 사무엘 페레그 이스라엘 히브리대학 교수는 컴퓨터 비전 권위자로서 ‘컴퓨터 비전 시대 성공적인 스타트업 전략’을 발표했다. 페레그 교수는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실패하고 도전하며 혁신하는 노력을 기울인다”면서 “이 같은 정신을 최우선으로 두는 문화가 대담한 도전을 자극한다”고 강조했다(권상희, 2018.10.28.).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창업을 권장하는 문화는 이스라엘이 첨단기술 메카이자 세계 1등 창업국가가 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결과 이스라엘에서 시작한 6000개 스타트업 가운데 100개가 나스닥에 상장되었다.

이렇듯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는 도전과 혁신의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의 변화는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제로도 활용되고 있으며(앞선 ‘협오문화’ 관련 절에 자세히 소개하고 있음), 이는 한국사회에서도 이를 포용, 도전, 혁신의 중요 요소로 보고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 및 정책적 지원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고령화시대이자 100세시대인 현 사회 상황 속에서 이는 청년세대에게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는 문제의식 속에, 기성세대에게 있어 가능한 실패를 용인하고 시도하는 기회의 제공을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 또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제7절

예술가는 젠트리파이어? 예술가의 생존법 찾기

1. 예술가, 젠트리파이어가 되다.

가. 젠트리피케이션과 예술가에 대한 인식

최근 뉴스를 뜨겁게 달군 궁중축발 사건 등, 젠트리피케이션의 역기능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면서, 예술가가 주도하는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원래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은 영국의 사회학자 글래스(R. Glass)가 ‘중간계급이 도심과 도심 주변 지역의 저소득층 주거지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수리하여 이주해 옴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을 대체하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한 사회과학 용어였으나, 오늘날 우리사회에서는 ‘등지내몰림’으로 번역되어 사용되며, ‘상권이 활성화되어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원래의 소상공인이 떠나게 되는 사회 변화 현상’과 같은 부정적 변화를 지칭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예술가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밀려나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하는 젠트리파이어로 인식 되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를 매개로 예술가가 유입되어 활동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형성하는 개척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는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예술가가 개인 차원에서도 장소애착을 형성하여, 밀려난 이후에도 멀리 떠나지 못하고 인접지역에서 머물며 공간적으로 분화하고 확장하는 유인이 된다. 또한 예술 씬을 형성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활동하는데, 창작 활동을 매개로 예술 씬이 형성된 경우, 상업화에 의해 초기의 활동공간이 소실되어도, 새로운 공간을 개발하여 그 활동을 유지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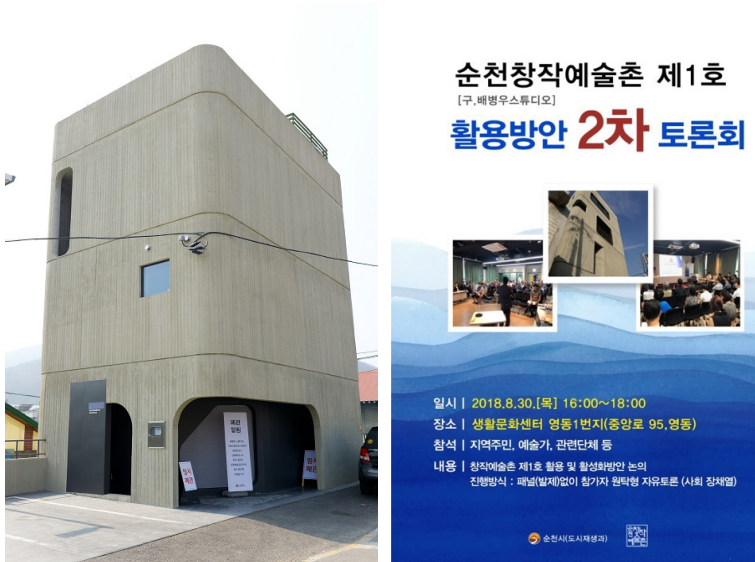
나. 젠트리파이어 역할을 요구 받는 예술가

이같은 젠트리파이어로서의 예술가의 역할은 지역 활성화의 구도 속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유의 미감과 개성으로 도심 낙후지역, 유휴 공간 등의 저평가 지역에서 극적인 경관변화를 연출하면서, 주민과 상권을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사례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술과 예술가를 활용한 적극적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창작 공간이나 공연, 전시공간 등을 제공하여 예술가의 활동을 장려하고, 예술촌을 조성하여 예술가의 정주를 유도하고 있기도 한다.

2014년 국토부 도시재생 선도지역으로 선정되어 현재 종료 단계에 있는 순천시의 경우, 주요사업으로 예술광장 사업과 창작 예술촌 조성을 추진하였다. 이중 창작예술촌은 문화의 거리 주요지점에 유명작가의 스튜디오 겸 레지던시를 마련하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배병우 사진작가, 김혜순 한복디자이너, 조강훈 서양화가를 선정하여 공간을 제공, 운영하였다. 그러나 배병우 작가에 대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되면서, 2018년 2월 23일 스튜디오를 임시 폐관하였고, 창작예술촌 제 1호로 이름을 바꾸어 지역 예술인들의 사진, 회화, 미디어아트 등 전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으로 사업초기 활동하였던 이동희는 창작예술촌 조성에는 “빈집 재활용의 합리성, 예술가 선정의 투명성, 생존예술가의 이미지 변화, 예술촌 상호간의 네트워크, 작가의 예술촌 체류빈도, 주민들과의 예술적 교류, 관련 프로그램의 운영, 건축물의 유지관리 주체”에 대한 숙고와 신중한 접근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의 개척자로서, 개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거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촉발하는 슈퍼젠트리피케이션을 기대하여,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예술가들을 유입시키는 경우, 활성화에 앞서 오히려 장소성 혼란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장소의 고유한 특성’으로 ‘인간이 체험을 통해 애착을 느끼게 되고, 한 장소의 고유하면서 다른 장소와는 차별적인 특성’을 의미하는 장소성에는 개인

적, 집단적 기억, 시간의 흐름이 함께 관여하는데, 의도된 문화 과잉으로 이러한 장소성이 과거와 단절되어 일순간 바뀌어 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한다.(김연진, 2016)



자료: KJB한국방송 블로그, 2018.02.26, 연합뉴스, 2018.08.28

[그림 4-31] 배병우 스튜디오 폐관 및 활용을 위한 토론회 안내

2. 예술가 이탈에 따른 장소소비 문제

가.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예술가의 이동과 확산

2016년 8월 문을 닫은 테이크아웃드로잉은 예술가에 의해 활성화된 지역에서 예술가가 밀려나는 과정을 보여주며, 소위 뜨는 동네에서 나타나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문제의식이 전 사회적으로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한 예술가가, 임대료 급상승으로 밀려나게 되는 모순적 상황은 서울에서만도 홍대, 연남동, 상수동, 합정동, 망원동, 가로수길, 삼청동, 경리단길, 북촌, 서촌, 인사

동, 대학로, 성수동, 성미산마을, 해방촌, 문래동, 성곽마을 등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에 의한 예술가의 이탈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진다. 홍대와 대학로에서 활동하던 예술가들이 문래동 철재상가에 밀집하여 새로운 창작공간을 이룬 사례도 있으나, 특정 지역으로 집단적 이동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인접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이 보편적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상황에서 예술가의 이동 이유는 주로 저렴한 임대료이며, 따라서 이면가로를 따라 블록 단위로 확산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또한 이합집산의 경향이 강하여, 특정 지역에 정착하기 보다는, 필요에 따라 모이고 흩어지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공간의 입지에서 접근성, 특히 대중교통 여건이 매우 중요했으나, 모바일 기기의 발달로 소통에 제한이 없어지고, 어디든 찾아가는 것이 쉬워지면서 입지적 제한은 완화되고, 활동 여건이 오히려 중요해지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김연진, 2016)

나. 문화백화와 장소소비의 문제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예술가의 이탈은 지역의 문화백화로 귀결 되기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맘상모의 김남균 대표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 역기능이라고 적시한 문화백화는, 임대료 상승 등으로 활동 주체가 이탈함에 따라 생산적 측면이 감소하고,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적 측면만이 강화되면서, 획일화된 상업경관이 형성되어 매력도가 소실되는 장소 소비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며, 결국 상권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되어 버린 장소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요구되므로, 장소소비의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생산 주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김연진, 2016)

3.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는 예술가들의 자구책

가. 젠트리피케이션을 해결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2018년 9월)하여 상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고, 임대인의 권리금 지급 방해행위 금지기간도 임대차 종료 3개월에서 6개월 전부터로 확대했다. 전통시장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전통시장을 권리금 적용 제외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분쟁 조정을 위해 상가건물임대차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조례를 제정(2015년 9월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제정)하였고, 종로 익선동 한옥마을 등은 특별지구로 지정, 앵커시설 또는 레지던시 시설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 또는 유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소극장을 살리기 위해 임차료를 지원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다.(이진주, 2018) 영등포구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인 문채동 1·2·3가 건물주와 임차인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103건을 체결하였다. 협약에는 건물주는 임대료 인상 자제, 임차인은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과 상권 활성화 노력, 영등포구는 공공 기반 시설과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해 나간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영등포구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공인중개사 자정결의 대회를 열고 담합행위나 과도한 중개수수료 조장 등 임대료 및 권리금 상승을 부추기는 행위를 자제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다(이수정, 2018.06.26.). 또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해 서울시와 신홍시장 내 건물주, 임차인은 2016년 ‘신홍시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상생협약’까지 체결하였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현장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다(신희은, 2018.07.24.).

2018년 7월,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 조치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에 대한 용자지원 상품을 마련했다. 공공임대상대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최대 10년 동안 저렴하게 지역 영세상인 등에 임대하는 상가 건물로, 국토부는 공공단체나 마을기업 및 사회적 기업 등이 해당 상가를 조성할 경우 주택 도시기금에서 용자를 지원해준다. 영세상인은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내몰린 상인 및 문화예술가, 청년기업 등이 해당한다. 2018년 6월, 성동구는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쫓겨난 소상공인, 사회적 기업, 청년 사업가, 소셜 벤처를 지원하기 위해 ‘성동안심상가’를 조성하였다. 장기간 안심하고 사업업할 수 있도록, 임대료는 주변 시세의 60~70%, 임대기간은 10년 까지 연장이 가능하며 현재 3개소를 운영 중이다. 1호점은 공씨책방, 윤스김밥, 오비웍스, 아트그라운드 등 4개 업체가 영업을 개시해서 운영 중이다.(김도연, 2018)

이처럼 임차인의 권리 보장과 보호를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는 어려우며,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나. 젠트리피케이션 경험을 통한 예술가의 자구적 변화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하면서 예술가 스스로도 변화하였다. 신준현·이기웅(2016)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홍대에서 창작활동을 하였던 예술가들도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면서부터는 본인의 생업으로의 예술, 문화 사업을 본격화 하였고, 적극적으로 문화기업가(cultural entrepreneurs)가 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홍대, 대학로, 문래동 등지에서는 예술가가 일차적으로 진입하고 어느정도 활동기반이 형성된 후에, 대안 공간과 공방, 갤러리, 카페, 서점 등 광의의 문화기업가가 진입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나, 연남동, 서촌, 성수동 등 최근에 대두되는 지역에서 예술가와 문화기업가가 함께 개척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점점 빠르게 진행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홍대의 서교동과

동교동에서는 10년이 소요되던 변화가, 합정과 상수에 이르러서는 5년 안에 나타났고, 연남동과 성수동에서는 3년안에 전개되는 등, 그 기간이 계속 반감되고 있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 경험을 통한 밀려나기 않기 위한 예술가의 자구적 변화가, 오히려 젠트리파이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모순적 상황이 반복·확대되고 있다.

다. 젠트리피케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예술가들의 대항, 적응, 실험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예술가의 대응은 대항과 적응, 실험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2017년 6월, 젠트리피케이션에 저항하는 단체 ‘생산자’가 광화문광장에서 ‘생산자 마켓’을 개최했다. ‘생산자’는 30여명의 문화인들이 젠트리피케이션 저항운동을 위해 결성한 단체로, 행사과정에서 자체적 제작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대응을 위한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이 매뉴얼에는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요 내용과 피해 발생 시 상담할 수 있는 기관, 단체 등이 소개되어 있다. 시민들도 이미 사라졌거나 사라지지 않기를 바라는 단골 가게를 찾아, 단행본으로 출발하는 ‘단골 가게 소환하기 프로젝트’도 현장에서 진행했다.(이준호, 2017) ‘테이크 아웃 드로잉’ 때에도 수많은 예술가와 밴드, 다큐감독, 작가, 연구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여들어 공연과 전시를 열고 한바탕 떠들썩 하게 놀면서 공간을 지켰다.(정재원, 2016) 이렇듯, 예술가들은 함께 연대하고 모여앉아 자신들만의 문화적인 방식으로 공동 대응 행동을 하며 대항하였다. ‘썸머 제로’, ‘두리반’ 등도 이러한 활동들이다.

초기에는 대응의 방법만을 취하였으나, 점차 실험과 적응의 자구적 대응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이미 사라진 연남동의 ‘어쩌다 가게’ 사례와 같이 임대료의 상승을 공유하여 분배함으로써 장기임대를 실천하기도 하였고, 성수동의 ‘페이퍼 크라운 컴퍼니’에서와 같이 공방과 카페를 함께

조성하여 카페의 수익으로 공방을 유지하는 운영전략을 실험하고 있기도 하다.

망원동 레인보우큐브는 공동작업실의 형태로 시작하여, 현재는 합정동 주택을 개조한 갤러리, 공동작업실과 작업실 정보를 전문으로 모은 사이트 ‘레인보우큐브 작업실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다. 갤러리는 공동작업실에서 인연을 맺은 작가들에게 전시 기회를 제공하고, 전시를 통해 작업을 알리는 작가들은 활발한 활동으로 공동 작업실에 수익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이 수익으로 갤러리 월세를 충당하는 긍정적 순환 구조를 바탕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간 사일삼은 빈 공장을 공동작업실로 사용하면서 시작되었으나, 점차 입주 작가들을 포함한 주변 창작자들의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면서 공동창작공간이자 작가직영공간(artist run space)의 성격으로 발전하여 갔다. 공간 기획자의 역할이 없는 상황에서 운영의 규모를 키우지 않음으로써 외부 기금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가동될 수 있는 작은 단위의 시스템을 실험해왔다고 한다. 현재 사일삼은 창작자들에게 공간 사용료를 받지 않고, 반대로 어떤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 방식으로, 각자의 영역이 유지되며 공생하는 일종의 자가 발전적 시스템의 형태로 운영 중이다. 이는 임대료를 올리지 않고 보수비용을 부담하는 등 건물주의 협조가 있기에 가능한 사례라 할 수 있다.

텔파이 조사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예술 활동이 촉발한 지역의 변화에 자본이 결합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불가피한 현실이며 획기적 대책이 마련하지 않는 한, 갈수록 심화되어 일상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표 4-19〉 2차 델파이 결과 -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대안 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5점 만점)					
	평균	응답별 비율(빈도)				
		1	2	3	4	5
현행 도시재생의 구도 속에서 예술가가 매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역기능은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술가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나타날 것	3.5 0점	2.5% (n=1)	2.5% (n=1)	7.5% (n=3)	35.0% (n=14)	47.5% (n=19)

〈표 4-20〉 2차 델파이 결과 - 젠트리피케이션 관련 방향성

(A방향성)	A 방향성에 더 가깝다	A, B 동등하다.	B 방향성에 더 가깝다	(B방향성)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거주지·활동지에서 이탈하게 된 예술가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 개인적·집단적으로 전개해 갈 것	60.0% (n=24)	20.0% (n=8)	20.0% (n=8)	예술가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젠트리파이어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을 것이며, 역기능도 심화될 것이나, 자구적 대응방안은 나타나지 않을 것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예술가와 젠트리피케이션의 전망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루었는데, 자본의 흐름과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술가의 자구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도시재생, 지역 활성화의 구도속에서 젠트리파이어로서의 예술가 역할이장려되고,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한 예술가 스스로도 문화기업가 역할을 자처하면서, 예술가가 촉발하는 젠트리피케이 사례가 더욱 증가하는 동시에 속도 또한 빨라질 것으로 전망되었다. 다양한 대응방안이 간구되어 개인적·집단적으로 전개될 것이나, 예술가의 자구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상권 활성화 중심의 목적적 접근을 지양하고,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여 예술기들과 협업해야 하며, 그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제8절

남북교류, 문화교류에서 남북협작으로

1. 문화·체육분야의 남북교류를 계기로 한반도 정세 대변화

가.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남북·북중·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되었다(이형근·최유정,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 공동입장, 남북여자 하키 단일팀을 구성, 북한에서 예술단과 응원단 파견, 북한 고위급 대표단 참석 등 북한의 참여를 계기로 남북관계는 대화와 협력의 국면으로 전환되었다. 앞서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을 위한 북측 삼지연 관현악단 특별공연이 서울과 강릉에서 2회, 평양에서 1회, 총 3회 열렸으며, 3월 31일과 4월 1일에 남측 예술단이 남북 평화협력을 기원하며 평양공연을 가졌다. 동시에 평양 태권도 전당 메인 경기홀과 평양 대극장에서 세계태권도연맹(WT) 시범단, ITF태권도 시범단이 2차례 공연을 가지는 등 평화올림픽으로 개최하기 위한 문화교류 노력에도 힘썼다.



자료 : 연합뉴스

[그림 4-32] 평창동계올림픽 남북 공동입장, 합동공연 모습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문화·체육분야의 남북교류를 앞세운 남북관계 개선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남북 정상회담 2회(4, 5월), 북중 정상회담 3회(3, 5, 6월), 북미 정상회담 1회(6월) 등이 개최되면서 한반도 정세에 평화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남북 교류 및 협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남북관계 개선과 긴장감 완화에 있어서 체육분야 협력이 효과적이고, 체육 협력을 중심으로 문화교류 행사가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은 과거의 남북교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대구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류경정주영체육관 개관, 민족통일평화체육 문화축전 등 대규모 체육행사를 비롯해 6.15남북공동행사, 8.15 공동행사 등의 기념일 공동행사 등(박영정 외, 2013)은 남북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또한 체육 분야 협력사업은 문화행사, 문화교류사업 등으로 확대되면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시너지를 높였다. 예를들어 체육행사 공동개최, 단일팀 구성 등과 맞물려 전 후에 공동문화행사, 공연 등을 연계하여 이목을 집중시키고,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에 나서다

남북·북중·북미 정상회담 등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과 함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2019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27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1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철도, 도로 연결 및 현대화 등 남북 경제협력을 위한 예산이 3,446억원에서 5,044억원으로 46.4% 증액되었고, 남북 학술, 문화예술, 스포츠 등 사회문화교류 예산은 129억원에서 205억원으로 58.9% 증액되었다. 이외에도 이산가족 상봉, 남북회담 추진을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다.

한편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서울·경기·인천·강원 등 접경지역 지자체를 포함하여 여러 지자체에서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을 총괄 조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행정1부시장 직속 남북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경기도는 연정부지사를 평화부지사로 변경하고 산하에 남북 교류사업을 전담할 평화협력국을 신설하였다. 인천시는 기획조정실 산하에 남북교류협력담당관을 신설하고, 강원도는 남북교류협력과를 남북교류담당관실로 개편하고 기존 평화지역발전과를 국 단위 규모인 평화지역발전단으로 격상시켰다. 이외에도 대전시, 광주광역시 등의 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협력 관련 TF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적극적인데, 경기도는 2018년 추경예산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00억원을 반영하여 기금이 139억원에서 339억원으로 대폭 증액되었고, 인천시는 추경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하여 현재 16억원에서 26억원으로 증액, 세종시도 추경예산에 10억원을 반영하였다. 한편 경상남도는 2015년 폐지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복원¹³⁾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출연금으로 2019년 20억원, 이후 매년 10억원씩을 더해 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지자체에서 계획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 주요 사업으로는 서울과 평양이 공동주최하는 ‘전국체전 100주년 행사’를 2019년 서울에 유치, 강원도의 철원평화산업단지 활성화, 금강산~설악산 관광특구, DMZ 생태평화 벨트조성 등이 있다. 인천시는 인천~해주~개성을 연계한 남북공동경제자유구역과 남북공동어로 공동구역 및 해양평화공원 건립, 서해평화협력청 설치와 유엔평화사무국 유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경의선 철도 연결이나 통일경제특구 조성, 비무장지대(DMZ) 활용, 미군 반환 공여지 개발 등 접경지역 종합발전 계획을 수립해 지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편 경상남도 창원시도 산업단지 성공사례를 남북경협에 접목하는 등 창원형 남북교류사업 모델 개발을 검토하고 있으며, 2018 창원세계사격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 참가가 확정된 상태이다. 또한 광

13) 경상남도의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당초 2005년 만들어졌다가 누적 50억원까지 적립돼 일부를 각종 사업에 써왔지만 채무제료를 위해 2015년 폐지됨

주광역시시는 2019년 7월12일 개막하는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 북한선수단 참가를 유치를 위해 각종 문화공연, 전시행사에 남북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기대감은 고조되고 있지만 남북관계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협력과 갈등이 교차하기 때문에 실제로 경제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과거에도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정부와 지자체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앞다투어 추진하였으나, 2008년 진보에서 보수로 정권교체와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 등으로 남북관계가 갈등관계로 전환된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비정치 및 비경제적인 영역으로 사회통합에 효과적인 문화·체육분야의 교류를 지속 전개하면서 현재의 남북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2. 주목받는 사회주의리얼리즘(Socialist Realism)

가.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의 재조명

남북관계 개선으로 그동안 중단·폐기되었던 문화교류사업이 복원 및 재개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것이 특징적이다.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은 1932년 스탈린의 지도로 소련연방 예술가에 의해 채택된 창작방법론으로, 사회 현실을 사회주의적 관점에서 형상적으로 인식하여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북한을 비롯하여 러시아, 중국 등 사회주의 국가에서 유행하는 사조로 문학, 연극, 영화, 회화, 조각뿐만 아니라 건축, 음악에도 적용된다(임석진 외, 2009)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그동안 중국을 중심으로 관심이 국한된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한의 사실주의 리얼리즘 콘텐츠가

주목받고 있다. 2018년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북한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큐레이터 문범강 선택, 6관 32작품)’를 기획하여 북경 만수대창작사미술관 등의 소장품에서 선별한 조선화 전시, 평양 만수대창작사에서 제작한 대형 집체화 등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여 인기를 끌었다. 광주비엔날레 이외에도 전국의 크고 작은 전시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자료 :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www.gwangjubiennale.org/)

[그림 4-33] 광주비엔날레 북한미술 전시 일부

더불어 영화계에서도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평창 평화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영화 상영에 적극적이다. 2018년 7월,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에서 ‘우리집 이야기’ 등 북한영화 9편이 공개 상영되었고 申필름예술영화제, 울주세계산악영화제, 상록수 다문화국제단편영화제에서도 북한영화가 공개 상영됐다. 또 2018년 10월 12일부터 14일까지 평창 알펜시아 등에서 ‘평창 평화영화제’를 진행하였다. 평화와 번영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진행된 영화제에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북한영화와 수준 높은 국내외 독립영화 등 14편이 상영되었다. 동시에 세계의 평화를 기원하는 공존영화제를 진행하며 평화에 대한 염원을 담았다. 평창 평화영화제 개막작품인 ‘김 동무는 하늘을 난다’는 준비된 312석이 매진되었다. 이 영화를 공동연출한 니콜라스 보너 감독은 관

객과의 대화를 통해 작품에 대해 설명하였고, 관객들은 영화 제작 계기, 실제 촬영 시기, 북한 사회의 분위기 등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특히 ‘김 동무는 하늘을 난다’는 북한 평양에서도 상영 중이어서 평창과 동시상영이라는 진기록을 세웠다.

한편 2020년에는 한·러 수교 30주년을 맞이하여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출발지인 러시아와의 교류도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러 수교 30주년이 되는 2020년까지 양국 교역량 50%, 인적교류 100% 증대를 목표로 제시하였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6월 22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 대통령과 한국과 러시아 국민 간 상호이해 제고를 위하여 정부·의회·재계·학계·문화예술계 간 교류 및 협력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대한민국과 러시아연방 간 공동성명’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200한·러 수교 30주년 등을 계기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을 높게 평가하였다(평균 3.88점).

〈표 4-21〉 2차 델파이 결과 - 남북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대안 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5점 만점)					
	평균	응답별 비율(빈도)				
		1	2	3	4	5
그동안 중국에만 머물러있던 소셜리얼리즘 예술에 대한 관심은 북한과의 교류 증가와 2020년 한·러수교 30주년 등을 바탕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	3.88점	-	7.5% (n=3)	12.5% (n=5)	65.0% (n=26)	15.0% (n=6)

나. 민간 주도의 남북 합작에 대한 기대 고조

한반도 정세 변화에 따라 2018년 현재의 북한문화에 대한 관심과 수용도는 전시, 공연, 영화뿐만 아니라 출판과 연예계까지 폭넓은 문화콘텐츠 영역에 걸쳐 높은 편이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현재의

관심을 넘어 지속적으로 향유될 것인가에는 의문이 있다. 또한 현재 조성된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북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지만, 한반도 정세는 다양한 변수로 인하여 상황이 급변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전문가 좌담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예술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적은 편인데, 그보다 더 세부 분야인 북한과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예술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문화는 체제 정당화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예술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인 트렌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이러한 의견들은 2차 델파이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가 평가단의 17.5%가 북한, 러시아 등의 뉴소셜리얼리즘 문화예술은 단순한 호기심에 그칠 것이라고 평가하였으며, 문화예술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이라는 것과 단순한 호기심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동등하다고 바라본 전문가도 32.5%가 있었다.

〈표 4-22〉 2차 델파이 결과 - 소셜 리얼리즘 관련 방향성

(A방향성)	A 방향성에 더 가깝다	A, B 동등하다.	B 방향성에 더 가깝다	(B방향성)
북한, 러시아 등의 뉴소셜 리얼리즘 문화예술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계 및 사회 전반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	50.0% (n=20)	32.5% (n=13)	17.5% (n=7)	북한, 러시아 등의 뉴소셜 리얼리즘 문화예술은 단순한 호기심에 그칠 것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면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예술계에는 신선한 자극이 되고 소재로서 재조명될 수 있지만, 관람자 입장에서는 일시적인 유행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지속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교류로서 남북합작 문화

콘텐츠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현재의 북한문화에 대한 경험 기회 확대는 그동안 북한의 폐쇄성과 독창성, 독특성이 개방됨으로써 남북의 교류협력을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의 공동제작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2000년대 남북정상회담으로 남북관계 개선으로 교류가 활발하였을 때에도 북한에서 제작된 TV, 영화, 드라마, 책 등이 화제는 되었지만 관심 이상의 남북통합 가능성을 보여준 것은 공동제작물이었다.

2001년 북한 삼천리총회사와 남한 하나로통신이 공동 제작한 3D 애니메이션 '게으른 고양이 덩가'와 2002년 제작한 '뽀롱뽀롱 뽀로로'가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까지 15년 넘게 뽀통령(뽀로로 대통령)으로 불리는 뽀로로는 남측의 IT기술력과 북측의 인력이 결합된 남북 합작 애니메이션으로 전세계 130개국을 넘는 나라에 수출됐고 유튜브에서 매달 2억회 이상 재생되는 인기를 얻고 있다. 뽀로로는 북측에는 방영되진 못했으나 남북 동시개봉한 애니메이션도 있는데 2005년 최초로 남북 동시개봉한 극장용 애니메이션 '왕후 심청' 역시 남측의 캐릭터, 시나리오 등 기획작업과 북측의 인력(만화작업)이 결합되어 제작하였다.



[그림 4-34] 남북합작 애니메이션 뽀로로, 왕후심청

다큐멘터리도 2005년 ‘한반도의 지붕, 개마고원을 가다’, 2007년 ‘자라의 생존법칙’,과 ‘개마고원의 불개미’가 협업 제작되었고, 드라마 ‘사육신’도 남북합작으로 제작되어 2006년 남한과 북한에 모두 방영되었다.

남북합작은 주로 남측의 제작, 기획과 북측의 실행, 인력의 결합으로 추진되었는데, 남북 동반출연으로 이목을 끈 사례도 있다. 2005년 삼성전자 애니콜 CF에 남측의 가수 이효리와 북측의 무용수 조명애가 중국 상하이에서 동반출연 광고를 촬영하였다. ‘하나의 올림’이라는 주제로 총 4부작으로 제작된 남북 동반출연 광고는 광고를 통한 문화교류 사례로 화해와 협력의 공감대를 이끄는 데 의미가 있었다.



[그림 4-35] 남북합작 CF 애니콜 사례

또한 지금은 중단되었지만, 남측의 자본과 북측의 자연경관을 합작한 금강산관광이 1998년부터 시작되었는데, 당시 현대그룹 故정주영 명예회장이 소 500마리를 몰고 방북하여 사업을 논의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남북관광은 이후 2007년 개성관광까지 확대되었으나 남북정세의 변화로 2008년 이후 중단되었다.

이렇듯 남북 합작은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민간주도로 남측과 북측의 기획, 인력, 자원을 서로 결합하여 추진되었다. 2020년까지 비핵화 문제 등 정치적 과제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남북 문화교류는 공동제작, 합작 콘텐츠 등 양방향의 협력으로 정서적으로도 공감대를 넓히고 사업적으로도 이해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제9절

문화분권, 지방자치분권의 길을 열다.

1.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추구와 강조

가. 현 정부 정책 기조로서의 지방자치분권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26일 전남 여수엑스포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선언하며 지방분권 의지를 피력하였다. 대선후보 시절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며 “자치입법권, 자치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의 4대 지방자치권을 보장해 수도권과 중앙정부로 초 집중된 권한을 지방정부로 담대하게 이양하기 위한 헌법적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구하는 지방분권이란 중앙집권국가 폐해의 대안으로, 원칙적으로 지방단체의 자치권이 보장되고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치업무를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곽정일, 2017)

비전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
목표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핵심전략	1.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2.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3.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4.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5. 네트워크형 지방행정체제 구축
추진기반	지방분권형 개헌 지원

자료: 박미영(2018.02.27.), 문재인정부 자치분권로드맵 내용과 향후과제, 디지털타임즈

[그림 4-36]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로드맵

지방자치분권의 핵심은 재정의 분리이며, 이를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과 비과세 및 감면 제도의 관리 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박미영, 2018)

나.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 시도와 연기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개헌을 위해 선행돼야 할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무산되어 불가능해졌다. 자유한국당이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특검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을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국회 처리가 무산되었으며, 개헌에 대한 여야 간의 큰 입장 차도 개헌 동시투표의 장애물이 되었다. 이후 한국당은 개헌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언제든지 국민 투표를 하면 되며, 개헌 시기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김선욱, 2018)

2. 지방 분권에 대한 우려와 기대: 지역 발전 견인과 지역 간 격차 심화

가.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현황

지방분권(decentralization)에 대한 정의는 국내외 여러 학자에 의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 배분관계로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양된 상태를 의미한다. 류시조(2018)는 우리의 현재 지방자치체제가 행정이나 교육 자치에 있어 ‘자치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어, 자치기관의 한정된 인력과 재정으로 국가위임·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며, 통치권의 과도한 중앙 집중으로 자치권능이 매우 취약하다는 한계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실질적으로 분권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방자치가 중앙정부에 예측되어 지방자치에 관한 주미의 관심과 참여가 미흡하고, 자치사무는

자치단체별 특성이 별로 없어, 서로 경쟁적인 관계로만 인식하여 자치단체간의 협력구조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등 자치역량이 매우 부족하다고 진단하였다. 특히 지방문화의 자생력과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교육 자치가 제대로 이루지지 않는 문제점을 적시하고 있다.

나. 지방분권을 통한 지역의 자율적 발전 기대

지방분권은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용이하며, 행정의 민주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 자치행정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강화하여 기관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복지와 이해에 충실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류시조, 2018).

실제로 최영출(2016)이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및 국민행복도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지방분권 수준은 행정분권을 제외하고는 주요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낮은 수준이 아니며, 종합적 분권지수 면에서는 182개 비교대상국 중 10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방분권은 1인당 GDP나 국민 행복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국가경쟁력 수준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현재의 지방분권화 중 행정분권 수준이 낮는데, 행정분권 수준을 현재보다 10% 향상시키면 현재 35위인 국민행복도가 30위 정도로 높아지고, 50% 향상시키면, 세계 4,5위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다. 지역간 문화 격차에 확대에 대한 우려

한편, 이미 상존하는 지역 간 격차가, 지방분권에 의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태선, 이미영, 한우석(2018)은 지역별 문화향유기회 격차와 문화향유 만족도 격차를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별로 격차가 나타났으며, 지역별

로도 차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 이 같은 지역 간 문화격차 문제가 지방분권을 통해 어떻게 극복될 것인가가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한편 지방정부간 지나친 경쟁이 지방정부의 지출 및 적자재정 확대를 초래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김민경(2018)이 2003년부터 2010년까지의 지방채무 규모를 분석한 결과, 지방재정분권화의 시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규모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채무발행의 자율성을 획득한 지자체가 발행한도액까지 지방채를 발행하여 예산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유인을 갖게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지방분권은 연기되었으나, 문화 분권은 진행 중

가. 지방분권을 견인하는 문화 분권, 그러나 문화 격차에 대한 우려 상존

지방분권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지만, 현 정부의 지방분권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16일에 발표한 ‘문화비전 2030’에서 지역 문화 분권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실행주체로 삼았다는 점에서 문화분권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성공요건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인병택, 2018). 지역의 문화는 주민의 참여와 자치로 만들어간다는 기본원칙 하에,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민주주의 실천방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문화 분권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해석되고 있다.



‘문화비전 2030’에서는, 9대 의제중 하나로 ‘지역문화분권 실현’을 명시하였다. 지역 문화의 고유성을 유지·발전시키고,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을 키우기 위한 기반 조성 and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며, 중앙과 지방 간 협치 모델을 설계하여 지역분권을 문화에서부터 실현하고자 하였다. 문화도시, 관광매력거점도시 등 지역 발전을 지원하는 사업과 함께 지역 내 문화자치 역량 자체를 신장시키기 위한 지역 문화인력 양성, 지역문화기관 위상과 역할 재정립 등을 주요과제로 설정하였다. 특히,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협력위원회와 주민참여 문화예산제도를 도입하고자 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예술지원기구,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문화의집 등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협력체제도 제안하고 있다.

이후 6월 5일에 발표한 ‘제1차 국민여가활성화 기본계획’에서도 지역으로의 문화 분권을 실현하여 중앙은 지역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박현주, 2018).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8년 예산안부터,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주민 밀착형 지역사업 및 지역행사 등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분권을 시행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과 역량이 달라, 권한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는 문화 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으로,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문화 분권이 진행 될수록 지역 간 문화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3.83점으로 나타났다. 델파이 조사에 응답한 전문가의 80%가 발현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였으며, 1차 델파이 설문에서도 지방분권화로 지역의 재정능력과 지자체 당의 성향에 따라 문화적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는 내용에 응답 전문가 60%가 동의 하였다.

〈표 4-23〉 2차 델파이 결과 - 문화분권 관련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대안 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5점 만점)					
	평균	응답별 비율(빈도)				
		1	2	3	4	5
문화예술과 관련된 역량은 지역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분권으로 인한 지역 간 문화격차는 점차 심화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증가할 것	3.83점	—	5.0% (n=2)	15.0% (n=6)	72.5% (n=29)	7.5% (n=3)

전문가 의견 중 문화 분권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으로는, 문화 분권이 가능해지기 위해서는 지역의 문화적 역량이 우선되어야 하는데 현재로서는 지역의 문화적 역량이 충분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지방의 경우 문화기반 환경이 서울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고, 문화활동이 집적된 곳에서는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지 않고서는 문화 분권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고 바라보았다.

나. 문화 분권이 진행되는 가운데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은 계속될 전망

문화 분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며, 동시에 지역에서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시도가 이어져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중앙정부의 대응책이 마련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40.0%가 동의하였으며, 지역이 스스로 인식하고 자체적인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에는 32.5%가 동의하여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이 두 전망의 발현 가능성이 동등하다고 27.5%의 전문가가 평가하였다.

〈표 4-24〉 2차 델파이 결과 - 문화분권 관련 방향성

(A방향성)	A 방향성에 더 가깝다	A, B 동등하다.	B 방향성에 더 가깝다	(B방향성)
문화분권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	40.0% (n=16)	27.5% (n=11)	32.5% (n=13)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간 문화격차를 지역이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자체적인 시도가 이어질 것

종합적으로 권한과 재정을 지방에 이양하는 문화 분권이 진행될수록, 지역 간 문화예술과 관련된 역량에 의해 지역 간 문화격차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를 위해 중앙정부에서의 대응책과 함께 지자체의 자체적인 해결책이 함께 모색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10절

새 예술정책 시대로의 과도기

1.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그간의 상황

가. 블랙리스트 확인과 진상조사의 과정

2016년에는 박근혜 정부가 문화예술계 9,473명의 블랙리스트 명단을 정부 지원사업에서 배제하는 자료로 활용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세월호 시국선언,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 선언, 문재인 지지선언, 박원순 지지선언을 이유로 명단에 오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문체부 진상조사위를 통해 2015~2016년 ‘한-불 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 사업 전반에서 블랙리스트 명단이 적용되어 다수의 문화예술인의 배제 지시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2013년 문체부가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연극 국립극단의 〈개구리〉 공연 이후, 해당 연극의 예술 감독을 각종 연극 지원에서 배제하면서 블랙리스트의 도화선이 되었다. 하지만 2017년 영포빌딩 지하 비밀창고에서 이명박 정부의 블랙리스트 관련문건이 발견되었고, 박근혜 정부 이전에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문화예술계와 방송계에 불법적으로 관여한 것이 밝혀졌다. 2017년 7월에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블랙리스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았지만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1월에는 법원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를 작성·운용한 혐의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모했다고 인정하였으며, 이러한 블랙리스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영화진흥위원회는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와 관련 제보를 받아 진상규명·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조운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월 항소심 재판에서 새로 발견된 증거들을 토대로 무죄였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박근혜 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도 추가 기소되었지만 10월에 진행된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반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같은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재구속 되었다.

2018년 6월 27일,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가담 정도가 무거운 2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권고했고,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104명에 대한 징계를 권고했다. 그리고 10월 13일 문화체육관광부가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문체부 소속 공무원과 전직 공공기관장 7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12명에게 ‘주의’ 처분을 주기로 했다고 발표하였으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의 판단과 달리 징계 대상자가 대폭 줄고 사실상 징계 인원은 0명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에 명확한 징계를 촉구하고 있다.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이슈를 시간의 흐름대로 살펴보면 아래 <표 4-25>와 같다.

<표 4-25> 블랙리스트 관련 주요 이슈 흐름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2009년	2월	- 이명박 정부가 MBC와 KBS, SBS 등의 프로그램 편성 관계자 인사 조치 등에 전방위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9월	- 문체부가 국립극단의 <개구리> 공연당시 정치적 편향성이 있다는 이유로 이 연극의 대본 시나리오 수정 압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2014년	10월	- 김기춘 비서실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담은 다큐 영화 <다이빙벨>이 부산영 화제에 출품작으로 선정되자 상영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0월	- 안애순 전 국립현대미술관 예술 감독은 블랙리스트에 오른 주재환 작가와 협업한 것이 계기가 돼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오른 것으로 드러났다.
2016년	7월	- 우병우 전 수석은 좌편향으로 분류되는 도서와 저자들을 사찰하고 검열하도록 국가정보원을 독려하였다.
	10월	-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시국선언에 참여한 문화예술인 중 일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 검열과 지원 배제로 인한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제 대상 사업은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아르코 주목할 만한 작가상, 우수문화예술프로그램, 예술인 맞춤형 교육지원, 서울국제공연예술제, 생동하는 문학관, 연극창작산실 대본공모, 다원예술 창작지원, 차세대 예술인력 육성사업 등이 있다. - 2015~16년 100억원 이상 투입된 '한·불 수교 130주년 상호교류의 해' 관련 행사에서 국가기관을 총동원해 블랙리스트를 실행한 것이 밝혀졌다. 문건에는 세월호 정부 시행령 폐기 촉구선언 문화예술인과 세월호 사국선언 문화인, 문재인 박원순 후보 지지선언 문화인 등 모두 9473명의 명단이 담겨있었다.
2017년	1월	-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7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블랙리스트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 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징역 3년을 선고하였다.
	12월	-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MBC 방송 장악 의혹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다.
2018년	1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혐의를 인정하였다. - 법원은 항소심에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였다. - 아르코 혁신 TF가 결성되어 활동 시작하여 6월 30일 활동 종료일 전까지 총 10여 회의 공청회를 개최해 예술인들의 의견을 수렴. 아르코혁신TF는 민간위원 6명을 비롯해 예술위 위원 4명과 예술위 사무처 직원 4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되었다.
	4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영진위는 영화계 블랙리스트 및 화이트리스트와 관련된 제보를 받아 진상규명·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는 활동을 시작하였다.
	5월	-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발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 문건 현황 및 규모는 총 9,237개(단체 342개, 문화예술인 8,931명), '배제사유'로 적시된 관리대상 규모는 21,362명으로 최종 집계되었다. (진상조사위 결과보고서 집계)
	6월	- 진상조사위, 공무원·산하기관 26명 수사의뢰·104명 징계를 권고하였다. 6월 30일자로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활동을 1차 완료하고 백서 발간 후 7월 말에 모든 활동 종료하였다.
	8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구속기간 만료로 6일 석방되었다. - 31일 검찰은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징역 4년,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 추징금 4500만 원을 각각 구형하였다.
	9월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구속기간 만료로 22일 석방되었다.

연도	월	이슈/사건/현상
	10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직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민간위원들은 ‘블랙리스트 징계 0명’ 논란에 대해 형평성에 맞게 조치를 취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해명문에 재반박문을 내며 공개토론을 제안하였다. -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심에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심에서 ‘화이트리스트’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블랙리스트 징계를 둘러싸고 ‘셀프 면죄부’라고 비판하며 문화예술인들이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항의에 나섰다.

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와 함께 생겨난 파급 현상들

1) 폐지사업들의 잇단 부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여파로 2016년 폐지된 사업 중 공연예술발표 공간 지원, 공연장 대관료 지원, 우수 문예지 발간 지원 등 3개 사업을 복원하기 위해 올해 체육기금을 긴급 편성하였다.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은 민간 공연예술 단체들의 대관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박근혜 정부 시, 정부에 비판적인 문화예술단체와 예술가들을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 자체가 폐지되었다가 2017년 15억 원의 체육기금이 임시로 투입돼 사업이 부활되었다. 2018년 33억 원의 예산을 배정해 지원 규모가 폐지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2017년은 440개 단체가 지원을 받았다. 30스튜디오, 학전블루, 극단 그린피그, 극단 백수광부, 권리장전 2017 국가본색 등 블랙리스트에 포함됐던 여러 곳이 포함되었다.

그 외 폐지되거나 배제된 사업들은, 예술인복지재단의 현장예술인교육지원사업 폐지, 2015 예술인맞춤형교육지원사업 지원 배제 외,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우수 프로그램 문화원 순회사업 배제 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2016 문화파출소 운영 지원사업 배제, 2016 문화예술명예교사 배제, 시시콜콜, 예술강사 선발 외,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배제 등이다.

2) 예술가 권리 보호, 예술창작 자율성 강화, 기관 정비 권고 및 계획

블랙리스트는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해주었다. 정부는 이에 2018년 5월 ‘새 예술정책 5개년 계획’,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며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구성, 문화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서면계약 의무 위반 조사권 등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문체부 산하기관들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돕게 된 배경에는 산하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되지 않는 지위와 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예위의 명칭을 내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2020년까지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던 문예위원장을 위원 간 호선제로 선출하고 예술정책을 전담할 독립기관으로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해 문체부 예술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채택하여, 문예위를 비롯한 6개 주요 문화예술지원기관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2. 사회적 대화를 통한 정책으로의 예술정책구조 변화 요구 강화 전망

가. 문체부와 관련 기관들의 사죄 vs. 전면적 쇄신을 요구하는 예술계

문체부 장관은 2018년 5월 새예술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블랙리스트에 대한 사과를 한 바 있고, 취임 1주년 인터뷰에서도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다짐한 바 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등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2017년 5월 박명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세훈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사퇴했다. 영화인 1,052인은 가칭 ‘블랙리스트 대응 영화인

행동'을 꾸리고 영진위 사업을 편법으로 운영하며 블랙리스트 배제 실행에 앞장선 김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해왔으며 영화인 직능단체 8곳은 김 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무분별한 업무추진비 사용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후, 블랙리스트의 실질 실행기관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고 밝혀진 가운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임직원 대표들이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대국민 사과’(2018.5.17.), ‘아르코 혁신(안) 공청회’(2018.5.24.) 등, 2차례의 자리를 마련하여 사죄하며 블랙리스트 재발 방지 방안을 내놓았다.



[그림 4-3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블랙리스트 관련 사과 모습

하지만 예술계는 지난 정부부터 블랙리스트의 정체를 알면서도 입 닫고 있었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임직원들을 신뢰할 수 없고 실질적인 개선안이 아니라며 블랙리스트 실행행위에 대한 납득할만한 수준의 처벌을 요구했다. 현장예술인들은 사과 발표 자리에 “사과 받지 않겠습니다.”는 피켓과 함께 한 무더기의 사과가 놓는 등 미흡한 사과에 대한 비판을 제기하며 제스처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아르코 혁신(안) 공청회’에서 아르코혁신TF의 민간위원들은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개혁은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와 블랙리스트 실행자의 처벌이 그 출발점”이라 강조하고

이에 따라 혁신안 23개(조직분야 10건과 사업분야 13건) 제안한 바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는 2017년 7월 3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고, 2018년 5월 진상조사위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6월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권고안’을 발표했다. 그 과정에서 진상조사위 활동 결과가 불만족스럽다는 시선과 향후 대책이 어떻게 지켜보자는 시선으로 양분되었다. 2018년 6월 27일,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가담 정도가 무거운 26명에 대해 수사의뢰를 권고한 것 외에 가담 정도가 가벼운 104명은 규정에 따라 징계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문체부 관계자는 “관련 법과 규정을 검토해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2018년 10월 13일 ‘블랙리스트 책임규명 이행계획’을 발표하며 문화예술계의 또다른 반발을 사고 있다. 문체부는 2개월간 사실 관계 확인 및 법률자문단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의뢰 7명, 징계 0명, 주의 12명을 골자로 한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예술계의 반발이 커지자 “이미 처분을 받았거나 퇴직, 징계 시효가 지났다”, “하위직 실무자는 기존 감사결과에 대한 조치와 형평성, 권한이 없는데 책임을 묻기 어려운 점을 등을 감안했다”는 등의 입장문을 내놓았다. 문화예술계는 이행 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성명과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발표 이후, 10월 14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전(前) 민간위원들을 비공개로 만나 블랙리스트 관련자에 대한 문체부의 후속조치를 전면 재검토하라는 요구를 청취했다. 신학철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 전(前) 공동위원장을 비롯해 진상조사위 민간위원 12명은 도종환 장관에게 △이행계획 전면 재검토 △이를 위해 민간이 참여한 재검토위원회(가칭) 구성 △대국민 토론회 개최 등 3가지 사안을 요구했다. 도종환 장관은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계에 설명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에 사과했으나, 문화예술계의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그림 4-38] 블랙리스트 징계처분 항의 1인시위 모습

나. 정부주도 예술정책구조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

블랙리스트 이후의 예술정책 및 예술계 현장의 변화 전망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정부와 현장의 블랙리스트가 의미하는 예술의 자율성 침해 및 예술정책구조의 변화의 필요에 대한 이해와 이행에 대한 간극이 오히려 드러나면서 오랜 시간 굳어져온 정부주도의 예술지원정책의 프레임 변화 필요가 강력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표 4-26 참고>.

〈표 4-26〉진상조사위 책임규명 권고 및 문체부 이행 내역

구분	진상조사위 권고 내역			해당기관 이행 내역
	기관	인원		
수사 의뢰 권고 (26명)	중앙 부처 (15명)	문화체육관광부	12명	수사의뢰 5명, 주의조치 2명 (타직)
		외교부	1명	
		국가정보원	2명	해당기관 검토 중
	공공 기관 (11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3명	수사의뢰 1명 (타직 3명 중)
		영화진흥위원회	3명	수사의뢰 1명 (타직 2명 중)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2명	해당기관 징계 검토 중 1명
		한국문화재단	1명	(타직 2명)
		한국문화재단	1명	(타직)
		예술경영지원센터	1명	(타직)
		국립극단	1명	(타직)
	처분 소계			수사의뢰 7명, 주의조치 2명
징계 권고 (105명)	중앙 부처 (46명)	문화체육관광부	44명	주의조치 10명, 감사원 기주의조치 4명 (민간임용 퇴직자)
		외교부	1명	(민간임용 퇴직자)
		대통령비서실	1명	(민간임용 퇴직자)
	지자체 (3명)	대구광역시	3명	검토 중
	공공 기관 (56명)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3명	검토 중
		영화진흥위원회	14명	
		예술경영지원센터	4명	
		한국문화재단	4명	
		국립극단	3명	
		한국문화재단	2명	
		한국예술인복지재단	2명	
		한국문화재단	2명	
		한국문화재단	1명	
	처분 소계			주의조치 10명 (수사의뢰자 중 주의 포함 12명)

※ 진상조사위 권고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 처분 받은 자 : (기소)전직 참차관 3명, (주)한진국립 1명

〈표 4-27〉 델파이 결과 - 블랙리스트 대안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대안 시나리오	발현 가능성 (5점 만점)					
	평균	응답별 비율				
		1	2	3	4	5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정부에 예술창작 지원과 관련된 공정성 요구는 증대되었으나, 현장의 요구와 괴리가 좁혀지지 않아 예술 정책의 프레임과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요구까지 확장될 것	3.80점	-	10.0%	17.5%	55.0%	17.5%
블랙리스트 이후 정부 대책에 한계를 느낀 예술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강구할 것	3.63점	-	15.0%	25.0%	42.5%	17.5%

블랙리스트 사건이후, 예술정책을 진행하는 관료 조직화의 문제에 대한 문제 지적은 관료 조직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예술인소셜유니온, 청년예술가네트워크,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문화연대 등은 계속해서 문체부와 지원행정기관이 지닌 관료조직의 권한의 지나친 크기, 지원사업 설계 및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일처리 방식에 있어서의 관료조직차원의 개입이 너무 많다는 문제, 실무자의 해석 및 조율가능 범위의 부정확성 문제에 대해 지적한다¹⁴⁾. 정부주도형 예술정책과 예술행정 구조는 문화예술인들이 정부지원금과 제도 안에 지나친 의존을 하게 만들었고, 문화예술전문기관과 문화예술인들은 그 구조 안에서 독립과 자율성 확보의 필요성을 제대로 하지 못한 시간이 너무 길었다는 것이다(이원재, 2017).

그 해결장치로서 진상조사위는 기존의 문체부의 문화예술정책 실행기능을 전문기관, 지자체, 민간전문가집단 등에게 이관하고, 정책조율기능을 중앙정부 단위의 역할로 보다 전문화시킬 것을 권고한바 있다. 하지만 이 권고는 중앙정부의 의견 및 인식과 많은 간극이 있는 것으로 몇 번의

14)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 예술위의 사고없는 신입위원장 공모가 진행된 후, 예술계에서 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고 이 토론회에 발제 및 토론으로 참여한 이들의 토론회과정에서 나온 의견이다. 블랙리스트 이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묻다(2017.9.15), 「브런치」, 서울문화재단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해당 권고에 대한 정책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일련의 과정들은 문화예술인들에게 정부주도 예술정책의 구조 변화에 대한 문체부의 의지와 현장예술인의 의지의 차이가 많다는 것을 재확인시켜주었고, 이런 인식들이 본 트렌드 연구조사 결과에도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아래 표를 보면 정책대안책 마련 요구에 비해 정책반영도가 낮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42.5%)이 이런 정부주도 예술정책에 대한 실망과 낮은 기대치를 보여준다.

하지만 예술인 중심의 정부주도 정책구조의 변화를 위한 움직임의 지속성이 가져올 장기적 변화에 대한 기대 또한 높다(45%). 이 결과는 범사회 및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자성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전망이 문화예술계 전반에 자리잡으며 기존의 예술정책 구조를 대체할 대안적 정책구조 및 체계 마련을 위한 현장중심의 행동이 계속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표 4-28〉 2차 델파이 결과 - 블랙리스트 관련 방향성

(A방향성)	A 방향성에 더 가깝다	A, B 동등하다.	B 방향성에 더 가깝다	(B방향성)
예술가들 스스로 정책 대안으로 현장·민간 중심의 자원체계와 자원체계 마련에 힘쓰며 정부주도 예술정책 구조 전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	45.0%	12.5%	42.5%	예술가들은 지속적으로 대안책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미미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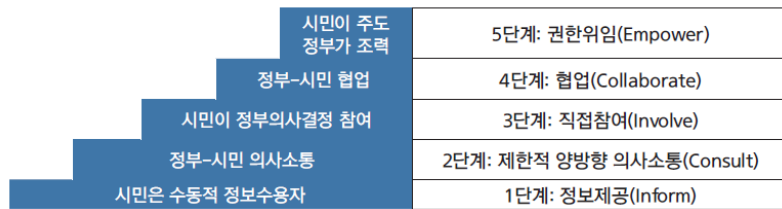
3. 예술계가 정책하자 vs. 정부가 제대로 하자: 예술정책 주체에 대한 과도기 현상 지속 전망

가. '예술인 주도 예술정책' 제안의 계속된 시도

현재로부터 약 2년 후인 2020년에 과연 예술정책은 현재의 정부주도형 구조에서 변화할 것인가?란 질문에 대해 전문가 FGD 논의 결과를 살펴보면 짧은 시간 안에 눈에 띄는 구조적 변화가 발견될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은 없다. '새 예술정책'의 정책계획 구성 및 내용을 봐도 정부의 정책발신자로서의 역할에 대한 인식, 정부의 정책 권한의 분배 문제, 민관 협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에 대한 고민과 내용이 없다는 지적과 함께,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발신하는데 있어 예술계가 의견을 제공하는 방식은 여전히 정부의 선택적 권한과 정책독점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문화정책추진의 행정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행정체계 개편에서 강조되기 시작하는 '국민주도 공공혁신'의 형태로 예술인이 주도하고 정부가 조력자가 되는 '권한위임' 단계 형태의 '예술인주도 예술정책혁신'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근거하여 2020년에 예술정책 구조로 변화할 것이라 전망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에서 더 나아가 국민이 주도하는 정책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2020년 즈음에는 '예술인 주도 예술정책'의 실현을 위한 기초 틀 마련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IAP2)은 2007년 발행한 보고서에서 공공혁신에 있어서의 국민 참여의 스펙트럼을 5단계로 정의한 바 있고<그림 4-39 참고>, 최근 한국의 행정체계 관련 논의에서도 마지막 5단계인 '국민주도-정부조력'관계로의 변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자료 : 조세현, 김은주, 박선주(2018), 국민주도 공공혁신 국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이슈페이퍼, 한국행정연구원

[그림 4-39] 시민에 대한 권한 위임정도에 따른 정부주도 혁신 수준

공무원의 전문성만으로 해결이 어려운 복잡한 난제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빅데이터 등의 정보기술발달에 따른 국민참여 기반의 공공혁신 인프라 강화를 통한 ‘국민주도정책’을 통해 국민이 정책주기 전반에서 문제 탐색자, 혁신적 아이디어 제공자, 혁신적 아이디어의 실행을 위한 정책대안 형성 및 설계자,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공공서비스의 공동생산자, 서비스 경험을 공유하고 알리는 확산자로 역할할 수 있다는 것이다(조세현 외, 2018). 혁신적인 정책대안 아이디어를 낼 수 있게 하는 사례들은 최근 점차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정부혁신플랫폼인 Challenge.gov는 공공정책문제 해결에 시민들의 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하는데, 100여개 연방 정부기관이 참여하여 740여개 이상의 공모를 진행하고, 500만명 이상의 사이트 방문자와 25만명 이상의 응모자가 있다. 덴마크는 기후변화 대응 및 산업 성장전략을 시민과 공동수립하기 위해 정부, 기업, 시민, 학계, 전문가,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Innovation Jam이란 이름으로 지속 개최하고 있고, 실제 이익집단간 갈등이 발생하는 기후변화 대응 문제해결을 위한 긍정적 성과가 나타난다 평가되고 있다(조세현 외, 2018; Challenge, 2018).

아이디어 제공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대안으로 전환시키는 설계자로서 국민이 참여하는 정책 형태들 또한 발견된다. 영국 Participle이란 사회혁신단체는 런던 지방정부 및 노동연금부(Department of Work & Pensions)과 함께 고령자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설계하고 있다.

그 결과 노인에게 가장 필요한 커뮤니티 기반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인 Circle이란 공동체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시행한 후 성공하여 현재 상부상조 공동체로서의 고령자맞춤형 복지서비스사업을 정착시키고 있다(조세현 외, 2018; Participle, 2018).

국민이 주도하는 정책구조로의 변화가 시도되고 정착되려면 우선, 정부가 정책발신자 및 공급자라는 역할이 아닌 공동생산자이자 ‘조력자’로 역할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동 가치창출’을 위해 국민들의 역할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랫폼, 공공부문 빅데이터에 대한 개방성 제고 등의 환경 조성을 위한 역할을 정부가 수행해야한다. 이를 현재 문화예술계에 적용해보면 예술계가 블랙리스트 사태 이후로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예술인주도형 예술정책’을 위해 정부의 역할이 예술인이 예술정책에 대한 혁신적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 형성, 예술부문 공공 빅데이터에 대한 개방, 예술인이 제안한 혁신적 정책 아이디어가 구현될 수 있는 정책 메커니즘의 개발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이런 예술인주도형 혁신적 예술정책의 제안했던 문화예술계의 초기 제안은 현재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점, 블랙리스트 이후 예술정책의 대안적 주체 및 구조마련에 대한 제안이 특정 조직과 인물들에 의한 정책의제 포획현상이 있었다고 보는 문화예술계 집단 및 세대 간 인식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점, 새로운 문화예술정책과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며 현 정부 초기에 진행된 참여에 기대를 가졌던 많은 예술인들이 그 결과로 보게 되는 정부의 입장에 대한 반발과 부정적 경험 등은 빠른 시간 안에 ‘예술인주도’ 예술정책 혁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들이다. 다만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예술인주도 예술정책 환경조성을 위한 예술인들의 요구, 정부가 정책조력자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권한 조정 및 민간으로의 정책공동설계 권한 위임을 위한 제도장치 마련에 대한 요구 등이 지속될 것이라 전망된다.

나. 국민주도형 정책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백래시 전망

국민주도형 정책단계 중 초기단계로 볼 수 있는 국민의 정책필요 수요를 직접 청취하고 정부가 선택적으로 그에 응답하는 대표적 장치로 문제인 정부의 시작과 함께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며 ‘국민청원 및 제안(국민청원) 제도가 2017년 8월 17일부터 도입되었다. 미국 백악관 청원사이트인 ‘We the People’을 벤치마킹하여 도입된 국민청원제도는 현재까지 1년이 넘는 시간까지 약 32만건 이상의 청원이 올라왔고, 총 53건의 청와대의 청원답변이 이루어졌다. 낙태죄, 청소년보호법, 주취감형 등 법령 및 규제에 대한 개선의 필요 등이 국민청원제도를 통해 이슈화되었고, 홍대 누드모델사건, 식당 성추행 남성 구속관련 사건, 동계올림픽 팀추월 관련 사건 등 많은 사건들이 국민들의 관심 속에 이슈화되었다. 국민들의 정책필요 수요를 파악하는 제한적 양방향 정책소통장치로서 국민청원제는 긍정적 효과가 있지만, 국민청원제를 활용해 여론몰이를 하여 개인적 사건사고에 유리하게 활용하거나, 지극히 개인적인 요구, 근거없는 원색적 비난 등이 많아지면서 점차 문제점 및 개선의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의 답변으로 채택되더라도 청원에 대한 답변의 대부분이 해당 청원문제에 대한 해결장치로서 역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제한적 소통으로 정부가 의견을 청취 및 수집할 뿐, 국민들이 청원 문제에 대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거나 하는 장치가 없어 청와대의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답변을 재확인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참여형 정책에 대해 피로도를 느끼고 실망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18년 하반기로 들어오면서 점차 국민청원제의 개선, 폐지 등에 대한 국민청원이 종종 올라오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고, 언론 및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의 개선의 필요에 대한 글들이 증가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또한 블랙리스트 사건, 새로운 문화정책 수립을 위한 민간 참여형 정책수립과정의 시도(문화정책포럼, 문화비전추진단의 현장토론

회 등)를 보며 가졌던 기대들이 2018년 하반기에 들며 전과 크게 차별화되지 않는 결과물, 과정에서의 참여가 의견수렴 및 청취 정도였을 뿐 정책설계 및 수행과정에서 이전과 유사하게 제외되고 있다는 실망들로 이어지는 모습이 발견된다. 또한 국민참여형 정책과정을 통해 과연 새로운 것이 제안되었는가라는 기존 정책설계 및 수행 조직들의 비판적 평가, 현장과 민간의 의견을 전달하는 단체와 개인들의 수가 제한적이고, 이익과 의견을 대변하는 대표적 단체나 집단이 없다는 점으로 인해 청년문화예술인이나 지역문화예술인들은 현재 중앙정부 차원의 문화예술정책의견수렴 과정에 직접 참여하기 어려운 개인들로 여전히 존재한다는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특정 집단들이 정책의제를 포획하고 있다고 보기도 하고, 또 다른 문화정책과정의 격리현상이 존재함을 강조하며 진정한 ‘예술인주도형 예술정책’이란 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들이 전문가토론 및 인터뷰 과정에서 확인된 바 있다. 실제 블랙리스트, 예술검열 등과 관련된 의견 또한 청년층의 경우 어차피 정책지원의 특성 상 선택적 지원을 받게 되는 현상에서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 현상은 정치적 이슈였던 만큼 이후의 정부에서 이것이 크게 문제될리는 없다고 보는 인식 또한 발견되고 있다. 예술정책의 주체를 민간과 현장 위주로 전환시킨다 해도 해당 정책의 주체적 권력을 갖게 되는 집단이 생기고 되게 그 집단은 또 다른 화이트, 블랙리스트를 만들게 될 것이라는 염세적 의견을 전달하는 주체들 또한 나오고 있다.

이런 의견의 차이는 예술인주도 예술인정책의 구조는 오히려 기존의 문화행정체계보다 느슨할 수 밖에 없는 내부감시장치 속에 예술정책을 던져놓는 일일 수 있다는 의견 속에 차라리 정부주도의 예술정책 구조 안에, 지원심사 및 평가에 대한 더 강력한 정책적 규제 장치 및 원칙마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 본 연구의 델파이조사 주관식 답변 및 전문가자문의 과정에서 국민참여형 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백래쉬 현상으로서의 정부주도형의

강력화 요구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몇 년간 예술정책의 주체와 예술정책의 설계, 수행, 평가의 체계 마련에 대한 엇갈린 시선들이 계속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인 예술정책 구조 변화 전의 과도기 단계로서의 혼란기가 지속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본다.

제5장 ●●

결론



재질

결론

최근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과 관계가 확장되고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회적 환경이 급변하면서, 미래 변화상과 정책적 수요를 예측하고 바람직한 변화를 형성하기 위한 문화예술정책의 장기적 접근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새로운 문화예술 트렌드를 미리 파악함으로써, 정책수요를 예상하는 한편, 바람직한 미래상으로 이슈를 형성, 문화예술분야의 정책적 의제 설정을 주도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미디어 스캐닝을 통해 트렌드 이슈 및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트렌드 가설을 도출하였으며, 트렌드 이슈를 확정하기 위해 문화예술과 범사회 전문가 42인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총 2회에 걸쳐 실시하였다. 전문가토론(FGD)을 진행하여 문화예술 트렌드의 입체적 관계와 사회메가트렌드 간의 영향 관계를 확인하였고, 후보군으로 도출된 트렌드 이슈들의 발현 방향에 대한 전망, 트렌드 이슈들 간의 관계, 단기트렌드로서의 가능성과 장기 트렌드로서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2020 트렌드 선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 토론했었다. 그리고 후보군으로 도출된 트렌드들의 방향 설정에 대해 연구진 내의 최종 토론회를 거쳐 2020년 10대 문화예술트렌드 선정 및 전망 방향에 대한 결론을 도출했다.

1. 시간민감성의 시대. 여가를 즐기자.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유연근무제 확대에 따라 직장인들에게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여가시장도 확대되고 있다. 근무시간 외에 여가시간이 증가된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유통

가, 영화관, 미술관 등에서 다양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하였으며, 문화 예술기관들은 퇴근 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거나 전시·공연 시간을 변경하였다.

텔파이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비용 부담, 임금감소 등의 부정적인 영향보다(17.5%), 늘어난 여가시간이 문화예술서비스의 신규 수요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60%)으로 평가하였다. 즉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임금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늘어난 여가시간이 새로운 산업이 되고 시장이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여가는 단순히 남는 시간이 아니라 생산적이고 경제성이 있는 새로운 시장으로 재평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즐겁게 잘 노는 시간 가치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가시간 증가로 인해 기존 사업들의 문화예술서비스화, 신종 문화예술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문화예술기관들의 고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기획, 프로모션, 서비스 제공 등의 노력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것이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간’의 단축이기 때문에 퇴근 후 생활 권 내에서 문화소비가 증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여가활동의 한 유형으로 살롱이 유행하고 있다. 살롱은 서로의 취향을 나누고 자유롭게 대화하는 일종의 사교모임으로, 공간을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기도 하고, 그림, 글(독서), 영화, 요리 등 관심 콘텐츠를 매개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살롱과 같은 자발적 모임이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그 형태도 다양해 질 것으로 예측되므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간과 정책에 대한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2. 일상 속 생활문화, 스며들다.

문화와 예술을 창작하고 향유하는 일상을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 질 수 있도록, 생활문화, 생활예술이 정책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민간 영역의 자발적 움직임과 함께 정부에서도 관련 제도, 시설 등의 확충, 관련 정책이 수립·시행되고 있다.

생활문화, 생활예술, 개념의 차이는 있으나, 모두 향유를 넘어 시민이 작품을 만드는 창작 작가로, 주민이 지역문화 기획자·활동가·매개자, 공간 운영자로의 변화를 도모하고 있다. 전공 작가가 아닌, 시민들이 직접 작업 하여 실제 창작품을 판매하는 시민 장터나 직접 기획·참여할 수 있는 창작 페스티벌이 증가하고 있으며, 메이커 문화와 연관되어 시민창작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되고 있다. 마을단위 협동조합, 작은도서관 등을 주축으로 다양한 영역·분야의 창작공간도 생겨났다.

정부에서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을 대대적으로 실시하여 생활 문화 기반시설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SOC의 3대 분야는 ▲여가·건강 활동 ▲지역·일자리 활력 제고 ▲생활안전·환경이다. 이중 여가·건강활동 분야의 주요 대상이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 확충과 지역 관광 인프라 확충 투자이다. 이에 따라 도서관과 다목적 체육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의 확충이 계획되고 있으며, 기존 시설의 리모델링도 이루어진다.

생활 SOC 사업에 대한 2019년 투입 투자규모가 8조 7000억원으로 기존대비 약 50%늘어나는 만큼, 일상속에서 누리는 생활문화 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기대가 높다. 반면 정책목표에 따라 공급형으로 진행되는 현행 방식으로는 지역별 여건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없기에, 주민이 생활권 내에서 필요로 하는 생활문화 기반시설을 구현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높다.

이처럼, 일상과 맞닿은 생활문화·생활예술이 강조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대폭 확충할 정책이 구체화된 가운데 지역의 시설운영에 대한 우려와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방향, 지역주민의 참여 등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텔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의 47.5%(평균 점수 3.90)가 확충된 문화시설이 추후에 자치단체의 여력과 의지,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면

서 지역민의 문화향유 격차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보았다. 워라벨의 강조, 주 52시간 근무제 등 전반적 환경 변화가 생활문화·생활예술 향유 확대에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고, 자발적, 자율적 시민 주도 예술활동도 빠르게 확산될 전망이다. 정책이 그 속도를 못 따라오는 상황에서 다변화된 생활 문화 정책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생활 SOC등의 사업이 활동 주체들의 실제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책 및 제도에 따라 만들어지는 상황으로 자율성이 떨어짐에 따라 해당 지역 여건별 향유 격차가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한편, 생활문화·생활예술의 일상화는 자생성에 기반한 성장 모델이어야 하는데, 지원제도 중심으로 육성되어 일상에 뿌리내리지 못하고, 공공 지원에 의지하여 운영되는 방식으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문가의 40.0%(평균 점수 3.70)이가 전망했다.

3. 각 이코노미와 예술인이 일하는 법

필요에 따라 단기간 공연 계약을 맺던 것을 뜻하는 말에서 유래된 깃이코노미는 전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미국의 깃 노동자는 2017년 약 580만 명에서 2018년 680만 명으로 늘어났으며, 2019년에는 770만 명, 2020년에는 920만 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인 ‘시간제 노동자’가 2003년 전체 노동자 중 6.6%였지만 2017년에는 13.4%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이 같은 깃 이코노미의 지속적 확산에 따라, 이에 기반을 둔 신산업 및 혁신적 요소가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반면 정규직 감소와 다양한 고용형태에 따른 사회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영국, 일본 등 주요국가에서는 이미 정부차원에서의 노동개혁과 사회보험 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 유럽의 경우, 민간에서도 깃이코노미를 위한 보험상품이 등장하였다.

국내에서도, 이미 각 이코노미 형태로 일하고 있던 예술인에 대한 기본 사회안전망의 구축,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논의들이 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문화비전2030’에서는 문화예술계 종사자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았으며, 예술가의 고용보험 도입과 사회보장제도 종합 지원을 위한 (가칭)예술인 복지지원센터 설립과 표준계약서 개발, 예술계 공정상생지원센터 기능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예술계 노동 형태가 비정규직 프리랜서가 주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각 이코노미 모델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현재의 형태가 경제 모델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과 함께 예술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바라보았다. 고용 계약의 체계화, 일자리와 관련된 플랫폼 구축 등을 마련하여 예술가들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과 동시에 예술 활동들이 ‘좋아서 하는’행위가 아니라 예술가에게는 예술활동은 ‘노동’이라는 사회적 인식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보편적으로 자리잡아야 예술활동에 대한 가치, 대가 등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그리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란 점의 강조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4. 1인 크리에이터, 전문가로 인정받다.

아프리카 TV, 유튜브 등 1인 미디어는 여러 발전가능성이 확장되면서 매스미디어 이상의 비즈니스 영역으로 고속 성장하고 있다. 2018년 국내 1인 미디어 시장 규모는 약 2,000억원으로 추정되고 2020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구글은 2020년이면 전체 미디어 가운데 기존 방송사나 스튜디오와 같은 주류의 매스미디어는 25%에 그치고, 나머지 70% 이상을 1인 미디어가 차지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현재 1인 미디어는 유튜브의 영향력이 가장 높지만 아프리카 TV, 페이스북 등 기존 플랫폼과 함께 네이버TV, 카카오TV, 트위치TV 등 새로운 플랫폼 진입이 시도되면서 다양한 콘텐츠를 생산해 내는 크리에이터를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또한 방송형태는 팟캐스트, 인터넷 개인방송 및 실시간 영상방송으로 변화하였고, 젊은 세대 중심에서 남녀노소 모든 세대가 참여하는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1인 방송 크리에이터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파급력이 커지면서 이들을 전문적으로 발굴·관리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다중채널네트워크) 사업도 고속 성장하고 있다. 크리에이터의 지원(콘텐츠의 제작 및 유통)뿐만 아니라 관련 상품을 제작하고 온라인 쇼핑몰 개설하는 등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방송·영화·게임 등 타 미디어와 협업하거나 브랜드 공동 출시, 오프라인 강연 및 행사에 참여하는 등 사업영역도 확장되고 있다.

1인 미디어의 콘텐츠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에 대해 대중적인 관심과 인기가 팬덤을 형성함에 따라, 이들을 마케팅에 적극 활용하는 소셜 인플루언서(Social Influencer) 마케팅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며, 가성비와 반응률이 높아 향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텔파이 결과에서도 1인 미디어가 더욱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전문가와 유사한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평균 3.75점으로 높게 나왔다. 전문가들은 1인 미디어는 기술적 난이도가 낮아 자유로운 자기표현이 가능하여 유저들의 소통, 공감, 공유를 지속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까지 문화적 경향을 넓히는 촉진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같은 사회적 영향력 확대는 크리에이터의 검증되지 않은 정보와 자극적 소재의 콘텐츠, 저작권 침해 문제 등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텔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미디어 제공 채널이 다양해지는 경우, 정보 접근성이 높아지는 동시에 파편화된 정보의 공신력에 대한 검증 장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평균 3.93점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 차원에서도 1인 미디어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와 정보에 대해 문제의식을 제기하며 당사자에 대한 처벌 등 법적 규제는 물론 미디어 플랫폼 및 언론사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진위여부와 정보검증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의견도 높아, 표현의 자유를 존중함과 동시에 불법 유해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한 정책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5. 혐오가 가져온 토론문화, 우리의 다양성을 드러낸다.

국제적으로 열풍을 일으킨 #MeToo 운동은 국내에도 강한 영향을 미쳤다. 국제적으로 퍼져나간 미투운동은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이 수 십 년간 성희롱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미투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켰다. 한국에서는 현직 여성 검사가 성추행 경험을 폭로 한 것이 본격적인 ‘미투 운동’의 발단이 되며 문화예술계에서 만연하는 성추행·성희롱을 폭로되었다. 학내 성폭력과 성차별을 폭로하는 ‘스쿨 미투(#Me Too · 나도 피해자다)’ 또한 전국 중고등학교에서 확산되고 있으며, 스쿨미투는 2018년 상반기에 약 20여개교에서 폭로가 이어지고 있다.

#살아남아서다행이다 와 #미투운동은 젊은 여성들 사이에 여성을 약자로 보는 사회적 불합리에 대한 고발과 공감대 형성으로 이어졌고, 화장실이나 탈의실에 설치된 몰래카메라에 대한 공포, 여성만이 겪어야 하는 불안감에 대한 호소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여성들은 사회적 차별이나 불평등의 경험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촛불집회이나 SNS를 통해 ‘#나는 페미니스트다’ 선언 운동을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여성 혐오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서, 단순한 분노 표출이 아닌 똑같은 형태로 혐오와 차별을 돌려주겠다는 ‘미러링’ 행동도 나타나고 있다.

반대로 페미니즘 행동에 대한 반발이자, 남혐현상에 대한 남성들의 반발 행동으로 남성들의 여성혐오 현상 강화로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일베로 대표되는 극단주의적 여혐사이트들 또한 여혐에 대한 범행모의, 위협 및 협박 글, 남혐 활동에 대한 극단적 반발 활동 등의 수위가 높아지며 남혐, 여혐 현상이 성대결 양상, 공격적 혐오로 확산 및 심화되고 있다.

촛불과 태극기 집회 이후, 깊어지는 세대 간 갈등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세대간 소통이 되지 않는다는 고질적인 문제에 더해, 일부 노인들의 나이와 경험에 기대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강요하는 행동과 정치적인 편향성이 강화되며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노인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역으로 전체 노인들이 조롱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해 청년층의 노인에 대한 이해 부족까지 더해져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최근의 제주 예멘 난민 사태로 표면화된 난민혐오, 이슬람 포비아 등, 이주민에 대한 불편한 시선도 사회적 갈등을 심화하고 있다.

텔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집단혐오 현상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세분화 및 파편화되면서 더 다양한 혐오로 심화될 것이라는 어두운 미래에 대한 전망 동의도가 4.10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텔파이조사에 참여한 전문가가 80%가 혐오 문화는 점차 더 심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집단혐오가 더 좋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과도기적 진통 현상이라는 인식도 나타나고 있다. 수면 위로 드러나고 있는 갈등표현들은 나을 만큼 나온 뒤에는, ‘과연 우리가 누구를 향해 분노하고 있는 것인가’란 질문을 가져올 것이며, 현재의 혐오 현상은 점진적으로 성평등, 세대간 소통 등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기대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현 정부가 ‘포용국가’와 ‘포용적 성장’을 국가비전으로 설정하고 추구함에 따라, 국가 정책을 정책 사안과 주제별로 설계 및 집행하던 것에서 벗어나 정책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회정책분야 과제를 각 부처가 일관된 정책목표로 설정하고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성별혐오, 세대갈등, 인종차별 및 이주민 혐오 등은 단지

문제부 차원의 문화예술정책대상 및 분야일 뿐만 아니라 부처통합 정책영역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고,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등 사회정책분야 관련 부처의 협업정책의 설계가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 사회의 문제를 들여다볼 기회를 현재의 극단화된 혐오표현이 만들어 주었고, 이는 향후 우리 사회에서 혐오문화가 더 확산되는 듯 보일지라도, 이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일상적으로 이 문제가 불러일으키는 문제, 나와 우리의 문제들에 집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대로 된 ‘다양성’의 존중 사회로 한 걸음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타난다.

6. 실패자가 아니에요. 문화적 응원

실패 경험이 성장의 발판이 되는 사회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실패사례를 모아 사회 자산화하고 재기 지원 컨설팅 및 정책 소개를 통해 재도전을 응원하는 사회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광화문 광장에서 ‘실패박람회’, ‘재도전 한마당 행사’ 등이 개최되었으며, 정부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7전 8기 재도전 생태계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완성된 프로젝트의 제출을 전제로 하지 않는 정책 지원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울문화재단 ‘청년예술지원사업 최초예술지원’ 중 200만원을 지원하는 창작준비형은 창작과정의 실패나 작품 발표에 구애받지 않고 창작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경기상상캠퍼스는 청년 프로그램, 청년 실험실 등을 운영하며 청년들의 다양한 시도를 지원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생기고 창작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패를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전문가들도 전망했다(평균 점수 3.23). 그러나 실패를 통한 배움이라는 해석이 청년 세대에서 용인될 수 있으나 사회

전체로 확산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실패의 재인식과 관련된 트렌드가 발현될 대상을 특정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에 있어 모든 세대 및 계층에게 실패의 기회가 중요하다는 인식과, 기회의 제공은 늘어날 것이나 기성세대들이 느끼는 상대적 기회의 박탈 또한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는 도전과 혁신의 전제 조건이라는 인식의 변화는 현 정부가 강조하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전제로도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포용, 도전, 혁신의 중요 요소로 보고 사회문화적 분위기 조성 및 정책적 지원을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고령화시대이자 100세시대인 현 사회 상황 속에서 이는 청년세대에게만 국한된 이슈가 아니라는 문제의식 속에, 기성세대에게 있어 가능한 실패를 용인하고 시도하는 기회의 제공을 위한 정책지원의 필요 또한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7. 예술가는 젠트리파이어? 예술가의 생존법 찾기

젠트리피케이션의 역기능이 사회문제로 대두 되면서, 예술가가 주도하는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예술가는 높은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밀려나는 피해자이면서, 동시에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하는 젠트리파이어로 인식 되고 있다. 저렴한 임대료를 매개로 예술가가 유입되어 활동하면서, 지역의 특성을 형성하는 개척자의 역할을 하는데, 이는 지역의 매력도를 높여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예술가 개인 차원에서도 장소애착을 형성하여, 밀려난 이후에도 멀리 떠나지 못하고 인접지역에서 머물며 공간적으로 분화하고 확장하는 유인이 된다. 또한 예술 씬을 형성하여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며 활동하는데, 창작활동을 매개로 예술 씬이 형성된 경우, 상업화에 의해 초기의 활동공간이 소실되어도, 새로운 공간을 개발하여 그 활동을 유지해 나가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젠트리파이어로서의 예술가의 역할은 지역 활성화의 구도 속에서 더욱 강조되고 있다. 특유의 미감과 개성으로 도심 낙후지역, 유휴공간 등의 저평가 지역에서 극적인 경관변화를 연출하면서, 주민과 상권을 단기간에 변화시키는 사례가 대두됨에 따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술과 예술가를 활용한 적극적 재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창작공간이나 공연, 전시공간 등을 제공하여 예술가의 활동을 장려하고, 예술촌을 조성하여 예술가의 정주를 유도하고 있기도 한다. 이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의 개척자로서, 개발업자,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적극적 개입을 유도하거나, 대규모 개발 사업을 촉발하는 슈퍼젠트리피케이션을 기대하여, 단기간에 의도적으로 예술가들을 유입시키는 경우, 활성화에 앞서 오히려 장소성 혼란의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의도된 문화 과잉으로 이러한 장소성이 과거와 단절되어 일순간 바뀌어 버리는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예술가의 이탈은 지역의 문화백화로 귀결되기에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맘상모의 김남균 대표가 젠트리피케이션의 대표적 역기능이라고 적시한 문화백화는, 임대료 상승 등으로 활동주체가 이탈함에 따라 생산적 측면이 감소하고, 유동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비적 측면만이 강화되면서, 획일화된 상업경관이 형성되어 매력도가 소실되는 장소 소비의 단계에 이르는 것이며, 결국 상권의 붕괴를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되어 버린 장소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많은 노력이 요구되므로, 장소소비의 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생산주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대응도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2018년 9월)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였으며, 지자체 차원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방지 조례를 제정(2015년 9월 서울 성동구를 시작으로 전국 14개 지자체에서 제정)하였다. 국토교통부에서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후속 조치로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해주는 공공상생상가에 대한 용자지원 상품을 마련했다. 이처럼 임차인의 권리 보장과 보호를 위한 공공부문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으나, 근본적인 대안을 찾기는 어려우며, 실효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젠트리피케이션을 경험하면서 예술가 스스로도 변화하였다. 초기 홍대에서 창작활동을 하였던 예술가들도 인접지역으로 이동하면서부터는 본인의 생업으로의 예술, 문화사업을 본격화 하였고, 적극적으로 문화기업가(cultural entrepreneurs)가 되기도 하였다. 이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젠트리피케이션 경험을 통한 밀려나기 않기 위한 예술가의 자구적 변화가, 오히려 젠트리파이어로서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는 모순적 상황이 반복·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예술가의 대응은 대항과 적응, 실험이 혼재되어 나타나고 있다. 초기에는 ‘썰어터 제로’, ‘두리반’ 등, 대응의 방법만을 취하였으나, 어쩌다 가게, 레인보우 큐브, 공간 사일삼 등과 같이 점차 실험과 적응의 자구적 대응이 함께 나타나고 있다.

텔파이 조사 결과, 다수의 전문가들은 예술 활동이 촉발한 지역의 변화에 자본이 결합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은 불가피한 현실이며 획기적 대책이 마련하지 않는 한, 갈수록 심화되어 일상적인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전문가 좌담회에서도 예술가와 젠트리피케이션의 전망에 대한 우려가 주를 이루었는데, 자본의 흐름과 정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술가의 자구책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다양한 대응방안이 간구되어 개인적·집단적으로 전개될 것이나, 예술가의 자구책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상권 활성화 중심의 목적적 접근을 지양하고, 상생을 위한 문화생태계 기반을 마련하여 예술가들과 협업해야 하며, 그에 상응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8. 남북 교류, 문화교류에서 남북합작으로

2018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관계가 개선되어 남북·북중·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등 한반도 정세가 크게 변화되었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그동안 중단·폐기되었던 문화교류사업이 복원 및 재개되고 있으며, 특히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Socialist Realism)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2018년 광주 비엔날레에서는 ‘북한미술 사회주의 사실주의의 패러독스(큐레이터 문범강 섹션, 6관 32작품)’를 기획하여, 북경 만수대창작사미술관 등의 소장품에서 선별한 조선화 전시, 평양 만수대창작사에서 제작한 대형 집체화 등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였다. 영화계에서도 부친국제판타스틱영화제, 평창 평화영화제 등 각종 영화제에서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 영화를 상영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남북관계 개선과 200 한·러 수교 30주년 등을 계기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으로 나타났다.(평균 3.88점).

그러나 북한의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현재의 관심을 넘어 지속적으로 향유될 것인가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 좌담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 예술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유행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문화예술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도 적은 편인데, 그보다 더 세부 분야인 북한과 러시아 등의 사회주의 예술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사회주의 체제 하에서의 문화는 체제 정당화를 위한 도구로 예술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인 트렌드가 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였다. 단순한 관심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일방향이 아닌 양방향의 교류로서 남북합작 문화콘텐츠가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 현재의 북한문화에 대한 경험기회 확대는 그동안 북한의 폐쇄성과 독창성, 독특성이 개방됨으로써 남북의 교류협력을 위한 일련의 준비과정으로서 의미가 있지만 실질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남북의 공동제작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2020년까지 비핵화 문제 등 정치적 과제가 악화되지 않는다면 남북 문화교류는 공동제작, 합작 콘텐츠 등 양방향의 협력으로 정서적으로도 공감대를 넓히고 사업적으로도 이해를 맞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9. 문화분권, 지방자치분권의 길을 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선언하며 지방분권 의지를 피력하였다.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 투표로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개헌을 위해 선행돼야 할 국민투표법 개정안의 국회처리가 무산되어 불가능해졌다.

지방분권은 지방의 특수성과 실정에 맞는 행정을 할 수 있고, 주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가 용이하며, 행정의 민주화를 보다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방정부 자치행정의 자주성과 독자성을 강화하여 기관의 사기와 창의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복지와 이해에 충실함으로써 애향심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상존하는 지역 간 격차가, 지방분권에 의해 더욱 심화될 것이며, 특히 지방정부간 지나친 경쟁이 지방정부의 지출 및 적자재정 확대를 초래함으로써 지역간 불균형 문제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방분권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지만, 현 정부의 지방분권은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16일에 발표한 ‘문화비전 2030’에서 지역 문화 분권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실행주체로 삼았다는 점에서 문화분권의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성공요건을 갖추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지역의 문화는 주민의 참여와 자치로 만들어간다는 기본원칙 하에, 문화에 대한 접근과 참여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강화하는 민주주의 실천방안을 현실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정부의 문화 분권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해석되고 있다. 이후 ‘제1차 국민여가활성

화 기본계획'에서도 지역으로의 문화 분권을 실현하여 중앙은 지역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갈 예정임을 밝혔다. 재정적으로도, 2018년 예산안부터,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한 주민 밀착형 지역사업 및 지역행사 등의 지방 이양을 추진하고 있다.

이 같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 분권을 시행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별 상황과 역량이 달라, 권한과 재정의 효율적 운용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높다. 이는 문화 분권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으로, 델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문화 분권이 진행 될수록 지역 간 문화격차가 오히려 심화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3.83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문화 분권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결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마련하며, 동시에 지역에서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적인 시도가 이어져 갈 것이라는 전망이다.

10. 새 예술정책 시대로의 과도기

블랙리스트는 예술가의 지위와 권리를 침해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 제도장치 마련이 필요함을 역설해주었다. 정부는 이에 2018년 5월 '새 예술정책 5개년 계획', '사람이 있는 문화-문화비전 2030'을 발표하며 '예술가의 지위 및 권리보호에 관한 법률(가칭)'의 제정, 예술가권리보호위원회 구성, 문화분야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 서면계약 의무 위반 조사권 등의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문체부 산하기관들이 블랙리스트 실행을 돕게 된 배경에는 산하기관들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되지 않는 지위와 구조의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문예위의 명칭을 내년 '한국예술위원회'로 변경하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2020년까

지 추진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진상조사위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문체부 장관이 임명하던 문예위원장을 위원 간 호선제로 선출하고 예술정책을 전담할 독립기관으로 ‘국가예술위원회’를 설립해 문체부 예술정책 기능을 이관하는 것을 중장기 과제로 채택하여, 문예위를 비롯한 6개 주요 문화예술지원기관에 대한 제도를 개선할 것 등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블랙리스트 이후의 예술정책 및 예술계 현장의 변화 전망에 대한 전문가 조사 결과는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정부와 현장의 블랙리스트가 의미하는 예술의 자율성 침해 및 예술정책구조의 변화의 필요에 대한 이해와 이행에 대한 간극이 오히려 드러나면서 오랜 시간 굳어졌던 정부주도의 예술지원정책의 프레임 변화 필요가 강력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을 하게 한다.

블랙리스트 사건이후, 예술정책을 진행하는 관료 조직화의 문제에 대한 문제 지적은 관료 조직구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진행되어오고 있다. 예술인소셜유니온, 청년예술가네트워크, 공연예술인노동조합, 문화연대 등은 계속해서 문체부와 지원행정기관이 지닌 관료조직의 권한의 지나친 크기, 지원사업 설계 및 지원사업 선정에 대한 일처리 방식에 있어서의 관료조직차원의 개입이 너무 많다는 문제, 실무자의 해석 및 조율가능 범위의 부정확성 문제에 대해 지적하였다. 그 해결장치로서 진상조사위는 기존의 문체부의 문화예술정책 실행기능을 전문기관, 지자체, 민간전문가집단 등에게 이관하고, 정책조율기능을 중앙정부 단위의 역할로 보다 전문화시킬 것을 권고한바 있다. 하지만 이 권고는 중앙정부의 의견 및 인식과 많은 간극이 있는 것으로 몇 번의 정책토론회 자리에서 확인되었고, 현재까지 해당 권고에 대한 정책계획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발표되지 않고 있다.

텔파이 조사 결과에서도 정책대안책 마련 요구에 비해 정책반영도가 낮을 것이라는 부정적 전망(42.5%)이 높게 나타나, 정부주도 예술정책에

대한 실망과 낮은 기대치를 보여준다. 그러나 예술인 중심의 정부주도 정책구조의 변화를 위한 움직임의 지속성이 가져올 장기적 변화에 대한 기대도 동시에 높게 나타났다(45%). 이 결과는 범사회 및 문화예술계 전문가들은 정부 차원의 자성적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한 전망이 문화예술계 전반에 자리잡으며 기존의 예술정책 구조를 대체할 대안적 정책구조 및 체계 마련을 위한 현장중심의 행동이 계속해 나타날 것이라는 것을 예측하게 한다.

문화정책추진의 행정체계를 재편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국내 행정체계 개편에서 강조되기 시작하는 ‘국민주도 공공혁신’의 형태로 예술인이 주도하고 정부가 조력자가 되는 ‘권한위임’ 단계 형태의 ‘예술인주도 예술정책혁신’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에 근거하여 2020년에 예술정책 구조로 변화할 것이라 전망하는 것은 무리가 있겠으나, 최근 세계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과 정책과정에 국민이 참여하는 형태에서 더 나아가 국민이 주도하는 정책혁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2020년 즈음에는 ‘예술인 주도 예술정책’의 실현을 위한 기초 틀 마련의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예술인주도 예술인정책의 구조는 오히려 기존의 문화행정체계가 다 느슨할 수 밖에 없는 내부감시장치 속에 예술정책을 던져놓는 일일 수 있다는 의견 속에 차라리 정부주도의 예술정책 구조 안에, 지원심사 및 평가에 대한 더 강력한 정책적 규제 장치 및 원칙마련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도 개진되고 있다. 실제로 전문가 자문 및 델파이 주관식 답변에서, 국민참여형 정책에 대한 피로도가 가져올 수 있는 백래쉬 현상으로서의 정부주도형의 강력화 요구의 가능성에 대한 예측이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몇 년간 예술정책의 주체와 예술정책의 설계, 수행, 평가의 체계 마련에 대한 엇갈린 시선들이 계속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인 예술정책 구조 변화 전의 과도기 단계로서의 혼란기가 지속될 것이라 전망된다.

참고문헌

- 김기봉(2016), 생활문화와 생활예술의 개념 분석, 「문화예술지식DB 문화돋보기,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제36호.
- 김기석(2017. 02.), 「생활문화,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문화정책연구소 주최 금요문화정책수다모임 발제자료 일부 인용.
- 김난도 외(2017), 「트렌드 코리아 2018」, 서울 : 미래의 창.
- 김민경(2018), 재정분권화가 지방채무규모에 미친 영향 : 지방채무결정요인을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제12권 제1호, 3-27.
- 김민주 외(2012), 「2013 트렌드 키워드」, 서울 : 미래의 창.
- 김연진(2016), 「문화예술분야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연진(2015), 「도시재생사업에서의 문화예술분야 도입방안 연구」,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용섭(2017), 「라이프 트렌드 2018」, 서울 : 부키.
- 강윤주(2014.02.), 생활예술을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시민성, 지역성, 예술성, 「생활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경희사이버대학교(2012), 「생활예술지원정책방안연구」, 서울 : 문화체육관광부.
- 권상희(2018.10.28.), "실패 용인 문화, 이스라엘 스타트업 힘의 원천"...사무엘 페레그 히브리대 교수, 전자신문.
- 김윤지(2017.11.18), 독립형 일자리'의 확산인가? '시간제 일자리'의 양산인가?, 한겨레.
- 김천구(2018. 01. 05), Gig Economy 시대의 Flexicurity 실험,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776호, 18-19.
- 김혜인(2015), 「2016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_____(2014), 「문화예술트렌드 중장기 경향 분석 및 전망-메가트렌드와 마이크로트렌드」,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혜인·양혜원(2012), 「2013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김혜인·조광호·연수현(2017), 「미래지향적 정책수립을 위한, 현장중심형 문화 정책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 구자윤·이진혁·최용준·오은선(2018.10.18.), "폴페미" "한남충" 댓글전쟁이 '거리 性戰'으로 불붙었다, 파이낸셜뉴스.
- 글로벌이코노믹(2018.03.13.),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에 중·장년층과 청년층 갈등… 포폴리즘vs최소한의 지원, 글로벌이코노미.
-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2018), 「문재인정부 '포용국가' 비전과 전략」
- 류시조(2018), 지방분권체제에 있어서 문화국가원리의 의미, 「공법학연구」 제19권 제3호, 283-305.
- 류인하(2018.03.27.), [특집] “또 태극기 집회 가세요” 집안 갈등, 주간경향.
- 메타트렌드연구소(2012), 「라이프 3.0」, 서울 : 한스미디어.
- 박미영(2018.02.27.), 문재인정부 자치분권로드맵 내용과 향후과제, 디지털타임즈.
- 박선영(2015.09.03.), '여성 납치극 연출' 맥심코리아 표지, 나라 망신으로, 한국일보.
- 박태선·이미영·한우석(2015), 지역 간 문화격차 실태 및 개선방안, 「국토정책 Brief」, 503호, 1-8.
- 백선혜·라도삼·조윤정(2016), 「서울시 생활문화예술동아리 활성화 방안」, 서울 : 서울연구원.
- 변미리(2016), 「베이비붐 세대와 인구절벽」, Korean Social Trends
- 서지윤(2018.10.22.), '지역밀착형 생활 SOC', 주민의 자산이자 공동체 거점, 뉴스토마토.
- 선명수(2018.10.09.), ‘몰카범죄’ 누적된 사법불신…터져 나온 여성판 ‘이게 나라냐, 경향신문.
- 신현준·이기웅(2016), 「서울, 젠트리피케이션을 말하다」, 서울 : 푸른숲.
- 신희은(2018.07.24.), 젠트리피케이션 막는다더니…앵커시설도 쫓겨난 해방촌, 머니투데이.

- 안규영(2018.07.04.), 예멘 난민 사태로 기존 외국인 정책에도 불통 비판받던
극우 성향 단체들 활동 재개, 국민일보.
- 안상현·김은경·안 영(2018.03.17.), 노인 보는 청년 시선이 어둡다, 조선일보.
- 예술경영지원센터(2016), 「2017 공연예술트렌드 조사보고서」, 서울 : 문화체육
관광부.
- 유서연(2018), 「공포의 철학」, 동녘.
- 유안타증권(2018), 「근로시간 단축이 가계에 미치는 영향」.
- 연유진(2018.02.28), 각 이코노미'시대... 英·獨h 등 노동개혁 나서, 서울경제.
- 원성심(2018.10.29.), "혁신적 기업활동, 실패할 수 있는 자유도 보장돼야", 헤드
라인제주.
- 이수정(2018.06.26.), "문래동에선 젠트리피케이션 없다" 건물주-임차인 상생
협약, 뉴스웍스.
- 이여봉(2017.10.), 1인 가구의 현황과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252호, 64-77.
- 이장균(2017.12.22), 하이퍼-코피티션(Hyper-Coopetition), 「새로운 경제시
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775호, 14-15.
- 임선영(2018.06.26.), 진화하는 초소형 카메라 공포 ... 여성들 '몰카 찌르개' 소지
하기도, 중앙일보.
- 임석진·윤용택·황태연·이성백(2009), 사회주의 리얼리즘 [Socialist realism,
sotsialisticheskii realizm, Sozialistische Realismus], 「철학사전」, 서
울 : 중원문화
- 정대하(2018.08.27.), "실패해도 괜찮아!"... '괜찮은 마을' 실험하는 청년들의 꿈,
한겨레.
- 정용찬, 김윤희(2018), 「2017년 방송매체 이용행태조사 주요 결과」, 서울 : 정보
통신정책연구원.
- 정주환(2018),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2018」, 성남 : (주)카카오모빌리티.
- 정준호·강진구(2018.06.15.), 노년층, SNS 가짜뉴스 맹신... 정부·사회 향해
불신 폭발, 한국일보.
- 정호성 외(2012), 「2013년 해외 10대 트렌드」, 서울 : 삼성경제연구소.

- 조광호·연수현(2018), 문화청년들이 청년문화정책에 바란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웹진」, 2018.2월호
- 조세현·김은주·박선주(2018), 국민주도 공공혁신 국내외 사례와 정책적 시사점, 「2018 이슈페이퍼」, 한국행정연구원
- 최영출(2016), 지방분권과 국가경쟁력 및 국민행복도와의 인과관계분석: 정책시물레이션의 적용, 「한국자치행정학보」 제30권 제2호, 1-3.
- 최인수(2017), 「2018 대한민국 트렌드」, 한국경제신문.
- 최종철(2016.10.22.), 이제 50대는 '5060'으로 묶을 수 없다?, 한겨레.
- 카롤린 엠케(2017), 「협오사회」, 다산초당
- 코트라KOTRA(2011), 「2012 한국을 뒤집을 14가지 트렌드」, 서울 : 알키.
- 통계청(2018), 「가구주의 연령/가구유형별 추계가구_시도」, 서울 : 통계청.
- _____ (2018), 「국제통계연감: 합계출산율」, 서울: 통계청.
- _____ (2018), 「취업인구 및 생산가능인구통계」, 서울: 통계청
- _____ (2018), 「2017 인구주택 총조사」, 서울: 통계청.
- _____ (2018), 「2017 한국의 사회지표」, 서울: 통계청.
-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18),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문화여가새활 변화 실태조사」, 서울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2018), 「MCN 산업동향 분석」, 서울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 한국정보화진흥원(2018), 「2017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서울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한국트렌드연구소(2012), 「메가트렌드 인 코리아」, 중요한현재.
- 한수연(2018.01.02.), 각이코노미 시대. 블록체인 활용법, 블로터앤미디어.
- 허 훈(2014), 문화예술에 의한 지역만들기의 효용에 관한 사례비교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21권 제3호, 317-342.
- 현대경제연구원(2016),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경제주평.
- _____ (2016), 「사회적 갈등의 경제적 효과 추정과 시사점」, 경제주평.
- _____ (2013), 「2013 국내 10대 트렌드」, 경제주평.

- 허경구·손재호(2018.06.07.), '태극기부대' 때문에?... 현충일인데 텅 빈 계양대, 국민일보.
- 홍인기·민나리(2018.10.29.), 취업난에 눈높이 높다며, 사위실 온수는 사치라며, 공감 못 얻는 '젊은 가난', 서울신문.
- Ellmeier, A. (2003), Cultural Enterpreneurialism :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the Arts, Culture and Employ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Cultural Policy*, 9(1)
- 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ublic Participation(2007), *IAP2 Public Participation Spectrum*.
-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2017), 「2017 KB골든라이프 보고서」.
- Naisbitt, J.(1982), *Megatrends: Ten New Directions Transforming Our Lives*, Wamer Books, Inc.
- OECD/KDI(2017). *Improving Regulatory Governance: Trends, Practices and the Way Forward*, OECD Publishing, Paris.
- Statista(2016), *Statista Digital Market Outlook*
- Whillans, A. V., Dunn, E. W., Smeets, P., Bekkers, R., & Norton, M. I. (2017), Buying time promotes happines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4(32).

〈홈페이지〉

- 청와대국민청원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
- 한경경제용어사전, <http://dic.hankyung.com/>
- 통계청, kostat.go.kr/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https://www.msit.go.kr/>
-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 www.gwangjubiennale.org/

ABSTRACT

An Analytical Study to Prospect Arts & Cultural Trends 2018

Hyein Kim, Younjin Kim, Boram Jeong

Based on the universal understanding, which is arts and culture trends are always changing in relation with fruitful socio-cultural changes, and arts and cultural trend issues make some impacts on social aspects concurrently, the analytical study series to prospect arts and cultural trends in micro perspectives have been conducted for the last 6 years. This study endeavors to provide deep understanding about meaningful trend issues and changes in arts and cultural scene in South Korea, with a deeper purpose, that of to facilitate constructing better government supporting system since 2010.

This 7th study in the series is also trying to grasp the emerging trend issues in arts and cultural scene in Korea along with more precise reviews of the consistency and changing aspects of trend issues that were drawn in previous years. Also the Delphi method with experts and the survey with in-depth interviews to collect shared ideas about trends of this year has been conducted to grasp the trend issues of

10 trends of 2020 art and cultural scene in Korea are below.

- ① 'The age of time sensitivity', Enjoy my leisure.
- ② Life culture permeates in everyday life.
- ③ Gig economy and the way of artists' labour form
- ④ One-man creator is recognized as an expert.
- ⑤ Discussion brought on by dislike reveals the present of our diversity.

- ⑥ I'm not a loser. Cultural support to them.
- ⑦ Artists is gentryfier? Finding the way of survival.
- ⑧ Inter-Korean exchanges: from cultural change to inter-Korean cooperation
- ⑨ Cultural decentralization opens the way for decentralization of local government.
- ⑩ Transition to a new art policy age

부록 ● ●

설문지



붙임 1. 1차 델파이 설문지

「2020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델파이 1차 설문지

1. 본 ‘2020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연구를 위한 델파이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조사에 끝까지 참여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2. 본 델파이조사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대상으로** 문화예술 트렌드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사회 트렌드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는 조사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본 조사는 1차 조사에 해당됩니다.
3. 특정 문항을 응답하기 위하여 친구나 직장동료들과 상의할 수 있으며, 평소 이용하시는 정보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단, 고정관념이나 특정집단을 대변하는 의견 제시는 삼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발현 방향성에 대한 질문은 완벽하게 본인의 의견과 동일하지 않으셔도 **가장 가까운 의견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5.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 대한 응답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연구책임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2)2669-6995

※ 조사대행기관 : 장애파트너스그룹(JnP) 070)8860-6342

- 응답기한 : ~ 월 일 요일까지
- 예상 소요시간 : 약 50분
※ 설문은 반드시 50분가량의 시간이 되실 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을 더 크게 보고 싶으신 경우, 페이지 설정에서 화면비율을 확대하시면 됩니다.

- 조사 윤리 동의 : 본인은 「2020년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연구를 위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획득한 모든 관련 정보는 해당 연구가 종료/발표될 때까지 세미나, 포럼, 출간 등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로도 인용, 발표, 활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동 의

☐ 비동의

※ 조사 윤리 동의에 동의한 경우만 설문 진행 예정

PART 1. 2020 트렌드에 대한 의견

1. 킥 이코노미(gig economy) 새로운 산업모델로 자리잡다

- 독립형 경제활동, 킥 이코노미(Gig economy)의 확대
: 계약직이나 프리랜서 등 독립형 경제활동을 의미하는 킥 이코노미는 시간과 장소가 자유롭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계약을 맺는 것도 가능하다는 장점과 함께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킥 이코노미는 메가 트렌드인 '개인화'에 기반하고 있음
: 고객 맞춤형 서비스가 확대되고 시장의 반응에 즉각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킥 이코노미에 기반을 둔 신산업 및 혁신적 요소가 시장의 흐름을 이끌어갈 가능성이 있음
- 킥 이코노미로 인한 고용의 질 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특히 비자발적인 킥 노동자의 경우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거나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은 킥 노동자의 증가로 인해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물가 회복도 더뎠다고 있다는 문제 제기
- 킥 이코노미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파생상품이나 사회적 안전망의 등장
: 킥 노동자들을 위한 보험이나 정부 차원에서 노동개혁 계획안을 제시하는 등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킥 이코노미는 개인화 트렌드와 맞물려 점차 더 확대되어 주류 경제활동 모델로 자리 잡을 것
- ② 킥 이코노미는 일부 산업 구조에서만 나타날 뿐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
- ③ 킥 이코노미의 부작용에 대한 문제가 점차 커져 점차 독립형 경제활동은 사라지고 정규직 일자리 확충으로 굳혀질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2. 무민(無mean)세대, 의미없고 소소한 만족을 소비 확대

- 취업, 직장생활 등 치열한 삶 속 경쟁과 성공의 강박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무민세대
: 무의미에서 의미를 찾는 젊은 세대인 무민세대는 무자극, 무맥락, 무위휴식을 꿈꾸고 있음
- '인생은 한 번 뿐이다'를 뜻하는 올로(You Only Live Once)를 바탕으로 이상향을 실천하는 사람 증가
: 단순한 충동구매가 아닌 삶을 바꾸는 경험을 원하며 미래보다는 현재의 행복을 가장 중시함.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세계여행을 떠나는 등으로 나타남
- 올로와 반대로 일상 생활 속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경향도 등장
: 큰 돈이나 노력을 하지 않고 일상에서 얻게 되는 소소한 행복에 집중하는 '소확행'이 등장하며, 셀프 기프팅 소비나 방송영화계에도 영향을 미침
- 올로도 소확행도 아닌 즉각적인 만족감을 추구하는 패스트힐링
: CGV 점심시간에 한정해 극장 좌석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에스타' 서비스 이용률 증가. 수면카페, 안마카페의 성장. 미술관, 박물관 등의 야간개장

-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경쟁의 심화, 저성장시대 지속으로 큰 행복이 아닌 작은 행복 욕구가 젊은 세대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자리잡을 것
- ② 올로, 소확행, 패스트힐링과 같은 현상은 사회불안정성 민감도가 높은 젊은 세대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나다 사라질 것

- ③ 소소한 행복의 무의미함, 일상과의 괴리로 오히려, 소확행, 패스트힐링 등은 일시적인 유행으로 사라지고 큰 규모의 행복을 추구하게 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3. 시간 민감성시대, 나를 위한 시간투자 증가

- 개인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기는 가치관의 확산
: 일과 삶의 균형을 추구하는 워라밸의 확산과 이를 주도하는 세대가 사회생활 적응 속에서 워라밸을 주도하는 새로운 직장문화를 만들고 있음
- 자기 계발 및 취미생활, 여행 등 자신을 위한 투자 증가
: 퇴근 후 여가 시간에 백화점 문화센터 등에서 강좌를 듣는 직장인 ‘문센족’의 증가와 주말을 이용한 여행도 증가
- 주52시간 근무, 탄력근무제 등의 정책을 바탕으로 퍼져나가는 ‘시간 민감성’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시행된 주52시간 제도와 함께 창의적 기업문화 및 워라밸을 중시하는 사회분위기에 맞추어 탄력근무제가 빠르게 확산
-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서 나를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경향도 등장
: 가족이나 직장동료와의 식사시간을 줄이고 자신의 취미나 온라인 활동을 위한 시간을 확보하는 ‘한끼뚝딱족’ 등장
- 시간 민감성은 증가했지만 아직은 주52시간 근무 등 관련 제도 안착에 기간이 필요
: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 경영 난항과 소득감소 우려 등의 노동계의 반발이 거셴

-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자신의 여가를 위한 투자가 보편적으로 자리잡을 것
- ② 현실의 일-여가 환경에 의해 일부 계층에게만 자신을 위한 투자가 증가할 것
- ③ 자신을 위한 시간에 대한 관심은 주52시간 도입에 의한 단기적 관심에 그쳐 실제 적극적인 여가활동과 연결되지 않을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4. 사회전반의 굿즈 소비 열풍, 지속 확대

- ☐ 특정 인물이나 콘텐츠, 브랜드 등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굿즈에 대한 관심과 선호 증가
: SNS상 굿즈 언급량 '13년 123만 건 → '17년 1,128만 건으로 증가
- ☐ 아이돌 굿즈는 가요계연예기획사의 주요 수익원으로 주목
: 초창기 굿즈는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응원도구 수준이었으나 다양한 상품으로 출시되고 상품뿐만 아니라 경험까지 판매하는 형태로 발전
- ☐ 아이돌 중심에서 메가이벤트 굿즈(평창 동계올림픽), 정치인 굿즈(문재인 대통령), 사회 이슈와 관련된 굿즈(위안부 할머니 굿즈) 등 다방면으로 확대
- ☐ '굿즈'를 활용한 기업들의 마케팅 성공사례 출현
: 롯데월드, 신세계면세점 등 캐릭터 상품관 오픈,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그려진 카카오뱅크 체크카드 한 달 만에 신청 220만건 등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_____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굿즈 소비는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어 '대세'의 소비에 빠르게 따라가려는 공감과 유대의 소비콘텐츠로 세대에 상관없이 일반화될 것

- ② 굿즈 소비는 캐릭터, 이모티콘을 통해 감정, 심리를 표현하는 문화에 익숙해진 청소년 및 청년층에 국한된 유행으로 세대 간의 차이를 드러내는 젊은 층만의 문화로 소비될 것
- ③ 아이돌 팬층을 대상으로 시작된 굿즈 소비는 기획사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되다가 사라지게 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5. 1인 가구 증가 추세 지속과 전통적 가족 해체

-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 1인 가구의 비중 24.7%
: 결혼과 가족에 대한 인식 등의 변화로 인해 향후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임
- 같은 1인 가구라도 다양한 구성 이유와 세대 특징이 공존
: 30대는 고소득, 자의적 1인 가구인 반면, 60대는 사별 등의 이유로 빈곤한 독거노인 다수
- 1인 가구의 파워가 사회 소비 구조 변화를 주도
: 경제력 있는 3-40대 미혼여성인 '골드미스'와 함께 4-50대 1인 가구 남성 '독거 아재'가 기업과 문화소비 시장 모두에서 큰 손으로 주목받고 있음
-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고령(65세 이상)과 청년(20대) 1인 가구
: 고령과 청년 1인 가구 모두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각 세대가 겪고 있는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이 필요함
- 1인 가구를 위한 세분화된 정책 및 지원에 대한 움직임
: 서울시 '세대별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지원 사업' 등 점차 증가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한 정서적·사회적·경제적 지원 정책이 시작되고 있음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1인 가구 증가로 가족문화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고 정책지원이 다양화 될 것.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는 1인 가구의 비율에 맞게 정책 및 지원 사업들이 다양해질 것
- ② 1인 가구는 여전히 소수로 인식되고 제도권 대상 범위 밖으로 여겨지는 단편적 지원대상으로 여겨지다가 사라질 것
- ③ 1인 가구는 시장소비 진흥 대상으로는 여겨지나 정책지원 대상으로는 여겨지지 않는 현상이 지속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6. 소득주도 성장, 포용적 성장 경제정책과 성장에 대한 불안심리 고조

- 저 성장시대에 소폭 긍정세를 유지하고 있는 경제성장
: 2018년 1분기, 국내총생산(GDP)과 설비투자 등에서 소폭 성장하여 저성장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2017년 1월 최저로 떨어졌던 소비자심리지수는 2017년 4월 이후로 낙관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반면, 실물경제지표 및 실업률은 침체·악화되고 있음
: 가계부채의 증가와 시중금리 인상으로 인해 금융 부담이 심화될 전망이며,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음
- 북한 리스크의 감소로 경기에 대한 낙관 vs 경제지표 반영까지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의견
: 북한 리스크의 감소로 한국 증시가 일시적으로 상승하였으나 6월 북미정상회담 이후 기대와 다르게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해제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며 상승세를 보이던 인프라 투자 관련 업종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약화될 가능성 큼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물가상승률과 실업률을 필두로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위기가 커질 것
- ② 위기와 함께 수출 증가,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인 요인 등이 존재하여 지금의 수준을 유지할 것
- ③ 수출 증가, 관광객 증가 등 긍정적인 요인들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 정책을 바탕으로 경제성장이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7. 여혐·남혐 사회의 혐오현상 심화

- 개인과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로 부각된 미투운동
: SNS를 통해 성범죄 피해를 밝히며 해시태그를 다는 미투운동은 정치, 직장문화, 문화예술계, 교육 등 폭넓은 분야에 영향을 미침
- 혐오의 시대, 여혐(여성혐오)과 남혐(남성혐오)의 시대
: 여성에 대한 물지마 살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미온적 태도 등으로 불거진 ‘여혐’과 이에 대한 반발로 점차 커져가는 ‘남혐’
- 혐오에 반발하는 사회운동의 확산
: 여성 혐오에 대한 반발로 ‘나는 페미니스트다’ 선언 운동 등과 같은 캠페인 및 시위가 진행되고 있지만 남성 혐오에 대한 반발로 인한 시위는 펼쳐지지 않고 있음
- ‘She-conomy’라는 말이 등장할 정도로 여성소비자가 주목받고 있지만, 단순한 소비주체로만 취급당하는 것을 거부하기도 함
: 여성의 결정권 및 소득이 증가하면서 소비자로서의 여성이 주목받고 있지만, 여전히 광고에는 여성혐오발언을 하거나 코르셋 등 여성인권을 보장하지 않는 상품에 대해 불매운동을 하거나 여성소비 총파업 등 여성운동 실시
- 혁신 기술에도 반영된 고착화된 성역할에 대한 문제제기
: 인공지능 중 ‘비서’역할을 맡은 것은 여성이며,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는 인공지능은 남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음. 이는 현재 인류의 권력 구조가 비판의식 없이 인공지능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큰 문제라는 주장 제기

-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여혐·남혐 현상은 다양한 사회운동과 같이 사회인식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진통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우리사회의 성 평등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
- ② 여혐·남혐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성 평등 인식변화나 사회구조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 ③ 여혐·남혐은 점차 깊어지고, 이로 인한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8. 정치·경제·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둘러싸인 세대갈등 심화

- ‘인구절벽’ 현상의 가시화로 청년층의 노년 부양비 증가와 이에 대한 부정적 인식 : 현재 대한민국 사회는 고령화로 인해 청년층의 노년 부양비 증가가 불가피하며, 노인 복지에 대한 비중이 커지며 청년층에 대한 복지가 줄어든다는 인식으로 인해 세대갈등 우려
- 청년 세대가 겪는 어려움은 기성세대가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 : 청년실업률이 청년층의 문제가 아닌 열정을 강요하는 기업 환경이 문제이며, 청년기본법조차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이 권위보다는 권한을 이용하여 청년세대를 위한 정치·입법적인 노력을 시작하는 등 사회를 바꾸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 제기
- 노인세대의 ‘태극기 부대’ 참여, 이로 인한 가족갈등과 노인소외 문제 : 세대 간 정치에 대한 의견이 극명히 갈리면서 이로 인한 가족갈등과 노인소외 문제도 발생

□ 세대 간 단절을 문화예술로 풀고자 하는 노력

: 서울시50플러스재단, 안양시, 부산문화재단 등 세대 간 소통하는 프로그램 운영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정치적인 성향 등으로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노인과 청년간의 갈등이 더욱 심화되어 나타날 것
- ② 세대 간 차이를 인정하고 갈등 해결을 위한 노력과 공존의 방향으로 이어질 것
- ③ 태극기부대, 청년실업, 노년 부양비 부담 등 이슈에 의한 일시적 관심에 그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9. 이슬람포비아,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상과 현실의 괴리

□ 제주도 예멘 수용 논란으로 한반도에 불어 닥친 문화다양성 논란

: 제주도에 급증한 예멘 난민 신청으로 인해 난민 지원금에 대한 반대와 대부분 젊은 남성으로 구성된 가짜 난민 등에 대한 부정적 논란과 함께 반(反)이민 정서가 확산

□ 여전히 존재하는 다문화에 대한 차별을 해결하기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이 절실

: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가 차별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으며, 외국인은 위험하다는 편견은 여전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

□ 다문화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적인 노력 진행 중

: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정부 부처에서는 다문화가족을 지원하거나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법률 개정 등을 진행할 예정

- 인식 개선 캠페인,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바꾸기 위한 문화예술교육
: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낯선 문화에 대해서 배우고 차이를 이해하고 편견을 줄이고자 함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국가예산의 ‘외부인’ 지원에 대한 거부감과 불만이 예멘 가짜난민 주장 등과 맞물려 문화다양성에 대한 부정인식과 배타적 태도는 더욱 악화될 것
- ② 예멘 난민수용을 계기로 문화다양성에 대한 가치를 국민의 관심과 인식이 높아질 것
- ③ 문화다양성은 예멘 난민수용 등의 일시적 이슈에 의한 관심에 그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10. 직접민주주의의 경험, 개인권력의 시대로 진입

- 촛불집회로 이끌어낸 19대 대선, 그리고 그 이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정치에 대한 관심
: 촛불집회와 19대 대선을 통한 정치 변화는 국민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된 계기가 되었음
- 화이트 불편러와 갑질에 대한 광범위한 고발 등 시민운동 증가
: 불합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구체적 행동으로 전이하는 ‘화이트 불편러’의 증가와 대한항공, 레진엔터테인먼트 등 기업의 갑질을 고발하는 등 개인이 주체가 되어 나타나는 시민운동이 증가함
-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은 변화하였지만 여전히 시민의식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
: 대한민국이 정치적으로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의식이 감지되고 있지만,

준법정신이나 사회구성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과 역할 수행에 대한 의식은 아직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음

-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촛불집회, 대기업 갑질 고발 등의 사건을 계기로 개개인의 민주주의에 대한 시민 의식이 더욱 강화될 것
- ② 촛불집회, 대기업 갑질 고발 등에 대한 관심은 사건과 관계된 일부 계층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에 그칠 것
- ③ 일련의 사건들에 대한 관심은 일시적이며 개인의 현실적 일상적 문제로 돌아오는 현상으로 회귀되게 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11. 케모포비아로 인한 일상생활의 변화 가속화

- 환경오염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책 등장
: 공공기관의 사무실 내 일회용품 줄이기 지침 시행,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과 사용규제에 대한 자발적 협의, 시설 또는 업종별 1회용품에 대한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
-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으로 인한 일상의 변화
: 미세먼지 등의 대기오염이 점차 심해지고 건강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되며, 미세먼지 문제에 대한 인식이 전체적으로 확산됨
- 일상생활에서 환경오염을 체감하고 있지만, 이에 비해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은 부족함

: 환경오염을 체감하고 있고 심각성을 느끼고 있지만,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원인 역시 환경오염의 심각성 및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나타남

- 환경오염뿐만 아니라 화학 관련 문제들이 공포로 다가오는 케모포비아의 증가
: 햄버거병 파동, 살충제 계란, 유해물질 생리대, 라돈 침대 등 생활용품 속에서 유해한 화학물질이 발견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케모포비아(Chemical + Phobia) 급증
- 정부의 안전관리에 대한 불신으로 환경 변화에 대한 개인의 직접적인 대응 증가
: 일상생활에서 분리수거나 자원절약을 하거나 직접 대기오염을 측정하거나 직접 공기청정기를 제작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정부의 적극적인 환경오염 방지책과 화학물질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로 인해 점차 시민들의 불안이 사그라들 것
- ② 개인의 환경오염에 대한 체감도가 높아져서 개인 스스로 적극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이 강해질 것
- ③ 일상생활에서 분리수거, 일회용 사용억제 등의 불편으로 인해 환경오염에 대한 공포는 일시적 단기적 현상으로 그치고, 곧 기존의 일회용품 사용이나 일상적 생활로 돌아가게 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12. 갑자기 다가올 미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거부감과 수용의 공존

- 인공지능, 로봇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
: 4차 산업혁명은 로봇이나 인공지능(AI)을 통해 실재와 가상이 통합돼 사물을 자동적, 지능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가상 물리 시스템의 구축이 기대되는 산업상의 변화를 일컬음
- 국내에서는 혁신기술 중 인공지능(AI)에 주목하여, 제품과 서비스에 접목 시도
: 국내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커머스 기업에 집중될 것이며, 이 중 인공지능 기술을 쇼핑 과정에 도입하는 등 혁신을 꾀하고 있음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정책적 지원과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의 변화도 함께 논의 중
: 정부에서는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위원회 조직을 출범하는 등 정책적인 준비에 주력하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지식과 능력을 습득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고 있음
- 혁신기술에 대한 거부감과 수용적 자세 공존
: ‘나는 세상의 변화 속도와 관계없이 나의 방식으로 살고 싶다’는 의견과 ‘힘들더라도 나는 세상의 변화 속도에 맞춰 살고 싶다’는 의견이 유사하게 나타남
- 4차 산업혁명의 무인화와 서비스 자동화는 여가 확대로 이어질 것
: 노동시간의 단축으로 인한 여가시간 증대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산업과 레저산업의 증대로 이어져 새로운 시장 기회를 만들 것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전은 빠른 속도로 다가와 인간의 생활 전반을 바꾸게 될 것

- ②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거부감과 낮은 수용도로 인해 급진적인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
- ③ 이미 많은 기술이 생활에 적용되고 있고 익숙해져 있어서 사람들의 거부감 정도와 관계없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13. 1인 미디어의 성장과 대중문화코드의 옴니버스화

- 스마트폰이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급성장, 라디오와 TV를 넘어 메이저 미디어로 등극한 유튜브(Youtube), 아프리카 TV 등의 1인 미디어 제작과 유통 확대
: 스마트폰 보급률 84.2%, 스마트폰은 일상생활의 필수매체로서 2015년부터 기존의 사용률 1위 매체인 TV를 추월하였으며, 유튜브를 통해 1인 미디어를 즐기는 이용자의 증가세
: 2018년 현재 1인 미디어 시장 규모는 2,000억원 가량으로 추정, 2020년까지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 장난감 리뷰, 게임 방송 등이 인기를 끌고 있으며, 지상파 TV 코메디 프로그램이 줄어들면서 자신만의 기획 콘텐츠를 가지고 유튜버로 활동하는 개그맨 증가
- 유튜브는 한류를 자연스럽게 해외로 알리는 창구로도 적극 활용
: 과거 한류는 현지화와 치밀한 사전 준비로 성과를 나타내었으나, 한류를 선도하였다가 방탄소년단과 트와이스 등은 SNS와 유튜브를 통해 팬들과 소통하면서 해외 시장에 뿌리를 내림
- 갓튜브(God+Youtube), 10대들의 필수앱으로 변화, Z세대의 장래희망 1순위 ‘유튜브 크리에이터’
: 유튜브는 10대들이 가장 오랜 시간동안 이용하는 앱으로 127백만 시간을 사용함. 이는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네이버앱의 사용시간을 합친 것보다 많음
: 다른 세대와 10% 이상 차이를 보이고 있는 Z세대의 유튜브 이용률, 단순 모바일 동영상 플랫폼이 아닌 새로운 것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고 있음
- 50대 이상의 유튜브 사용시간 51억분, 40·50대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소셜미디어로 등극한 유튜브
: 음원 사이트처럼 이용하는 중장년층도 있으며, 콘텐츠 중심이라 SNS 사용에 익숙한 노년층까지 즐겨볼 수 있음

: 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없고, 한 번 커놓으면 취향에 맞는 노래들로만 자동 재생
돼 편리하며, 자신의 성향에 맞는 콘텐츠를 찾아 유튜브를 이용하는 중장년층도
다수

-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
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1인 미디어 시장은 옴니버스형 문화향유 욕구와 맞물려 개인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고 어디서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전 세대를 대상으로 더욱 확
장될 것
- ② 1인 미디어 시장을 통해 기술·지식 등을 습득하고 취미를 향유하는 현상은 디지
털 네이티브인 10대 혹은 특정 매니아층에 한정되어 나타나는 현상에 그칠것
- ③ 조회 수를 확보하기 위한 자극적 영상이 각종 사회문제로 비화되는 등 무분별한 1
인 미디어 시장의 피로감이 증가하면서 1인 미디어 시장은 점차 축소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14. 정치의 일상화와 연예화, 대중문화 유행코드로 자리매김

- 예능에 등장하는 정치인, ‘폴리테이너 2.0시대’
: 정치인들이 TV 예능 프로그램 등에 자주 출연해 대중적 인지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
- 정치를 예능으로 풀어내는 시사예능의 인기
: 촛불 혁명 이후로 높아진 대중들의 정치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다
양한 시사예능의 등장

- 정치인의 예능 출연과 시사예능 프로그램의 긍정적 측면
: 정치인의 예능 출연은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정치에 더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긍정적인 평가
- 정치의 예능화, 정치인의 예능 출연 등에 대한 비판적 측면
: 진지하게 토론되어야 할 것들이 예능적 요소로 사회적 논의 자체를 가로막을 수 있으며, 정치인의 예능 프로그램 출연은 의도적인 이미지 세탁을 위한 것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면서 예능코드 상에 정치이슈가 보다 세분화, 본격화 될 것
- ② 현재 TV에 자주 나타나는 정치인과 시사예능은 이미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확대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하는 수준으로 나타날 것
- ③ 예능에 출연하였던 이미지 좋은 정치인의 부정적 측면들이 대두되면서 정치인의 예능 출연에 대한 이미지가 좋지 않아지고, 시사예능 역시 시청률을 위하여 자극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소재들을 다루다가 결국은 사라질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15. 블랙리스트 이후 문화예술계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실제의 괴리

-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문체부의 진상조사
: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예술계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2017년 7월 출범
: 온라인 피해사실 제보를 받고 소위원회 회의, 여러 번의 공개토론회와 공청회 개최, 2018년 5월 8일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를 발표

- 블랙리스트 집행 관련자에 대한 처벌 요구
 - : 조사결과 발표 후 예술가들은 관련자 사퇴와 법적 처벌을 요구
 - : '18년 6월 진상조사위원회는 26명 수사의뢰를 권고 및 104명 징계 권고
 - : 문체부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18년 7월내 검토를 마무리할 예정
- 블랙리스트 재발방지를 넘어선 예술정책·문화비전의 혁신 요구
 - : 문화예술계 민간 전문가들의 정부의 권력이 과도하게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과 비전에 상호견제를 위한 구체적 방안제시 요구
 - : 그러나 이후 발표된 새 예술정책 및 문화비전2030에 자체 개혁이 미진하다는 평
 - : 문체부는 '18년 5월 8일에 발표한 제도개선 권고안을 이행하기 위해 재발방지 제도개선 추진단이 6월25일에 내부구성을 완료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문화예술지원 정책의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바로잡히고 문화예술지원에 대한 구조적 변화로 이어져 공정한 문화예술 기반이 형성될 것
- ②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와 민간 이해의 괴리는 예술지원의 주체가 민간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며 예술지원 주체가 민간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될 것
- ③ 블랙리스트 집행에 대한 관련자들의 처벌이 진행되나, 구조적 모순에 대한 해결책이 미비하여 문화예술정책의 혁신안을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16. 소비되는 장소, 문화(주도) 젠트리피케이션의 문제 심화

- 젠트리피케이션과 젠트리파이어로서의 예술가에 대한 부정적 인식
: 젠트리피케이션은 '중간계급이 도심과 도심주변 저소득층 주거지에 있는 오래된 주택을 수리하여 이주해 옴으로써 기존의 저소득층을 대체하는 과정'을 의미하나, '상권이 활성화 되어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원래의 활동주체(소상공인 등)이 떠나게 되는 현상'이라는 부정적 의미로 활용
: 젠트리피케이션 과정에서 예술가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예술가가 젠트리피케이션의 피해자이자 젠트리피케이션을 촉발하는 젠트리파이어로 인식
- 문화예술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주목과 동시에 문화과잉의 문제점 대두
: 도시재생사업에서 지역 활성화를 촉발하기 위하여, 창작공간이나 실연·전시 공간 등을 제공하여 예술가의 활동 장려, 문화과잉 상태 촉발
: 단기간에 지역의 성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기존의 장소성이 파괴되며 문화과잉의 문제점 노출
- 문화예술로 탈바꿈한 장소를 소비하는 문화백화 현상 및 이에 대한 대책 필요
: 젠트리피케이션으로 활동 주체가 이탈함에 따라 생산적 측면이 감소하여 소비적 측면만이 강화되면서, 획일화된 상업경관으로 변화하고, 이에 따라 지역의 매력도가 낮아지면서 상권이 악화·붕괴에 이르는 장소소비의 단계로 귀결
: 한번 소비된 장소는 재생하기 어려우므로 선제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
- 지자체 중심으로 조례제정, 상생협약 등의 자구책을 마련 중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문화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나는 지역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며,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도 빨라져 문화백화, 장소소비 등의 역기능으로 많은 지역이 황폐화 될 것

- ② 정부 및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대책이 시도되어, 단기적으로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속도가 늦춰지고 역기능도 저감되나, 생산 주체·활동이 보존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고유성을 잃고 상권이 쇠퇴·붕괴하는 장소 소비가 야기될 것
- ③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제도 기반과 시민사회의 성숙으로 상권이 활성화되어도 생산적 활동 주체가 보존되어, 지역의 고유성과 활성화 상태가 지속가능하게 유지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17. 문화공간 다양화, 복합화에 따른 정체성 혼란 심화

- 기존 문화시설 범주를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 등장
: 신진예술가들을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 신생공간 등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으며, 이합집산하는 특성에 따라 빠르게 생성되고 쉽게 소멸
: 기존 문화시설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문화시설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동네책방, 카페 등이 예술 담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며, 다양한 창작공간도 지역의 문화공간으로 인식
- 문화시설의 복합화 경향
: 공연장과 전시장, 박물관과 미술관 등 문화기반시설간의 물리적 결합 이외에도 상업시설·업무시설과의 연계 등 기능의 복합화 경향 나타남
- 유희공간을 활용한 다목적 공간활용 사례 대두
: 마포석유비축기지·부천소각장 등 유희공간을 리모델링하여 문화시설로 재 조성하는 사례주목
: 기존의 장소성 유지, 건축적·역사적 의미를 강조하여 ‘보존’을 전제로 ‘활용’하는 경향
: 유희부지 활용방안으로 컨테이너 박스 문화공간 유행, 일시적·전략적 활용도 모라는 초기목적과 달리 지속적으로 활용되면서 다양한 문제점 노출
- 다목적 문화공간에 적합한 기획력 및 공간구성능력 요구
: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문화공간 선호, 전문성과 범용성을 동시에 추구
: 다목적 문화공간 조성 및 운영을 위해서 높은 기획력과 공간구성 능력이 요구되며, 실제 운영과정에서 정체성의 혼란과 운영비용 증가로 충분한 활용이 어렵다는 문제점도 제기

-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문화공간의 복합화, 다양화에 대한 요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며, 유휴공간의 문화적 활용 추세도 확대될 것임. 이 같은 경향에 맞춰, 관련 법제 및 정책도 문화시설의 다양성을 수용·지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하여, 다양한 유형의 문화시설이 일상 속에 자리 잡게 될 것
- ② 문화공간의 복합화, 다양화와 유휴공간의 문화공간화 경향은 지속될 것이나, 법·제도와의 괴리, 운영의 어려움, 정체성 혼란이 가중되면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는 '문화공간의 유휴화'가 나타날 것
- ③ 정체성이 모호한 유사 문화시설의 난립, 유휴공간 문화적 활용의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문화시설에 대한 기준 및 지원 범위가 엄격해져 문화공간 조성 자체가 어려워지고 양적으로도 감소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18. 문화예술 공적투자에 대한 시선 전환 : 성과중심으로 지원주기와 방식의 변화 예고

- 블랙리스트 사건을 계기로 문화예술에 대한 투자규모는 축소되고 재정지출 효율성 제고를 강조
: 문화재정은 지난 10년이상 지속적 확대되어 왔으나 블랙리스트 사건 등을 계기로 2018년 문화재정은 전년대비 6.3% 감소하면서 추세가 전환되었고, 재정지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가 중기 재정투자 방향으로 강조되고 있음
- 문화예술 지원에 대한 성과 중심적 관점이 부각되고 있으며 성과주기를 고려한 다년지원 검토 및 사회적 경제조직 지원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을 검토
: 정부의 재정운용 방식이 투입 위주에서 성과와 책임이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으면서 문화예술의 성과주기를 고려한 다년지원을 검토

: 정부의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공적투자 감소가 예견된 가운데 문화예술계 자생력 강화 대책으로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를 중기 투자방향을 논의 중

□ 정부와 예술계 간의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와 노력이 중요

: 다년지원, 간접지원 방식은 중장기 예산 확보에 따른 연속사업, 장기사업에 대한 계획이 가능한 장점과 실질적인 성과목표를 설계하여 의도하는 정책목표 달성에 용이한 장점이 있지만, 정부와 실행조직의 성과관리 역량에 따라 예술지원 생태계의 혼선만 가중될 우려도 존재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다년지원 대상의 선정과 평가에 대한 전문성 문제(문화예술은 전문가마다 가치판단이 다를 수 있음), 지원에서 제외된 단체의 성장가능성, 실행조직의 성과관리 역량부족 등으로 다년지원과 간접지원(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은 예술생태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될 것
- ② 예술단체는 중기 예산확보로 단계별 성과를 계획하고, 후원금 및 기부금 확보와 같은 재정확보 자구책을 마련하는 등 정부예산의 선택과 집중 효과로 이어져 정부의 예술지원 성과를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지원체계로 자리 잡을 것
- ③ 단년지원과 정부의존도가 높은 문화예술계의 관성에 의해 다시 단년지원 체계로 돌아가고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방식에 한계가 있을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19. 남북 관계변화에 따른 남북 간 문화예술교류 확대

- 남북 관계변화의 계기가 된 평창동계올림픽, 삼지연관현악단 방남 공연에 쏟아진 찬사
: 삼지연관현악단의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기원 공연, 남북공동입장, 남북여자 하키 단일팀 구성 등 평창올림픽은 남북 관계 회복의 계기가 됨
-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2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한 걸음 더 가까워진 한반도 평화 정세
: 1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 판문점선언을 시작으로 남북 간 전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길 열림
: 남북 사회문화교류는 그동안 중단·폐기되었던 지난 교류사업의 복원 및 재개를 우선시하며, 일회성사업보다는 장기적이고 가시적 성과 도출 교류사업 모색
- 2018 광주비엔날레 전시, 북한미술제
: 북경 만수대창작사미술관 등의 소장품에서 선별한 조선화 20여점 전시, 평양 만수대창작사에서 제작한 대형 집체화 세계 최초 공개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_____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현재 공연예술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북한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확산되어 향후 남북관계에서 문화예술교류가 핵심으로 부상할 것이며, 분야와 규모 모두 본격적으로 확대될 것
- ② 남북관계의 민간교류는 정치·외교적 문제와 직결되므로, 현재 논의되고 있는 남북 관계의 화해 분위기가 지속되더라도 본격적 교류로 진행된 않고 외교관계 해소용 정도로 쓰일 것
- ③ 남북관계의 불안정성으로 예술교류의 횟수가 오히려 줄어들고 실질적 상호교류에 미치지 못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20. 예술가, 일자리, 적정대가, 끝없는 논의 지속

- 주52시간 근무제 등 ‘워라밸’을 중요시하지만 문화예술계와는 거리가 멀
: 직종 및 근무환경 격차에 따른 괴리 문제 등의 여러 이슈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문화예술계에서는 일자리 관련 이슈가 본격화되고 있지 않음
- 일자리 고용확대 흐름 속에서 예술인 금고 등 논의
: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노동자성을 인정받기 위한 문화예술계의 그동안의 시도가
최근 정부의 일자리 정책 방향에 맞춰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상됨
- 예술가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 2018년 8월 6일 고용보험위원회 심의·의결함
: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활동을 증명한 약 39만명은 고용보험에 의무가입 대
상으로 하여, 실직 전 24개월 가운데 9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업급여
를 받을 수 있게 됨
- 예술인 공정생태계 마련과 적정대가 기준제 마련 논의 본격화
: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에 ‘예술계 공정생태계 마련’ 포함, 2018년 미
술작가보수제는 <미술전시 창작대가 기준제>로 확대될 것으로 예정하며 그 세부기
준(안)을 발표하는 등의 시도

-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
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일자리 확충이란 사회 분위기 속에서 사회안전망 구축이 가장 어려운 분야인 예술
계에 대한 사회보장 사각지대 해소필요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어 예술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예술인만을 위한 특수보장체계가 아닌 보편복지체계에
진입하는 구체적인 방안도출로 논의가 진행될 것

- ② 예술계 공정생태계와 예술인복지제도 마련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나, 사회적으로 예술가들에 대한 특별한 복지에 대한 반발이 강해지면서 오히려 예술인 복지제도가 원점으로 돌아갈 것
- ③ 예술가의 일자리, 적정대가에 대한 논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노동시간 및 대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구체적 안이 도출될 가능성이 높아, 2020년까지 심도 있는 논의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

21. 창작지원과 향유지원의 시소개입 지속

- ‘모든 국민은 문화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초
: 문화향유 체계 마련을 위한 ‘문화가 있는 날’, 소외계층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소수문화계층의 문화적 소통 강화를 위한 문화다양성사업 ‘무지개다리사업’ 등을 통해 문화향유를 위한 성과 도출
- 창작과 향유가 선순환하는 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
: 예술계 종사자와 관련 시설은 증가하였으나 관람객 수는 여전히 정체
- 예술인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창작 안전망 구축 시도
: 관련 법·제도 마련, 부처 간 시스템 연계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예술가의 창작 안전망 구축
: 현 정부의 예술분야 국정과제 및 공연예술 정책방향 ‘창작환경 개선과 복지 강화로 예술인 창작권 보장’에 ‘문화예술 분야 창작환경 개선’ 포함
- 지원사업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창작 지원
: 지역문화, 도시재생, 시민문화 활성화 등의 이슈와 맞물려 문화향유 중심으로 창작을 지원하는 것이 대다수이며, 예술가들이 최대한 자유롭게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본질적인 창작 지원 필요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현재 국민의 예술 향유를 강조하고 있는 지원구조에서 예술가의 창작자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향유와 창작의 균형을 맞추고자 하는 방향으로 지원정책의 방향이 이동될 것
- ② 예술가의 창작에 대한 지원은 정부의 문화예술 정책의 비전에 따라 정책적 이슈가 있는 일부 분야, 향유연계 부분 등에서만 강조되어 나타날 것이며, 전체적인 예술 창작환경 개선에 대한 가시적인 움직임이 나타나지는 않을 것임
- ③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 중심의 지원사업 기조가 2020년까지도 유지되어 예술가의 창작환경에 대한 개선은 예술가 본인의 노력에 맡겨질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22. 블록체인, 투명한 예술시장의 도구로 정착

- ☐ 거래 당사자끼리 가치를 교환할 수 있는 ‘블록체인’
: 블록체인은 개별 거래에 대한 정보 암호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거래 당사자들 간 직접 교환이 가능함
- ☐ 블록체인 기술은 관련 생태계 조성과 공공기관의 협업을 통해 점차 확대 추세
: 미국, 영국 등은 다양한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중이며,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중
- ☐ 국내의 블록체인 기술은 비트코인에 지나치게 집중되어있지만, 최근 다양한 활용 사례 등장
: 스마트 보험금 청구 서비스, 블록체인 시스템을 도입한 O2O서비스 플랫폼
- ☐ 창작자의 권리보호와 소비자의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 발달로 예술시장의 투명성 제고
: 문화예술 분야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될 경우, 온라인 거래에서 창작자의 권리(저작권) 보호가 가능하고, 예술소비자들의 참여(예. 투자)를 높여 예술시장의 투명성 제고 가능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다자간 직접 거래가 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예술시장이 구조가 재편되며, 창작자의 권리(저작권)가 보호되고, 예술소비자들의 참여가 증대되어 예술시장의 투명성이 제고됨
- ② 블록체인에 대한 관심과 다양한 분야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나,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아, 예술작품과 활동이 개인 간 직접 거래되는 예술시장이 형성되지는 못함
- ③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시도가 파편적으로 전시회에 걸쳐 나타날 것이나,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 및 국가적 차원에서의 블록체인 기술의 시장 안착 지원이 미미하여, 실제 블록체인 기술 자체가 안착하기에는 긴 시간이 소요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23. 디지털시대, 예술소비 플랫폼의 변화와 다양한 문화마케팅의 시도

- 디지털에 익숙한 시대, 관객 개발을 위하여 실시간 스트리밍 서비스 활용
: 쇼케이스나 프레스콜, 제작발표회는 물론 전막 공연까지도 생중계하며 관객 개발에 긍정적 효과
- SNS를 통한 관객의 적극 참여 증가
: 관객들은 후기 및 추천 정보, 시설 및 공간 정보 등 문화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골고루 수집해 폭넓게 비교·분석하며, 관객이 예술작품 창작에 직접 참여하는 정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
- 관객 욕구에 부합하는 다양한 문화마케팅 시도
: 팬덤문화를 활용한 SNS 공략, 공연 마케팅 비용 확보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등 디지털 환경을 이용하거나 1인 가구 및 펫팸족(Pet+Family)의 증가로 '반려'의 의미를 되새기거나 시사점을 던지는 전시, 공연을 개최하는 등 소비시장 변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마케팅을 시도

-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2020년에는 디지털로 사회의 중심축이 완전히 이동하여 디지털을 통해 공연을 소비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으로 인식될 것. 관객이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 문화예술을 소비·향유하게 되어 다양한 문화마케팅 시도되고 이는 문화예술기관의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
- ② 문화예술을 소비·향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다각화되더라도 문화예술에 대한 국민의 심리적 거리감이 지속되어 일부 분야를 중심으로 소비의 패턴이 변화할 뿐 전체적인 문화예술계 큰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할 것
- ③ 디지털로 인한 플랫폼 다각화는 전통적인 문화예술 소비층에 반감을 일으킬 수 있어 문화마케팅은 기존의 파워소비층의 수요에 집중하는 방식으로 돌아올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24. 미투로 시작된 공연예술계의 구조변화, 기대와 실제 현실의 괴리

- 공연예술계 미투로 시작된 불합리한 창작환경 문제 대두와 구조변화 요구
: 위계질서가 확고한 연극계 내에서 확실한 수입원이 되는 연출가, 스타급 배우 등의 권력을 엮은 성폭력이라는 점에서 공연계 제작 문화 전반의 문제점이 공론화 되었으며, 근본적 구조변화가 요구됨
- 2015년 메르스, 2016년 중국 사드 여파, 2017년 블랙리스트와 검열, 김영란 법 시행 등으로 지속된 공연예술계의 불황, 협동조합 결성과 기획공연장 공동 소유 등의 예술가들의 자구책과 대안 모색
: 안정적인 수익을 위하여 창작 작품보다는 대형 라이선스 뮤지컬, 유명 예술가의 작품 상연, 스타 마케팅, 스테디셀러 작품의 재공연 등이 이어짐

: 발레STP협동조합, 현대무용협동조합, 한국무용협동조합 등의 결성과 극단 여러 곳이 모여 소극장을 빌리는 ‘극장나무 협동조합’ 등의 등장

- 재원 조달을 정부 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창작에 몰두하기 힘든 현실

: 창작 예산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민간 투자 지원은 지원이기보다는 투입 금액을 회수하는 투자의 방식이기 때문에 이윤 창출이 중요함

-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미투를 통해 공연예술 제작 환경의 문제가 대두되고, 사회적 파급력과 전달력이 높은 공연예술계의 발화가 예술계 전반으로 확장되어 창작환경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이 예술현장을 중심으로 실험·논의될 것
- ② 미투운동을 통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과 정책 마련 논의가 지속되며 공연예술 제작환경의 개선되나, 예술계 전반으로 확대되지는 못할 것
- ③ 미투운동이 공연예술 및 예술 생태계 쇄신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예술계 자체가 현재 처한 현실을 인정하고 근본적 구조 변화를 도모하여야 하나, 단편적 대안 마련에 급급하여 논의를 확장시키지 못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25. 성장하고 싶은 미술시장, 과연? (4050남성+구매채널 다각화)

- X세대, 1970년대생들이 40대로 접어들면서 주요 소비주체로 부상, 40대 남성을 핵심 고객군으로 설정하기도 함

: 아재슈머(아재+컨슈머), 영포티(young forty)로 불리는 X세대, 경제적으로 안정기

에 접어드는 것과 동시에 젊었던 시절 소비성향 유지. 40~50대 가구주 가계 실질소득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임

: ‘프레디족(Friend+Daddy, 친구 같은 아빠)’을 겨냥한 장난감 전시관, 남성 타겟 편집숍 개장

- 문화예술관람률의 세대 간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 20대 여성보다 더 많은 미술관 가는 아재, 태테크로서 그림을 구입하는 남성 컬렉터 증가

: 여전히 남자보다는 여자, 고연령층보다는 저연령층의 관람률이 높지만 2009년에 비해 2017년 50대 증가폭 23.0% 포인트

: 국내 화랑, 국내 아트페어, 작가에게 직접 구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작품을 구매하고 있으며, 온라인 미술품 경매시장도 강세를 보이고 있음

- 파리 페로탱 갤러리, 미국 뉴욕 페이스 갤러리, 경매사 필립스 등 외국 메이저 화랑의 국내 진출, 경매시장의 확대와 함께 미술품 렌탈 시장의 지속

: 국내 렌탈 시장 규모 2016년 25조 9,000억원으로 성장, 2020년 40조원을 넘을 것으로 전망

-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40~50대의 새로운 소비층 부상은 기존 미술시장의 신선한 자극으로 작용하여 미술시장의 변화를 이끌어 낼 것
- ② 미술시장 주체의 변화 시도, 새로운 콘텐츠 개발이 없는 한 미술시장 전반에 변화는 없을 것이며 경제상황의 어려움과 맞물려 미술시장은 오히려 악화될 것
- ③ 신 소비층 등장, 온라인미술시장 등은 단기적 현상으로 전체 미술시장에 활력을 주기에 한계가 있을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26. 근대문화콘텐츠의 유행과 확산

- 각 도시별 근대역사·근대문화거리 조성, 투어·탐방로 등 역사문화유산을 관광자 원화하거나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하여 근대문화 콘텐츠화 사업을 진행
- 한·중·일은 물론 서양 문화가 뒤섞여있던 일제강점기와 ‘경성’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와 드라마가 꾸준히 등장
: 영화 - 암살, 밀정, 덕혜옹주, 동주, 아가씨 등, 드라마 - 시카고 타자기, 석조저택 살인사건 등
- 근대성의 다양한 접근과 해석이 담긴 전시와 공연
: 국립현대미술관 ‘20세기 이후 한국 미술, 광장’전 개최 예정
: 2018년 광주 비엔날레의 주제인 ‘상상의 경계들’은 근대성과 현대성의 경계 사 이에 충돌하는 공동체 내면을 내보이는 등 새로운 해석 시도
- 근대문화, 근대건축 등 근대 관련 서적 발행 현황
: 〈근대문화유산과 서울사람들〉, 〈울산 근대를 걷다〉, 〈경성의 건축가들〉 등 근대 문화를 키워드로 한 출판물과 함께, 초판본 디자인을 본뜬 서적 발행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_____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지역에서는 근대 역사문화유산을 주제로 한 관광·도시재생 사업이 활발히 이루어 지고, 사회적으로는 근대성에 기반한 국가권력·기득권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등 근대에 대한 사회전반의 관심이 지속될 것이며, ‘문화콘텐츠’로 다양한 분야에서 유행, 확산될 것
- ② 도시재생사업, 관광 등과 맞물려 ‘근대문화’ 자체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전시·공연 콘텐츠 활용도 지속될 것이나, 사회 전반적 이슈로 확산되지는 못할 것
- ③ 최근 나타난 ‘근대문화’에 대한 주목은 지역재생과 관광의 소재로 ‘근대’가 활용된 것에서 비롯된 일시적 유행으로, 곧 사라질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27. 사람이 머물게 하는 책, 서점과 도서관의 진화

- 책의 매력은 사물의 경험, 아날로그가 주는 정서적 힘
: 감각기관을 통한 물질적 자극, 실재 사물에 대한 경험이 책의 매력이며, 책을 사는 행위 자체만으로도 책을 읽는 것과 비슷한 만족감을 형성. 스마트해지는 기분을 느낄 수 있는 장소로 도서관, 서점 등의 공간을 찾음
- 복합 공간 내 대규모 도서관 등장과 인기
: 고객의 시간을 잡는다는 마케팅 전략으로 스타필드 코엑스 중심공간을 ‘별마당 도서관’으로 개방하였으며, 부산 아난티 타운 ‘이너털 저니’, 파주 ‘지혜의 숲’ 등 인기
- 독립서점의 활성화 방안 추진 중
: 전국 주요 도시 서점 77곳이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밤 ‘심야책방’이라는 타이틀로 다채로운 프로그램과 이벤트를 진행하며, 경기도는 ‘지역서점 인증제’를 도입하여 지역 내 문화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음. 또한 동네서점에서만 살 수 있는 에디션을 발간하기도 함
- 독자적인 콘텐츠를 가진 독립서점, 기업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하기도 하고, 매장 안에 자연스럽게 책을 전시하는 형태도 등장
: 책맥(책+맥주)서점 ‘북바이북’은 하나은행 광화문역점과, 복도와 벽을 서가로 꾸민 ‘조니123’은 책을 고르는 북큐레이션을 홍대 독립서점 ‘당인리책발전소’에 맡김
: 일본 도쿄의 ‘무인양품’은 상품 옆에 자연스럽게 책을 전시하고 있으며, ‘초타야’ 서점에서는 책의 카테고리과 상관없이 라이프스타일을 바탕으로 책을 진열하며 관련 물품도 함께 판매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_____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책이 주는 정서·교감·지적인 욕구충족이 전반적 문화 소비로 확산될 것이며, 책을 활용한 공간의 다양한 시도가 지속되어 서점, 도서관이 생활과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매김 할 것임. (동네서점과 독립출판이 활성화되어 문학계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할 것임)
- ② 독립서점의 독특한 분위기나 대형 상업공간의 도서관 마케팅이 하나의 유행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공간 소비의 촉매 역할에만 머물게 될 것이며 문학계의 불황은 극복되지 못할 것임
- ③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제3의 공간(집과 일터가 아닌 또 다른 공간)에 대한 요구가 '책'이라는 매개체를 활용하여 발산되고 있는 것으로, 일시적 유행일 뿐이며 언젠가는 책이 아닌 다른 소재로 대체될 수 있음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28. 지방분권 흐름 속 문화 분권의 확대와 정착

- ☐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목표,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강력한 지방분권 공화국' : 자치분권 전략회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등을 통하여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 추진
- ☐ 자치분권을 실시하기에는 지자체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의견도 다수 : 권한과 재정을 이양해도 이를 처리할 역량이 부족하며, 지방분권 추진 과정에서 실무담당자인 지방공무원들의 교육과 관리는 빠져있어 이러한 우려 심화
- ☐ 지방분권 개헌을 위해 국민운동을 하는 등 지방분권을 추진하기 위한 움직임 확산 : 충북, 강원, 대전 등 지방분권 추진을 위하여 서명운동을 실시함
- ☐ 6·13 지방선거와 함께 지방분권 개헌 투표를 진행하려고 하였으나 실패 : 국민투표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며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진행하려고 하였던 지방분권 개헌 투표 불가능해짐
- ☐ 지방분권 개혁은 무산되었지만, 지방분권을 위한 노력은 지속되며 이와 함께 '문화비전2030' 등을 통한 문화 분권 시도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 문화 분권을 강조하고, 지역을 실행주체로 삼고 있는 '문화비전2030'을 발표함

-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지방분권화로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역민의 수요에 맞는 문화정책이 확대될 것
- ② 지방분권화로 지역의 재정능력과 지자체 장의 성향에 따라 문화적 격차가 확대될 것
- ③ 지방분권이 가속화되어도 문화분야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이 더 강조될 수 있을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29. 생활문화 · 생활예술 일상 속에 스며들다

-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으로 제도화 · 명문화된 “생활문화”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 · 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 생활공동체 복원을 위한 ‘생활문화’, 문화민주주의로서의 ‘생활예술’ 함께 지향하며, 생활문화공동체, 생활문화동호회, 마을예술창작소 등 일상에 밀착된 문화예술 주체들의 모임, 공간, 동호회 등 지원 활발
: 일터와 삶터, 가정과 커뮤니티 안에서 예술 향유 기회 확대, 일반 시민들이 직접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여건 마련 등을 시민들의 문화 참여를 확대하는 다양한 지원사업 진행 중
: 메이커 문화와 연관되어 시민창작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활동 경험과 관계를 모으고 새롭게 생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생활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시행되는 등 구조적 한계를 보이는 생활문화 관련 정책

: 생활문화와 주민·지역 자치활동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의 자율성’ 또는 ‘자기 결정권’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실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특성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

-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정책과 제도 지원으로 성장한 생활문화·생활예술이 지역·주민이 스스로 주도하고 협력하는 생활문화·예술 모임과 공간으로 성장하여, 주민 주도적으로 일상에서 누리는 기회가 확대될 것
- ② 정책과 제도로 운영된 생활문화 육성이 지역에 안착되기 위해 지역 주민의 자치활동과 같이 연결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끊임없는 요구가 나타나, 중앙정부 중심의 생활문화·생활예술 정책이 지역으로 이관되어 지역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생활문화·생활예술 정책으로 전환될 것
- ③ 지원제도 중심으로 육성된 생활문화·생활예술이 지역에 뿌리내리기 못해, 기존 활동의 유지를 위해 중앙정부, 관 주도의 지원을 지속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30. 100세 시대, 신 중년(5060세대)의 새로운 인생 도전 증가

- UN 평생 연령 기준(2015년 발표)으로 확인된 5060세대의 ‘청년’ 정체성
: 0~17세 미성년자, 18~65세 청년, 66~79세 중년, 80~99세 노년, 100세 이후 장수 노인
- 길어진 기대수명, 빨라진 은퇴시기 등으로 제2의 인생을 고민하는 50+세대

: 대통령직속 일자리 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신 중년, 인생3모작 기반구축 계획’을 발표하는 등 신 중년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

□ 청년보다 높은 중년의 창업 성공률

: 미국 인구조사국 하비에르 미란다, MIT 슬론 경영대학원의 피에르 아주레이 교수 연구팀이 미국 통계청 자료를 이용하여 미국의 창업가 270만 명의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장 성공적인 창업자의 평균연령은 45세, 일류기업으로 키워내는 능력은 20대 창업자가 가장 낮게 나타남

: 국내에서도 현장 경험과 지식, 다양한 사회적 자본을 바탕으로 중년창업의 성공률 증가(출처 : 금융소비자뉴스(<http://www.newsfc.co.kr>))

□ 50+세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시 50+재단 운영

: 2016년 설립된 서울시 50+재단에서는 50+세대를 대상으로 교육, 커뮤니티 형성 등을 지원하여 일자리 문제 해소, 사회적 경제 활성화 등 노력

□ 50+세대에 대한 지원이 단순한 일자리 제공이 아닌 일 자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무엇인가를 생산해내거나 왕성하게 활동해내는 사회경제인구로서의 가치뿐만 아니라 개인이 삶의 목적에 대해 찾을 수 있는 과정 중 하나라는 사회적 함의가 형성되어야 할 것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경험과 자본을 바탕으로 한 5060세대의 창업이 더욱 확대되면서 5060세대의 취·창업 시도가 미래사회의 신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정책 및 지원도 확대될 것
- ② 5060세대의 취·창업 시도는 은퇴세대 취·창업을 앞당기는 현상으로 이어져 1인 소규모 창업 남발현상으로 인한 부작용이 증가할 것

- ③ 5060세대의 사회 참여는 확대될 것이나, 일자리의 질이 낮고 재취업 후 직무만족도도 떨어질 것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31. 라이트 노블(Light Novel), 문화콘텐츠로 자리 잡다

□ 라이트 노블(Light navel)의 유행

* 라이트 노블(Light navel)은 주로 10대의 중고생들이 많이 읽는 소설의 한 장르로, 만화·애니메이션풍의 일러스트를 사용하는 오락소설이다(위키피디아). 라이트 노블을 출판하는 출판사의 레이블을 따 'NT소설'이라고도 하며, 주로 일본의 게임·만화·애니메이션 문화를 바탕에 두고 있다. 기존의 소설이 '서사'를 중시했다면, 라이트 노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캐릭터'이다. 검과 마법류의 판타지, 학원물, SF물, 역사물, 서스펜스, 액션물, 개그와 부조리, 러브코미디, 호러 등 다양한 장르를 포괄하며, 한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하나의 작품 안에 여러 가지 장르들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 최근 급부상하여 국내 도서시장의 5~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성장세 지속 : 90년대 이후 일본에서 급성장하였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 국내에 소개, 2007년 국내 라이트노블 출판사가 등장. 특히 "소드 아트 온라인" 시리즈는 국내에서만 100만부 이상 판매되는 등 성장세 지속

□ '최애 캐릭터' 등 캐릭터에 대한 열광이 라이트 노블 열풍으로 이어지며, 굿즈에 대한 수집으로도 나타남

: 라이트 노블 독자들은 최애 캐릭터에 대한 애정의 증명으로 굿즈를 사고 싶어하는 수집욕이 강하며, 때문에 캐릭터 굿즈를 부록으로 주는 초판본의 판매량이 특히 높게 나타남

□ 라이트 노블은 스토리와 캐릭터 성을 동시에 갖추고 있어서, 만화, 애니메이션, 게임 등 여러 매체로 옮기기 쉬워 '미디어 프랜차이즈' 유리

▶ 이런 현상이 트렌드로 발현될 가능성을 점수로 표현하신다면 몇 점인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작성부탁드립니다.

발현 가능성	가능성 낮음 ————— 가능성 높음				
	1	2	3	4	5
이유					

▶ 선생님께서는 이런 현상이 2020년에는 어떤 방향으로 발현될 것인지 다음의 보기 중 한 가지만 선택해주세요. 선생님의 의견과 완벽하게 동일하지 않아도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 ① 최애캐(最愛 캐릭터), 굿즈 열풍 등과 함께 라이트 노블에 대한 열광은 전 연령·계층으로 확대될 것이며, 소비만이 아니라 생산자, 즉 작가로서의 역할도 증가할 것임. 라이트 노블이 다양한 매체로 구현되는 미디어 프랜차이즈 현상도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임
- ② 라이트 노블의 성장세는 유지될 것이나, 중고생과 일부 마니아층에게만 국한되어 나타나며 일반화되지는 못할 것임
- ③ 라이트 노블에 대한 인기는 일시적인 것으로, 문화콘텐츠적인 의미를 확보하지 못하고 소비층도 점차 감소하여 사라질 것임
- ④ 이 외의 발현 방향성이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체적으로 작성 부탁드립니다.
(_____)

PART 2. 2018 트렌드 발현에 대한 의견

2015년에 선정한 “2016년 10개 문화예술 트렌드”에 대한 질문입니다. 2018년 동안 해당 트렌드가 얼마나 발현하였는지와 향후에도 지속 · 발전 가능성이 얼마나 될 것 같은지 평가하여 주세요.

(트렌드1) 해시태그 세대, 큐레이션 콘텐츠를 즐기다

※ 특정 단어에 해시(#)를 붙여 검색기능을 높인 관심사 기반의 SNS가 트렌드로 부상하며, 이를 바탕으로 대화하고 소통하는 문화와 이미지와 함께 짧은 형식으로 핵심만을 추려주는 지식과 콘텐츠를 수집하는 ‘콘텐츠 컬렉팅’ 문화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될 것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 · 발전 가능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트렌드2) 신종 마니아, 사회로 나오다

※ 팬, 마니아의 단계를 넘어 관심분야에 열광하는 ‘오타쿠’에 대한 부정적이던 시선이 해당 분야에 대한 ‘전문가’ 등 긍정적인 시선으로 변화하여 이들을 다루는 방송 콘텐츠가 등장하였으며, 동시에 비 주류적으로 보이는 취향을 자신의 것으로 습득하고 ‘나만 알고자’하는 경향을 보이기도 함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 · 발전 가능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트렌드3) 예술 소비, 세련된 생활 습관이 되다

※ 대형 아트 페어만이 아닌 새로운 형태, 작아진 규모, 낮아진 가격대 등 보다 자유로운 형식의 색다른 아트 페어가 쏟아져 나왔으며, 이는 SNS창구를 통해 자신의 예술 취향을 드러내고자 하는 네오비트 세대의 욕구와 맞닿아 ‘나도 예술컬렉터 되어보기’로 트렌디한 문화예술 즐기기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발전 가능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트렌드4) 전문가 놀이, 일상의 문화가 되다

※ 연예인 혹은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일상생활, 취미생활 등에서 전문가로서 활동하기도 하며, 이러한 개인의 취미가 또 하나의 직업으로 발전해가는 형태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 (웹툰작가 ‘김풍’의 세프 활동 등)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발전 가능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트렌드5) 사물인터넷, 소비자 맞춤형 문화예술 콘텐츠를 확대

※ 인터넷을 통해 사물이 다양한 기기와 연결되어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의 빠른 확산은 ‘사물-사물’과 ‘사물-사람’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사람’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각종 미술전, 음악회 등에 적용되어 스마트 뮤지엄 서비스, 인접 지역의 문화 정보 제공 등 향후 확장될 전망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발전 가능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트렌드6) 모바일, 미디어 시장을 재편하다

※ 스마트폰 이용이 보편화되면서 미디어와 대중문화소비, 콘텐츠 소비의 중심 시장이 방송에서 모바일 시장으로 변화하는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며, 이러한 트렌드에 따라 인터넷, 모바일 등이 뉴미디어 광고 시장으로 부상할 것임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발전 가능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트렌드7) 자생을 위한 적극적 판매, 계속되는 예술가들의 실험

※ 공공기관의 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아닌 예술가가 스스로 자생하기 위해 공간프로그램 형성, 예술가들 사이 혹은 예술가와 사회의 느슨한 연대가 대안적 삶의 방식으로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 또한 작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 신생 미술공간은 이윤 창출이 아닌 작가 지원과 공간 운영을 위해 공격적으로 작품 판매에 나서는 ‘낫-포-프로핏(not-for-profit)’ 자생적 구조를 만드는 경향이 점차 커질 것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발전 가능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트렌드8) 리스티클의 확산 : 개인의 권리 vs 공유적 가치

※ 뉴스 및 정보, 창작자들의 글과 작품들이 큐레이션 서비스를 통해 편집·재가공되는 ‘리스트리클(Listicle, List와 Article의 합성어)’ 또한 하나의 창작품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변화가 생겨나면서, ‘편집과 재가공’ 행위도 공유를 발생시키는 창작으로 보는 저작권 확대 현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동시에 유명 작가들의 표절 논란이 불어지며, 소비자들의 윤리의식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장치 마련은 없지만 저작권 제도상 지적 저작권 인정 및 인식 개선 지원의 움직임은 나타나고 있음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발전 가능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트렌드9) 공유문화의 지속과 확장 : 한국형 모델의 등장

※ 공유경제와 공유기업은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인식 속에서 긍정적인 효과에 집중되며 빠른 발전 속도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이나 소비자의 요구보다는 ‘관’이 중심이 되어 발전하고 있다는 국내적 특수성이 문제로 지적됨. 해외 사례가 도입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상황에 적합한 다양한 시도들이 나타나며 한국형 공유서비스 모델이 등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함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발전 가능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트렌드10) 윤리경영, 지속가능한 기업을 위한 핵심으로 부상

※ 단기적인 이윤이 아닌 브랜드 신뢰도 등 멀리 내다보고 그림을 크게 그리는 롱터미즘(long-termism)으로 기업 경영이 변화될 전망이며, 기업의 지속가능성 추구하고 사회적 책임경영 추구는 기업 경영전반 구조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그 연장선상으로 문화예술이 공공적 가치가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 기업의 메세나 활동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예술인 파견지원사업' 등 예술적 역량을 통해 기업문화를 변화시키려는 기업들이 많아질 것

〈2018년 동안 문화예술분야에 발현한 정도〉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2020년 트렌드 현상의 지속·발전 가능성〉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그렇다

붙임 2. 2차 델파이 설문지

1. 본 ‘2020년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연구를 위한 델파이조사에 참여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본 조사에 끝까지 참여하시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 부탁드립니다.
2. 본 델파이조사는 **다양한 범사회 및 문화예술 영역별 전문가 대상으로** 문화예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슈에 대한 전망을 알아보는 조사로 총 2회에 걸쳐 진행되며, 본 조사는 2차 조사에 해당됩니다.
3. 특정 문항을 응답하기 위하여 친구나 직장동료들과 상의할 수 있으며, 평소 이용하시는 정보원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단, 고정관념이나 특정집단을 대변하는 의견 제시는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 대한 응답 내용은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연구책임기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02)2669-9861

※ 조사대행기관 : 장애파트너스그룹(JnP) 070)8860-6342

- 응답기한 : ~10월 03일 수요일까지
- 예상 소요시간 : 약 30분 (본 설문은 모두 객관식으로 구성)
※ 설문은 반드시 30분가량의 시간이 되실 때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화면을 더 크게 보고 싶으신 경우, 페이지 설정에서 화면비율을 확대하시면 됩니다.
- 조사 윤리 동의 : 본인은 「2020년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연구를 위한 델파이조사를 통해 획득한 모든 관련 정보는 해당 연구가 종료/발표될 때까지 세미나, 포럼, 출간 등을 비롯한 어떠한 형태로도 인용, 발표, 활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합니다.

□ 동 의 □ 비동의

※ 조사 윤리 동의에 동의한 경우만 설문 진행 예정

(2020년 전망 이슈1) 규제에서 자유로운 1인 미디어, 콘텐츠 다양성의 힘

※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에서 기술된 자유 의견과 문헌을 종합하여 도출

아래의 대안시나리오들이 2020년에 발현될 가능성(Attainability)을 평가하여 주세요.

(대안시나리오1)

1인 미디어의 빠른 성장으로 인해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전문가와 유사한 정도의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는 경향이 점차 강화될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1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에게 전문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은 1인 미디어를 향유하는 계층에게만 나타나는 현상일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콘텐츠 크리에이터들을 전문가로 인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될 것

(대안시나리오2)

미디어를 제공하는 채널의 다양화와 파편화는 정보의 공신력에 대한 의심으로 이어지고, 편향된 정보와 신뢰할 수 없는 정보를 검증하기 위한 장치 마련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2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정보의 공신력을 검증하기 위한 요구가 점차 커져 법적 제재까지도 요구될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콘텐츠 다양성이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미디어의 다양화, 파편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

(2020년 전망 이슈2) 문화(주도) 젠트리피케이션을 대하는 예술가들의 행동 변화

※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에서 기술된 자유 의견과 문헌을 종합하여 도출

아래의 대안시나리오들이 2020년에 발현될 가능성(Attainability)을 평가하여 주세요.

(대안시나리오1)

현행 도시재생의 구도 속에서 예술가가 매개하는 젠트리피케이션 역기능은 심화될 것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술가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나타날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1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해 거주지 · 활동지에서 이탈하게 된 예술가들이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자구책을 마련, 개인적 · 집단적으로 전개해 갈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술가는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서 젠트리파이어로서의 역할을 지속적으로 요구받을 것이며, 역기능도 심화될 것이나, 자구적 대응방안은 나타나지 않을 것

(2020년 전망 이슈3) 블랙리스트 이후 점차 커지는 공정한 창작지원에 대한 요구

※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에서 기술된 자유 의견과 문헌을 종합하여 도출

아래의 대안시나리오들이 2020년에 발현될 가능성(Attainability)을 평가하여 주세요.

(대안시나리오1)

블랙리스트 사건 이후 정부에 예술창작 지원과 관련된 공정성 요구는 증대되었으나, 현장의 요구와 괴리가 좁혀지지 않아 예술 정책의 프레임과 패러다임에 대한 변화 요구까지 확장될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2)

블랙리스트 이후 정부 대책에 한계를 느낀 예술가들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책을 강구할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1,2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예술가들 스스로 정책 대안으로 현장·민간 중심의 지원체계와 자원체계 마련에 힘쓰며 정부주도 예술정책 구조 전반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술가들은 지속적으로 대안책을 제시하지만 이러한 요구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미미할 것

(2020년 전망 이슈4) 주 52시간 제도 도입으로 인해 늘어난 여가시간, 문화 예술기관들의 매력도 높이기

※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에서 기술된 자유 의견과 문헌을 종합하여 도출

아래의 대안시나리오들이 2020년에 발현될 가능성(Attainability)을 평가하여 주세요.

(대안시나리오1)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근로시간이 줄어들고 워라벨 문화 확산, 주 52시간 근무제는 주5일제와 달리 '요일'의 단축이 아닌 '시간'의 단축이므로 퇴근 후 생활권 내에서 문화소비가 증가될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1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주5일제 시행으로 늘어난 가용 일자를(토요일) 관광으로 채우는 수요가 증가했듯이, 52시간 근무제 시행으로 사회 전반에서 퇴근 후 저녁이 있는 삶에 대한 요구가 문화소비를 촉발할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직업의 차이, 경제적 차이, 가족구성원의 차이, 지역규모 등 개인이 속한 환경차이에 따라 여가시간을 활용하는 형태가 달라 문화소비 격차가 커질 것

(대안시나리오2)

단축근무제 도입으로 늘어난 여가시간동안 소비자의 지출구조가 여가오락성을 지향하고 문화예술서비스에 관심이 높아질 것에 대비하여 기존 사업에서 문화예술서비스화(문화예술마케팅) 현상이 확대될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2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근로시간 단축으로 늘어난 여가시간은 문화예술서비스의 신규 수요창출에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고용비용 부담, 임금감소는 가계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문화예술소비에 한계를 보일 것

(대안시나리오3)

여가시간 증가로 인해 기존 사업들의 문화예술서비스화, 신종 문화예술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문화예술기관들의 고객 유치에 위한 다양한 기획, 프로모션, 서비스제공 등의 노력이 적극 확대될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3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여가시간 증가에 따라 문화예술기관들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할인, 다양한 종류의 프로그램 및 서비스 제공 등으로 경쟁력있게 성장할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문화예술기관들은 고객유치를 위해 노력하지만 고객수요분석의 한계, 적극성 부족으로 한계를 나타낼 것

(2020년 전망 이슈5) 각 이코노미, 예술가의 일자리 자립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다

※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에서 기술된 자유 의견과 문헌을 종합하여 도출

아래의 대안시나리오들이 2020년에 발현될 가능성(Attainability)을 평가하여 주세요.

(대안시나리오1)

예술계의 각 이코노미는 예술가 직군의 노동형태, 고용조건, 경제활동의 소득창출 및 자립을 위한 모델로서 나아갈 방향을 보여주게 될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1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예술계 각 이코노미는 하나의 예술인 일자리 모델이자 자생적 경제모델로 자리잡게 될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술계 각 이코노미는 일자리, 산업모델로 자리잡기 이전에 예술인을 위한 사회안전망 마련이 현재(실업급여, 예술인 금고) 보다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이슈가 발현될 것

(2020년 전망 이슈6) 세대, 성별, 인종간 혐오와 갈등의 새로운 국면

※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에서 기술된 자유 의견과 문헌을 종합하여 도출

아래의 대안시나리오들이 2020년에 발현될 가능성(Attainability)을 평가하여 주세요.

(대안시나리오1)

사회에 만연한 혐오의 대상과 프레임은 점차 세분화되고 파편화될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1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혐오의 대상과 프레임이 점차 세분화되고 파편화되어 혐오 문화가 개인화되면서 응집력이 약해져 점차 사라질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혐오의 대상과 프레임은 점차 세분화되고 파편화되어 보다 더 다양한 혐오 문화가 양상되고 심화될 것

(2020년 전망 이슈7) 늘어나는 문화공간, 새로운 문화공간에 대한 정체성 혼란 심화

※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에서 기술된 자유 의견과 문헌을 종합하여 도출

아래의 대안시나리오들이 2020년에 발현될 가능성(Attainability)을 평가하여 주세요.

(대안시나리오1)

도시재생, 생활문화 환경 강조의 구도 속에서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이 증가하고 있으나, 새로운 문화공간의 정체성에 대해 운영자와 사용자 모두 혼란을 느끼며 공간 활용에 있어 어려움 발생할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1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새롭게 조성된 다양한 형태의 문화공간이 정체성 혼란으로 적절하게 활용되지 못하여, 다시 빈 공간으로 남겨지는 “재 유희화” 문제가 발생할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체성 혼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문화공간은 증가할 것이며,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어 공공부문으로 전가됨에 따라 공공 재정 부담이 증가할 것

(2020년 전망 이슈8) 남북교류 증가와 함께 소셜리얼리즘(Social Realism) 예술에 대한 재조명과 관심

※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에서 기술된 자유 의견과 문헌을 종합하여 도출

아래의 대안시나리오들이 2020년에 발현될 가능성(Attainability)을 평가하여 주세요.

(대안시나리오1)

그동안 중국에만 머물러있던 소셜리얼리즘 예술에 대한 관심은 북한과의 교류 증가와 2020년 한러수교 30주년 등을 바탕으로 북한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가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1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북한, 러시아 등의 뉴소셜리얼리즘 문화예술은 우리나라의 문화예술계 및 사회 전반에 신선한 자극이 될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북한, 러시아 등의 뉴소셜리얼리즘 문화예술은 단순한 호기심에 그칠 것

(2020년 전망 이슈9) 문화예술계의 굿즈, 예술시장의 새로운 기대로

※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에서 기술된 자유 의견과 문헌을 종합하여 도출

아래의 대안시나리오들이 2020년에 발현될 가능성(Attainability)을 평가하여 주세요.

(대안시나리오1)

예술계의 굿즈에 대한 수요 증가로 다양한 수요에 맞춰 상품 개발이 진행되는 등 예술계 굿즈산업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2)

소확행 등의 소비성향을 반영하여 굿즈산업이 확대되고, 이는 예술시장*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

(* 예술시장이란 공연, 전시 관람 및 예술작품, 굿즈 구매 등을 포함한 예술 관련 산업 전반을 의미함)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1,2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예술계 굿즈로 예술시장에 대한 관심과 함께 소비도 증가할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예술계 굿즈는 예술시장에 대한 관심 증가로는 이어지나, 실제 소비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2020년 전망 이슈10) 예술계 소득주도 성장, 가능할 것인가

※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에서 기술된 자유 의견과 문헌을 종합하여 도출

아래의 대안시나리오들이 2020년에 발현될 가능성(Attainability)을 평가하여 주세요.

(대안시나리오1)

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기조는 문화예술계에서도 영향을 미쳐 예술계에 가능한 소득주도 성장 환경구축을 위한 시도에 속도가 붙을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1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예술계의 소득주도성장은 현 정부의 공정계약, 최소단가, 고용보험 등의 시도와 함께 시간은 걸리지만 천천히 생태계 안정과 함께 자리잡아가게 될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본 노동환경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은 예술계 특성상 예술계 소득주도성장 환경 마련은 요연할 것

(2020년 전망 이슈11) 지역간 문화격차를 야기하는 문화분권

※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에서 기술된 자유 의견과 문헌을 종합하여 도출

아래의 대안시나리오들이 2020년에 발현될 가능성(Attainability)을 평가하여 주세요.

(대안시나리오1)

문화예술과 관련된 역량은 지역 간에도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문화분권으로 인한 지역 간 문화격차는 점차 심화될 것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증가할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1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문화분권으로 인해 발생한 지역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여 해결하는 경향이 지속될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지역간 문화격차를 지역이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자체적인 시도가 이어질 것

(2020년 전망 이슈12) 생활문화 · 생활예술 일상 속에 스며들다

※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에서 기술된 자유 의견과 문헌을 종합하여 도출

아래의 대안시나리오들이 2020년에 발현될 가능성(Attainability)을 평가하여 주세요.

(대안시나리오1)

‘지역밀착형 생활 SOC*를 대폭 확충할 정책이 구체화된 가운데 지역의 시설운영에 대한 우려와 중앙정부의 정책지원 방향, 지역주민의 참여 등과 관련된 논의가 확대될 것 (*지역밀착형 생활SOC(Social Overhead Capital, 사회간접자본)이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도서관, 박물관, 세계관 등을 설립하는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1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지역간 문화시설 격차를 완화시키고 생활 SOC가 생활문화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지역민의 문화향유 격차를 완화시킬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중앙정부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 정책으로 확충된 문화시설이 추후에 자치단체의 여력과 의지, 재정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면서 지역민의 문화향유 격차가 더욱 커질 것

(대안시나리오2)

지역밀착형 생활 SOC 확대로 늘어난 문화공간에서 일상에 밀착된 문화예술 주체들의
모임, 동호회활동 등 생활문화 관련 활동이 적극적으로 확대될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2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생활문화 · 생활예술이 지역과 주민이 스스로 주도하고 협력하는 생활문화 · 생활예술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지역민의 삶의 질이 높아질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지원제도 중심으로 육성된 생활문화 · 생활예술이 지역에 뿌리내리지 못하여, 생활문화 활동의 유지를 위한 지원 의존도가 높아질 것

(2020년 전망 이슈13) 빠르게 변화하는 인구구조를 반영한 문화향유 정책지원의 패러다임 변화

※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에서 기술된 자유 의견과 문헌을 종합하여 도출

아래의 대안시나리오들이 2020년에 발현될 가능성(Attainability)을 평가하여 주세요.

(대안시나리오1)

1인 가구, 5060세대, 고령화 등 인구구조가 변하면서 이를 반영한 문화향유 정부정책의 방향 변화와 서비스와 프로그램에서의 다각적 접근 필요성이 커질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1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정부는 다양한 인구구조의 요구에 맞춰 지원 문화향유 대상 변경 및 다양한 서비스 · 프로그램 제공 등 적극적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부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만, 이들을 여전히 소수로만 바라보기 때문에 서비스나 프로그램은 제공하지만 그동안 지속되어온 정책 대상 확대 등의 적극적인 개선은 진행하기 어려울 것

(2020년 전망 이슈14) 미투, 성평등 문화예술 정책 마련의 요구 심화

※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에서 기술된 자유 의견과 문헌을 종합하여 도출

아래의 대안시나리오들이 2020년에 발현될 가능성(Attainability)을 평가하여 주세요.

(대안시나리오1)

‘성평등 문화정책’, ‘공연예술계 성폭력 실태조사’ 등 미투 사태이후 정부의 움직임은 지속적 노력으로 이어질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2)

공연예술계, 시각예술계 등 예술계 안에서 표출된 성차별 이슈로 성평등 정책마련 요구뿐만 아니라 현장과 예술계 내의 성차별 구조 해결 노력으로 이어질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1,2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양성평등 정책마련 요구와 자성적 성차별 문화 철폐는 성별과 관계없이 모든 예술가와 정부의 적극적 노력으로 계속 진전되어 나갈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성별간 온도차이로 최소한의 정책마련, 현장의 최소한의 변화 정도에 그칠 것

(2020년 전망 이슈15) 실패를 공유하고, 응원하는 사회로의 도약

※ 델파이 1차 조사 결과와 별도로 추가 된 문항입니다.

아래의 대안시나리오들이 2020년에 발현될 가능성(Attainability)을 평가하여 주세요.

(대안시나리오1)

다양한 실패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가 생기고, 창작에 필요한 다양한 실험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실패를 응원하는 사회 분위기가 확산될 것

	1	2	3	4	5	
절대 발현되지 않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반드시 발현될 것임

(대안시나리오1에 대한 서브 이슈-방향성)

A, B 방향성 중에서 어느 쪽에 더 가까운 변화가 예상되시는지 선택하여 주세요.

※ A방향성에 가깝다 -1,2 / 중간-3 / B방향성에 가깝다-4,5

(A방향성)	1	2	3	4	5	(B방향성)
모든 인생의 단계에서 실패는 존재하는 것이며, 이는 곧 새로운 기회의 시작이라는 인식이 확대될 것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실패를 통해 배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식은 젊은 세대들에게만 허용되는 것으로, 사회 구성원 전체를 대상으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

참여 연구진

연구책임자

김 혜 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김 연 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정 보 람 (한국관광관광연구원 연구원)

조사협조

장애파트너스그룹

2020 문화예술 트렌드 분석 및 전망

발 행 인 김 정 만

발 행 처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서울시 강서구 금남화로 154
전화 02-2669-9800 팩스 02-2669-9880
<http://www.kcti.re.kr>

인 쇄 일 2018년 11월 30일

발 행 일 2018년 11월 30일

인 쇄 인 더크리홍보 주식회사

ISBN : 978-89-6035-746-4 93300

